조선어리론문법

(문장론)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8

조선어리론문법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조선어리론문법

(문 장 론)

준박사, 부교수 김 용 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 9 8 6

차 례

총 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법리론연구분야에서도 보람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문법연구가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문법리론을 마음껏 탐구하고 그 성과들을 여러 문법책들과 각종 출판물들에 실현하였다.

우리 문법학계에서는 또한 조선어문법의 개별적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심화되고 활발한 과학토론이 거듭되면서 문장리론의 수준을 높이는데서도 큰 전진을 보았다.

그러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우리 인민의 문화적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미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가 더 철저히 선 문장론을 사회에 내놓을것을 요구하고있다.

문장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언어학에서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20권, 347페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연구성과들로 풍부히 하여나가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84페지)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은 모든 리론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리론활동을 전개할 때 그 리론의 과학성과 생활력은 확

고히 담보된다.

언어과학의 연구, 리론문법서술에서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침은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언어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 때만이 민족어의 문법구조에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전면적으로 밝혀내여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그것을 쓰는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문법론, 문장리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조선어리론문법의 문장론은 주체의 방법론에 튼튼히 립각하여 조선어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과 거기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체계적으로 밝히며 언어실천에서 해명을 기다리는 주요 문장론적현상을 옳게 리해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한다. 이리하여 문장론은 조선어의 모든 주요 문장론적현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미 우리 인민에게 확고하게 인식된 전형적인 문장론적현상, 새로 발생발전하는 현상, 례외적인 문장론적현상 등에 일관된 고유한 특성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해명한다.

조선어문법 문장론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한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어의 전형인 문화어의 구체적인 언어현실에 튼튼히 의거하여 리론을 전개하고 자료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문장리론서술에서는 문화어를 본보기로 하여 문장론적현상을 분석해나가야 한다.

문화어에 의거하고 문화어로 진행되는 언어생활에서 문법적현상, 문장론적현상의 본보기를 찾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에 유익한것을 기본으로 하여 언어를 발전시켜나가는 주체적립장의 발현이다.

문법, 문장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문법적견해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외국문법론의 성과와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것 등은 다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태도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어 우리 말의 문법적현상, 문장론적현상을 다른 나라의 문법구조에 알맞는 방법으로 분석한다면 문장리론의 주체적발전은 고사하고 현실의 요구도 해결하지 못할것이다.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주요고리의 하나이다.

문장리론을 옳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내용서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되여야 할 새로운 말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으며 대중이 알기 쉽고 쓰기 편리하게 되여야 한다.》(《영화예술론》, 117~118페지)

당성원칙을 견지하며 로동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문장리론을 전개하는것은 언어생활의 본보기로 되여야 할 문법을 서술하는데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구이다.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투쟁은 온갖 낡은 반동적언어리론의 침투를 막으며 낡은 언어요소를 반대배격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문법리론이 언어의 구조적요소들에 대한 리론적일반화의 결실인만큼 문법현상, 문장론적현상의 고찰에서는 일정한 계급적립장에서 일정한 언어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종합하게 된다. 이것은 언어에 대한 목적의식적작용의 한 과정이다.

언어요소들에 대한 고찰이 언어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의 반영인것만큼 거기에는 반드시 계급적립장이 반영된다. 따라서 문법리론, 문장리론을 전개하는데서는 어느 계급의 립장에서 어떤 언어요소들을 표준 또는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데 따라 그 계급적성격이 규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의 문법리론이 로동계급적립장, 로동계급의 당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에서는 낡은 반동적언어리론의 영향을 허용케 하는 자그마한 표현도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낡은 언어적요소에 환상을 가지게 하는 사소한 해석도 묵과되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은 로동계급적립장에 서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리념이 반영된 말과 글, 근로인민대중이 알기 쉽고 쓰기 편리한 언어적요소들에서 전형성을 찾고 일반화하는것을

본성적요구로 내세워야 한다.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복고주의적요소를 극복하는것이다.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립장을 떠나서 덮어놓고 지난날의 언어요소들을 찬미하며 낡은 사회의 언어유물, 문법현상에 매여달린다면 문법리론, 문장리론을 무계급적인것, 비혁명적인것으로 만들며 문법론분야에 이색적요소를 끌어들이게 된다.

문법리론, 문장리론 분야에서 부르죠아적어용리론, 관념론적반동언어리론의 자그마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구조주의언어리론》, 《변형문법리론》, 《만능문법리론》 등 이색적 사조와 방법론을 반대배격하는것은 당성, 로동계급성을 관철하는 구체적방도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각종 반동언어리론이 활개침에 따라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도 여러가지 부르죠아적, 복고주의적, 사변적 《문법리론》이 떠돌고있다.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주체적립장에서 보지 못하고 덮어놓고 서방의 《문법리론》을 밀수입하여 들어맞추거나 고답적인 남의 《문법리론》을 답습하여 《모조화》하는 일이 꺼리낌없이 허용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 문법학계의 형편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류포되고있는 반동언어리론, 반동적문법리론을 반대배격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참된 민족의 넋이 스며있는 문법리론을 안겨주기 위하여서도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이 반영된 문법리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문법리론, 문장리론 분야에서 부르죠아적, 복고주의적, 사이비적 《리론》을 반대하고 조선어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양각색의 비과학적인 방법들을 극복하는것은 우리의 문장론의 주체성, 혁명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문장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서술에서 인민성, 과학성 원칙을 관철하며 력사주의적원칙을 지켜야 한다.

문법현상, 문장론적현상의 고찰에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며 규정과 규범을 해설하는데서 인민대중이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인민성원칙을 관철하는 구체적인 방도로 된다.

문법현상, 문장론적현상의 구체적인 언어자료를 편견없이 다루며 전형적인것과 비전형적인것을 바로 가르며 계층을 옳바르게 하

는것 등은 과학성원칙을 관철하는 방도로 된다.

문법현상, 문장론적현상의 취급에서 때로는 사적고찰, 학설사적고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키면서 오늘의 요구에 맞게 자료들을 분석일반화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구현하여 주체가 튼튼히 선 문장론을 건설하기 위한 귀착점은 결국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살리는 방향에서 자료를 다루고 리론을 전개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20권, 338페지)

언어와 같은 민족적재보의 존재가치는 민족적특성을 옳게 보존하는데 있다. 문법구조는 민족적특성이 잘 보존되여있는 언어적요소이다.

우리의 문장론은 우리 말 문법구조, 문장구조에 작용하는 합법칙적현상을 손색없이 밝혀내며 문장조직의 민족적특성을 최대로 살리는 방향에서 전개되였을 때 진실로 주체성이 보장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며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것으로 된다.

우리 말 문법구조,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 방향에서 서술된 문법리론, 문장리론만이 주체가 선 리론문법, 리론문장론을 이룬다.

참으로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며 인민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은 문법리론, 문장리론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말 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주체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서술된 조선어리론문법의 문장론은 리론문장론의 성격을 지닌다.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립장에 서는것은 리론문장론서술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립장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학, 력사학, 어문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리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참말로 많습니다.》(《김일성저작집》 17권, 551페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여나가는 혁명가들이기에 언어생활에서도 시대정신에 민감할뿐아니라 언제나 모범이다.》(《영화예술론》, 115페지)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을 새로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면 리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야 할 측면도 적지 않다.

우리 혁명이 심화발전되고 인민대중의 문화적소양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더 높은 수준의 리론문법, 리론문장론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리론문법은 해당 민족어의 문법구조에 작용하는 일반적합법칙성을 해명하면서 이 분야에서 학계가 거둔 성과를 일반화하며 새로운 문제점을 세워 문법리론의 보다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 이로부터 리론문법은 문법론체계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문제, 규범문법이나 실천문법이 해결하지 못한 초미의 문제, 문법리론발전의 요구에 따라 제기되는 론쟁적문제, 그리고 특수한 문법적현상에 대한 리론적해명을 주게 된다. 복잡하고도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문법적현상에 대한 옳은 리론적해명을 위하여서는 언어실천의 요구와 오래동안 학계에서 축적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절실한 해명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어 리론화하여야 한다.

조선어리론문법 문장론은 우리 학계가 거둔 이 분야에서의 기존성과에 의거하면서도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찾아내는 립장에서 론쟁적인 문제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일정하게 체계화된 견해를 줌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문법서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조선어리론문법 문장론은 규범문법을 더욱 주체성있게 완성하며 실천문법을 과학적토대우에서 건설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를 제공한다.

모든 리론이 실천의 요구에 의하여 생겨나고 실천과의 통일속에서 발전하는것과 같이 문법리론, 문장리론도 언어실천과 밀접히 결부될 때 자기 발전을 다그쳐나가게 된다. 이로부터 리론문장론에서는 문법교육실천, 문장조직의 구체적인 실천에서 제기되는 요구

도 외면하지 않았다.

리론문장론으로서의 이 문장론은 문장리론분야에서의 세계적추세도 그것이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한에서 반영하였으며 우리의 소박한 주장도 그것이 과학적근거와 현실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인정하는 한에서 체계화하였다. 이것은 주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하여 집필한 이 리론문장론의 사명 및 성격과 관련된다.

문장론의 대상과 과업은 문장론의 사명과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문장론은 문장에 관한 지식, 문장의 구조적특성과 문장조직의 규칙을 밝히는 문법론의 한 분과이다.

조선민족어는 문장구조에 있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문장론에서는 바로 조선민족어에 고유한 문장구조의 특성,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의 련관관계의 합법칙성을 밝힘으로써 문장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며 혁명실천에 이바지한다. 문장론이 지닌 이러한 사명으로부터 그 연구대상과 과업이 나온다.

그러면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문장론의 연구대상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시기 내외문법학계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오직 문장뿐이다》라는 단정을 내렸는가 하면 다른 극단에 선 견해들은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다름아닌 단어결합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두 극단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문장안에서 단어들이 련결되는 특성들과 문장의 류형,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것이 문장론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조선어의 구체적현실에 눈을 돌릴 때 지금까지의 견해들이 일정한 제약성을 가진다는것을 알게 된다.

문장론이 문장일반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진일적인 문장구조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 특수현상, 그리고 우리 말 문장에 작용하는 모든 규칙들을 제대로 다 밝혀내지 못한다.

문장론이 단어결합일면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단어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문장류형과 단어결합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문법적현상을 다 밝혀내지 못한다.

사람들의 판단과 그 구조는 공통적인 성격을 띨수 있다. 그러

나 그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은 철저히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민족어마다 문장조직의 형식이 다르며 따라서 문장류형과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결합방식도 다른것이다. 문장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조선어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무엇보다도 조선어의 모든 문장류형들과 그 구조적특성이다.

다양한 형식을 갖춘 우리 말의 단일문과 복합문들, 그 구조적요소들의 련관관계의 문장론적특성은 조선어문장론의 연구대상이다. 문장론은 여러가지 문장들이 문법적으로 형식을 갖추어나가는 특성과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의 기능을 연구하며 문장에 있는 여러 문장론적현상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조선어문장론에서는 문장일반인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어에 고유한 형식과 수단 및 수법으로 조직된 문장의 구조와 류형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언어행위의 단위로서의 문장으로 된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사상감정의 표현과 전달의 과정이다. 이때에 리용되는 언어수단은 문장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식의 문장을 단위로 하여 사상감정을 전달하며 또한 문장을 단위로 하여 상대편의 사상감정을 리해하게 된다. 문장은 언어행위를 가능케 하는 기본단위이다.

진일적인 구조로서의 문장이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결합과 구별되는 점은 일반과 개별, 전체와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서뿐아니라 문장의 기본표식들을 나타내는 여러 언어적 수단과 수법들의 첨가정도에서도 나타난다. 문장에는 진술을 현실화하여주는 문법적 수단과 수법, 진술억양 등이 반드시 있게 되며 진술을 완결된것으로 토막지어주는 상관단위들의 합리적인 맞물림, 각종 문장론적단위들의 배렬순위 등의 규칙도 작용한다. 문장론에서는 문장을 문장으로 되게 하는 이러한 여러 언어적 수단과 수법, 각종 단위들의 맞물림과 배렬의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진일적인 문장구조와 문장류형, 그리고 문장의 기본표식을 나타내는 각종 언어적 수단과 수법들에 대한 연구도 문장론의 주요한 대상의 하나이다.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다음으로 단어들의 결합이다.

단어들의 결합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재료 또는 구성성분으로 되는 문장론적련결체이기때문에 문장론의 연구대상이다.

문장은 보통 두개이상의 단어들의 문법적인 련결로 이루어진다. 이때의 문장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통일체로 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통일체에 작용하는 법칙과 규칙을 밝히지 않고서는 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을 다 알수 없다.

다양한 형식과 여러가지 구조를 가지는 조선어문장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 리재경은 기분이 좋아서 쉼없이 무슨 말인가 하였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인사를 하였다.

이 언어행위의 토막에서 구조-기능상 1차적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맺는 단위는 《리재경은》, 《기분이 좋아서》, 《쉼없이》, 《무슨 말인가》, 《하였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인사를 하였다.》의 9개이다. 이것은 문장의 구성성분의 문법적맞물림이다. 2차적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맺는 단위는 《기분이 좋아서》, 《무슨 말인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다.》의 5개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들이다. 이것은 문장의 구성재료안에서의 문법적맞물림이다. 문장론에서는 바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재료로 되는 이러한 단어결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단어결합이란 문법적맞물림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전일체로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재료로 되는 단위이다. 이리하여 구조-기능상으로 1차적인 맞물림관계에 놓이거나 2차적맞물림관계에 놓이면서 상관관계를 이루는 단위는 다 단어결합으로 되며 따라서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된다.

앞에서 례로 든 문장에서 《기분이 좋아서》, 《무슨 말인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다.》나 《쉼없이 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다.》, 《친절히 인사를 하였다》, 《기분이 좋아서 인사를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였고》 등이 낱개의 문장론적맞물림관계에 놓이는 한에서는 다 단어결합(또는 단어들의 결합)이다.

《진술적결합》이라고들 하는 《리재경은 인사를 하였다》도 현실에 대한 관계가 진술의 구조, 억양의 요소 등으로 아직 물질화되여 있지 않고 낱개의 맞물림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도 단어결합이다.

이 경우에는 단어결합과 성분결합이 교차되여있다. 이리하여 문장론적대상으로서의 단어결합(또는 단어들의 결합)이 독자적인 분야로 연구되는것이다.

문장론이 이와 같은 문장의 구성재료 또는 문장의 구성성분으로 되는 단어결합을 외면한다면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뿐아니라 문장리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줄수 없다. 단어결합(또는 단어들의 결합)을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잡는것은 필연적이다.

〔붙임〕 단어결합의 한계를 어떻게 그으며 단어결합과 단어들의 결합의 구분을 어떻게 지어놓는가 하는것은 론쟁적성격을 띤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제2장에서 한다.

조선어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또한 문장론적관계를 맺으면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재료로 되는 개별적단어이다. 문장론은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를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문법론의 다른 분과와 달리 단어의 기능을 연구하게 된다.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는 두개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도 고찰되며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에서도 고찰된다.

○ 폭풍!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폭풍과도 같이 터져올랐다. ①

○ 《몇살이요?》

《열다섯살.》

《그래?!》 ②

례①에서의 《폭풍!》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명명-감탄문이며 례②와 같은 언어교제의 토막들의 류형은 서로 다르나 다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의 련속이다. 각각 하나의 끝맺이가 있는 사상감정을 나타낸 이러한 문장의 구성재료는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이다. 이때의 문장론적관계란 그 단어들이 맺는 현실과의 관계이다.

품사론적 및 형태론적 대상인 《폭풍》, 《몇살》, 《열다섯살》, 《그래》는 문장론적관계 즉 현실과의 관계속에 들어가면서 《폭풍!》, 《몇살이요?》, 《열다섯살.》, 《그래?!》라는 진술단위로서의 문장으로 되였다. 말하자면 언어의 기본단위로서의 단어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서의 문장을 구성한것이다. 이리하여 언어의 기본단위인 단어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으로 되면서 문장론적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

단어가 맺게 되는 문장론적관계란 현실과의 관계만이 아니다. 문장안에서 문법적으로 서로 련관관계를 맺는 모든 단어도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라고 할수 있다. 앞에서 례로 든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폭풍과도 같이 터져올랐다.》에서 매개 단어들은 서로 문법적련계를 맺으면서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모든 문장은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 또는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전일체라고 말할수 있다.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들은 그것이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재료로 되는 한에 있어서는 언제나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된다.

품사론, 형태론, 단어조성론에서는 어디까지나 개별적단어들의 어휘-문법적 및 형태-구조적 특성이 단독적으로 고찰된다면 문장론에서는 일정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들이 상관관계속에서 고찰된다.

문장론은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거나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재료로 되는 단어가 나타내는 문장론적기능을 밝혀낸다.

문법론의 기본분과의 하나인 문장론은 문장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주며 조선어문장구조에 작용하는 규칙과 법칙을 해명한다.

조선어문장구조에 작용하는 규칙과 법칙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과학적인 문장론을 건설할수 없으며 문장조직의 능력을 키울수 없다.

조선어문장에는 조선인민의 오랜 관습에 따라 굳어지고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고유한 규칙과 법칙이 작용하며 바로 이 규칙과 법칙은 단어들이 문장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련결되는데서나 문장론적단위들을 알맞춤하게 선택하여 리용하는데서 작용한다. 이러한 규칙과 법칙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은 곧 언어실천에서 조선어에 고유한 문법적요구를 지켜나가는 과정이다. 조선어에 고유한 문법적요구를 잘 지켜나갈 때 바른 말, 바른 글이 이루어진다.

문장론은 바로 우리 인민들이 조선어에 고유한 문법적요구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문장도 잘 만들고 문맥이 통하는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도를 제시해주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삼는다. 아울러 문장에 관한 제반 리론적문제에 대하여 해명을

준다.

이러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리론문장론은 주체의 방법론에 철저히 립각하여 지난 시기 문장론분야에서 발로된 부족점들을 분석총화하며 우리 문법학계가 거둔 리론적성과들을 일반화한다.

리론문장론은 이미 나간 규범문법, 서술문법, 실천문법의 문장론분야를 끊임없이 보충완비할수 있게 하는 리론을 제공하며 발전하는 언어실천의 현실적요구도 풀어준다.

조선어리론문법 문장론은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문장의 구성재료들이 맞물리는 제반 특성과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특성, 문장론적관계표현의 여러 수단과 수법의 활용규칙을 일반화하여놓음으로써 우에서 제기된 기본과업을 실현한다. 아울러 조선어문장의 류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체계화한데 기초하여 거기에 작용하는 법칙성을 밝히고 언어행위의 전달방식에 관한 문제도 리론적으로 해명하여놓음으로써 문장론은 자기에게 맡겨진 기본과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문법론의 주요분과의 하나인 문장론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상과 같은 과업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높이에 이르는 과학적문장론건설의 리론적기초를 확고히 마련하게 된다.

우리는 문법리론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규범문법, 실천문법 등을 더욱 보충완비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옳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쓰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다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18권, 27페지)

자기의 말과 글을 옳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쓰는 리치를 깨치며 민족어의 문법구조를 꿰뚫고있는 원리와 규칙들을 파악케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의 문법리론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은 언어과학도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문법리론분야앞에 나선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주체의 방법론에 튼튼히 립각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언어실천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문법리론을 전개해나갈 때 그 성과는 확고하다.

제1장. 문장론의 기초리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구나 자기의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려면 앞뒤가 맞게 론리를 세우고 체계정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된다.》(《영화예술론》, 69페지)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기 위하여 론리를 잘 세우고 체계정연하게 이야기하는것은 옳바른 언어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은 언어행위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앞뒤가 맞게 론리를 세워 체계정연하게 진술해나가는 과정이다. 언어행위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론리를 세우며 체계를 잡아 진술하는 행위는 진일적인 문장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것은 진일적인 문장이야말로 론리적체계가 뚜렷하고 진술의 끝맺이가 있는 언어행위실현의 현실적단위이기때문이다.

끝맺이가 있는 사상감정의 전달과 리해는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의 단순한 라렬로써는 실현되지 못한다. 오직 문장이라는 진일체를 통하여서만 끝맺이가 있는 사상감정이 전달되고 리해되며 따라서 언어교제가 실현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언어교제를 원만히 하려면 문장을 옳게 리용하여야 하며 자기가 주장하려는 사상감정을 제대로 옮기려면 바로 문장을 짤줄 알아야 한다.

바른 문장, 바른 글을 짤줄 아는 힘을 기르자면 문장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 문장론의 기초리론은 문장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주기 위한 근본을 이룬다. 그것은 문장론의 기초리론에서 문장론의 바탕에 놓이며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에 대한 해명이 주어지기때문이다.

제1절.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

문장론의 가장 큰 범주인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에 대하여서

는 문법이 과학으로 성립되여서부터 오늘까지 론의되여왔으나 서로 다른 립장과 방법에서 서로 다르게 리해되여왔다.

언어교제가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전달하고 리해하는 과정인것만큼 언어교제의 단위인 문장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유의 형식문제와 련관시켜 고찰되여왔다.

문장론적범주를 론리학적범주와 직선적으로 련관시켜 고찰하는 견해들은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판단과만 결부시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판단의 형식》, 《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로만 리해하였다.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사유의 범주와 직선적으로 결부시키는데서 모순을 느낀 사람들은 이번에는 문장의 순수 형식적표식에만 매여달렸다. 그리하여 문장구조의 《완비》, 술어의 《형태구비성》에서만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찾았다.

〔붙임〕 주시경은 문장의 정의를 내리면서 《들로부터 둘 더되는 기로 짠말을 '이름이니라》라고 하였다.(《주시경유고집》 1957년판, 83페지)

그가 단어합성의 구성단위에 해당하는 《기》라는 말에 《다》(문장)라는 개념을 대응시키고 그것들을 《짬듬갈》(구성론, 문장론에 해당하는 말)의 대상으로 잡은것으로 보아 문장의 기본표식을 문법적인것에서 찾으려고 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장에 관한 주시경의 견해는 아직 미분화적인것이였다. 문장이 둘 또는 둘이상의 품사(단어)로 이루어진것이라 하면 단어합성이나 단어결합과 구별되지 않으며 사상감정의 끝맺이와 그 형식화문제는 외면한것으로 된다. 더우기 그의 정의에 따른다면 하나의 단어로 된 완결된 진술단위는 문장이 될수 없다.

그밖에도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리해하는데서 지난시기 대립되는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었다.

그 하나는 《월은 단정을 나타내는 한줄기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사상의 단정》, 문장형식의 《독립성》과 《사상의 절대성》 등을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잡는 견해이다.

《사상의 단정》, 《사상의 절대성》이란 다름아닌 론리적범주이며 론리학적해석이다. 문법적범주인 문장을 론리적범주와 동일시할수 없으며 론리학적해석으로는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공정하게 리해할수 없다.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는 《문장은 어사의 집합이다.》라고 하면서 품사들의 문법적결합체, 《어사집합의 완전성》, 《종결형의 필수성》에서만 문장의 기본표식을 찾는 견해이다.

《어사집합의 완전성》, 《종결형의 필수성》이란 다름아닌 형태-구조적표식이며 형식주의적해석이다. 복잡한 사상감정을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문장을 형태-구조적표식 하나만으로는 완전하게 해명할수 없다.

해방후 우리 문법학계는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구명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우리의 문법학자들은 문장의 본질을 밝히고 그 기본표식을 찾는데서 조선어의 현실에 파고드는 립장에 섰다. 그리하여 론리주의 또는 형식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문장이 담고있는 여러 계기들과 문장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표식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문법학계는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밝히는데서 문장이 담고있는 내용적측면과 문장구조의 다양한 형식을 통일시켜보았으며 구조-문법적측면과 의미-기능적측면을 유기적으로 련관시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문장이 문법적범주이며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행위, 언어교제의 기본단위이며 문법적으로 형식화되여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일체라는데 대하여 대체로 일치한 리해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문장의 기본표식을 진술성 또는 《술어성》에서 찾는데로 지향하였다.

그러나 문장이 지닌 여러 계기들을 다 보지 못하였거나 문장의 본질적인 표식을 철저히 문법적측면에서 정밀하게 고찰하지 못한 약점도 있으며 적지 않은 론쟁점을 남긴것도 있다.

최근에 우리 학계에는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나왔다. 그러한 견해들은 문장을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거나 문법적규칙에 따라 배렬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 리해하며 《일정한 사상적내용을 실제로 전달할수 있도록》 기능이 갖추어진 단위, 《일정한 사상적내용》을 문법적형식에 담아 나타내는 《말과 글의 기초단위》로 보았다. 이들은 문장의 기본표식을 《풀이성》이라는 보다 일반화된것에서 찾았다.

문장의 본질을 내용과 형식의 통일속에서 고찰하고 문장의 기능을 일반화한 이 주장들이 우리 말 문장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견해들에도 문장의 본질적속성들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한 점이 있으며 문장의 기본표식을 《풀이성》

이라는 파악성없는 용어로 일반화한 제한성도 있다.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서는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계기들을 전면적으로 고찰한데 기초하여 문장이 지닌 본질적속성들을 분석일반화하여야 한다.

1.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계기들

문장이 사람들의 복잡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며 다양한 생활화폭을 그려내는데 이바지하며 언어교제를 실현케 하는 기본수단으로 되는데로부터 거기에는 여러 계기들이 반영된다.

무엇보다도 문장에는 론리-의미적계기가 반영된다.

문장이 론리-의미적계기를 반영한다는것은 문장이 일정한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반영한다는것이며 사람들의 사유활동의 결과를 반영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문장이 담고있는 현실적의미이다.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 사람들의 사유활동의 결과, 그리고 문장이 담고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의미가 반영되지 않고는 어떠한 문장도 성립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장은 언어교제의 단위인데 언어교제란 다름아닌 일정한 사상, 일정한 현실적의미를 전달하고 리해하는 과정이며 그 사상, 현실적의미란 바로 인식의 결과, 사유의 결과이기때문이다.

문장에 반영되는 론리-의미적계기는 많은 경우에 판단의 구조와 련관되여있다.

○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를 전진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 우리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3개의 실례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전하고있으며 그 짜임이나 진술방식도 한결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 3개 문장은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 현실적의미를 전달하고있다는데서는 같다. 즉 이 문장들은 론리-의미적계기가 뚜렷하기때문에 완결성을 가진 진술단위로 되였다.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사유의 형식인 판단을 통하여 표현되며 판단의 전형적인 구조는 현실적의미를 《제시+풀이》의

짜임으로 나타내는것이다. 이 3개의 문장은 이러한 판단의 구조를 뚜렷이 반영하고있다.

문장에 반영되는 론리—의미적계기는 반드시 《제시+풀이》의 짜임만 가지는것은 아니다. 《제시+풀이》짜임의 어느 한편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진술내용이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것이고 완결된것으로 안겨진다면 다 론리-의미적계기를 담은것으로 된다.

○ 화창한 봄날의 별이 흘러드는 자리였다.
○ 가도가도 황금벌이다. 간간이 최뚝의 풋콩을 본다. 만풍년이다.
○ 4월의 꽃바다! 만경봉에 펼쳐진 약동의 화폭! 아름다운 그림 같다.

자연의 환경이나 현상을 묘사 또는 지적하는 이러한 진술내용도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것이고 일정한 완결성을 가지고 안겨오는것이다. 그 짜임이 어떤것은 《풀이》만으로, 어떤것은 《제시》만으로 되여있지만 이 진술들은 론리-의미적계기를 뚜렷이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립적인 문장을 이룬다.

우리 말에 있는 독특한 구조의 문장(명명문, 무주어문, 불완전문, 단어문장)들이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진술의 주자나 객자(또는 진술의 풀이)를 론리적으로 파악할수 있다는것자체가 판단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론리-의미적계기의 실재를 말하여주는것이다.

문장에 반영되는 론리-의미적계기는 언어교제를 실현케 하는 모든 진술단위를 바로 문장으로 되게 하는 기초적요소이다.

다음으로 문장에는 의지-심리적계기가 반영된다.

문장에 반영되는 의지-심리적계기란 진술내용에 첨가되는 진술자의 의지적욕구와 심리적충동을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문장에 의지-심리적계기가 반영되게 되는것은 언어교제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언어교제란 진술자에 의하여 인식된 일정한 현실적내용이 전달되면서 대화자의 일정한 반응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다. 진술자는 이러한 반응을 위하여 진술에다 자기의 의지적욕구나 심리적충동을 첨가하게 된다. 이러한 의지적욕구나 심리적충동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술에 더하는 주관적계기이다. 이리하여 문장에 반영되는 의지-심리적계기는 언제나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관적계기의 표현으로 된다.

문장에 반영되는 의지-심리적계기는 론리-의미적계기우에 덧실

리는것일수도 있고 론리-의미적계기와 직접적으로는 관계없이 스스로 표면화되는것일수도 있다.

○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①
○ 조선은 하나이다! ②
○ 아, 인생의 참된 권리를 값높이 안겨준 그 품이여라! ③
○ 미제는 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④
○ 《쉿! 조용히!》 ⑤
○ 아뿔사?! ⑥

이 여섯개의 문장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있으며 그 짜임이나 진술방식도 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 6개의 문장은 진술자의 강한 의지적욕구와 심리적충동을 나타내고있는데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례 ①, ②, ③은 론리-의미적계기우에 의지적욕구와 심리적충동이 덧실린것이다. 례 ④, ⑤, ⑥은 주로 의지-심리적계기가 스스로 표면화되였거나 한갖 의지-심리적계기(의지적욕구와 심리적충동)가 나타난 문장들이다.

우에 든 례문들이 다 언어교제의 단위이고 통신적기능을 수행한다는데서 당당한 자립적문장이지만 거기에 첨가되는 의지—심리적계기의 표현정도와 수법은 서로 다르다. 어떤것들은 진일적인 문장구조와 일련의 특수한 언어수단들로 의지-심리적계기들을 표현하며 어떤것들은 감동사와 종결형토로 의지-심리적계기들을 나타내며 어떤것들은 억양적요소로(글에서는 문장부호로) 의지-심리적계기들을 물질화한다.

우리 말 문장이 담고있는 모든 감정-정서적내용과 색채, 진술자의 주정토로와 욕구 등은 다 의지-심리적계기를 이룬다. 우리 말의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약속문》, 《추동문》, 느낌문 등은 이러한 의지-심리적계기들을 담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으로 된 언어행위에서는 대화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우에는 론리-의미적계기와 함께 의지-심리적계기들로 교제기능이 실현된다고 할수 있다.

문장에 반영되는 심리-의지적계기는 언어행위를 더욱 풍만하게 하며 문장류형을 다양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또한 문장에는 반드시 문법적계기들이 반영된다.

문장에 반영되는 문법적계기란 민족어의 문법규칙에 따라 문법

적 수단과 수법이 리용되는 현상이다. 문법적계기가 반영되지 않는 《진술단위》는 문장으로 될수 없다. 왜냐하면 민족적특성을 지닌 문법적 수단과 수법이 없는 《진술단위》란 《벌거벗은 론리》와 개념의 무질서한 라렬로만 된 문장아닌 《문장》이기때문이다. 판단의 구조와 감정의 요소들은 오직 민족어의 문법적 수단과 수법으로 뚜렷한 문법적형식을 갖춘 문장에 의해서만 끝맺이가 있는것으로 실현된다. 문장이 갖춘 문법적형식, 끝맺이가 있는 형식화야말로 문장에 반영되는 문법적계기의 집중적표현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장이 제대로 사상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되자면 문법적계기들이 제대로 첨가되여야 한다.

그 구조와 류형에는 관계없이 모든 문장은 반드시 문법적계기를 가져야 언어교제의 단위로서 존재한다.

○ 학생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다.
○ 이 편지는 반드시 남녘동포들에게 가닿아야 한다!
○ 만세!

론리-의미적계기들로만 주로 엮어진 첫 문장이나 론리-의미적계기우에 의지-심리적계기들이 덧실린 둘째 문장이나 의지-심리적계기들만 주로 표면화된 셋째 문장이 다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들로 이루어졌다.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들로 이루어졌다는것은 문장론적상관관계, 문법적련관관계 속에 있는 단어들의 련결체로 문장이 이루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체는 일정한 문법적 수단과 수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 문법적 수단과 수법이란 각종 자리토와 어순, 구조적단위들의 련결방식 그리고 억양의 요소들의 첨가 등이다. 우의 문장들은 문법적계기들에 의하여 각각 문장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리하여 문법적범주로서의 문장을 바로 문장으로 되게 하는 비결은 오직 문법적 수단과 수법의 실재, 문법적계기들의 구비에 있다.

문장이 다양한 구조와 류형으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에서 민족적특성을 나타내는것도 바로 그 문장에 각이한 문법적계기들이 반영되기때문이다. 문장에 반영되는 문법적계기야말로 문장의 민족적특성을 규정하며 문장의 존재방식을 특징짓는 항구적인 징표이다. 이리하여 문장의 문법적계기는 모든 문장이 지니게 되는 필수적요인으로 된다.

문장이 담고있는 이 모든 계기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통일되여 있다.

문장의 론리-의미적계기들은 다른 모든 계기들이 실현되는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된다. 론리-의미적계기가 없다면 의지-심리적계기나 문법적계기들이 바탕을 잃게 된다. 론리-의미적계기를 바탕으로, 전제로 할 때 의지-심리적계기도 더욱 뚜렷이 안겨오며 문법적계기도 자기의 실질적내용을 가지게 된다.

문장의 의지-심리적계기는 론리-의미적계기들을 더욱 윤색하며 언어교제의 효과를 돋우어주는 요인으로 된다. 의지-심리적계기가 덧붙음으로써 론리-의미적계기, 문법적계기들은 더욱 뚜렷이 안겨진다.

문장의 문법적계기들은 론리-의미적계기나 의지-심리적계기를 실재적인것으로 물질화해주는 확고한 담보이다. 문법적계기가 없다면 어떤 문장도 자기 《얼굴》이 없으며 형식이 없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문법적계기와 결합되여있지 않은 론리-의미적계기나 의지-심리적계기란 사실상 공허한것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모든 문장은 론리-의미적계기들로 기초지어지며 의지-심리적계기들에 의하여 더욱 풍만해지며 문법적계기들로써 완전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문장이 갖추게 되는 론리-의미적계기, 의지-심리적계기, 문법적계기들은 문장의 본질을 제약하는 직접적전제로 된다.

2. 문장의 본질

로동의 산물인 언어가 실지로 통신적 및 표현적 기능을 실현케 하는 단위는 문장이다.

문장도 민족적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형식을 갖춘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언어란 민족적특성으로 가득찬 언어, 민족어이다. 사람들은 민족어로 교제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목적의식적으로 꾸려나간다.

사람들의 언어교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그 언어적환경도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정황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제를 실현하는 모든 과정에 언어가 리용되여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교제를 실현한다. 이

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교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문장이다.

문장과 동떨어져있는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결합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언어교제를 실현시켜주는 전일적인 단위로 될수 없다. 문장만이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 되며 언어교제 실현의 현실적인 수단으로 된다.

그러면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이란 끝맺이가 있는 론리-의미적계기, 의지-심리적계기 및 문법적계기들이 뚜렷한 진술단위로서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있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들로 완결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이다.

○ 아 내 나라 주체의 내 조국
　수령님 모시고 길이길이 빛나라
○ 백두산! 조선의 기상을 한몸에 안은 조종의 산이여!
○ 풍년벌의 산들바람이 옷깃을 가볍게 날린다.

이 세개의 문장들은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례외없이 론리-의미적계기, 의지-심리적계기, 문법적계기들을 통일적으로 갖추었으며 완결된 사상감정을 나타냈다는데서 공통적이다. 어떤 문장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문장론적관계를 드러내고 다른 문장에서는 여러개의 단어결합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냈지만 각각 하나의 진술단위, 하나의 언어행위의 단위로 되여있다는데서는 공통적이다. 세 문장은 문장으로서의 특성을 손색없이 갖추었다.

만일에 이러한 진술단위들이 문장의 여러 본질적계기가운데서 어느 한 측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단어들의 기계적인 《라렬》이나 무질서한 《배렬》로 된다. 단어들의 기계적인 《라렬》이나 무질서한 《배렬》로는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

문장에 대한 이러한 리해는 다양한 문장의 구조적특성들을 분석일반화한데 기초하며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계기들을 통일시켜보고 모든 문장이 지니게 되는 기능을 일반화한것이다.

문장은 무엇보다도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완결된 사상이란 론리적으로 맞물리고 끝맺이가 뚜렷한 옹근 사상이다. 완결된 사상이 없이는 어떤 언어교제도 성립되지 못하며 문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문장이 담고있는 진술내용의 현실성정

도, 이야기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호상관계, 판단의 구조 등은 다 완결된 사상을 전제로 하여서만 파악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여 진술이 담고있다. 현실적의미, 진술자의 의도, 인식된 결과 등이 사상의 완결성으로 하여 대화자(독자)에게 원만히 전달되여 파악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의 완결성은 문장을 규정하는 첫째가는 본질적특징이다.

문장이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는 측면은 곧 문장에 반영되는 론리-의미적계기의 구현이다. 문장의 론리-의미적계기가 문장형성의 기초적요소라는 리유도 사상의 완결성이 모든 문장의 본질적속성을 규정하는 선차적요인이라는 사정과 잇닿아있다.

사상의 완결성은 상대적일수도 있고 절대적일수도 있다. 《중단문》, 《생략문》 그리고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모든 《단일문》 등은 사상의 상대적완결성과 관련되여있는 반면에 알림문, 《완전문》 그리고 모든 복합문 등은 사상의 절대적완결성과 관련되여있다. 이 중간에 놓이는 모든 문장류형은 사상의 상대적완결성일수도 있고 절대적완결성일수도 있다.

모든 문장은 우선 사상의 상대적 및 절대적완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여야 끝맺이가 있는 언어행위의 단위로 된다.

문장은 다음으로 일정한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사람들의 언어행위의 다양성은 복잡한 사상뿐아니라 여러가지 의지나 감정의 요소도 나타낸다. 이것이 문장에 반영되여 문장으로 하여금 판단이외의 요소도 포괄하는 보다 복잡한 언어행위의 단위로 되게 한다.

문장에 포괄되는 감정, 정서는 단편적이거나 산발적인것이 아니라 하나의 뚜렷한 지향성을 띠고 나타난다.

○ 아 언제나 친근한 우리 수령 김일성원수
　우리들은 심장으로 높이 부르네 ①
○ 아 삼지연의 새벽길
　대를 이어 빛나라 조선의 길이여 ②
○ 《이 강산이 피바다 될 때 이 나라에 영걸이 이렇게도 없느냐고 소리치면서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③
○ 풍년모내기를 어서 다그쳐가세! ④

이러한 문장들에서 감정과 정서, 의지적요소들은 문장의 어느 한 단어나 일부 구조적요소에만 실리는것도 아니며 문장의 끝에 오

는 어떤 단어의 표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것도 아니다. 문장 전체 구조를 통하여 칭송, 소원, 통탄, 흥취 등의 감정, 정서적요소들을 목적지향성있게 전한다.

감정, 정서는 모든 문장에 필수적인것은 아니나 사람들의 깊은 내면세계까지 반영하는 언어행위에서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룬다. 이야기 듣는 사람의 공감을 자아내는 진술자의 호소, 대화가 진행되는 환경에 어울리는 여러 감정과 의지의 표현, 대화자의 심장을 부여잡게 하는 감탄과 감정적색채, 진술자의 강한 요구와 주장 등 모든 요소는 문장만이 담게 되는 감정, 정서의 내용이다.

문장이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 측면은 문장의 의지-심리적계기의 구현이다. 문장에 반영되는 의지-심리적계기가 모든 문장에 필수적인것은 아니나 교제의 목적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일부 류형의 문장에 뒷실리거나 스스로 담겨진다는 리유도 바로 목적지향성있는 감정, 정서의 요소가 문장의 본질적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라는 사정과 잇닿아있다.

우리 말에서 목적지향성있는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 문장류형은 모든 느낌문과 시킴문, 추김문, 《약속문》, 《추동문》, 물음문이며 그밖의 문장류형도 감정, 정서를 나타낼수 있다. 시킴문에는 주로 진술자의 의지가 반영되고 물음문에는 주로 의지-감정이 부여되며 느낌문에는 감정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진다. 그밖의 문장류형들에는 감정, 정서가 뒷실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우리 말 문장은 술어에 나타나는 문법적수단과 수법의 특성, 어순배렬의 특성, 감정-정서를 나타내는 언어적수단들의 풍부성 등으로 하여 어느 나라 말보다 감정-정서적요소를 나타내는데서 자유롭다.

문장은 또한 문법적으로 형식화된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란 민족어의 문법규칙에 따라 문장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것을 말한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는 문법적 수단과 수법, 문장의 구성과 구조 등의 특성으로 구현된다.

모든 문장은 민족어에 고유한 규칙과 법칙에 따라 문법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문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조선어문장은 그 구성과 구조, 어순배렬, 억양 그리고 문장론적관계의 각종 표현 수단과 수법 등으로써 고유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문장의 이러한 고유한 문법적형식이 없다면 문장은 실제상 존재하지 못하며 따라서 조선사람의 교제수단으로 되지 못한다.

문장이 내용상으로 담게 되는 완결된 사상이나 지향성있는 감정, 정서도 문법적형식화에 의하여 물질적인것으로 안겨진다. 문법적형식화가 되여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상의 완결성, 그 어떤 감정, 정서의 지향성도 물질화될수 없다.

○ 주체, 태양, 따르다, 우리, 인민, 티없다, 맑다, 깨끗하다, 충성, 마음, 슬기롭다, 기상, 안다, 온 나라, 활짝, 피다, 목란꽃

○ 방안, 한동안, 침묵, 흘렀다

첫째, 둘째 례에는 일정한 뜻을 담은 여러 어휘나 표현들이 잇달아 라렬되였다. 그러나 사상의 완결성이나 그 어떤 감정, 정서도 아직 파악되지 못하며 아직 완결된 사상, 목적지향성있는 감정, 정서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정한 목적에서 선택된 어휘나 표현들이 아직 문법적으로 형식화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동일한 어휘나 표현을 문법적으로 형식화한 다음과 같은 문장들과 비교하여볼 때 우리는 비로소 문법적형식화가 완전한 문장을 이루게 하는데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가 하는것을 알게 된다.

○ 주체의 태양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과 슬기로운 기상을 안고 온 나라에 활짝 핀 목란꽃!

○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와 같이 일정한 목적에서 선택된 언어적요소들은 문법의 관할밑에 놓일 때 끝맺이가 있는 옹근 사상감정을 전달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문법적형식화가 문장조직의 필수적조건이며 문장의 본질적특성을 규정하는 중요요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야말로 문장을 문장으로 되게 하는 항구적이며 필수적인 요인이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는 곧 문장이 담고있는 문법적계기들의 구현이다. 문장의 문법적계기가 모든 문장에 필수적이라는 리유도 바로 문장의 문법적형식화가 모든 문장을 문장으로 되게 하는 본질적징표라는 사정과 잇닿아있다. 말하자면 문법적형식화는 문장의 모든 계기들을 실현시켜주는 귀결점이라고도 할수 있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는 토와 같은 형태론적수단들로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어순의 수법, 어음론적수단, 그리고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제약하는 모든 문법적 수단과 수법 등에 의하여 문법적형

식화의 완전성이 실현된다. 이리하여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에 의하여 문장은 현실적으로 언어교제의 기본수단으로 된다.

○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 혁명하는 인민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며 투쟁기풍이다. ①

○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②

○ 외교부대변인 미일군사적결탁 폭로 ③

첫째 례는 문장조직에 참가한 모든 단어들이 문법적형태를 갖추고 일정한 배렬규칙에 따라 결합된 문장이며 둘째 례는 술어에만 토가 없고 다른것에는 다 토가 붙은 문장이며 셋째 례는 아무런 토도 붙지 않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문법적형식화가 완전하게 되여있다. 즉 둘째, 셋째 문장에서는 어순, 억양, 진술구조 등이 통일되여 문법적형식화를 나타냈다. 조선어에 고유한 토의 알맞춤한 리용, 조선어의 어순규칙의 적용, 조선어에 고유한 진술구조(주자를 나타내는 의존어가 앞에 오고 풀이를 나타내는 주도어가 뒤에 온다든지, 술어는 반드시 문장의 끝에 자리잡는다든지 하는것 등)의 특성, 조선어문장에 고유한 억양의 요소들의 첨가 등은 이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만일에 《 나 아버지 언제 왔다. 알았다.》, 《대변인, 외교부, 폭로, 미일군사적결탁》과 같은 《진술》이 있었다면 그것은 문법적형식화의 불완전성으로 하여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것이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 이것은 문장조직에서의 민족적특성의 발현이며 사상의 완결성, 감정-정서의 지향성, 모든 문법적계기들의 명백성을 실지로 보장하는 물질적징표이다.

우리 말 문장은 문법적형식화의 수단과 수법이 매우 발전풍부화된 특성을 지니고있다. 즉 문장구조의 다양성, 형태단어들의 체계적성격, 억양의 요소들의 풍부성, 진술형에 나타나는 구조-문법적특성 등은 우리 말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요인으로 된다.

우에서 본 사상의 완결성, 감정과 정서의 지향성, 문법형식화의 완전성은 문장의 본질적속성을 이루는 기본내용들이다. 이 세가지 내용들은 호상 밀접히 통일되여 나타난다.

이 기본내용들가운데서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은 문장의 본질

을 규정하는 항구적인 속성이다. 그것은 다른 측면, 즉 사상의 완결성, 감정과 정서의 지향성도 언제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에 의하여서만 물질화되며 언어행위의 단위로서의 문장의 사명과 기능도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이야말로 문장을 바로 문장으로 되게 하며 다른 모든 문장론적단위와 구별해주는 항구적요인이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은 문법적범주로서의 문장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물질적징표이며 문장의 기본표식을 확정하는 전제로 된다.

3. 문장의 기본표식

문장의 기본표식이란 문장을 다른 단위와 구별시켜주는 주되는 표식이다.

문장의 기본표식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법학자들은 오래동안 론의하여왔다. 이러한 론의에는 문법적현상을 대하는 립장과 방법이 반영되였다.

론리주의적립장에 선 견해들은 문장의 기본표식을 판단의 구조와 관련시켜 고찰하였으며 형식주의적 립장과 방법을 고집하는 견해들은 종결술어에 나타나는 진술형의 형식적수단들을 중요시하였다.

그밖에도 문장의 기본표식을 《주어+술어》의 구조에서 찾거나 어조-문법적통일체, 어음-의미적통합관계 등에서만 찾는 형식주의적견해들도 있었다.

최근시기 우리 문법학계에서는 문법적립장에 서서 문장의 기본표식을 찾아야 한다는 지향이 높아짐에 따라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를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잡는 견해들이 많아졌다.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는 《술어성》, 《풀이성》, 《진술성》 등의 용어로 일반화되였다. 그러면서도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의 내용과 그 표현을 설명하는데서는 서로 다른 립장을 취하는 일도 있다.

그러면 문장의 기본표식은 어디에 있는가? 즉 문장을 다른 단

위와 구별시켜주는 주되는 표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문장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는 특성, 즉 문장내용을 현실적인것으로 파악케 하는 특성인 진술성이다.

진술성이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을 실제적인것으로 파악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물질적징표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문장이 나타내는 사상의 완결성, 목적지향성있는 감정정서 등이 문법적형식화에 의하여 물질적인것으로 안겨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진술성의 각종 표식으로 구현되는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사상의 완결성은 모든 문장이 지닌 기초적속성이라 하지만 그것은 진술의 현실성을 나타내주는 언어적수단이 없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안겨지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직 관념적형태로만 있게 되여 구체적으로 안겨지지 않는다.

목적지향성있는 감정정서도 그 자체로서는 현실적인것으로 안겨지지 않는다.

문장의 론리-의미적계기, 심리적계기, 문법적계기 등으로 통일된 현실적내용(현실적의미)은 오직 진술의 환경, 진술의 시간관계, 진술에 참가하는 인물관계 등을 나타내는 언어적수단들의 도움에 의해서만 실지로 파악된다. 그러한 언어적수단이란 《진술형토》, 시간토, 말차림토, 양태적의미의 표현수단 등이다. 바로 이와 같은 언어적수단을 통하여 진술을 현실적인것으로 파악케 하여주는것이 진술성이다. 진술성이야말로 문장의 현실적내용을 실지로 파악케 하며 문장을 다른 문법적단위와 구체적으로 구별시켜주는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된다.

이와 같이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되는 진술성이란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진술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며 이야기내용과 현실과의 관계, 이야기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사람들은 객관적현실속에서 살고있는것만큼 서로 주고받는 말의 내용이 현실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야만, 다시말하여 그 현실성정도가 물질적으로 표시되여야 그 문장내용을 실지로 파악하게 되며 언어교제가 이루어진다.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는 그 진술이 현실성을 띠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현실성을 띤다면 어느 정도인가, 현실성정도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것 등을 확인하는것으로 표현된다. 진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현실성의 표현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 문장을 똑같히 그리고 똑바르게 리해하게 된다. 문장내용에 대한 똑같은 리해, 똑바른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원만한 언어교제가 실현된다.

○ 남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①

○ 조선은 맑은 아침의 나라이다. ②

○ 꽃은 아름답다. ③

첫 문장의 이야기내용은 《남조선혁명이 반드시 승리함》을 현실적인 사실로 확인하면서 거기에 필연성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진술이 가지는 현실성의 정도를 뚜렷이 하였다. 이 문장의 진술내용이 가지는 현실성정도는 《주자+한정+풀이》의 구조와 《반드시》라는 어휘적수단과 진술억양이 붙은 《~한다》라는 진술형에 의하여 형식화되였다. 이 문장은 진술성을 갖춘 문장이다.

둘째 문장의 이야기내용은 《조선이 맑은 아침의 나라임》을 현실적인 사실로 확인하면서 거기에 긍정과 진리성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진술의 현실성정도, 실제적의의를 뚜렷이 하였다. 이 문장의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는 《주자+대상적표식+대상적풀이》의 구조와 《~이다》로 끝나는 진술형과 진술억양에 의하여 형식화되였다. 역시 진술성을 갖춘 문장이다.

셋째 문장의 이야기내용은 《꽃이 아름다움》을 현실적인 사실로 확인하면서 거기에 긍정과 항구적표식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진술의 현실성의 정도(실제성)를 뚜렷이 하였다. 이 문장의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는 《주자+표식적풀이》의 구조와 《~다》로 끝나는 진술형과 진술억양에 의하여 형식화되였다. 여기에도 진술성이 표현되여있다.

세 문장은 어휘-의미적, 론리적 내용은 서로 다르고 그 구조와 언어적수단의 첨가정형 등도 다르지만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 현실성정도를 뚜렷이 하였다는데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이 진술의 현실성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어휘-문법적, 어음-구조적 수단을 가지고있다는데서도 공통적이다. 이와 같이 일련

의 어휘-문법적, 어음-구조적 수단들에 의하여 진술내용의 현실과의 관계가 뚜렷해지는 특성, 즉 진술성을 가짐으로써 이 문장의 현실성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된다. 이리하여 언어교제의 전달—반응의 과정이 실현되였다. 다시말하면 이 세 문장은 각각 진술성의 표식을 지니고있기때문에 진술자의 측면에서 보면 전달의 목적을 완전히 이룩한것으로 되며 듣는 사람(대화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내용을 현실적인것으로 파악한것으로 되게 한다. 이리하여 이 문장들은 당당한 언어교제의 단위로 현실화되였다.

이 사실을 동일한 진술내용, 동일한 론리적내용을 가진 다음과 같은 단위와 비교하여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 남조선혁명의 승리
○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
○ 아름다운 꽃

이것들은 아직 단어들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사상의 단편》, 《개념의 묶음》을 나타낼뿐 그 어떤 완결된 판단도,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도 나타내고있지 않다. 즉 이들 단어결합체가 나타내는 진술내용이 현실적인것인지, 비현실적인것인지 혹은 필연적인것인지, 희망적인것인지, 당위적인것인지 알수 없으며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도무지 확인할수 없다. 이들 단어결합체들은 진술성을 가지지 못한것이다. 이리하여 단어들의 결합체로만 이루어진 진술로써는 실제적현실의 전달과 파악(전달—반응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것들은 언어교제를 실현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언어교제의 단위로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앞에서 례로 든 세개의 문장은 각각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체와 그 론리적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진술내용을 현실과 관계를 맺게 하여주는 표식, 진술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훌륭한 언어교제의 단위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진술내용이 현실과 맺는 관계를 문법적으로 형식화하는, 즉 진술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는 범주가 바로 진술성이다.

진술성이 진술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는 성격은 여러가지이다. 즉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는 비실제적인것일수도 있고 진술자에 의한 평가로 되는것일수도 있고 부정과 긍정의 관계로만 표현되

는것일수도 있다.

모든 문장류형은 그것이 문장으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반드시 진술성을 가진다. 다만 문장의 류형에 따라 진술성표현의 방식이 다를수 있다.

○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부정문)
○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피를 흘리고있겠지요?》(물음문)
《아무렴, 인간살인귀들이 도사리고있는 한에서는 살륙행위가 계속되구말구…》(긍정문)
○ 모두다 모내기전투에로!(시킴문, 추김문)
○ 손이 걸싸면 땅도 걸어진다.(복합문)

이 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물음문에서는 진술내용의 현실성을 물음의 형식으로 확인하며 긍정문에서는 긍정을 나타내는 언어적요소들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술내용의 실제성을 확인하며 호소적성격을 가진 시킴문, 추김문에서는 요청의 형태로 진술내용의 필연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복합문에서는 《단일문》들의 대응관계와 전체 문장구조와 진술형으로써 진술내용의 각종 현실성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문장류형에 따라 진술성표현의 방식은 한결같지 않지만 모든 문장이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나타낸다는데서는 례외로 될수 없다.

진술성은 일련의 문법적범주들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진술성구현의 가장 중심적이고 항구적인 범주는 양태성이다.

양태성이란 진술자의 립장에서 설정한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다시 말하여 양태성이란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가 진술자의 평가에 의하여 확인됨을 나타내는 문장론적범주이다.

언어행위는 객관적현실에 대한 진술자의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로부터 진술에는 진술자의 주관적평가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진술자는 객관적현실에서 인식된 내용(진술내용)을 옮길 때 그 현실성정도를 자기의 립장에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확인한다. 이리하여 언어행위의 단위인 문장에는 진술자에 의하여 설정된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가 반영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태성의 범주이다.

문장론적범주로서의 양태성은 무엇보다도 일정한 언어적형식으

로 판단의 질적범주인 긍정과 부정을 나타낸다.

○ 사람은 사회적존재이다.

○ 동물은 사회적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긍정과 부정도 엄밀한 의미에서 진술내용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진술자의 평가이다. 즉 진술자는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의 방식으로 평가하는것이다.

양태성은 또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관계(확신, 당위성, 개연성, 필연성, 가능성, 불가피성, 의혹, 추정, 의욕 등)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설정한 진술과 대화자와의 관계(명령, 권유, 약속, 요청, 희망, 의무성, 욕구, 허용, 금지, 추동, 기대 등)를 나타낸다.

○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필연성—당위성)

○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가능성)

○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자.(권유—호소)

○ 자주적인 민족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온갖 지배를 반대하여야 한다.(의무성—필연성)

○ 《아침 일찍 일어나 몸단련도 하고 책도 읽으려무나.》(요망)

○ 《일요일에 선생님댁에 찾아가려고 합니다.》(의욕)

○ 조선은 둘로 갈라질수 없다!(부정—필연)

문장에서 양태성은 이와 같이 진술이 현실적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여러가지 양태적관계의 의미를 나타낸다.

문장론적범주로서의 양태성은 법토를 비롯한 각종 형태론적수단과 양태적보조어, 《양태부사》를 비롯한 여러 어휘-문법적수단, 그리고 양태억양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조선어는 양태성표현의 수단과 수법이 매우 풍부한 언어이다. 그러므로 조선어문장의 양태적류형과 양태성의 의미적변종은 다종다양하다.

다음으로 진술성구현의 중요한 범주는 시간범주이다.

문법적범주로서의 시간이란 이야기하는 사람이 설정하는 진술대상의 행동(또는 상태)과 언어행위의 순간과의 시간적관계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문법적시간이란 진술내용의 시간적관계가 진술자에

의하여 확인됨을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객관적현실의 제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속에 존재한다. 그런데 시간속에 존재하는 객관적현실은 그를 인식하여 재현하는 진술의 주자인 진술자에 의해서만 확인된다. 이리하여 진술자가 설정한 진술내용의 시간적관계는 객관적현실과 언어행위의 순간과의 관계로 설정되지 않을수 없다.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는 이와 같은 시간관계가 나타나야 더욱 뚜렷해진다. 시간관계는 진술성표현의 필수적구성부분의 하나이다.

다음과 같은 대비는 시간범주가 진술성표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 아버지는 어제 평양에 도착하였다.
(아버지의 평양도착) ①

○ 오늘 밤부터 비가 올것이다.
(오늘밤 비의 예견) ②

○ 형님이 오늘도 아침달리기를 하였다.
(형님의 아침달리기) ③

시간관계가 표시된 세개의 문장과 시간관계가 전연 표시되여있지 않은 진술(( )안의것)과의 대비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동일한 어휘-론리적내용으로 된 진술이라도 시간관계의 표시여부에 따라 그 현실성정도의 파악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안의 진술에는 현실성정도가 표시되지 못함.)

특히 례②에서 보는 진술내용의 개연성의 성격은 전적으로 《~ㄹ것이다》라는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수단에 의하여 표시되였다. 이와 같이 시간범주는 양태성범주와 밀접히 련관되면서 진술성표현의 중요한 구현자로 된다.

다음으로 진술성구현의 중요한 범주는 말차림범주이다.

문법적범주로서의 말차림이란 언어행위의 대상자(이야기 듣는 사람)와 진술자와의 사회적관계를 반영하는것을 말한다(넓은 의미에서는 인칭범주에 속한다). 다시말하여 인칭범주의 하나인 말차림은 진술자와 대화자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진술의 현실성정도를 더욱 정밀화하는 문법적범주이다.

언어행위는 진술자와 대화자의 출현을 전제로 하는 언어교제과정이다. 이로부터 언어행위에서는 진술자와 대화자와의 호상관계가

언어적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진술자와 대화자의 호상관계의 표현은 진술의 현실성정도를 더욱 뚜렷이 하는 요인으로 된다.

○ 청년문제는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①

○ 《너의 담임선생님이 다녀가셨단다.》 ②

이러한 문장에서 표시되는 말차림관계를 통하여 진술내용의 현실적존재가 더욱 뚜렷이 확인되였으며 진술내용이 향하여지는 대상에 대한 존대 또는 하대의 관계로써 진술자의 희망, 요청, 긍정 등의 양태적관계가 더욱 뚜렷이 확인되였다. 말하자면 말차림관계를 통하여 진술의 현실성정도는 더욱 정밀화된 셈이다. 조선어에서는 말차림범주도 양태성범주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면서 진술성표현의 믿음직한 구현자로 된다.

조선어에서는 존경(존칭)범주도 진술성구현의 담당자로 된다.

문법적범주로서의 존칭이란 이야기하는 사람과 진술의 주자와의 례의적관계를 나타내는 범주이다. 다시말하여 존칭은 언어행위의 주자(이야기하는 사람)가 표시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존경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이와 같은 언어행위의 주자와 진술의 주자와의 존경관계의 표시는 이야기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더욱 뚜렷이 하는데 도움을 준다.

○ 할아버님은 왜놈을 무척 미워하시였다. ①

○ 《담임선생님이 오신단다.》 ②

○ 《어서 들어오십시오. 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③

이러한 문장들에서 표시되는 존경관계를 통하여 진술내용이 현실적인것으로 구체화되였으며 인물들의 관계가 뚜렷해졌다. 어떤 문장에는 진술의 주자(주어)가 표면에 나타나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토에 의하여 이야기하는 사람과 진술의 주자와의 관계까지 알수 있게 되였다(례 ③의 경우). 말하자면 존경토에 의하여 문장의 현실성정도는 더욱 정밀화되였으며 문장의 현실적내용도 더 잘 파악되였다. 조선어에서는 존경범주가 언어행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뚜렷이 나타냄으로써 진술성을 구현하는 고유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진술성은 진술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는 문법적계기들의 총체라는것을 알수 있다. 즉 진술성은 양태성,

시간, 말차림, 존경 등의 문법적범주로써 구체화되면서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진술성은 일정한 진술을 현실적인 문장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본표식이다.

그러면 왜 진술성만이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되는가? 다시말하여 왜 진술성이 문장을 다른 진술단위와 구별시켜주는 주되는 표식으로 되는가?

그것은 진술성에 의하여 문장을 이루는 모든 계기들이 현실화되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상의 완결성이 진술성에 의하여 현실화된다.

진술성이 이야기내용과 현실과의 관계의 특성인것만큼 거기에서는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어느 때 어떤것이 무엇에 의하여 어찌되는가?》, 《진술자는 이야기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진술에 참가하는 인물들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것 등이 낱낱이 밝혀진다. 진술의 양상, 진술의 환경, 진술자의 평가,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진술에 담겨지는 사상적내용이 실지로 뚜렷이 파악된다.

○ 올해에도 풍년이…

○ 아마 올해에도 풍년이 들것이다.

첫째 례는 진술성을 불완전하게 표시한 《진술》이고 둘째 례는 진술성을 나타내는 여러 언어적수단(양태부사, 시간토, 법토, 말차림토, 진술구조, 진술억양 등)을 다 갖춘 진술이다. 말하자면 둘째 례문은 진술성을 완전하게 갖춘것으로 하여 진술에 담겨지는 사상적내용이 실지로 뚜렷이 파악되는 문장이다. 이 경우에 사상의 완결성은 진술성에 의하여 현실화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은 진술성을 구현하는 양태성, 말차림관계, 시간관계, 인물관계와 그를 물질적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언어적수단으로 사상의 완결성을 현실적인것으로 파악케 한다.

사상적내용의 뚜렷한 파악, 사상의 완결성에 대한 현실적인 확인이 없이는 문장을 이루는 본질적특성의 하나인 완결된 사상은 현실적인것으로 파악되지 못한다.

참으로 진술성은 사상의 완결성을 실지로 현실화하여주는 문장의 기본표식이다.

다음으로 목적지향성있는 감정과 정서의 요소들도 진술성에 의

하여 현실화된다.

기쁨, 즐거움, 사랑, 증오, 슬픔, 노여움, 유감, 한탄, 멸시, 비웃음, 나무람, 걱정, 미움, 욕구, 의혹 등의 감정—정서적요소들은 진술내용과 현실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현될 때 현실성있는것으로 된다. 진술성은 바로 자기의 구현자(양태성, 시간, 말차림, 존경 등)를 통하여 감정-정서적요소들을 더욱 뚜렷이, 더욱 직감적으로 나타내는것이다.

진술성이 감정과 정서의 요소들을 보다 뚜렷이, 보다 직감적으로 현실화해주는 물질적수단은 문장안에 있는 어음-문법적, 어휘-문법적 수단이다. 이러한 어음-문법적, 어휘-문법적 수단들로써 감정-정서적요소들이 현실화될 때 그것이 실지로 목적지향성있는것으로 된다.

○ 온 누리에 만발한 충성의 김일성화는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축원을 안고 활짝 피어날것이다.

○ 주체농법의 요구가 관철되니 올해도 풍년일세!

이 문장들은 감정, 정서적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된 진술로 되여있다. 이 경우의 감정-정서적요소들은 양태성, 인물관계, 말차림, 그리고 특히 진술억양, 진술구조의 뚜렷한 표시로써 이 문장이 담고있는 감정과 정서를 더욱 뚜렷이 현실화해주고있다. 말하자면 진술성의 표현수단들이 구비됨으로써 목적지향성있는 감정-정서적요소들이 더욱 직감적으로 안겨온것이다.

이와 같이 진술성은 목적지향성있는 감정-정서 및 의지의 요소들을 실지로 현실화하여주는 문장의 기본표식이다.

다음으로,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도 진술성에 의하여 현실화된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는 사상의 완결성과 감정, 의지의 지향성을 물질화하여주는 항구적요인인데 그것도 결국은 진술성에 의하여 현실화된다. 진술성에 의하여 현실화된 문법적형식화만이 완전한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문장을 문장으로 형식화하는 모든 주요 문법적범주들은 진술성을 구현하는 문법적범주(양태성, 시간, 말차림관계, 존경관계 등)들에 의하여 지배되며 거기에 귀착되기때문이다.

양태성범주, 시간범주, 말차림범주, 존경범주는 오직 문장에만 고유한것인데 바로 이것들이 진술성을 구현하기 위한 문법적범주들

이다. 이와 같은 진술성구현의 문법적범주들은 바로 문장을 문장으로 되게 하는 문법적형식화의 구현자이다. 따라서 진술성의 물질적표현의 구비정도가 결국은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정도를 결정하는것이다. 진술성이 진술내용을 현실에 귀착시키는 문법적범주들의 총체라고도 할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진술성은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을 실지로 현실화하여주는 문장의 기본표식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진술성은 사상의 완결성, 감정—정서의 지향성을 실지로 현실화하여주며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도 직접 구현하여주는것으로 하여 문장을 현실적으로 언어교제의 기본단위로 되게 하는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된다.

진술성의 표현은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주로 동사어미로 표현되는 《인칭형》과 일부 보조어로만 진술성을 표현하는 인도-구라파어와는 달리 조선어는 교착적접사인 토에 의하여 진술성을 뚜렷이 표현하는 특성, 양태적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문법적수단(《양태어》, 법토 등)의 풍부성, 진술구조와 어순 및 억양의 요소들에 의한 진술성표현의 다양성 등으로 하여 이야기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미세한데까지 구분하여 나타낼수 있다. 그리하여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인 진술내용을 긍정과 부정의 방식으로 확인하는것, 확신성, 실체성, 개연성, 당위성, 필연성, 우연성, 가능성, 의무성, 희망, 요청, 믿음, 금지, 의혹, 허용, 욕구, 추동 등의 관계로 진술내용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것, 그리고 일정한 시간속에 진술내용을 놓이게 하거나 여러 인물관계를 나타내게 하는것 등이 구체적인 언어적수단들에 의하여 표시된다.

참으로 진술성표현의 물질적수단의 풍부성과 다양성은 우리 말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믿음직한 징표이다.

문장의 진술성문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미해결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진술성에 대한 리해상 차이로 말미암아 생긴 용어상 혼란, 진술성표현의 물질적수단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억양의 요소에 대한 협소한 리해, 양태성과 진술성의 호상관계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이다.

무엇보다도 《진술내용의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범주》인 진

술성과 관련한 용어상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포괄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문법학계에는 이 문장론적범주를 《술어성》, 《풀이성》으로 일컬어온 일이 있다.

《술어성》이라는 용어는 문장성분인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으로도 리해하는 견해와 《체와 용의 관계》에서 말하는 《용언성》으로도 리해하고있는 견해들이 있는 조건에서 전일적인 문장과 관련되는 범주인 진술성을 대표하기에는 불합리하다. 특히 《술어성》을 《용언성》의 하나로 보려는 견해는 품사론적범주인 《동사성》과도 혼동하게 한다. 이것은 문장론적범주를 품사-형태론적범주에 해소시키는 결과를 빚어낼수 있다.

《풀이성》이라는 용어는 용어 그자체가 파악성없는것인데다가 《제시—풀이》관계의 론리적범주와도 섞갈릴수 있으며 《술어》(한때 《풀이말》로 잘못 씌움)의 기능을 추상화한 특성으로도 리해하기 쉬우므로 역시 알맞지 않다. 특히 《풀이성》은 적지 않은 경우에 《서술성》과도 혼동하여쓴다는것을 고려할 때 그 불합리성을 더욱 통절히 느끼게 된다.

《풀이성》과 관련되여있는 《풀이형》을 진술성표현의 유일한 담당자로 보는데도 문제가 있다.

《풀이형》이 맺음형, 이음형, 상황형, 규정형 등으로 나뉘여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진술성표현을 문장아닌 단위(즉 상황형, 규정형으로 된 단위)에까지 적용하는 혼돈을 일으키게 되며 실사 《풀이형》을 맺음형, 이음형에만 국한시켜쓴다 하여도 조선어문장이 《어간형태》, 《무형태단어》, 《특수형태단어》들로 끝날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역시 모순을 피할수 없다.

《술어성》이라는 용어가 일으키는 혼돈과 《풀이성》이라는 용어가 낳는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 그러한 용어는 전일적인 문장과 관련되고 문장전체의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나타내는것인것만큼 전체 진술내용과 결부시켜 추상화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나타내는 문장론적범주는 진술성으로, 그 일반화된 표현형태는 진술형으로 각각 부르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진술성표현의 물질적표식문제에서도 과학적리해를 확립하여야 한다.

진술성표현의 물질적표식을 종결술어의 맺음형에서만 찾는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되면 역시 문장론적범주의 표현을 형태론적범주의 표현에 해소시키는것으로 된다.

조선어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특히는 억양의 민족적특성을 고려한다면 맺음술어와 이음술어의 다양한 형태, 《어간형태》, 《무형태》 등에서 진술성이 집대성된다고 볼수 있다. 이들 술어의 다양한 형태를 다 《진술형》으로 일반화해도 좋을것이다.

○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맺음형—진술형) ①
○ 도서관에서 오는 길이라면서?(이음형—진술형)②
○ 농사를 잘 짓자면 질좋은 거름이 많아야 한다.(이음형, 맺음형—진술형) ③
○ 나는 비행사, 너는 학생. (어간형—진술형)④
○ 봄비는 줄줄 시내물은 졸졸.(《무형태어》—진술형)⑤

진술성을 나타내는 억양을 《풀이억양》이라 하고 종결술어에만 멀어지는것으로 리해하는것도 잘못이다. 이것은 선률-률동적전일체인 억양과 선률-률동적요소인 억양의 요소를 혼동한데서 나온 잘못이다.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나타내는데 작용하는 억양은 오직 진술억양이며 그것은 문장구조전체와 관련되여있는 현상이다. 진술억양은 진술성표현의 항구적인 표식이다.

진술억양은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내적통일을 실현하며 진술내용과 현실과의 관계를 맺게 하여주며 문장의 양태적류형도 갈라준다.

진술억양은 문장이 통신적기능을 수행하도록 높낮이선과 률동으로 문장구조전반에 조직성을 더하여주면서 사상감정을 목적지향성있게 전달하도록 한다. 진술억양을 이루는 요소들로서는 말소리의 높낮이, 세기, 장단, 휴지, 음조, 음색, 그리고 뜻마루 등이다.

진술억양은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힘있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진술성표현의 항구적인 표식으로 된다. 억양이 문장의 항구적인 표식이라고 하는것도 바로 진술성표현의 항구적표식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다음으로 진술성과 양태성의 호상관계를 옳게 리해하는 문제가

나선다.

앞에서 진술성과 양태성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진술성은 어디까지나 전일적인 문장의 진술내용과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문장론적범주이다.

문장론적범주의 하나인 양태성은 진술성의 구성부분이며 진술성구현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항구적인 범주이다.

양태성과 진술성을 동일시하여도 안되며 분리하여도 안된다. 동시에 양태성을 진술성우에 있는 그 어떤것으로 리해하거나 문장론적범주로서의 양태성과 론리학적범주로서의 《양태성》과를 같은것으로 리해하여도 안된다. 또한 양태성을 법의 양태적의미와 동일시하여도 안된다.

〔붙임〕 론리학적범주로서의 《양태성》은 주로 《가능성—실재성—필연성》에 국한시키거나 《존재론》적립장에서 《가능성—필연성—우연성》의 대응관계를 설정하는것과 일치시키는것이라면 문장론적범주로서의 양태성은 보다 넓고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또한 법은 양태적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론적범주이며 양태성범주보다는 좁은것으로서 양태성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된다. 물론 조선어에서 법토는 례외없이 양태적의미를 나타낸다.

양태성은 어디까지나 전일적인 문장안에서 여러가지 어휘—문법적수단들에 의하여 표시되는 문장론적범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다각적인 측면을 담고있는 진술성의 주요구성부분이다.

문장론적범주는 언제나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양태성은 비록 진술성의 구성부분, 진술성구현의 한 범주라 하지만 문장론적범주인 이상 보다 일반화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은 양태성이 진술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관계를 나타내는 주객관적범주라고도 말할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라 할 때 그것은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진술내용 그자체가 현실에 대하여 관계를 가지는 객관적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진술자가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를 인식하고 거기에 자기의 평가를 더하는 주관적측면이다.

그런데 모든 문장은 객관적현실에 있는 사물과 현상의 련관관계를 반영한다. 진술자는 먼저 이것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기의

주관적평가를 거기에 더한다. 객관적현실의 사물현상들의 련관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은 객관적과정이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평가는 주관적과정이다. 이리하여 객관적현실의 사물현상의 련관관계를 인식한것(객관적과정)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관적평가를 더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범주인 양태성은 주객관적범주로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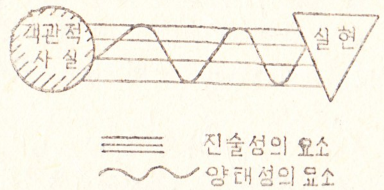
객관적현실의 언어적인 반영인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식-평가적관계(즉 주객관적관계)까지 나타나야 완전한것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양태성은 진술성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진술성을 완비케 하는 요인으로 된다.

진술성은 양태성보다 더 포괄적인 문장론적범주이며 문장을 바로 문장으로 되게 하는 기본표식으로서 거기에는 양태성이외에 인물관계(넓은 의미), 시간관계 등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진술성을 나타내는 언어적수단도 그만큼 더 많다.

이상에서 고찰한 진술성과 양태성의 호상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술성과 양태성이 객관적사실을 반영한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통속적으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문장론의 가장 큰 범주인 문장에 관한 옳은 리해를 가지기 위하여 나서는 기본문제를 밝혔다.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에 관한 문제는 문장론적현상 전반을

옳게 보고 옳게 처리하기 위한 출발적전제로 된다. 그러므로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계기들,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확정하는 등의 리론적문제들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문장론분야에서 제기되는 제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문장에 반영되는 론리-의미적계기, 의지-심리적계기, 문법적계기들을 통일시켜 고찰하며 언어교제의 기본단위로서의 문장이 지닌 속성을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밝히며 문장을 다른 단위와 구별케 하는 기본표식인 진술성과 그 실제적구현에 관한 문제 등을 해명한 이상의 서술들은 과학적문장론건설을 위한 기초로 된다.

제2절. 문장론적관계의 표현

문장을 이루는 언어적단위들이 맺는 문장론적관계는 언제나 객관적현실의 대상, 현상, 운동, 상태, 표식 등의 호상련관에 기초한다. 이것이 없다면 문장은 사람들의 교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놀지 못한다. 왜냐하면 객관적현실에 있는 사물현상들의 호상련관을 반영하지 못하는 《언어행위》는 현실적련관이 잘되지 않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언어행위의 단위》는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인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라렬》이기때문이다. 객관적현실에 있는 사물현상들의 호상련관에 기초한 언어단위들의 문장론적관계만이 합법칙적인것이다.

문장론적관계란 문장을 이루고있는 언어적단위들의 문법적인 련관관계를 말한다. 문법적인 련관관계는 언어단위와 현실과의 관계로 나타날수도 있고 언어단위들끼리의 련관으로 나타날수도 있다.

○ 4월이였다(언어단위와 현실과의 관계)

○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언어단위들끼리의 련관)

이 례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하나의 단어와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두개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안의 단어들의 호상련관관계로써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리하여 끝맺이가 있는 진술을 이룬다.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건 둘이상의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건 문장의 구성단위들은 이러한 문장론적관계속에서 제약되고 문법적의미에 따라 련관되면서 자기의 문법적기능을 실현한다.

문장론적관계의 표현은 엄밀하게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문장론적관계의 표현 수단과 수법의 체계, 그 쓰임의 특성 및 기능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말에서 문장론적단위들이 맺는 문장론적관계는 문장안에 있는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 자리토, 보조어와 같은 수단, 억양과 어순의 수법 등에 의하여 표현되면서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1.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

때때로 문장안에 있는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적단위들의 순수 《상관관계》만 있으면 문장론적관계는 훌륭히 성립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맞물림이 제대로 되여있지 않은 《련결》에서까지 그 무슨 《정상적》인 문장론적관계를 찾으려 한다. 이것은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극단한 견해이다. 이렇게 되면 론리적으로 모순되고 뜻이 닿지 않는 단어들의 《라렬》이나 《배렬》에서까지 문법적현상을 인정하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론리적으로 모순되고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옳게 보장되여있지 않은 맞물림에서까지 그 어떤 문장론적련관, 문장론적관계를 찾으려는 시도는 사유와 언어, 론리와 문법을 분리시키는 태도로 봐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문장안에 있는 단어들의 어휘적의미를 떠난 《상관관계》는 공허한것이고 그것에서 그 어떤 문법적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시도는 생활의 론리, 사유의 법칙을 무시하며 따라서 문법적현상도 공허한것으로 되게 하는 태도이기때문이다.

사유의 도구이며 사상표현의 수단인 언어는 언제나 사유와 통일되여있다. 이로부터 사유의 형식인 판단과 언어행위의 단위인 문장은 통일되여있다. 판단과 문장이 통일되여있다는데로부터 문장의 구성부분들의 상관관계는 론리적으로 모순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주체사상탑앞에 어떤 군상을 해세우는가 하는 문제는 탑의 성격을 밝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 새벽이 가까와오면서 날씨는 더욱 차졌다.

○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이다.

첫째 례는 앞에 대전제가 있고 뒤에 그에 대한 풀이가 있으면서 《…것은 …이다》라는 《론리적구조》로 된 문장이고 둘째 례는 론리적인 인과관계가 잘 표현된 복합문이며 셋째 례는 단순판단의 구조를 반영하는 단일문이다.

이들 문장은 그 구조적단위 특히 그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론리적으로 잘 맞물려있고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서 모순이 없다는데서 공통적이다. 즉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문장론적관계는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제대로 되면서 현실화되였다.

만일 이들 문장의 구조적단위, 어휘들을 함부로 바꾸어 그 의미의 상관성을 파괴한다면 그 어떤 정상적인 문장론적관계도 이루어지지 못하며 마침내 문장의 현실적의미는 외곡되거나 모호한것으로 되고만다.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의 정상적인 문장론적관계는 오직 상관단위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을 제대로 보장할 때만이 실현된다.

언어로 표현된 개념, 판단, 추리 등 론리적사유형식은 구체적인 문장에서 단어의 어휘적의미, 문장의 현실적내용, 일련의 문장련합(복합문 등)의 의미와 대응한다. 문장에서 개념들의 련관관계, 판단의 구조들의 상관관계는 구체적으로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 의하여 구현된다.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없다면 그 어떤 개념의 련관관계, 판단의 구조들의 상관관계도 구현되지 못한다. 개념들의 련관관계, 판단의 구조들의 상관관계가 구현되지 못하면 문장도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장은 자기의 구성부분들의 문장론적관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아닌 《문장》이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장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은 문장론적관계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사유와 언어, 론리와 문법을 밀접히 통일시키는 립장에 서서 어휘적의미(어휘적의미의 상관성)가 단어들의 문장론적관계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볼 때에만 단어들의 상관관계의 옳고그름을 가를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순수 《상관관계》, 순수 《구조》를 추구하는

경향에 빠지게 된다.

문장안에서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은 두개이상의 단어들이 맞물림관계에 있을 때 구체화된다.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맞물림관계는 객관적현실의 반영인만큼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서 모순이 없어야 론리에도 맞는다. 론리에 맞는 단어들의 맞물림관계는 문법적으로 맞으며 정상적인 문장론적관계로 된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구성단위들의 문법적련관, 문장론적관계를 론의할 때는 무엇보다도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 상관하는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맞물림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어휘적의미가 현실적이고 론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을 때 문장론적관계는 현실적인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문장을 이루는 단위들의 문장론적관계는 우선 문장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맞물림관계가 현실적인것으로 될 때 실현된다.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은 언어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단어들의 문장론적관계의 형식도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조선어에서 그것은 품사들의 결합가능성, 어휘적의미의 맞물림가능성 등의 특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은 품사의 소속성에 기초하여 제약된다.

조선어문장에서는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들이 서로 련관관계를 맺을 때에 반드시 일정한 품사가 일정한 품사와만 어울려서 맞물림관계를 이룬다는 특성이 작용한다. 례컨대 명사와 명사, 명사와 대명사는 아무 때나 맞물리나(례:○ 선생님의 댁, 나의 아버지) 명사와 부사, 대명사와 관형사는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어울릴수 없으며(례: ×매우 집, ×온 우리들)맞물림의 방식(결합, 접속, 병립…)에 따라서도 품사결합이 제약되는것은(례; ×나는 학생이자 부지런하다) 바로 조선어적인 특성이다.

보통은 명사와 부사가 어울릴수 없으나 심리상태나 심리적과정과 관련되는 명사(례:야단, 시비, 비난, 꾸중, 걱정…)는 일부 부사와 맞물릴수 있다는 사실만 들어봐도 어휘적의미의 맞물림에서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뚜렷이 알수 있다.(례;아주 야단이다. 자주

우충인걸…)

조선어에서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형태상 특성, 어울리는 단어들의 차례, 단어조성적특성 등이 문장론적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밑바닥에는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작용한다. (례: ○ 일밖에 모르는 부지런한 솜씨. × 부지런한 일밖에 모르는 솜씨)

문장론적단위들의 어휘적의미가 나타내는 상관성은 이와 같이 모든 문장론적관계를 제약하는 기초적조건으로 된다.

다음으로, 조선어에서 문장론적단위의 구체적인 기능도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 따라 확정된다.

동일한 모든 문법적형태는 문장에서 동일한 문장론적기능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도 된다. 례컨대 《그림에 떡》, 《우리 나라에서 군의 위치》에서의 《그림에》, 《우리 나라에서》는 규정적인 관계로 되지만 《그림에 현혹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다.》에서의 《그림에》는 보충적관계, 《우리 나라에서》는 상황적관계로 되며 《반장동무의 집》에서의 《반장동무의》는 《집》과 문장론적관계를 맺으나 《반장동무의 부지런한 일솜씨》에서의 《반장동무의》는 《부지런한 일솜씨》 전체와만 맞물림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문장단위의 기능을 확립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보여준다.

문장론적단위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은 이와 같이 그 문장론적기능을 확정해주는 뚜렷한 요인으로 된다.

이상에서 본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문장론적관계를 제약하는 특성은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여주는 표식의 하나로 된다. 바로 여기에 조선어에 있는 문장론적관계의 표현을 고찰하는데서 눈을 돌려야 할 착안점의 하나가 있다.

(**붙임**) 우에서 이야기된 어휘적의미의 상관성문제를 어휘론적각도에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어휘적의미가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로 되고만다. 문장론에서는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문제로 되며 그것이 문장론적관계의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이 중요하다.

2.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단어형태

조선어에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생산적인 수단은 단

어형태이다. 조선어의 단어형태는 주로 단어의 줄기(어간)에 붙는 자리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일부 도움토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문장론적관계의 구체적인 표시자는 맺음형, 이음형, 규정형, 상황형의 토들과 격토들이다(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같은 《무형태단어》들은 토의 도움이 없이 어휘적의미의 상관성과 어순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낸다).

모든 형태단어는 문장안에서 일정한 문장론적관계를 표현하면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련계의 기능, 해당 단어의 문장론적지위를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여기서 7개의 단어는 다 형태단어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태단어들은 이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어, 확대보어, 규정어, 술어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단어결합체안에서의 상관관계도 나타낸다. 동시에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와 같은 단위들의 위치를 규정한다. 이것이 이 문장의 형태단어가 문장론적관계표현에 작용하는 기능이다.

단어의 형태체계가 매우 발전된 조선어에서는 문장론적관계의 정밀한 차이가 거의나 토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성이 있다. 맺음형, 이음형, 규정형, 상황형이라는 형태론적범주자체가 주로 용언적품사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하며 격토가 거의나 체언적품사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하여준다는 사실 등은 다 조선어의 단어형태가 지니는 문장론적관계표시의 기능이 매우 정밀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리토에 의하여 표현되는 조선어단어형태의 고유한 특성은 특히 단어의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의 호상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붙임**) 단어의 의미구조를 이르는 《내적형태》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내부적형태》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내부적형태는 문장안에 들어가는 두개의 자립적단어들사이에서 의존어(설명어)가 지니는 형태이다. (례: 맑은 아침, 책을 읽다)

이 내부적형태는 두 단어들사이의 문법적련계의 성격과 해당 단어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하면서 단독으로 변화체계를 가지나 (맑은, 맑을, 맑던, 맑고…)언어행위의 련쇄된 고리에서는 변화체계

를 가지지 않는다. (맑은 아침이, 맑은 아침에, 맑은 아침을…)

외적형태는 문장안에 들어가는 두개이상의 자립적단어들사이에서 의존어가 단어결합이나 그 이상의 전개된 단위로 되였을 때 주도어(지배어)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례: 맑은 아침의 나라, 책을 읽는 학생…)

이 외적형태는 단어결합과 단어(또는 단어결합)사이의 문법적련계의 성격과 그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해주면서 자기의 변화체계를 가진다(례: 맑은 아침의 나라. 맑은 아침에 산보한다. 맑은 아침을 맞이하였다.…). 이 외적형태로 이루어진 단위가 또다시 다른 단어에 지배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내부적형태로 변한다. (례: 맑은 아침의 나라에 사는, 맑은 아침의 나라를 찾은…).

이와 같이 조선어에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의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즉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확대된 구조에서 한 단계 낮은 질서의 외적형태는 그보다 높은 단계의 질서의 내부적형태로 되며 한 단계 높은 질서의 문장론적단위의 내부적형태는 언제나 그보다 낮은 질서의 문장론적단위의 외적형태로 된다. 그리고 모든 내부적형태는 그 자체가 언어행위속에서 변화체계를 가지지 않는다. 조선어에서 이것은 하나의 법칙적현상으로 된다.

(붙임) 체언, 행동동사, 형용사 등이 격변화체계를 가지는 일부 인도—구라파어의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의 변화관계는 다르다. 즉 거기에서는 내부적형태나 외적형태가 동시에 변한다. (례: 로어에서의 красивый дом, красивого дома, красивому дому…)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조선어단어형태에 작용하는 이상과 같은 법칙적현상으로부터 문장에서 주도어(지배어)의 문법적형태는 해당 단어의 형태로 되면서도 기능에 있어서는 그앞에 있는 일부 또는 모든 단위에 작용한다는 특성이 흘러나온다.

○ 맑은 아침의 나라인 조선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날로 늘어만 간다.
○ 지배인과 기사장과 부지배인이 번갈아 내려왔다.
○ 누가 이기는가가 문제다.

조선어의 외적형태는 내부적형태보다 더 다양한 형태를 띠며 각종의 《합성토》로까지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할수 있다는 특성도 바로 우와 같은 법칙적현상과 관련된다.

○ 경쟁에서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했답니다.

문법에서는 특별히 단어의 문법적형태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형태론적형태와 문장론적형태로 나눈다. 형태론적형태란 바로 단어의 한계안에서 나타나는 형태이고 문장론적형태란 단어밖에서(단어결합이나 문장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우에서 례로 든 모든 내부적형태는 물론, 외적형태도 다 형태론적형태이다.

그러나 일부 인도—구라파어와 같이 단어결합에서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가 동시에 각각 변화체계를 가질 때 문장론적형태를 가지게 된다.

조선어에는 이러한 문장론적형태가 따로 없이 단어에 내속된 형태가 앞에 있는 전일적인 단위에 작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즉 문장안의 뒤단위가 앞단위들을 문법적으로 통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모두들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였다.
○ 이달도 경쟁에서 이겼답니다.

우에서 본 단어의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의 특성, 형태론적형태의 문장론적기능의 특성은 조선어의 단어형태가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데서의 특성을 말하여준다. 특히 단어결합관계에서 마지막 단어가 그앞의 의존어에 대하여 문법적으로 통솔하는 특성은 조선어의 형태론적형태가 지니는 기능의 다양성을 말하여준다.

조선어 단어형태의 풍부성과 그 기능의 다양성은 동시에 조선어에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수단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3.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어

(붙임) 여기서는 보조어, 즉 보조적단어를 넓게 잡았다. 그리하여 자립적단어에 보조적으로 붙어서 그의 문법적의미를 보충정밀화하는 모든 단어들을 이에 포괄시켰다. 례컨대 문법적관계,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인 보조용언, 불완전명사, 접속어(접속부사, 접속적기능을 노는 용언과 체언의 접속형으로 된 단어…), 《특수어》(단어결합체로 된 보조적단어) 등을 들수 있다. 이렇게 보조어를 넓게 잡은데는 이들 단어들의 문장론적기능을 중요시한 까닭이 있다.

단어의 형태체계가 매우 발전하여있고 그 기능이 또한 다양한 조선어에서 보조어는 원래 문법적의미의 표시자, 문장론적관계의

표현수단으로 널리 쓰이지 않았다.

력사적으로 볼 때 보조어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단어는 자립적 단어, 완전의미의 단어로 쓰이면서 어휘적의미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것들은 상당한 정도로 어휘적의미를 간직하고 문법화과정에 들어가고있다. 어휘적의미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있으면서 문법화과정에 들어가고있다는데 조선어보조어가 인도-구라파어의 보조어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어의 분석적형태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조선어에서 보조어가 첨가되는 문장론적단위는 분석적형태에 들어가지 않으며 《자립어+보조어》의 구조로 된 단어들의 결합체로 있게 된다. 이때의 자립어나 보조어가 각기 자기의 문법적형태를 가지며 기능상으로만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조선어에서 보조어는 어휘-문법적단위로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된다.

조선어에서 보조어는 오늘에 와서 문장론적관계표현의 생산적인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 모두다 한사람같이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섰다.
○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자.
○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각별히 깊었다.
○ 도착하자바람으로 일에 달라붙었다.

보조어가 나타내는 문장론적관계는 단어와 단어, 단어결합과 단어(또는 단어들의 결합), 문장과 문장들 사이의 련관관계로 될수 있다.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하는 보조어와 관련하여 그 형태를 어떻게 리해해야 옳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즉 보조어들에 나타나는 격형태, 규정형, 이음형, 상황형 등을 화석화된것으로 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변화체계속에 들어있는 형태단어의 하나로 보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조선어의 보조어가운데서 일부 《무형태단어》로 된 접속어, 불완전명사, 《특수어》들을 내놓고는 거의 모두가 하나 또는 몇개의 제한된 자리토나 도움토를 가진다. (례: ~ㄴ대로, ~는 통에, ~는 바람에, ~ㄴ차에, ~에도 불구하고, ~에 관한(관하여), ~를 위하여(위한), ~ㄴ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그러나, 그렇지

만, 혹은, 또는…)

보조어가 격형태, 서술형 등 형태변화체계를 가지는것이라면 자립적인 형태단어로 될것이고 따라서 문법화되였다고도 말할수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형태단어란 다른 단어와의 문장론적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형태체계를 가지는 자립적단어이기때문이다. 자립적단어가 문법적의미의 표시자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보조어가 하나의 격형태, 서술형을 가지는 경우는 그것을 화석화된 형태로 보고 형태변화체계를 가지지 않는 비자립적단어로 다루어야 할것이다(례:흥분된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본대로 이야기하다…). 이것들은 《무형태단어》(《무정형》)와도 다르다. 《무형태단어》는 본질에 있어서 자립적단어에 고유한 현상이다. 일부 보조어가 《무형태단어》로 된것이 있는데(례: 혹, 또, 및, ~는듯, ~는커녕, ~는 한…)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무형태단어》인것이 아니라 형태체계를 가지는 자립어들의 일정한 형태가 《응축》되였거나 《줄어든》《무형태》일따름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어의 보조어는 기본적으로 화석화된 형태를 가진 문법화의 언어요소들이라고 할수 있다.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어와 관련하여 또한 그 문법적의미의 표시자를 어떻게 리해해야 옳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즉 보조어에 붙는 자리토에 문법적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어전체(토까지 포함한 전일체)에 문법적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조선어보조어는 어휘론적 및 문법적 특성으로 보아 그 대부분이 문법화과정에 있는것이라는 사정과 그것들이 화석화된 형태를 가진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조어전체가 하나의 문법적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서도 보조어의 자리토에는 그 토가 가지고있는 고유한 문법적의미도 보존되여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기능은 일정하게 자리토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볼수 있다.

문법화되여가는 과정에 있다는것자체가 인도-구라파어의 접속사나 전치사 및 계사 등 보조어와 다르며 보조어의 자리토는 그것 혼자서는 아무런 관계도 나타내지 못하며(특히 자립적단어에 이미 자리토가 있는 조건에서) 보조어가 나타내는 어휘적의미는 문장론

적관계에 상당한 작용을 준다. 결국 조선어의 보조어는 어휘적의미를 다분히 가진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이다.

토체계보다는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오늘날 문장론적관계표현의 생산적인 수단으로 되고있는 조선어의 보조어는 조선어적인 특성을 보유하면서 그 문장론적기능을 더욱 정밀화하여가고있다.

문장론적관계표현에 접사들뿐아니라 보조어도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은 우리 말의 풍부한 점의 하나이며 우리의 언어생활을 더욱 정밀화하여주는 요인의 하나이다.

4. 어 순

문장론적관계는 어순의 수법에 의해서도 표시된다.

어순이란 민족성원들의 언어생활관습에 의하여 굳어지고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단어들의 배렬순서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배렬순서에는 그 민족어에 고유한 규칙이 작용한다. 이것이 어순의 민족적특성이다. 어순의 민족적특성이 바로 그 민족어에만 고유한 문장론적관계의 표시로 된다.

조선어문장에는 조선인민에게 한결같이 리해되고 인정되는 어순배렬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문장론적단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작용한다.

토체계가 발전되여있고 보조어도 상당한 정도로 풍부하다 하여 어순배렬이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토체계가 발전되고 보조어가 풍부할수록 거기에 알맞는 어순의 질서가 있는것이다. 더우기는 조선어에 《무형태단어》, 《무정형》의 단어들이 많고 문장론적 단위들이 필요에 따라 《어간형태》, 《절대격형태》로만 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조건에서 어순의 의의는 자못 크다.

자유로운 어순배렬의 특성을 지니는 우리 말에서 어순은 기본적으로 문체론적기능과 문장론적관계를 다 나타낸다.

조선어어순이 나타내는 문장론적관계란 어순배렬에 의하여 해당 문장론적단위들의 지위가 결정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조선민족어에 고유한 정상어순에 의하여 보장된다.

○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

로 일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①

○ 산들산들 봄바람은 새싹들이 움트는 농촌풍경을 한결 훈훈하게 하였다. ②

○ 대회참가자들 한결같이 미제국주의침략책동 규탄 ③

우의 례에서 문장을 이루고있는 단어나 단어결합체들을 얼핏 보면 그 어순이 자유로운것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는것을 알수 있다.

례①과 같이 《~것은 ~이다》라는 《론리적구조의 문장》에서는 《제시》부분과 《풀이》부분의 순위가 바뀔수 없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은》이라는 단어들의 결합체안에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를 내놓고는 다른 단어들의 순위가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

례②에서와 같이 《새싹들이 움트는》이라는 《구》를 가진 문장도 그 《구》와 직접 문장론적관계를 가지는 단위들의 순위는 바뀌지 않으며 다른 단어들도 까닭없이 순위를 바꾸지 않는다.

특히 례③과 같이 대부분의 단어들이 《무형태단어》, 《어간형》, 《절대격형》으로 된 문장에서 어순을 함부로 바꾸면 단위들의 문장론적관계가 달라지거나 뜻이 모호해진다(때에 따라서는 뜻이 파악되지 못한다).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문장류형에 따라서 어순배렬의 규칙이 엄격한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엄격성이 덜한것도 있다. 이것은 조선어어순배렬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며 민족성원들의 언어생활관습의 반영이다.

어순의 이동관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때에도 어순의 문장론적관계표현의 기능은 보존되며 그 밖에 다채로운 문체론적색채까지 나타난다.

○ 가없이 맑은 가을의 날씨는 풍년든 농촌벌을 시원스레 감싸주었다. ①

○ 우리는 어제도 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②

○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은 부러운것없이 자라며 배운다. ③

이와 같은 문장들에서 일부 단위들(또는 모든 단위들)의 어순을 바꾸면 그 문장론적관계는 변하지 않으나 문체론적색채는 달라진다. 문장론적관계가 변하지 않고 문체론적색채가 달라진다는것은

문장론적기능의 보존과 뜻빛갈의 정밀화를 말하여주며 어순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어순의 이동은 제멋대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민족성원들의 언어생활의 관습에 따라 굳어진 일정한 《규범》에 맞게 이루어진다. 여기에 조선어어순의 수법이 문장론적관계표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다.

조선어에서 의존어가 주도어(지배어)의 앞에 자리잡는다든지, 확대된 단어결합체로 된 단위는 그의 주도어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든지, 《의미적련관》이 가까운 단위일수록 서로 가까이 배렬된다든지 하는 특성도 어순의 문장론적관계표시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된다. 이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단위들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하나의 기능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것과 같은 현상도 생겨나온다.

이와 같이 어순의 수법도 조선어에서 문장론적단위들의 문장론적관계를 표현하는 수법의 하나이다.(어순이 바뀌면서 문장론적관계를 달리 나타내는 특성에 대하여서는 제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5. 억 양

문장론적관계는 억양의 수법에 의하여서도 표시된다.

억양이란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내적통일을 보장하며 동시에 구성단위들의 구획을 지어줌으로써 문장론적단위의 기능을 갈라주는 선률-률동적통일체이다. 선률-률동적통일체인 억양을 이루는 요소들이란 말소리의 높낮이선, 길고짧음, 세기, 휴지, 음색, 음조, 뜻마루 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김일성저작집》 18권, 1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우리 말은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다.

우리 말의 억양이 좋다는것은 그를 구성하고있는 억양의 요소들이 알맞춤하게 갖추어있고 그것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억양의 여러 기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문장론적기능이다.

억양의 문장론적기능에 의하여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내적통일이 이루어지고 억양의 요소들에 의하여 문장론적단위들의 구획이 지어진다.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문장론적관계란 여러 측면을 담고있다. 문장의 구성성분들이 현실과 맺는 관계, 문장안에서 여러 단위들이 호상 련관되는 관계,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계기들의 호상관계 등이 그것이다. 억양은 바로 다른 문장론적 수단, 수법과 함께 이러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내적통일과 구획을 뚜렷이 하는데 이바지한다.

억양은 무엇보다도 문장 또는 그 구성단위들의 현실과의 관계를 뚜렷이 하여준다.

○ 기상! ①

○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②

○ 《아,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구만요!》③

첫째 례문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문장으로 되는것은 《기상》이라는 단어와 현실과의 관계가 구현되였기때문인데 이때 그 현실과의 관계는 바로 다급한 선률로 된 진술억양이 나타내여준것이다.

둘째 례문에서의 확신-필연성의 현실적관계는 일정한 뜻마루를 가진 진술억양에 의하여 구현되였다.

셋째 례문에서의 감정-정서적계기, 양태성의 표시는 일련의 억양의 요소들의 통일로써 훌륭히 구획지어졌다.

이와 같이 억양(이때는 진술억양)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재료들과 현실과의 관계를 뚜렷이 표시해줌으로써 문장의 기본표식인 진술성을 형식화하여준다.

억양이 문장형성의 항구적표식의 하나로 된다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장억양의 이러한 기본기능으로부터 문장의 양태적류형을 구분하는 억양의 기능도 나온다. 이리하여 동일한 구조, 동일한 형식으로 된 문장이라도 억양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적류형으로 된다.

○ 복비가 내리오. (알림문)

○ 복비가 내리오? (물음문)

○ 복비가 내리오! (느낌문)

억양은 다음으로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문법적련계와 상관하는 단위들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해준다.

우리 말 억양의 요소들은 접속 또는 병립의 방식으로 련결된 문장론적단위들의 문법적련계와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한다.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 가정과 마을과 일터에는 위생문화적환경이 훌륭히 마련되였다.

○ 나라와 민족, 언어와 풍습, 지역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그들이였지만 주체사상을 신봉하는데서는 한결같았다.

첫째 례는 병립의 방법으로 세개의 단위가 련결된것이고 둘째 례는 접속의 방법으로 련결된 세개의 단위가 하나의 단위(《마련되였다》)에 관계한것이고 셋째 례는 접속과 병립이 얽혀져 련결된 문장단위이다. 이 모든 경우에 접속과 병립을 형식화해주며 매개 단위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해주는것이 단어형태와 함께 억양의 요소들이다.

조선어에서는 억양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어, 단어결합, 《구》, 《단일문》도 련결하는 문장론적수법으로 된다(이때 다른 문장론적수법이 함께 작용하는것은 물론이다).

억양은 또한 문장의 개별적구성단위의 성격을 밝혀주는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한다.

○ 어제 아버지가 도착하셨나?

이 례문의 세개 단어가운데 아무것에나 뜻마루가 오고 그 뒤에 휴지가 따를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어가 특별히 구획되는데 거기에 《진술의 무게》가 떨어지며 답변도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례: 《예, 어제입니다.》, 《예, 아버지입니다.》, 《예,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억양의 요소들인 뜻마루와 휴지로 표시된 문장론적관계는 론리-정서적강조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그 밖에도 억양 또는 억양의 요소들은 문장에서 어음-의미적단위인 통합을 구획하고 문장의 현실-론리적성분화를 돕는것과 같은 문장론적기능을 나타내며 음색, 어조 등 요소들은 문장의 정서적색채를 나타내는 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한다.

(붙임) 언어행위에서 일정한 감정—정서적계기를 나타내는데 작용하는 억양의 요소를 어조라고도 한다. 적지 않은 문법책들에서 억양과 어조를

구분하여쓰지 않고있는데 이것은 과학적태도라 할수 없다. 억양은 보다 넓은 폭을 가지는 개념이며 어조는 억양의 구성요소로서의 음색과 음조가 통일되여 주로 감정-정서적색채를 나타내는 선률-률동적요소이다.

례컨대, 《흥분된 어조》, 《성난 어조》라고 할수는 있으나 《흥분된 억양》, 《성난 억양》이라고 할수 없는것은 하나(어조)가 전일적인 진술억양의 한 구성요소인 선률-률동적요소임에 반하여 다른 하나(억양)는 전체 문장의 내용과 관련되는 진술화의 선률-률동적통일체이라는것을 말하여주는 증거로 된다.

어조는 억양의 한 요소이다. 억양은 어조도 포괄하는 전일적인 선률-률동체이다.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하는 억양은 많은 경우에 다른 문장론적수단과 함께 작용하며 드물게는 단독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억양은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억양은 음악적 선률과 률동이 그러한것처럼 견인성을 가지고 민족성원들의 미감에 적극 작용한다. 조선어는 좋은 억양을 가지고있는 발전된 언어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문장안에서 단어들의 어휘적의미가 맞물리는 특성을 고찰한데 기초하여 조선어의 문장론적관계를 표현하는 수단(단어형태, 보조어)과 수법(억양, 어순 등)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언어행위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통일되여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서 문장의 구성단위들을 련관시키거나 구획한다. 이러한 련관, 이러한 구획이 있어야만 문장의 뜻파악이 가능하다.

제3절.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

문장을 잘 짜고 문장의 뜻을 똑바로 리해하자면 문장을 이루고있는 구성요소들의 구획을 잘 짓고 그 기능을 잘 알아야 한다.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구획을 잘 짓고 그 기능을 잘 알자면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의 단위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가야 한다.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이란 문장을 이루고있는 구성단위들의 총체이다.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은 그 성격과 질서에 있어서 꼭같은것은 아니다. 어떤것은 문장의 직접적구성요소로서 한계단 높은 질서에 놓이는가 하면 어떤것은 문장의 간접적구성요소로서 한계단 낮은 질서에 놓이기도 한다.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에 관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서로 다른 질서에 놓인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에 관한 문제이다.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에 대한 옳은 리론적해명은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고리를 이룬다.

(**붙임**) 문장의 구성성분, 구성재료 또는 문장의 구성요소, 구성단위들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밝히지 않고 두루 섞어쓰는 일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개념들의 차이를 명백히 짓고있다.

문장의 구성성분은 문장의 직접적구성요소를 의미하며 구성재료는 주로 문장의 간접적구성요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구성요소는 모든 문장론적단위를 이루는 구조적요소들을 말하며 구성단위는 일정한 단계적질서에 놓인 구조적요소들을 말한다.

1. 문장의 구성성분, 구성재료의 개념과 그 호상관계

모든 문장구조는 자기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로 이루어진다.

문장의 구성성분이란 전일적인 문장구조안에서 서로 맞물리면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다. 조선어의 경우에 그것은 문장성분으로 된다.

○ 우리의 혁명영화는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이다.

○ 하늘땅에 넘치는 어버이 그 사랑 전사들을 한품에 안아줍니다.

이 례들에서 문장구조를 이루고있는 요소들은 여럿인데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서로 상관하는 단위는 각각 다섯개이다. 즉 다섯개의 구성성분, 문장성분으로 이루어졌다.

문장의 구성재료란 전일적인 문장구조와는 관계없이 문장구성이전에 이미 주어진 소재로서 문장의 《건축》재료로 되는 단위이다. 조선어에서 문장의 구성재료는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이다.

○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온 조선혁명의 길우에서 이룩된 모든 변혁들과 빛나는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드는 병실안은 훈훈하였다.

(**붙임**) —은 구성성분(문장성분)을 표시하며 —은 구성재료(단어 또는 단어결합)를 표시한다. ═══는 구성성분과 구성재료가 일치하는 경우로 된다.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들은 다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을 이루지만 그것들은 서로 질서를 달리하는 단위들이다.

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나눈 상관적단위라면 구성재료(단어 또는 단어결합)는 개별적인 상관관계에서 나눈 상관적단위이다.

문장구조를 파악하는데서는 언제나 분석과 종합의 과정이 있게 되며 종합된것을 다시 분석하는 작업이 따른다. 바로 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이 종합→분석의 질서에 놓이는 단위이라면 구성재료(단어 또는 단어결합)는 분석→종합의 질서에 놓이는 단위이다. 문장의 구성성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재료로 이루어지나 문장의 구성재료는 오직 하나의 구성성분의 재료로만 된다.

이와 같이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는 그 한계와 질서에서 서로 다르지마는 다 하나의 문장구조를 이루는 문장론적단위이다. 이 관계를 건축물(집)에 비교하면 하나의 건물전체는 전일적인 문장구조로 되며 지붕, 방, 현관, 굴뚝과 같은 부분은 문장의 구성성분으로 되며 벽돌, 블로크, 타이르, 목재, 기와 등과 같은 소재는 문장의 구성재료로 된다.

조선어에서 문장성분은 하나의 단어 또는 일련의 단어결합체로 이루어지며 단어결합체는 문장의 직접적구성재료로도 되고 간접적구성재료로도 된다.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가 직접적구성재료로 되는 경우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결합체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간접적구성재료로 되는 경우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가 낮은 질서에서 문장성분의 구성요소로 되는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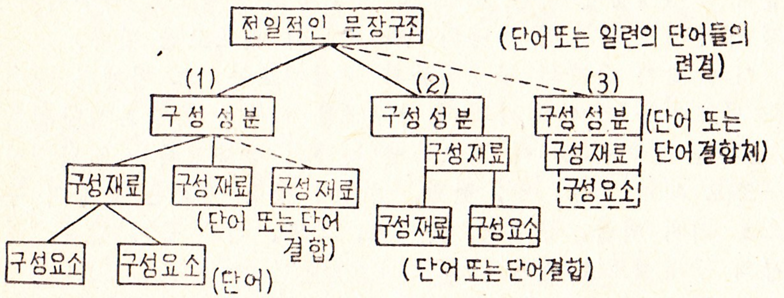
① ⎡—봄날이였다. (단어—직접적구성재료)
⎣—화창한 봄날이였다. (단어결합체—직접적구성재료)

② —화창한 4월의 봄날.(단어—간접적구성재료)
—4월의 분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단어결합체—간접적구성재료)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는 일치할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례①은 일치하는 경우이고 례②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조선어에서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적성격을 띠면서 문장의 구성단위를 이루게 된다. 즉 하나의 구성성분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재료로 이루어지며 이 낮은 단계에 있는 구성재료는 그것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단계에서 단어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구성성분으로도 되며 그보다 낮은 모든 단계의 구성요소로도 된다. 단어가 가장 높은 단계의 구성성분으로 되는 경우는 하나의 단어로 된 문장이며 단어가 가장 낮은 모든 단계의 구성요소로 되는 경우는 단어결합체안에 들어있는 단어이다.

이 관계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붙임) 도표의 (1)은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들이 정연한 단계적 질서에 놓인 경우이고 (2)는 구성성분과 구성재료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되 구성재료는 또다시 자체안에 두개이상의 구성요소들을 가진 경우이며 (3)은 구성성분, 구성재료, 구성요소들이 일치하고있는 하나의 단어 또는 공고한 단어결합으로 된 문장의 경우이다. 그리고 전일적인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할 때는 그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구성성분, 구성재료)들도 문장의 구성요소로 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구성성분, 구성재료, 구성요소는 일치할수는 있으나 어쨌든 서로 다른 질서의것이다.

문장을 분석하는데서는 먼저 그 구성성분을 갈라낼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전일적인 구조적단위인 구성성분의 단위와 기능을 잘 알아야 문장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수 있게 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문장론에서는 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을 가르고 그 기능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문장의 구성성분을 가르고 그 기능을 확정하는 작업을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라 한다.

문장을 짜고 문장내용을 리해하는데서는 또한 그 구성재료도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은 문장의 구성재료를 아는것이 단순히 그 재료를 알아내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문장구조를 이루는 개별적인 단위들의 상관관계까지 알아냄으로써 문장의 구체적인 뜻을 잘 파악하기 위한것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문장론에서는 문장의 구성재료들을 가르고 그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살피게 된다. 두개이상의 단어결합체로 된 문장의 구성요소들을 가르고 그 기능을 확정하는 작업을 단어결합의 성분화라 할수 있다.

문장의 성분화와 단어결합의 성분화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에 대한 보다 깊은 리해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2. 문장의 구성성분

조선어에서 문장의 구성성분은 곧 문장성분이다. 문장성분은 전일적인 구조를 갖춘 문장을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나눈 의미-기능적단위이다. 문장성분은 언제나 전체적인 각도에서 전일적인 문장을 놓고 몇개의 기능적단위로 나눌 때 생긴다.

○ 우리 나라에는(보어)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는(규정어) 충성심에 대한(규정어) 미담도(주어) 많고(술어) 일화도(주어) 많다.(술어)

○ 혁명의(규정어) 길은(주어) 영광에 찬(규정어) 길이다.(술어)

문장의 성분화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문장성분의 한계성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하나의 단어로 된 문장에서부터

여러개의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들로 이루어진 문장에 이르기까지 문장성분의 구획을 어떻게 지으며 그 기능을 무엇으로 규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두 극단에 선 두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 하나는 문장안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모든 자립적단어들을 문장성분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장성분화가 진행된다.

○ 우리(규정어) 나라에는(보어) 사람들의(규정어) 가슴을(보어) 후덥게(상황어) 하는(규정어) 충성심에 대한(규정어) 미담도(주어) 많고(술어) 일화도(주어) 많다.(술어)

이 견해와 류사한것으로서 비자립적인 단어들까지 문장성분으로 보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대답할바를 몰랐다.》나 《입을것을 가져오너라》와 같은 구조에서 불완전명사 《바》, 《것》도 문장성분으로 된다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를 동일시한데서 나왔다. 즉 전일적인 구조에서의 문장론적단위의 기능을 외면하면서 오직 《의존어+주도어》의 상관관계만을 고찰한것이다. 이것은 전일적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문장성분화의 사명에 어긋나는 고찰이며 현실적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주장은 전체 문장구조에서 1차적으로 상관관계를 맺는 단위만을 문장성분으로 인정하려는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혁명의 길은 영광에 찬 길이다.》에서는 두개의 문장성분이, 《영남의 아버지는 일요일이나 쉬는 날에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군합니다.》에서는 4개의 문장성분이 구획될따름이다.

이 견해는 문장에 있는 각종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들과 구조적요소들의 상관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페단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라기보다 의미-론리적성분화나 어음-의미적성분화(통합)의 편에 기울어지게 된다. 규정어라는 성분이나 확대된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진 성분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반드시 조선어의 특성에 맞는 분석태도는 아닌것이다.

두 극단의 견해밖에도 문장성분을 형태-의미적 또는 순수 론리적립장에서 가르고 《주성분》, 《부성분》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며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을 지나치게 많이 설정하는 등의 주장들도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의 제한성은 문장성분이 문법적성분화의 결과 얻어진것이며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상관하는 단위들의 기능을 일반화한것이라는데 눈을 돌리지 않은데서 나왔다. 문법적성분화의 견지에 튼튼히 서서 조선어의 문장구조를 분석한다면 그 단위는 더 정밀하게 설정되여야 한다.(자세한것은 3장 1절에서 서술된다.)

조선어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들의 문장론적기능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는것은 조선어문장의 민족적특성에 대한 해명과 문장내용의 정확한 리해를 위하여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구성성분들의 단위를 어떻게 잡는가에는 관계없이 많은 경우에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의 《5성분설》에 매여 달렸으며 일부 《비상관성분》과 《특수성분》을 인정해왔다.

조선어문장에서 구성성분들이 확대되여나갈 때 단계적성격을 가진다는 특성과 문장성분들사이의 의미-기능적 및 구조-문법적 특성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충분히 고려한다면 기존 성분화의 《전통》을 벗어나 조선어적인 문법적성분화를 실현하며 문장성분의 기능도 조선어답게 확정할수 있을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도 3장에서 전개한다.)

조선어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들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주체적립장에서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를 진행하는것은 리론문장론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3. 문장의 구성재료

조선어에서 문장의 구성재료로 되는것은 문장안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나 단어들의 결합체이다. 달리 말하면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모든 단어이다. 그것들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속에서 노는 문장론적기능에는 관계없이 개별적단위들끼리의 상관관계만을 가지는 요소들이다.

단어들의 개별적인 상관관계는 때로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일

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고 문장성분보다 다른 질서에 놓인다.

○ 조선혁명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①(문장성분과 단어가 일치하는 경우)

○ 화창한 봄빛이 짙어가는 만경대는 참관자들로 가득찼었다. ②

(문장성분의 관계와 단어결합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에서 례로 든 《화창한 봄빛이 짙어가는》은 단어결합체이며 그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문장성분의 그것과 다른 질서의것이다. 즉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건축재료》의 견지에서 구획된 단위들의 상관관계이다. 이 결합체안에서의 단어들의 상관관계는 단지 개별적인 《의존어+주도어》의 상관관계이며 전일적인 문장구성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 언어요소들의 결합인것이다. 이와 같이 문장의 구성재료로서의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는 개별적상관관계만을 가지는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이다.

여기서 단어결합체의 한계성문제가 나선다. 즉 두개 또는 그이상의 단어들의 련결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결합의 질서는 어떻게 가르며 그 한계는 어느 단계에까지로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이것이 해결되면 문장성분과 단어결합의 성분과의 한계가 뚜렷이 그어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법학계에는 일정한 론의들이 있었다.

어떤 문법적견해들은 《의존어+주도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자립적단어들의 결합만을 단어결합의 질서로 보고 접속, 병립, 련접의 방법으로 련결되는 모든 단위는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지 않았다.

다른 문법적견해들은 《의존어+주도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자립적단어들의 문법적련결체뿐아니라 접속, 병립, 련접의 방식으로 련결된 모든 상관적단위들을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었다.

이러한 두 극단의 견해들에서도 《주자+풀이》(또는 《주어+술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단위들을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데서는 한결같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예 단어결합의 질서에서 빼고 문장성분 또는 《문장의 구조적중심》의 질서로만 다루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주자적단어결합》 또는 《진술적단어결합》이라는 《특수한》 단어결합체로 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진술구조》 또는 《진술적단위》라는 《절충적》단위로 보려고도 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리해하는 견해들은 조선어에서 《의존어+주도어》의 관계를 가지는 모든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단어들의 결합으로 보면서 여기에 《자립적단어+자립적단어》의 구조뿐아니라 《자립적단어+비자립적단어》로 된 구조까지 넣었다. 이 견해는 단어들의 결합을 단어들의 련결과 동일시한것으로 된다.

이밖에도 모든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곧 단어결합으로 보면서 단어결합의 상관관계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를 동일시하는 견해, 어음-의미적으로 구획되는 단위만을 문장의 구성단위로 보면서 단어결합의 질서와 문장성분관계를 다 부인하고 어음-의미적으로 구획되는 단위 즉 《통합관계의 단위》만을 문장의 구성재료로 다루는 견해 등도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어쨌든 조선어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한 제약성을 가지고있다. 즉 조선어문장구조의 구성재료들의 문법적련계의 특성과 그를 실현시켜주는 문법적 수단과 수법에 대한 전면적고찰이 부족한데서 나온 제약성이다.

조선어문장구조의 구성재료들은 문법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단어들의 형태-구조적특성, 억양의 요소들의 표현형태, 문장안에서 단어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그 한계성과 류형을 정확히 갈라낼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2장에서 한다.)

이러한 립장에서 출발하여 문장의 구조적단위를 고찰할 때 조선어문장구조의 구성재료들인 단어결합은 다음과 같이 구획된다.

○ 우리 나라에는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는 충성심에 대한 ① ② ③

미담도 많고 일화도 많다.
④ ⑤

(붙임) —는 단어결합체의 표시이고 ～～는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의 표시이다. ①, ②, ③은 문장성분과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④, ⑤는 문장성분과 단어결합의 요소인 단어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들 5개의 단어결합체들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는》에서의 《사람들의 가슴을》과 《후덥게 하는》을 어떤 단위로 보며 그안에 각각 들어가는 단어들을 무엇이라 할것인가?

조선어문장구조의 구성재료들의 상관관계가 단계적성격을 띤다는 특성으로부터 《사람들의 가슴을》과 《후덥게 하는》은 전일적인 단어결합체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는》의 구성요소로, 즉 2차적단계의 《단어결합체》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2차적단계의 《단어결합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많은 경우에 단어로 이루어짐)들은 3차적단계의 질서, 즉 단어결합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할것이다. 그것은 단어결합체가 본질에 있어서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보다 한단계 낮은 질서의것이고 단어결합의 구성요소는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질서의것이라는 특성과 관련된다.

조선어문장의 구성재료(단어결합)들의 문장론적기능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는것은 조선어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문장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조선어의 단어결합상 특성을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문장의 구성재료를 이루는 요소의 상관관계를 단순히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비슷한것으로만 보던 나머지 《주자적결합》(례:아버지가 사온 책), 《속성적결합》(례:아버지의 책을), 《관련적결합》(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상적결합》(례:책을 읽는 학생) 등의 류형을 설정하고 그 의존어의 기능을 《주어》, 《규정어》, 《상황어》, 《보어》 등의 구실을 노는것이라고들 하였다. 이러한 구분방법에서 불합리를 느낀 견해들은 이번에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을 《귀착어+통솔어》의 관계에서만 고찰하기도 하고 (례:책을 읽는 학생) 《설명어+피설명어》의 관계에서만 고찰하기도 하였다. (례: 책을 읽는 학생).

조선어문장에서 구성재료들의 배렬상특성, 그 의미-기능적상관성, 구성요소들의 구조-문법적특성 등을 주체적립장에서 고찰한다면 문장의 구성재료들의 기능은 조선어답게 확정할수 있을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도 2장에서 한다.)

조선어문장의 구성재료의 특성과 그 구성요소들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주체적립장에서 그 류형과 기능을 확정하는것은 리론문장론건설의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된다.

제4절. 문장분류에서 나서는 기본문제

문장분류에 관한 문제는 조선어문장에 작용하는 여러 특성을 더욱 똑바로 파악케 하며 경우에 맞게 언어교제를 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문장분류에 관한 과학적해명은 문장리론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장분류는 언어교제의 성격과 환경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된다. 즉 언어교제의 다양성은 문장류형의 다양성을 조건지어주며 이로부터 문장분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선다.

문장분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때에만 언어행위의 여러 성격과 다양한 언어교제의 모습을 옳게 파악할수 있다.

문장분류를 잘하자면 분류기준을 옳게 세운데 기초하여 문장의 내용적측면과 형식적측면을 과학성있게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장분류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문장분류를 위한 과학적기준을 세우는것과 문장의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1. 문장분류의 기준

우리 말 문장구조에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옳게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의 여러 갈래를 나누는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태도이다.

문장형식의 다양성이라 할 때 그것은 주로 문장구조에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의 다양성이며 여기로부터 그 민족어에만 알맞는 문장류형이 갈라져나오는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장의 류형을 옳게 가르자면 문장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 방향에서 그 류형화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만풍년의 가을이였다. ①

○ 산천도 달라지고 사람들도 달라졌다. ②

례①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문장은 다른 나라 말에서는 달리 표현되며 례②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문장도 다른 나라 말에서는 다른 구조로 조직될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문장을 서로 다른 형식

과 서로 다른 구조로 나타내는 여기에 민족적특성이 있다. 이리하여 조선어에서는 례①과 같은 《단어결합체문장》(또는 《단독성분문장》, 또는 《무주어문》)이라는 독특한 문장류형이 있게 되며 례②와 같은 동일한 술어의 중복으로 되는 접속복합문의 류형이 구분되게 된다.

문장의 민족적특성은 특수한 문장류형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다른 나라 말과 같을수 있는 문장도 그 구조-문법적특성에서는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 풍년가을을 앞당기자！①

○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과 다르다. ②

문장성분들의 상관관계, 단어들의 수효,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말도 례 ①, ②의 그것과 같을수 있다. 그러나 단어들의 형태(특히 진술형), 어순배렬, 문장구조적요소들의 의존방식, 한마디로 말하여 문장의 구조-문법적특성에 있어서는 례①, ②의 그것과 같을수 없다. 즉 례 ①, ②의 구조-문법적특성은 조선어문장에만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나타낸다. 이리하여 조선어에서는 《권유문》이나 《단일문》으로 되는것이 다른 나라 말에서는 《1인칭명령문》이나 《종속복합문》으로 될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의 민족적특성은 문장의 특수한 류형의 존재 또는 동일한 류형의 서로 다른 구조-문법적특성에서 나타난다.

문장류형을 민족성원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자면 바로 이와 같은 문장의 민족적특성에 눈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문장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반영한 문장분류만이 주체가 선 문장류형화인것이다.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도록 하는것은 문장류형화를 과학성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2. 내용과 형식의 통일에서 본 문장류형

모든 문장은 내용적측면과 형식적측면을 가진다. 이로부터 모든 문장을 내용상 측면과 형식상 측면으로부터 보고 크게 두 류형으로 나눌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

문장의 내용상 측면이란 문장이 담고있는 뜻이며 진술내용이다. 문장의 내용상 측면은 진술의 목적과 성격 및 방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문장의 형식상 측면이란 문장이 갖춘 형식-구조이다. 문장의 형식상 측면은 문장을 이루는 구조적요소들과 진술성표현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내용상 측면에서 나눈 문장의 류형은 의미적류형이며 형식상 측면에서 나눈 문장의 류형은 형식-구조적류형이다. 이리하여 모든 문장은 우선 의미적류형과 형식-구조적류형의 하나에 속한다.

○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들의 보람찬 삶과 행복,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터전이다. ①

○ 채찍소리가 울리자 마차는 더 재게 땅을 구른다. ②

례 ①, ②는 내용상 측면으로 볼 때 긍정문, 알림문이며 보통 전달문이다. 그러나 례 ①, ②는 형식상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문장은 확대단일문이며 둘째 문장은 단순복합문이다. 이 례문들은 다 내용상 류형에도 속하며 형식상 류형에도 속하면서 각각 자기의 특색을 나타내고있다. 모든 문장은 이와 같이 일단은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일정한 류형에 속하게 된다.

문장이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 일정한 류형에 속한다는것은 보편성의 측면이며 그 2대류형안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을 띤다는것은 특수성의 측면이다. 리론문장론에서는 바로 문장류형이 가지는 이 보편성의 측면과 특수성의 측면을 통일시켜 고찰하게 되며 특히는 문장류형이 가지는 특수성의 측면에 더 눈을 돌리게 된다. 왜냐하면 문장류형의 특수성이야말로 문장의 민족적특성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분야이기때문이다.

구체적인 문장분류에서는 문장류형별로 내용상 측면(의미적측면)과 형식적측면(형식-구조적측면)을 동시에 분석하여 일반화할수도 있고 따로 의미적측면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형식-구조적측면에서 갈라볼수도 있다. 앞의 경우에는 문장분류상 두 측면(의미적측면과 형식-구조적측면)의 교차현상이 없지만 뒤의 경우에는 두 측면(의미적측면과 형식-구조적측면)의 교차현상이 생긴다. 례컨대, 의미적측면에서 알림문이라고 본것을 다시 형식-구조적측면에서 단순문, 단일문, 확대문, 복합문 등으로 나눌수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문법적견해들은 문장분류에서 뒤의 방법을 취했거나 어느 한 측면에 치우쳐 보는 방법을 취하였다. 례컨대,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분류》와 《구조적특성에 따르는 분류》, 《이

야기의 목적에 따르는 분류》와 《짜임의 특성에 따르는 분류》, 《말하는 목적과 내용에 따르는 분류》와 《문장의 구조와 형식에 따르는 분류》를 대응시켰거나 《단일문》과 복합문, 《확대문》과 단순문, 《전개문》과 《비전개문》, 《짝구성문》(또는 두 구성문)과 《외구성문》(또는 일부구성문), 《완전문》과 《불완전문》 등을 대립시켰으며 그리고 《단어문장》, 《무주어문》, 《중단문》을 일면적으로 설정한것 등이 그것이다.

일부 문법책들에 반영된 견해들은 문장분류의 내적측면과 외적측면을 리해하는데서도 한결같지 않으며 특히 《기능적류형》과 《구조적류형》의 일부를 리해하는데서도 일정한 혼선까지 이루어놓았다는것을 엿볼수 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반영된것이 《감탄문》에 대한 각이한 리해이며 《불완전문》과 《중립문》, 《계칭에 따르는 문장》류형을 《구조적류형》에 인위적으로 소속시킨 분류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4장에서 하기로 한다.)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선어문장분류를 위하여 선행한 분류방법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

선행한 분류방법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문장을 《기능적분류》와 《구조적분류》의 테두리에 넣고 더 작은 갈래를 설정한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기능적분류》와 《구조적분류》에 관한 선행리론을 분석평가하는것은 보다 합리적인 분류를 위한 전제로도 될것이다.

1) 문장의 기능적분류와 관련된 문제

지난 시기의 많은 문법적견해들은 내용상 측면에서 나누는 문장분류를 기능적분류라는 이름밑에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이 분류에서는 내용상 측면에서 본 문장류형을 다 포괄시키지도 않았으며 지어는 내용상 측면에 속하지 않는 류형까지를 이 류형에 넣는 일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난 시기의 적지 않은 문법적견해들은 기능적분류를 엄밀한 과학적타산밑에 하지 못하였다.

(**붙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장의 내용적분류가 곧 기능적분류로 되거나 기능적분류와 내용적분류가 똑같은 개념인것은 아니다. 문법적기능이란 상관관계속에서 얻어지는 기능이고 그것은 상관단위들의 의미에 기초하여

파악되는만큼 크게는 기능적분류도 의미-내용적분류에 속하는것만은 사실이나 완전히 같은것은 아니다. 의미-내용적분류는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기능적분류도 포함한 보다 큰 분류이다.

그러나 내용상 분류에 포괄되는 모든 작은 갈래의 문장류형을 기능적분류에서 다 다룬다면 《기능적분류》라는 용어를 《형식-구조적분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쓸수는 있을것이다.

문장의 기능적분류를 엄밀한 과학적타산밑에 하지 못한 지난 시기의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일정한 혼선까지 이루어놓았다. 그리하여 《전달의 목적에 따르는 분류》와 《전달의 성격에 따르는 분류》만을 기능적분류의 테두리안에 넣거나 《언어행위의 주자와 객자와의 례의적관계》를 나타내는 문장류형까지 설정하였다. 례컨대, 《전달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위치를 외면하였거나 느낌문을 알림문, 물음문과 같은 계렬에 놓은것이라든지 《존경의 문장》과 《비존경의 문장》의 대응을 기계적으로 설정한것 등은 기능적분류의 불철저성을 말하여준다. 이렇게 되면 느낌문의 고유한 위치가 무시되며 사실상 기능적류형이 아닌 《존대의 문장》, 《해요의 문장》, 《하오의 문장》, 《하게의 문장》, 《해라의 문장》 및 《반말의 문장》 같은 비문장론적현상까지 나오게 된다.

또 다른 문법책들에서는 기능적분류라는 이름밑에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느낌문이 설정되고 한가지 계렬에 망라되였다. 느낌문을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과 같은 질서의것으로 보는것은 잘된것이 못된다. 이렇게 되면 문장의 내적측면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기능적분류의 불철저성이 로출된다.

그밖에도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기능적분류에 내적측면에서 본 모든 문장류형을 포괄시키려고 하면서도 조선어문장의 모든 류형들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한 약점을 남기였다.

문장을 그 내적측면에서 볼 때 조선어문장은 더 다양하게, 더 정밀하게 구분된다. 조선어문장의 기능적류형을 더욱 과학적으로 가르자면 그 다양하고 정밀하게 구분되는 문장류형들의 기능-문법적특성에 더 예리한 눈초리를 돌려 문장분류를 더 정밀화하여야 한다. 례컨대, 《진술의 목적》, 《진술의 성격》뿐아니라 《진술의 방식》에 따라서도 문장을 나누며 양태적관계의 특성, 전달방법의 특성등에 따라 더 세밀한 문장류형을 나누어야 할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4장에서 한다.)

기능적분류를 위주로 하는 문장의 내용상 분류의 과학성과 전일성이 보장될 때 조선어문장분류에서의 온갖 편견은 없어진것이다.

2) 문장의 구조적분류와 관련된 문제

지난 시기의 거의 모든 문법적견해들은 문장의 외적측면, 형식적측면에 따르는 분류를 구조적분류라고 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형식상 측면에서 본 문장류형을 다 가르지 않았거나 지어 형식상 류형에 속하지 않는것들까지 인위적으로 구조적분류의 대상으로 잡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난 시기의 구조적분류에서는 미해결문제가 많고 불철저한 점이 많다.

(붙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장의 형식적분류가 곧 구조적분류이거나 구조적분류와 형식적분류가 똑같은 개념인것은 아니다. 언어에서 구조는 여러 질서로 된 요소들의 통일체를 말하며 문법구조는 문법적 수단과 수법의 총체로 구현되며 문장론적구조는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총체인것만큼 구조적분류도 크게는 형식적분류에 속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적분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다만 문장의 형식상 분류의 대상으로 되는 모든 류형을 포괄시킨다면 《구조적분류》라는 용어를 《형식적분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도 쓸수는 있을것이다.

문장의 구조적분류에서 미해결문제를 많이 남기고 불철저성을 드러낸 지난 시기의 적지 않은 문법적견해들은 문장분류에서 문장의 형태-구조적측면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하였으며 문장류형의 인위적인 대립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어의 문장구조의 특성에 맞지도 않는 류형들까지 설정하였다. 례컨대, 복합문의 접속수단의 특성과 구조적대응의 특성으로 보아 조선어복합문의 고유한 구조-문법적특성에 맞지도 않는 종속복합문, 병렬복합문, 《주문》, 《부문》 등의 설정, 《완전문》과 《불완전문》의 인위적인 대립, 주어의 필수적존재를 전제로 하는 《짝구성문》과 《외구성문》의 기계적인 대립, 그리고 《문장성분을 갈라낼수 없는 문장》인 《단어문장》 등의 설정은 지난 시기 구조적분류의 비과학성을 보여준다.

문장을 그 형식적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어문장은 매우 다양하고 정밀한 류형들로 구분된다. 구조적분류도 포함한 조선어문장의 형식-구조적분류를 더 과학성있게 체계화하자면 그 다양하고 정밀한

류형들의 구조-문법적특성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 문장분류를 더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례컨대, 접속복합문, 병립복합문, 련접복합문 등에 포괄되는 수많은 작은 갈래의 구조-문법적류형의 문장, 단독성분으로 이루어진 여러 류형의 문장, 확대단일문의 변종으로 된 문장 등 조선어적인 문장류형을 새로 설정하는것이 옳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4장에서 한다.)

구조적분류를 위주로 하는 문장의 형식상 분류의 주체성과 과학성이 보장될 때 조선어문장분류에서의 온갖 미해결문제와 불철저성이 극복될것이다.

조선어문장분류에서는 이밖에도 기능-구조적분류(내용-형식상 분류)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을 가진 조선어문장들가운데는 완전히 내용적인것으로도 되지 못하고 완전히 형식적인것으로도 되지 못하는 분류가 생긴다. 이러한 《절충적》류형의 문장이 있게 된다는 사실자체가 문장류형에서의 고유한 특성으로 되는것이다.

○ 창조로 들끓는 나의 조국. ①

○ 《최우등이나?》

《예.》 ②

례①은 확대구조의 단어결합체로 된 《명명문》이고 례②는 하나의 단어(또는 그와 등가적인것)로 이루어진 《단어문장》이다. 《명명문》이라면 기능상 류형이겠는데 사실상 이 문장은 구조상 독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단어문장》이라면 구조상 류형이겠는데 사실 이 문장은 보다 기능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진다. 이러한 문장들은 《단어(또는 단어결합체)-명명문》, 《물음(또는 느낌)-단어문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용상 측면과 형식상 측면이 절충된 문장류형으로 된다.

조선어문장의 류형상 특성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 분류를 주체성있게 하는것은 리론문장론이 해결하여야 할 기본과제의 하나이다.

제2장. 단어들의 결합관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어문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문법적요구를 잘 지키지 않으면 글의 뜻이 달라지거나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똑똑히 알수 없습니다.》

글을 정확히 구성하고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똑바로 인식하려면 조선어문법을 잘 알고 문법적요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론리적으로 째인 글, 리해하기 쉬운 글은 문법에 대한 옳은 인식이 있을 때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의 구성재료인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비롯한 조선어문법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야 한다.

결합관계를 이룬 단어들은 구체적인 언어행위과정에 들어가면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재료로 된다. 이것은 언어와 언어행위가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고 합성된 단어나 단어의 결합이 언어행위의 단위인 문장속에서만 자기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많은 경우에 결합관계를 이룬 단어들의 문법적련결로 이루어진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에 맞게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사리 안겨질 때 언어행위는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언어행위가 순탄하고 진술내용이 쉽게 파악된다는것은 그만큼 언어교제가 원만히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언어교제의 기본수단인 문장은 보통 여러 단어들이 결합되여 이루어진다.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잘 고려되여있고 결합관계를 이룬 언어적요소들이 제자리를 알맞게 차지하게 되면 잘 짜인 문장이 이루어지고 잘 짜인 문장은 언어교제를 원만히 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고 그것을 쓸모있게 활용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는것은 문

장론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조선어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리론적으로 밝힘으로써 문장리론의 과학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한다.

제1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과 기본류형

지금까지 많은 문법적견해들은 주로 《자립적단어+자립적단어》로 된 단어들의 종속적련결만을 《단어결합》의 고찰대상으로 잡았다. (례: 아름다운 꽃, 책을 읽는다, 매우 기쁘다)

다른 많은 견해들은 또한 어휘론적단위로서의 《단어결합》, 《자립적단어+자립적단어》의 병렬적구조, 《자립적단어+보조적단어》의 구조로 된 단어들의 문법적련결까지를 《단어들의 결합》이라는 이름밑에 문장론적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례: 인민군대, 책과 연필을, 세계에 대한, 먹어버리다 등). 그리하여 문법에서는 흔히 《단어결합》과 《단어들의 결합》을 구분하여 써왔다. 즉 《단어결합》은 자립적단어들이 서로 의존관계에만 놓인 《종속적》맞물림이며 《단어들의 결합》은 《단어결합》외에도 자립적단어와 보조어가 서로 밀접히 맞물리거나 자립어와 자립어가 《종속적 및 병렬적》으로 련결되는 모든 결합관계들이다. 말하자면 《단어결합》은 주로 자립적단어들의 《종속적결합》만을 의미하였고 《단어들의 결합》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문장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포괄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문법연구가들은 《단어결합》과 《단어들의 결합》의 류형을 설정하는데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결합되는 단어들의 의미-론리적련계를 위주로 하여 《종속적결합》(례: 집을 짓다. 나의 집)과 《병렬적결합》(례: 책과 연필, 먹고 입고 쓰고사는)으로 나누는가 하면 결합되는 단어들의 문법적인 련결방법에 따라 그 류형을 크게 《결합》과 《접속》으로 나누고 다시 《종속적접속》, 《병렬적접속》의 갈래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례: 걸으면서 읽는다, 책과 연필을)

문장에서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련결되는 수법을 더 넓게 잡아 《맞물림법》(결합), 《이음법》(접속), 《잇댐법》(관련)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그리하여 《산에는 기름나무와 사과나무가 우거지고 열매를 맺었다.》에서 《산에는 … 우거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맞물림법》으로, 《기름나무와 사과나무》, 《우거지고 … 맺었다》는 《이음법》으로 된 문법적련결이라 인정하였으며 《아, 고마워라, 조국이여!》, 《듣건대, 최우등생이래!》에서 《아》와 《고마워라》, 《듣건대》와 《최우등생이래》 사이에는 《잇댐법》으로 된 문법적련결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 모든 견해들에는 과학적타당성과 함께 제한성도 있다. 그 제한성은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을 문법적질서 이외의 테두리에서 설명하였거나 조선어단어들의 문법적련결에 작용하는 고유한 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지 않은데 있다.

조선어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상 특성은 독특하며 매우 뚜렷하다.

조선어의 다양한 문장구조는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서로 결합되는 성격에서나 방식, 류형에서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종전의 《단어결합》, 《단어들의 결합》의 개념만으로는 그것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며 그 분류도 종전의 방식대로만 따를수 없다.

이로부터 《단어들의 결합관계》라는 보다 포괄적인 이름밑에 조선어문장안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문법적련계의 특성,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의 련결 방식과 성격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할 필연성이 나온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내용과 기본류형을 과학성있게 밝히는것은 문장의 구성재료들의 련결상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는데서 출발적전제로 된다.

〔붙임〕 여기에서는 《단어결합》, 《단어들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는 종전대로 쓰면서 그 두 개념을 다 포괄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즉 어휘론적단위로서의 공고한 《단어결합》, 어휘-문장론적단위로서의 《합성결합》, 《복합결합》, 문장론적단위로서의 《종속적결합》, 《병렬적결합》, 《부》, 《구》 등을 다 포괄한다.

○ 인민군대(공고한 단어결합)
○ 일기예보(합성결합)
○ 사회주의경제건설(복합결합)

○ 나의 일터(《종속적단어결합》)
○ 아름다운것에 대한 지향(《단어들의 결합》)
○ 혁명과 건설(단어들의 결합으로서의 《부》)
○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단어결합으로서의 《구》)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전일적인 뜻덩이를 《합성결합체》, 《복합결합체》, 《단어결합체》, 《단어들의 결합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단어결합과 단어결합체, 단어들의 결합과 단어들의 결합체가 각각 별개의것이 아니라 측면을 달리한 명명이다. 즉 단어결합체란 단어결합의 결과물이며 단어들의 결합체란 단어들의 결합의 결과물이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단어들의 결합이며 단어들의 결합체)
○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단어결합이며 단어결합체)

따라서 《단어합성》, 《단어복합》, 《부》, 《구》 등도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어결합체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이다.

1.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

단어들의 결합관계란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지는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밀접히 련결되여 묶여진 뜻덩이를 이루면서 문장의 구성재료로 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구조적특성, 련결성격 및 련결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류형들로 갈라진다.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문법적현상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합친말, 《복합어》, 《단어결합체》, 《단어들의 결합체》, 《구》 《부》 등 모든 단위를 포괄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이루는 이러한 모든 단위들은 자기에게 고유한 구조-문법적특성을 가진다.

례를 들면, 합친말 《일기예보》나 《복합어》라고 할수 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 단어결합체인 《나의 일터》, 《공장에서 온 청년》, 그리고 《단어들의 결합체》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 《아름다운것에 대한 지향》, 《구》라고 하는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 《부》인 《혁명과 건설》 등과 같은 단위들은 그 구조나 련결방식이 똑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서로 매여있으면서 독자적인 진술단위로는 되지 못하고 일정하게 묶여진 뜻덩이로서 문장구성재료로만 된다는데서는 같다. 이것들이 바로 일정

한 구조-문법적특성을 지니면서 그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을 서로 달리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문장론적단위들이다.

(붙임) 《복합어》란 이미 합친말로 된 단위에 다시 하나 또는 그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여 복잡한 하나의 뜻덩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례: 사회주의경제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표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표식은 무엇보다도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어들이 서로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지고 문법적으로 련결된다는데 있다.

이것은 합친말로부터 《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위에 다 적용되는 특성이다. 례컨대, 합친말 《일기예보》만 놓고보더라도 단어 《일기》와 《예보》가 《의존어+주도어》의 관계로 어울려 하나의 문장론적단위를 이룰수 있다. 즉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로 될수 있다.

이 합친말의 구성부분인 개개의 단어들은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진다. 이 상대적구획성으로 하여 《일기》가 따로 떨어져쓰일 가능성을 준다.

《복합어》라고 할수 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단위의 구성부분들인 4개의 단어들도 례외없이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론적단위를 이루었다. 《사회》, 《주의》, 《경제》, 《건설》이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나 《사회주의경제》, 《건설》과 같은 개별적단위들이 그것자체로서 언어행위의 구성재료로 될수 있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형태단어들로 이루어진 단어결합인 《공장에서 온 청년》의 경우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진 3개의 자립적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련결된것이다. 《일기예보》의 경우와 다른 점이란 구획성이 좀더 심하다는것이다.

우에서 례로 든 그밖의 모든 결합관계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지고있으면서 문법적으로 련결된 단위라는데서는 공통적이다.

상대적인 구획성은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단독적인 비파생적단어나 전일적인 문장과 구별해주는 기본적인 표식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표식은 다음으로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어울리여 묶여진 하나의 뜻덩이를 이룬다는데 있다.

이때의 묶여진 뜻덩이란 상대적이다. 례를 들면, 합친말인 《일기예보》는 보다 밀접히 의존되여있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된 하나의 통일적뜻덩이다. 《날씨예보》로 하면 통일성이 파괴되여 어울리지 않는 《얼루기》결합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통일적인 뜻덩이로서의 단위로 되지 못하는것이다. 이때의 《일기》와 《예보》가 《종속적으로》 결합되였다는 사실은 문법적인 맞물림관계를 의미하며 밀접한 통일체의 관계를 이루었다는것은 어휘-문법적인 상관성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결합의 공고성의 정도에 있어서 앞의것보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공장에서 온 청년》도 세 단어들이 보다 밀접하지 않는 의존관계에 놓인 통일적뜻덩이다. 이것은 통일성의 정도에서 《일기예보》보다 훨씬 밀접하지 못하다.

《당과 수령의 은덕》, 《사회주의경제건설》, 《아름다운것에 대한 지향》, 《혁명과 건설의 성과》,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 등도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어들로 하나의 통일적인 뜻덩이를 나타내여주는 단위이다. 이때의 통일적인 뜻덩이란 상대적으로 분할된 개념을 나타내는 단위들의 통일적인 결합관계의 단위이다.

통일적인 뜻덩이가 되지 못하는 그 어떤 《련결체》도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에 들어가지 못한다. 례컨대, 《아 고마워라, 조국이여!》에서의 《아》와 《고마워라》, 《듣건대, 최우등생이래!》에서의 《듣건대》와 《최우등생이래》는 하나의 뜻덩이로 되지 못할뿐아니라 그 어떤 통일적개념도 나타내지 못하므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에 들어가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뜻덩이에 묶여진다는것은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단독적인 비파생적단어나 전일적인 문장과 구별되는 중요한 표식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표식은 또한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독자적인 진술단위로 되지 못하고 문장의 《건축재료》로만 된다는데 있다.

례를 들면,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의 경우에조차 그 어떤 진술성도 없으며 따라서 독자적인 진술단위로 될수 없다. 즉 이 결합체는 진술성을 나타내는 그 어떤 언어적요소도 가지고있지 않다. 즉 형식상으로는 《주자+풀이》(또는 《주어+술어》)의 구조를 가지는듯한 이 단위에는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가 물질화되여있지 않는것이다.

우에서 례로 든 그밖의 모든 결합체에 들어간 모든 구성요소들(단어)은 단독적인 상관관계에 의하여 통일체로 되였을뿐이다. 따라서 그 결합체는 언어행위의 단위로 되지 못하며 진술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통일체는 문장안에 들어갈 때 문장의 구성재료로서 일정한 기능적단위로 될따름이다.

진술성을 가지지 못하며 오직 문장의 구성재료로만 된다는데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전일적인 문장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표식이 있다.

결국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는 그것이 합친말이나 《복합어》로 이루어지건 《자립적단어+자립적단어》, 《자립적단어+보조적단어》의 구조로 이루어지건, 그리고 이 모든 류형의 얽힘으로 이루어지건 문장을 이루는 구성재료로는 될망정 그 어떤 독자적인 진술단위로는 되지 못한다. 그것은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대상성》, 《용언성》, 《수식성》 등은 가지나 그 어떤 《진술성》도 가지지 못하기때문이다.

앞에서 례로 든 《일기예보》, 《사회주의경제건설》, 《혁명과 건설》 등은 대상성을 나타내며 《공장에서 온》, 《책을 읽다》 등은 용언성을 가지며 《아름다운것에 대한》, 《날마다 계속되게》 등은 수식성을 나타내지만 이 모든 단어결합체들은 그 어떤 진술성도, 《반진술성》도 가지지 못한다.

(**붙임**) 견해에 따라서는 《공장에서 온》,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과 같은 단어결합체가 그대로 주자 또는 객자의 행동이나 상태를 서술하고있다는데서 《서술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 그 어떤 요소적인것이라도 진술성은 없다. 서술성과 진술성은 동일한 범주가 아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들어가는 두개 또는 그이상의 단어들의 결합체는 본질에 있어서 상대적구획성과 통일성

으로 특징지어지는 문장의 구성재료이다. 단어들의 결합체가 지니는 상대적구획성으로부터 그 구성요소들이 분리되여 독자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나오며 통일성으로부터 그 구성요소들이 밀접히 련결되여 하나의 묶여진 뭇덩이로 파악될 가능성이 나온다.

단어들의 결합체가 지니는 상대적 구획성과 통일성의 특성은 그것을 문장의 다른 구조적단위와 구분하는 본질적징표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들어가는 결합체들의 이상과 같은 본질적특성을 옳게 파악하는것은 조선어문장구조의 여러 단위들을 공정하게 파악하며 그 류형화작업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밑천으로 된다.

2.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류형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조선어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는 치밀하고도 다양하다. 따라서 그 류형도 많다. 이로부터 조선어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옳은 분류원칙에 따라 더 정밀화하여야 할 요구가 필수적으로 나선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옳은 분류원칙에 따라 그것을 옳게 가르지 않으면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

이리하여 리론문장론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화를 보다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그에 대한 리론적해명을 주게 된다.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크게 잡는 경우에도 주로 구성요소들의 론리적인 련결성격에 따라서만 갈랐다. 그리하여 자립적단어의 결합에서만 《종속적단어결합》, 《병렬적단어결합》의 갈래를 설정하였다.

○ 아름다운 나라(종속적결합)

○ 먹고 입고 쓰고산다(병렬적결합)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는 또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의미-구조적측면에서 크게 단순단어결합과 전개(확대)단어결합으로 나누었다.

○ 집을 짓다 (단순단어결합)

○ 공장에서 온 청년 (전개단어결합)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의존어와 주도어가 맺는 상관관계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 《주어결합》, 《보어결합》, 《상황결합》, 《규정결합》으로 나누고 특수하게 《인용결합》 등을 설정하였다.

○ 기발이 나붓기다(주어결합)
○ 기발을 들다(보어결합)
○ 높이 들다(상황결합)
○ 붉은 기발(규정결합)
○ 간다고 말하라(인용결합)

지난 시기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류형화하는데서 나타난 본질적 약점은 일관성이 없이 때로는 구조적측면에서, 때로는 론리-의미적 측면에서, 그리고 때로는 기능적측면에서만 가른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과학적으로 갈라낼수 없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과학적으로 가르자면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치밀성과 다양성에 더 주의를 돌리며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이 반영되는 여러 측면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일관성있게 구조-문법적립장을 굳건히 지키면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선어적인 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선어에서는 자립적단어들사이의 결합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먼저 자립적단어들이 《의존어+주도어》의 구조로 련결되여있는것이다.

○ 자주성이 실현된 사회
○ 모든 민족의 자주권
○ 독립을 이룩한 인민들
○ 자주의 길로 나아간다
○ 굳게 단결된 인민의 힘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의존어+주도어》의 구조로 된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의존어의 형태는 내부적형태를, 주도어의 형태는 외적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이때의 외적형태가 그앞에 있는 의존어까지 포괄한 전일적구조의 문장론적기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 류형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단어결합으로서 《결합》의 방법으로 련결된 결합체라고 할수 있다. 단어들

이 《결합》의 방법으로 결합되는 관계를 (ㄱ× ㄴ)X로 표시할수 있다.

〔붙임〕 이때의 X는 두개이상 단위들의 종속적련결을 표시하며 ㄱ는 의존어, ㄴ는 주도어이다. X는 주도어의 외적형태로서 변화체계를 가진다. X로 표시된 외적형태가 바로 이 결합체전체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해준다는데 조선어적인 특성이 있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자립적단어들이 《병렬어+병렬어》의 구조로 련결되는것이다.

○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는 기풍
○ 낮과 밤을 모르는 투쟁
○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말
○ 꾸준하고도 인내성있게 일한다

《병렬어+병렬어》의 관계에서도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가 있다. 이때에도 내부적형태는 변화체계를 가지지 않으나 외적형태는 변화체계를 가질뿐아니라 결합체전체의 위치를 규정해준다는데 또한 조선어적인 특성이 있다. 이 류형은 단어접속으로 된 결합관계로서 《접속》의 방법으로 련결된 결합체라고 할수 있다.

단어접속으로 된 결합관계는 조선어에만 고유한 류형으로서 그 결합관계는 (ㄱ+ㄴ)X로 표시될수 있다.

〔붙임〕 단어접속으로 된 결합관계에서 《병렬어+병렬어》라고 한것은 《병렬적련결》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구조-문법적으로는 《의존어+주도어》의 관계에 있다고 볼수도 있다. 다만 첫 류형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병렬어》라는 조건적인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ㄱ+ㄴ)X관계에서는 《접속》의 방법을 +로 표시하고 뒤단어(주도어)의 형태를 X로 표시하였다. 언어행위속에서는 이 X만이 변화체계를 가진다. 이 류형의 결합관계에서 ㄱ, ㄴ는 다 병렬어이다. 이 결합류형은 《병렬》도 아니고 《병립》도 아닌 바로 《접속》의 방법으로 결합된 조선어고유의 현상이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또한 자립적단어들이 《병립어+병립어》의 구조로 련결되는것이다.

○ 전당, 전군, 전민이 학습한다.
○ 순간의 침체도 답보도 허용하지 말자.
○ 공장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타오르는 속도전의 불길
○ 더욱 아름답게, 더욱 쓸모있게 가꾸어지는 모습

《병립어+병립어》의 관계에서는 내부적형태, 외적형태가 따로 표면화되는것이 아니라 동일한 형태단어, 동일한 억양의 요소의 《병립》이 있을따름이다. 이 류형에서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은 구조-억양상으로 구획성과 전일성의 통일로써 표시되는것이 특징적이다.

이 류형은 단어병립으로 된 결합관계로서 《병립》의 방법으로 련결된 결합체라고 할수 있다.

이 류형은 조선어에만 고유한것은 아니나 억양의 요소들과 형태의 표면화정도에서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단어병립도 조선어에서 많이 활용되는 류형의 하나로 된다. 《병립》의 방법으로 된 결합관계를 ㄱX·ㄴX·ㄷX…로 표시할수 있다.

(붙임) 단어병립에서 《병립어+병립어》라고 한것도 조건적이다. 단어 《병렬》보다는 더 《병렬적》인것을 《병립》이라고 한것은 조선어적인 특성을 고려한것과 관련된다. 즉 억양상구획성이 보다 뚜렷하고 마지막단어의 형태에는 결합체전체를 통솔하는 형태가 교착될수도 있다는 점을 념두에 두었다 (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 공장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더욱 쓸모있게만). 그리고 ㄱX·ㄴX·ㄷX…의 관계에서 《병립》의 방법을 《·》로 표시하고 각기 단어들의 형태를 X로 표시하였다. 이때의 ㄱ, ㄴ, ㄷ는 병립어를 나타내며 X는 병립어의 형태(또는 《잠재적형태》)를 나타낸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독특한 류형으로서는 또한 《제시+확인》의 구조를 가지고 앞단어를 되받아 강조하거나 묶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어들의 일정한 련결을 지어주는것들을 들수 있다.

○ 당, 이는 우리의 심장.
○ 우리모두가 혁신자.
○ 학생 셋이 모여서 …
○ 무우, 배추, 오이, 호박 등 남새류

《제시+확인》의 관계에서는 련결하는 두 축이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것이 특징적이다.

뒤에 위치하는 단어가 주로 형태변화체계를 가진다는것이 조선어적인 특성이다. 이 류형은 단어련접의 방법으로 된 단어들의 결합관계로서 《련접》의 방법으로 련결된 결합체라고 할수 있다. 《련접》의 방법으로 된 결합관계를 ㄱ←→ㄴ←→ㄷX로 표시할수 있다.

(붙임) 《련접》현상을 달리 리해하는 견해도 있다. 즉 《아, 고마워라》에서의 《련결》을 《련접》현상으로 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아, 고마워라》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며 또 고유한 의미에서의 《련접》도 적용되지 못한다. 련접이라는것은 련결은 련결이되 의존관계가 보다 적고 위치상 련접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ㄱ←→ㄴ←→ㄷ…관계에서는 《련접》의 방법을 ←→로 표시하고 뒤단어(결속말)의 형태를 X로 표시하였다. 이 단어결합류형에서 뒤단어(결속말)의 형태 X는 필수적인것이 아니며 《잠재적형태》로도 된다. 앞단어에도 형태가 표시될수 있으나 그것도 《잠재적》성격을 띤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에서 자립적단어들의 결합관계는 결국 《결합》, 《접속》, 《병립》, 《련접》의 네가지 류형으로 나뉘여진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이 네가지 류형의 구조들을 묶어서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결합류형: (ㄱ×ㄴ)X(례: 모든 민족, 독립을 이룩한)
△ 접속류형: (ㄱ+ㄴ)X(례: 나라와 민족, 아름답고 풍부한…)
△ 병립류형: ㄱ·ㄴ·ㄷX(례: 자주, 자립, 자위의; 공장에서, 농촌에서…)
△ 련접류형: ㄱ←→ㄴ←→ㄷX(례: 우리 모두, 학생 셋이…)

구체적인 언어행위에서는 《결합》, 《접속》, 《병립》, 《련접》의 결합관계가 얽혀져나타날수 있다.

○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말의 문장구조(접속과 결합의 얽힘)
○ 더욱 아름답게, 더욱 문화적으로 꾸려지는 우리의 생활(병립과 결합의 얽힘)
○ 환희; 우리 행복, 우리 기쁨(련접과 결합과 병립의 얽힘)

이것은 단어들의 합성적결합관계라고 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선어적인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간직된다.

다음으로 조선어에서는 《자립적단어+보조적단어》의 결합관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
○ 오는족족 안내한다.
○ 보는바와 같이 건강하다.
○ 물약을 먹어본다.
○ 붉은것과 흰것을 분간한다.

○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눕지 않는다.

○ 비오는바람에 무성한다.

○ 알고도 남는 일이다.

조선어에서 《자립적단어+보조적단어》의 구조는 그 상관관계가 좀 복잡성을 가지고있으나 거기에도 합법칙성이 작용한다.

자립어와 보조어의 상관에서 의미-기능상으로는 후자가 전자의 의미를 보충하는것 같지만 구조-문법적으로는 후자가 전자를 통솔하며 지배한다. 즉 자립어의 문법적형태는 보조어에 귀속되기 위한 기능을 놀며 결합체전체의 문법적의미, 문법적기능은 보조어가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 결합체가 반드시 제3의 결합요소를 요구한다는것도 구조적특성이다.

《자립어+보조어》의 결합체에서 보조어의 의미와 형태가 어울려서 결합체전체의 문장론적기능을 확정한다는것도 조선어에 고유한 특성이다. 《자립적단어+보조어》의 구조에서 자립적단어형태가 대개는 고정되여있고 보조어의 형태는 화석화되거나 고정된 변화형태를 가진다. 즉 《결합》의 방법으로 련결된 결합체로 되는것이 기본이며 《접속》으로 련결될 가능성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결합체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확대될수 있다는데서 그밖의 방법으로 련결되는 합성적결합관계로도 나타날수 있다.

○ 붉은것과 흰것과를(결합과 접속의 합성)

○ 보는바그대로 말하다.(결합과 련접과 결합의 합성)

〔붙임〕《자립적단어+보조적단어》의 결합관계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단어결합은 아니다. 그러나 단어들의 결합관계라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단어들의 련결의 한 류형으로는 되는것만큼 여기서 다루었다. 문장의 구성재료이며 문장성분보다 낮은 질서의 요소들이 련결된 결합체인것만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순수 구조상 측면에서 볼 때 단순단어결합관계와 전개(확대)단어결합관계로 나누어볼수 있다.

단순단어결합관계란 결합체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두개로 되고있는 결합관계이다.

○ 일기예보

○ 혁명과 건설

○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다

○ (약을) 먹어버리다

○ 아름다운 꽃

○ 곱게 핀 (해당화)

전개(확대)단어결합관계란 결합체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세개이상으로 되고있는 결합관계이다.

○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

○ 사회주의경제건설

○ 달려오는 승용차가 멎기를 기다리다

○ 꾸준하고도 인내성있게 일하는 솜씨

○ 공장에서 온 청년

순수 구조상 측면에서 본 단어결합관계는 그 내부구조를 살펴볼 때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결합의 성격과 방식에서 나타난다(자세한것은 다음 절에서 서술함). 그리고 그것들도 결국은 구조-문법적측면에서 본 류형인 《결합》, 《접속》, 《병립》, 《련접》들로 갈라진다.

조선어에는 그밖에도 《자유롭지 않은 단어결합》의 이름밑에 포괄되는 《공고한 단어결합》, 《성구론적단어결합》, 《특수보조어적단어결합》 등 류형이 있다.

○ 당의 유일사상체계, 사회주의법무생활(공고한 단어결합)

○ 선손을 쓰다, 더위를 타다, 겁을 먹다 (성구론적단어결합)

○ (석섬이) 된다 잡더라도, (왔다)손 치더라도, (속히울)셈 치고라도(특수보조어적단어결합)

이러한 단어결합체들은 례외없이 문장구조의 구성재료로 되며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문장론적단위로 된다. 이것은 문장론적으로는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라고 할수 있다.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들어가는 단위들은 개별적인 단위로 있을 때는 어휘론의 대상으로 되지만 문장구조안에 자리잡을 때는 문장론의 대상으로 된다.

○ 독불장군(어휘론의 대상)

○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어휘—문장론의 대상)

○ 독불장군이라고 혼자서는 어쩔수 없다. (문장론의 대상)

○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격으로 일은 지심스레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수 있다. (문장론의 대상)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도 《결합》, 《접속》, 《병립》, 《련접》의 방법으로 된 류형들을 갈라낼수도 있겠으나 《고정된 구조》라는 특성이 전면에 나타나는 이상 굳이 그러한 류형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우에서 조선어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주로 구조-문법적 특성(순수 구조적측면도 포함하여)의 관점에서 보았다.

이상의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아래와 같이 묶어서 체계화할수 있다.

△ 단순단어결합관계

1) 자립적단어들의 결합관계

(1) 단어결합류형(례: ○ 자주의 길, ○ 독립을 이룩하다)

(2) 단어접속류형(례: ○ 낮과 밤, ○ 배우고 배우고)

(3) 단어병립류형(례: ○ 자주, 자립, 자위 ○ 공장에서, 농촌에서)

(4) 단어련접류형(례: ○ 우리 모두, ○ 학생 셋이)

(5) 단어들의 합성적결합류형(례: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말)

2)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들의 결합관계

(1) 단어들의 단순결합류형(례: 조국에 대한, 먹어보다, 본대로)

(2) 단어들의 합성적결합류형(례: 보는바 그대로 말한다)

△ 전개(확대)단어결합관계

1) 자립적단어들의 결합관계

(1) 단어결합류형(례: 공장에서 온 청년)

(2) 단어접속류형(례: 먹고 입고 쓰고사는)

(3) 단어병립류형(례: 교과서도, 학습장도, 연필도…)

(4) 단어련접류형(례: 정말 우리 모두 셋은…)

(5) 단어들의 합성적결합류형(례: 매우 높고 가파로운 언덕길)

2)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들의 결합관계

(1) 단어들의 전개결합류형(례: 먹어본다마는)

(2) 단어들의 합성적결합류형(례: 아름다운것에 대한 이야기)

△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

1) 공고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2) 성구론적단어들의 결합관계(례: 더위를 타다, 맥을 놓다)

3) 특수보조어적단어들의 결합관계(례: 갔다손 치더라도, 속히 울셈 치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단순한가, 복잡한가에는 관계없이 일관하여 《결합》, 《접속》, 《병립》, 《련접》의 방법으로 련결된 류형을 갈라낼수 있다. 즉 단어결합관계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따라 단순결합관계, 전개(확대)결합관계, 고정된 구조의 결합관계 등으로 나눌수 있으나 이 모든 경우에 기본적으로 《결합》, 《접속》, 《병립》, 《련접》의 류형은 다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이 네가지 류형은 조선어의 단어결합관계의 기본류형으로 된다.

제2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실현방식

문장에서 단어들이 맺는 결합관계는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의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에 따라서도 서로 차이가 난다. 이것은 문장구조의 다양성을 낳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조선어문장구조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들의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의 차이에도 눈을 돌려야 할 필요성이 나선다.

단어들의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에서 특히 차이가 뚜렷한것은 《결합》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단어결합의 경우이다. 이 결합관계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은 일정한 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가진다.

례컨대, 《집을 짓다》라는 두 단어들의 결합에서 의존어 《집을》은 련결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짓다》의 대상적측면으로 되며 련결의 방식으로 보아서는 보충적측면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집을 짓다》라는 결합에서 《집을》은 대상적측면에서 《짓다》를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짓다》는 《집을》에 의하여 대상적측면에서 보충받는 관계에 있게 된다. 이것은 《집을》과 《짓다》가 지니는 문장론적기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문장론적단위가 지니는 기능은 결합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련결의 성격과 방식도 구분할수 있게 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방식에서 나타나는 해당 언어의 특성을 살피는것은 민족어의 문장구조의 다양성을 더욱 뚜렷이 하는 조건으로 된다.

지금까지의 문법적견해들이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을 념두에 두고 단어결합의 류형을 설정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단어결합관계에서의 상관관계를 동일시한 기존견해들은 주로 의존어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고찰하였다.

문장성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문장성분화에서의 류형대로 일컬어온데도 모순이 있지만 때로는 단어들의 련결방식을 위주로 하는가 하면 때로는 단어들의 련결성격을 위주로 하여 분류한데도 문제가 있다. 례컨대, 《주어결합》, 《인용결합》 등은 주어, 《인용보어》의 기능을 논다는데서 문장성분화의 명칭을 따른것이며 《주자적결합》, 《객자적결합》 등은 론리-의미적으로 주어, 보어로 된다는데서 론리-의미적립장에서의 문장성분화의 본을 기계적으로 따른것이다.

또한 《주어결합》, 《인용결합》 등은 련결성격의 측면에서 내세우는 대상, 들어온 대상이라는데서 일반화되였다면 《보어결합》, 《상황결합》, 《규정결합》 등은 보충, 상황, 규정의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련결방식의 측면에서 일반화되였다.

한가지 현상인 《규정-피규정》의 결합관계를 《규정결합》, 《속성적결합》, 《규정어적결합》, 《한정적결합》 등의 이름으로 불러왔다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지난 시기의 류형화가 때로는 련결성격을 위주로, 때로는 련결방식을 위주로 하면서 동요성을 가졌다는것을 엿볼수 있다. 즉 이 여러 명칭들의 밑바닥에는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의 혼용 또는 무분별이 깔려있는것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성을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에 따라 고찰하는것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선어의 다양한 구조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방식을 서로 달리하는 류형들로 이루어져있고 이것을 옳게 밝히고 체계화하여놓는것은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며 문장전체의 구조를 리해하는데서 리롭기때문이다.

그러나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그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서도 엄격히 구조-문법적립장에 서지 않는다면 동요성을 면치 못한다. 구조-문법적립장에 엄격히 서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성을 고찰한다면 새로운 분류방법이 나올것이다.

1.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이란 결합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의 단어들이 맺는 호상의존관계의 성격이다. 이것은 조선어에서 《의존어+주도어》, 《병렬어+병렬어》, 《병립어+병립어》, 《제시어+확인어》 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에서 구체화되되 주로는 《결합》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단어결합관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례컨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결합은 《의존어+주도어》의 관계이지만 결합성격으로 보면 달리 설명할수 있는것이다. 즉 《체언을 축으로 하는 결합》이라 할수 있다.

조선어에서 호상의존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은 단어들의 어휘-의미적상관성, 품사적특성, 형태구비성 등의 정도에 따라 제약된다. 이로부터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도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아야 할 필연성이 나온다.

단어들의 어휘-의미적상관성, 품사소속성, 형태구비성 등에 따라 제약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성은 결국 어떤 품사의 단어를 축으로 하여 의존관계가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다시말하여 어떤 품사에 속하는 단어가 결합체의 축으로 되는가에 따라 그에 의존하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의 류형이 달라진다.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면 조선어에서 단어들이 맺는 결합관계는 크게 체언과 용언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체언적품사에 의존하는 여러 단어들의 결합관계와 용언적품사에 의존하는 여러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두 큰 류형이 갈라지며 그안에서 또다시 단계적으로 여러 품사적단위(체언, 용언, 수식어, 보조어 등)들의 결합관계가 갈라진다.

△ 체언을 축으로 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

○ 박동무의 모습

○ 부지런한 박동무의 모습

○ 언제나 부지런한 박동무의 일하는 모습

○ 밤낮 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박동무의 참된 일군다운 모습

△ 용언을 축으로 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

○ 꽃을 가꾼다.

○ 아름다운 꽃을 가꾼다.

○ 뜰에 핀 아름다운 꽃을 정성껏 가꾼다.

○ 우리 집 뜰에 핀 아름다운 꽃을 매일 아침 정성껏 가꾼다.

체언적품사를 축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체언축결합관계라 할수 있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체언축결합관계는 자기의 구성부분에 또 다시 체언과 용언을 각각 축으로 하는 결합체들을 가질수 있고 수식어, 보조어 등으로 확대된 결합구조를 가질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구조-문법적으로는 축앞에 자리잡는 모든 단위들이 축의 지배를 받으며 축에 의존한다.

용언적품사를 축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용언축결합관계라 할수 있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용언축결합관계는 자기의 구성부분에 또 다시 용언과 체언을 각각 축으로 하는 결합체들을 가질수 있으며 수식어, 보조어 등으로 확대된 결합구조를 가질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도 구조-문법적으로는 축앞에 자리잡는 모든 단위들이 축의 지배를 받으며 축에 의존한다.

체언축결합안에 다시 용언축 및 체언축 단어결합이 들어있고 용언축결합안에 다시 체언축 및 용언축 단어결합이 있는 류형을 합성적결합관계의 류형이라 할수 있다. 이때의 낮은 단계의 체언축 또는 용언축 결합관계는 단어들의 결합체안에서의 상관관계의 질서이며 단어결합체의 요소로 된다. 단어결합체의 요소들안에서의 《의존어》나 《병립어》, 《병렬어》나 《확인어》 등의 성격은 대상적, 용언적 및 수식어적 단위로 되고만다. 이것이 복잡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조선어적인 성격이다. 체언축결합관계, 용언축결합관계 및 합성적결합관계로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나누는것은 단어결합의 성격을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는 공정한 태도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에 따르는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자립적단어+보조적단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며 단순단어결합관계, 전개단어결합관계, 합성적결합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는 문장성분의 호상관계에서 작용하는 《속성적》, 《관련적》, 《상황적》, 《인용어적》, 《술어적》, 《주어적》 등의 갈래가 따로 필요없다.

이상에서 우리 말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류형을 중심으로 그 련결성격을 보았다.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그 련결성격에 따라 크게 체언축결합관계와 용언축결합관계로 나눌수 있다.

이 류형안에서 축에 의존하는 단어들의 성격에 따라 다시 체언-체언축결합, 용언-체언축결합, 수식어-체언축결합, 보조어-체언축결합과 체언-용언축결합, 용언-용언축결합, 수식어-용언축결합, 보조어-용언축결합 등으로 작은 갈래를 나눌수 있다.

체언-체언축결합이란 축으로 되는 체언에 의존하는 단어가 체언으로 되는 결합을 말한다.

○ 아버지의 책, 우리 나라, 국제주의적친선단결

용언-체언축결합이란 축으로 되는 체언에 의존하는 단어가 용언으로 되는 결합을 말한다.

○ 아름다운 꽃, 가물거리는 등불, 살아움직이는 형상

수식어-체언축결합이란 축으로 되는 체언에 의존하는 단어가 수식어로 되는 결합을 말한다.

○ 온 나라, 아주 야단, 산들바람, 척척박사

보조어-체언축결합이란 축으로 되는 체언의 앞에 이미 보조어와 결합된 단어결합이 오는 관계의 결합을 말한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전투승리에 대한 소식

그리고 체언-용언축결합, 용언-용언축결합, 수식어-용언축결합, 보조어-용언축결합 등도 축으로 되는 용언에 의존하는 단어가 각각 체언, 용언, 수식어, 보조어적결합 등으로 되는 결합이다.

○ 책을 읽다(체언—용언축결합)

○ 앉아기다리다(용언—용언축결합)

○ 매우 아름답다(수식어—용언축결합)

○ 시약에 의하여 검증되다, 보는대로 말하다(보조어—용언축결합)

이 모든 종류의 결합관계는 어디까지나 조선어단어결합관계의 기본류형을 다시 련결성격상으로 보고 나눈것이다. 이들 결합관계의 종류들은 호상 의존되여있다. 즉 구조상으로 본 결합관계의 류형과 련결성격상으로 본 결합관계의 류형은 많은 경우에 교차관계에 있으며 《한 현상의 여러 측면》의 관계에 있다. 례컨대, 《책을 읽다》는 《결합》의 방법으로 된 단순단어들의 결합관계이면서 련결

성격으로 보면 《체언-용언축결합》관계를 이루는것이다.

2.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실현방식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실현방식이란 결합체안에서 서로 맞물리는 구조적요소들인 단어들이 맺는 호상의존관계의 방식이다. 이것은 조선어에서 《의존어+주도어》, 《병렬어+병렬어》, 《병립어+병립어》, 《제시어+확인어》의 구조에서 구체화된다. 례컨대, 《낮과 밥을》이라는 결합은 《병렬어+병렬어》의 관계이지만 결합방식으로 보면 한 단위에 다른 단위를 더하는 방식으로 련결시키는 《첨가적결합》이라 할수 있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실현방식은 체언축 및 용언축 결합관계의 테두리안에서 작용한다. 즉 크게 체언축 및 용언축 결합관계로 갈라지는 류형을 다시 요소들의 련결방식의 측면에서 가른 류형이다.

○ 노을이 비낀 호수가

○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려본다

첫째 례는 세 단어가 체언축결합관계에 있는데 그 세 단어들끼리는 서로 보충하는 관계, 한정하는 관계에 있다. 이 보충하는 관계, 한정하는 관계 등이 결합관계의 방식이다.

둘째 례는 4개의 단어가 용언축결합관계에 있는데 그 4개 단어들끼리는 서로 한정하는 관계, 보충하는 관계로 작용한다. 이것이 결합관계의 실현방식이다.

조선어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의 련결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한정적, 보충적, 《첨가적》 결합관계의 류형이 나온다.

단어들의 한정적결합관계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한정해주는 방식으로 결합된 관계이다. 즉 일정한 내용을 담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타내는 행동, 상태, 표식, 대상 등 내용을 한정해주는 관계로 결합되는 방식이다.

○ 백두산의 모습

○ 장엄하게 솟아있는 모습

○ 온 세계의 자주화

○ 줄레줄레 들어서다

○ 매우 만족해하다

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정적결합관계는 체언축결합에도 있고 용언축결합에도 있으며 단순결합이나 전개결합에도 있다. 또한 한정적결합관계에서 《의존어》의 품사소속성과 형태는 여러가지이며 《주도어》는 대상과 상태, 행동 및 표식을 나타내는 품사들이다.

한정적결합관계에서 《의존어》의 어휘적의미, 품사소속, 형태 등 특성에 따라 규정적, 수식적, 표식적 결합 등의 류형을 더 작게 가를수도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주관에 빠지기가 쉽다.

단어들의 보충적결합관계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결합된 관계이다. 즉 일정한 어휘적내용을 가진 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타내는 행동, 상태, 표식, 성질 등 내용을 보충해주는 관계로 결합된 방식이다.

○ 백두산을 바라보다

○ 그 모습이 웅장하다

○ 조종의 산이라고 한다

○ 삼지연에서 바라보다

○ 남산보다 더 높다

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충적결합은 주로 용언축결합관계안에서 볼수 있으며 따라서 《지배어》는 주로 용언(또는 대상적용언형)으로 되고있다.

보충적결합관계에 있는 단어결합체들을 다시 그 작은 갈래로서 대상적보충, 관련적보충, 시공간적보충, 인용적보충 등 결합류형으로 나눌수도 있으나 주관적인 해석에 치우치기 쉽다.

단어들의 《첨가적》결합관계란 두개이상의 단어가 서로 상관하되 하나가 다른것에 귀일되거나 첨가되는 방식으로 결합된 관계이다. 즉 일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일부 단어가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에 기능상으로 통솔되는 관계로 결합되는 방식이다.

○ 당과 수령의 령도아래

○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

○ 당, 이는 우리의 심장

○ 학생 셋이 모이다

○ 무우, 배추, 오이, 호박 등의 남새류

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첨가적》결합관계는 주로 체언적품사들

의 《접속》과 《병립》, 《련접》 등 결합에 고유하며 제3의 요소(지배어)와의 재결합을 필수적전제로 하는 결합관계라는 특색을 나타내고있다. 이 결합방식의 류형은 독특한 류형이다.

《첨가적》결합관계의 류형을 동종적, 렬거적, 결속적, 확인적 결합 등의 관계로 더 작게 나눌수도 있으나 론리적인것에 치우치기 쉽다.

세개이상의 여러개 단어들이 결합되면서 결합관계를 이루는 복잡한 단어결합체들을 련결방식상으로 가르는 경우에도 이상과 같은 3개의 류형이 단계적성격을 띠면서 얽혀들어갈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성의 원칙에서 동일한 질서안에서의 단어결합관계의 단위를 바로잡고 보다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로, 또는 보다 높은 단계로부터 보다 낮은 단계로 그 류형들을 갈라야 한다.

우에서 본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방식은 조선어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것으로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의 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과 성격에 따르는 결합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문장의 구성재료인 단어결합체들을 분석하는 립장과 방법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것이다.

우에서 이야기된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방식에 따르는 류형을 묶어서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 단어들의 련결성격에 따르는 결합관계의 류형

1) 체언축결합관계

(1) 체언-체언축결합관계

○ 아버지의 책

○ 승리의 요인

(2) 용언-체언축결합관계

○ 아름다운 꽃

○ 움직이는 기계

(3) 수식어-체언축결합관계

○ 온 나라

○ 척척박사

(4) 보조어-체언축결합관계

○ 전투승리에 대한 소식

2) 용언축결합관계

(1) 체언-용언축결합관계

○ 책을 읽다

○ 그림을 그리다

(2) 용언-용언축결합관계

○ 앉아기다리는

○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3) 수식어-용언축결합관계

○ 매우 아름다운

○ 빙빙 돌다

(4) 보조어-용언축결합관계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되다

△ 단어들의 련결방식에 따르는 결합관계의 류형

1) 한정적결합관계

○ 백두산의 모습

○ 매우 바쁘다

2) 보충적결합관계

○ 땅 하고 소리치다

○ 산을 바라보다

3) 《첨가적》결합관계

○ 자주, 자립, 자위의

○ 낮과 밤을 지새다

제3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류형인 조선어의 《구》

조선어에는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주어+술어》(정확하게는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구조를 가진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라고 일컬어왔다.

조선어의 《구》가 어떤 성격의 단위인가 하는것은 내외의 문법학자들이 오래동안 론의하여온 문제이다.

많은 문법연구가들은 《구》를 《문장형식을 취하고있으면서도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또는 《구 성분》), 단일문의 한 구

성단위로 보았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가운데는 《체언주격형+용언(또는 체언)의 종결형》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문장성분의 기능을 노는 단위를 따로 《문장으로 된 성분》이라고 하였다(례: 우리는 그가 이 일을 해내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체언주격형의 《주자》가 없이도 서술형으로 끝나는 전개단어결합관계의 구조만을 따로 《단어결합성분》으로 보았다.(례: 방금 공장에서 돌아온 청년을 맞이하였다.)

이상의 견해들의 공통점은 《단어결합체-문장성분》으로서의 한 큰 류형을 설정하려는데 있으며 그안에 《문장-성분》, 《구-성분》, 《단어결합-성분》의 작은 갈래를 설정하려는데 있다.

○ 끝없는 모색과 탐구로 이어진 화전의 나날이여!(단어결합-성분)

○ 채양버들이 우거진 강기슭의 오솔길에 말파리 한대가 나타났다. (구-성분)

○ 그는 아버지가 돌아오시였다고 기뻐서 돌아쳤다. (문장-성분)

이와 같은 립장에 선 문법적견해들은 《구》에 진술성이 없다는데 대하여서도 대부분의 경우 일치하나 때로는 《구》에 《반술어성》은 있다고도 보는 일이 있다.

〔붙임〕 좁은 의미에서는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의 구조만을 《구》라고 하나 넓게는 《문장-성분》, 《구-성분》, 《단어결합-성분》을 다 포괄하여 《구》라고 일컬으기도 한다. 어쨌든 《구》를 문장성분으로 보고있다.

조선어의 《구》를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를 문장성분이 아니라 문장으로 본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가운데는 《구》를 《결합복합문》의 구성단위로만 국한시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절》과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으며 《특수한 류형의 문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구》를 문장으로 보는 견해들은 례외없이 《구》에서 술어, 주어, 보어, 규정어, 상황어 따위의 구성성분을 따로 가르며 진술성을 인정하고있다.

일부 외국의 조선어연구가들은 조선어의 구체적실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구》를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 보면서 《형동사형부문》, 《부동사형부문》, 《미정형부문》 등 이름밑에 일반화하였다.

○ 우리는 승용차가 멎기를 기다렸다. (미정형부문)

○ 꽃이 만발한 언덕우에 집 한채가 보이였다. (형동사형부문)

○ 해가 눈이 부시게 비치였다. (부동사형부문)

론리주의적립장에 선 학자들은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의 구조는 물론, 《주어》가 없더라도 《관념상으로》 주어를 설정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용언적》단위를 《구》라고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이 《관념적》인 《구》도 복합문의 구성단위라고 하였다.

○ 가던 날이 장날이다. = 내가 가던 날이 장날이다.

○ 가던 날이 장날이였다. = 내가 갔다. 그러던 날이 장날이였다.

이 모든 견해들과는 달리 최근에 와서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구》를 아무런 진술성도 가지지 못하는 《단어결합성분》으로 확정하면서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구조적단위뿐아니라 모든 전개단어결합관계를 다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 견해도 《구》에는 진술성은 없다고 보면서 문장성분과 같은 상관관계를 《구》안에서도 다시 찾는 제약성을 보이였다.

《구》를 둘러싼 지난 시기의 모든 견해들의 본질적약점은 문장의 표식을 갖추지 못한 구조적단위에 문장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거나 《구》에서 그.어떤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도 같은것을 찾는 경향이다. 결국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의 한계를 뚜렷이 그어놓지 못한것이다. 이것은 문법적현상을 엄밀한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지 못한데서 나온 약점이기도 하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류형으로서의 조선어 《구》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 길은 오직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그 구조-문법적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1. 조선어 《구》의 구조-문법적특성

조선어의 《구》가 어떤 문장론적단위인가 하는것을 풀기 위하여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 밝혀져야 한다. 즉 그 하나는 《구》가 문장인가 아닌가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가 어떤 질서의 단위인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구》의 구조-문법적특성을 해명하는 기본고리이다. 《구》가 문장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구조적단위로서의 특성에 관한 문제이며 《구》가 어떤 질서의 단위인가 하는것은 《구》의 위치적특성에 관한 문제인것이다.

첫째 측면에 대하여 먼저 밝히기로 한다.

《구》에는 문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표식이 있는가, 다시말하면

《구》는 문장인가, 문장이 아니라면 단어들의 결합체인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조선어 《구》에서 전형적인것이라 할수 있는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구조를 중심에 놓고 분석해보자.

○ 저희들은 승용차가 멎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 저희들은 승용차가 멎기를 기다렸습니다.
○ 저희들은 승용차가 멎도록 모여들었습니다.

이 례문에서 《승용차가 멎는》, 《승용차가 멎기를》, 《승용차가 멎도록》이라는 단위는 구조-문법적특성으로 보아 문장이 갖추어야 할 아무런 표식도 가지고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들은 문장이 아니라 단어들의 결합체로서 문장조직이전의 구성재료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러한 《구》에 있는 상관적단위(《승용차가》와 《멎는》, 《멎기를》, 《멎도록》)의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의 상관적단위로 될수 없다. 즉 《구》의 구성성분의 어느 하나가 따로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질수 없다. 오직 《승용차가 멎기를》은 그것전체가 《기다렸다》와 상관하면서 그 《보어》로 된다.

《구》를 이루고있는 개별적구성요소(단어)들은 문장의 구성재료로만 될따름이지 문장의 구성성분으로는 되지 못한다. 문장의 구성재료에 문장의 표식이 있을수 없으며 전일적인 문장구조와 맞먹지 못하는 단위에 문장의 자격을 줄수는 없는것이다.

둘째로, 《구》 전체구조가 다른 단위와 맞물리는 경우에도 개별적단어 또는 문장성분과 관계를 맺으며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 전체 문장과 상관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일문》으로서의 자립성도 가지지 못하는것에 문장의 표식이 있을수 없는것은 명백하다. 《단일문》의 자격도 못가지면서 개별적인 단어에만 의존된다는것은 단순한 하나의 결합전일체임을 말하여준다.

셋째로, 《구》에는 진술억양의 요소가 없으며 복합문의 구성부분이 갖추어야 할 통일성과 구획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억양상 표식도 없다.

진술억양이 없는곳에 문장의 자격을 줄수는 없다.

넷째로, 우에서 례로 든 《승용차가 멎는》, 《승용차가 멎기를》,

《승용차가 멎도록》 등과 같은 《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진술성의 어떠한 구조-문법적표식도 없을뿐만아니라 《멎는》, 《멎기를》, 《멎도록》으로 표현된 규정형, 서술적대상형, 상황형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일반에서 의존어가 가지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형태에는 말차림, 시간, 법 등 관계가 표시되여있지 않으며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가 물질화되여있지 않다. 따라서 《구》에는 문장의 기본표식이 없다.

다섯째로, 《구》에서 《주어》라고 이르는 단어의 형태가 보통 《가(이)》토로만 표시된다는 사정은 문장이 가져야 할 응당한 의미-론리적표식도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말해준다. 즉 《는(은)》토를 가진 형태가 제시, 강조 등의 《론리적표식》을 나타낸다면 《가(이)》토를 가진 형태는 그런 《론리적표식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언제나 단어에만 의존되는 단위로밖에 되지 못한다.

《구》의 《주어》가 《는(은)》형태를 취한다면 문장의 론리-의미는 파괴되거나 어색하여진다. 례:

○ 저희들은 승용차가 멎기를 기다렸다.
× 저희들은 승용차는 멎기를 기다렸다.

《구》의 《주어》에 《는(은)》이 좀체로 붙을수 없다. 이것은 《구》가 문장으로서의 론리-의미적계기를 완비하지 못한것으로서 사상감정의 완결성이나 언어행위의 끝맺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상감정의 완결성이 없으면 단독적으로 언어행위를 실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는 언어행위의 단위로서의 문장이 아니다.

여섯째로, 《구》가 다른 상관단위와 련결될때 접속이나 그밖의 결합방법이 아니라 오직 《결합》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주도어에 밀접히 의존하는 결합체임을 증시하며 또한 문장으로서의 구획성과 독자성을 못가진다는것을 보여준다(결합의 방법으로 상관하는 단위는 그만큼 독자적인 문장으로서의 표식이 없다).

이상의 몇가지 근거로 보아 조선어의 《구》는 문장이 아니며 단어들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이 아닌곳에서 문장의 표식을 찾는다든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것은 잘못이다.

조선어의 《구》는 오직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 또는 그것이 확대된 단어들의 결합체일따름이다. 《구》에서 《체언주격형》의 존재는 필수적인것이 아니고 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으로 된 단위는 술어가 아니다. 구조-문법적견지에서 볼 때 단어결합체로서의 《구》는 그 내부구조에서 그 구조의 전개정도와 형태에는 관계없이 문장으로는 되지 못하며 본질에 있어서 다 같은 질서의 단어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측면, 즉 《구》가 어떤 질서에 놓여있는 단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이나 《단일문》들이 사슬식으로 련결되는 인도-구라파어와는 달리 조선어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단계적성격을 띠며 나아가서 문장의 모든 구조적단위들의 상관관계가 단계적성격을 가진다.

례컨대, 조선어에서는 복합문도 포함하여 문장—절—문장성분—단어결합—단어결합요소 등 서로 다른 질서의 계렬이 단계적성격을 띠면서 배렬되며 때로는 서로 교차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문장은 절보다, 절은 문장성분보다, 문장성분은 단어결합보다, 단어결합은 그 구성요소들보다 각각 높은 질서의 계렬로 된다.

구체적인 언어행위작품에서는 이러한 단계적질서의 일부가 없거나 뛰여넘어갈수도 있으나 어쨌든 보다 낮은 단계의 질서는 보다 높은 단계의 질서의 구성부분으로 된다.

(붙임) 《절》이란 《문절》, 다시말하여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이다.

《구》는 언제나 단어결합으로서 문장성분으로 되거나 단어결합의 요소로 된다. 말하자면 《구》는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의 단계적질서의 어느 하나에 속하면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재료로 된다. 그리고 조선어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낮은 질서를 높은 질서와 같은 계렬에서 분석하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는데로부터 《구》도 반드시 조선어문장구조의 단계적질서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우에서 분석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문법연구가들은 《구》에서 각종 《서술형》을 취한 단위를 곧 《술어》로 보면서 그것에 2중성을 부여한다. 즉 그 《술어》는 다음에 오는 《지배어》에 대한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기능도 동

시에 수행하면서 규정어, 《련결어》 등의 성분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들은 《구》의 《진술형》에서 진술화의 기능까지 부여하면서 《구》안에서는 술어, 전일적인 구조에서는 각각 《규정어》, 《련결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리해하였다. 하나의 단어에 《2중성》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성분》으로 규정하면서 1차적으로는 비술어적성분으로, 2차적으로는 술어적성분으로 되는 《단계》가 설정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질서의 상관적단위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계렬(문장성분이라는 계렬)에 놓고 《단계성》을 설정한것이다.

《눈이 내리는 밤은 참 좋아보인다.》를 놓고보더라도 《내리는》은 어디까지나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에서 《눈이》와 상관하는것이지 《밤》과 단독으로 맞물리는것은 아니다. 문장성분으로서의 상관관계는 오직 《눈이 내리는》과 《밤》사이에 설정되며 그것은 다른 질서의것이다. 따라서 《내리는》이라는 개별적단위에 《2중성》의 기능이 있는것도 아니며 더우기는 개별적단위 《내리는》, 《좋아》 등에 진술화의 기능이 부여되는것은 아니다.

문장으로 되지 못하며 전일적인 문장의 구성재료로만 되는 단위에서 서술어(술어)니, 《주어》니 하는것을 찾는것부터가 모순이며 《좋아》를 《보인다》의 그 무슨 《련결어》로 보는것자체가 혼선을 일으키는 시초로 된다.

《눈이 내리는》은 오직 용언축결합으로 된 하나의 단위(단어결합체)이며 《의존어+주도어》의 관계로 련결된 하나의 성분이며 《내리는》은 용언성이 있고 한정적방식으로 《지배어》와의 결합관계가 표시된 단위이다.

《참 좋아보인다》의 《좋아》에 단계적성격의 《2중기능》이 있다는 해석은 더욱 인위적이다. 《참》과 《좋아》 그리고 《좋아》와 《보인다》가 상관하는것이 아니라 《참》과 《좋아보인다》가 상관하며 《좋아》에는 따로 그 어떤 진술성, 진술화의 기능이 없으며 따라서 문장성분으로서의 그 어떤 표식도 없다. 《참 좋아보인다》는 하나의 뜻덩이, 하나의 통일적인 단어들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어문장의 구조적단위는 한단계 높은 질서의 최소단위가 한단계 낮은 질서의 최대단위로 된다는 단계적성격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눈이 내리는》은 단어결합체로서 하나의 문장성분(《단어결합성분》이라 할수 있다.)으로 된다.

결국 조선어의 《구》는 문장이나 문장성분관계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의 질서에 속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들어가는 단위이다.

전일적인 상관관계와 개별적인 상관관계의 단위들의 구조-문법적특성은 서로 다른 질서의 계렬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중심성분》의 형태에 《2중성》(2중적기능)을 부여하는 견해의 부당성을 말할수 있다.

○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우리는 집으로 가면서 이야기하였다.

《중심성분》에 《2중적기능》을 부여하는 견해들은 이 례문에서 《비가 오고》와 《집으로 가면서》를 같은 질서로 보며 특히는 《가면서》가 2차적으로는 《구》의 《술어》이며 1차적으로는 문장의 《접속술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서로 다른 질서의 결합관계를 한계렬에 놓고 기계적으로 《2중성분》의 《단계성》을 해석하는 물의를 찾아볼수 있다. 《가면서》를 《술어》로 잡는데도 문제가 있지만(문법적해석이 아니라 론리적해석이다.) 단독적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전일적인 구조적단위와 상관시키는데는 더욱 문제가 있다.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구조-문법적특성으로 보아 《집으로 가면서》 전체가 《이야기하였다》와 상관하는 단위이며 《집으로》는 《가면서》와 개별적으로만 상관하는 단어결합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집으로 가면서》는 전일적인 상관관계의 단위로서의 《비가 오고》와 질적으로 다른것이며 개별적인 상관관계의 단위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한 질서에 속하는 류형인 조선어의 《구》는 그것이 확대된 구조이건 단순한 구조이건, 또한 그것이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형식을 띠였건 《체언주격형+용언종결형》의 형식을 띠였건, 그리고 그저 《의존어+주도어》의 형식을 띠였건 다 문장의 구성재료로서 문장이나 절보다는 낮은 단계의 질서에 속하는 문장구조의 단위이다. 다만 그 구조적형식이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으로 된 류형만을 일반 단어결합체와 구별하여 따로 이름지을수는 있을것이다.

〔붙임〕 《체언주격형+용언진술형》의 구조로 된 류형만을 《진술적단어결합》, 《주자적단어결합》, 《대상적단어결합》이라고도 할수 있겠으나 이것도 과학적인것으로 되지 못한다. 더우기 《주어적결합》, 《술어적결합》, 《문장형식의 결합》 등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진술적단어결합》, 《주자적단어

결합》이라는것은 진술화의 표식을 인정하는 조건에서의 문장성분의 관계이며 《주어적결합》, 《술어적결합》은 지배적인 문장성분을 인정하는것을 전제로 한 이름이며 더우기 《문장형식의 결합》이라 함은 진술성(또는 반진술성)을 《구》에서 찾는 태도로 되기때문이다.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의 구조로 된 《구》도 본질에 있어서는 용언축결합의 보충적결합류형에 속하는 단어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의 《구》는 구조-문법적특성으로 보아, 특히 단계적성격으로 보아 문장과는 다른 질서의 단위이며 문장구성이전의 구성재료이며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류형에 속하는 단위이다.

2. 조선어 《구》에서의 진술성문제

아직 학계에서 《구》에 그 어떤 《반술어성》 혹은 《풀이성》이 있는듯이 여기는 경향이 극복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명하는것이 필요하다.

진술성이 문장의 기본표식이고 끝맺이가 있는 언어행위에 있어야 할 필수적요소인것만큼 문장이 아닌 《구》에 그 어떤 진술성(《술어성》 또는 《풀이성》)도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구》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에 의하여 인식되고 평가되는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류형인 《구》에 진술성이 없다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되는가?

무엇보다도 《구》에는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주관적관계, 즉 말차림, 법 범주 등이 표시되지 않는다.

언어행위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참가하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거기에는 진술의 주자와 객자, 그리고 그의 행동, 상태, 표식 등이 언어적으로 현실적인것으로 구현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진술성을 가지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사회적관계, 언어행위와 관련되는 인물과 사물과의 호상관계, 사건과 사실의 현실성정도 등이 언어적 수단과 수법으로 표시되여야 한다. 이러한 언어적 수단과 수법이란 말차림토, 법토, 현실성정도를 나타

내는 《양태어》, 보조어 등이다. 《구》에는 이러한 수단과 수법이 체계성을 띠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구》에는 그 어떤 진술화의 주관적계기도 표현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에는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관계도 표현되지 않는다.

《구》에는 사상의 완결성도 현실화되여있지 않을뿐만아니라 진술의 현실성정도를 가늠할수 있는 어떤 표식도 없다. 진술내용과 언어행위의 순간과의 시간적관계도 체계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객관적현실의 모든 사실은 일정한 시간속에서 이루어지고 언어행위는 이를 반영하여 시간관계로 형식화된다. 그것이 바로 문법적시간의 표시이다. 《구》에는 그러한 시간범주가 체계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구》의 《규정형》에 나타나는 《는》, 《던》, 《ㄴ》 등의 토는 언어행위의 순간과 진술내용의 시간적관계라기보다도 《상대적시간》을 나타내면서 《주도어》에 대한 의존관계, 한정성의 기능을 노는것이다. 례컨대 《승용차가 멎는》, 《가던 날》, 《가없이 넓은》에서의 《멎는》, 《가던》, 《넓은》은 언어행위가 진행되는것보다 이전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면서 《피규정어》에 대한 한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토인것이다.

《구》에는 또한 어떠한 진술억양도 없다. 《구》의 구조자체에 전일성과 구획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선률-률동적통일이 없을뿐아니라 《지배어》와 구획되는 중단억양도 뚜렷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구》에는 진술화의 물질적표식이 없으므로 진술성이 없다.

그러면 《구》에는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이 있는가?

절충적인 문법적범주란 원래 과학적인것으로 되지 못한다.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이란 원래 애매한 절충적인 개념이며 문법적범주로 성립될수 없는것이다. 문법적범주란 언어적 수단과 수법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절반정도》로 나타나는 수단과 수법이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의 범주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장에 고유한 범주가 아니라 《서술성》, 《용언성》에 대한 잘못된 리해에서 나온것이다. (사실상 《구》에는 서술성, 용언성, 대상성과 관련되는 물질적표식이 뚜렷하다. 그런데 서술성, 용언성과 진술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

는 단어나 품사론에 고유한 범주이고 다른것은 문장론적범주인것이다.)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이 곧 《주어+술어》가 아닌만큼 《구》에는 그 어떤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의 표식도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구》에 있는 마지막단어의 규정형, 상황형, 서술적대상형 등은 서술성, 용언성의 물질적표식이다.

조선어의 《구》에 나타나는 서술성, 용언성 등의 표식은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승용차가 멎는곳》, 《힘이 장수인 김동무》에서 주도어인 《멎는》, 《장수인》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의하여 서술적으로 설명된다는 뜻에서 서술성이 있으며 《멎는》에는 용언이 나타내는 일반적특성이 있다는 뜻에서 용언성도 있다.

《승용차가 멎기를》, 《힘이 장수임을》과 같은 구조에서 주도어인 《멎기를》, 《장수임을》에는 역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의하여 서술적으로 설명된다는 뜻에서 서술성이 있다. 이것은 조선어의 바꿈토와 격토의 기능을 분석일반화한데 기초하여 얻어진 결론이다.

이리하여 《구》는 서술성으로 일관되고 용언성으로 상대적차이를 가지는 단어결합체이다. 이때의 서술성, 용언성 등은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법적범주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어의 《구》는 진술성은 물론 《반진술성》도 없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통일체이다. 《구》의 기본표식은 오직 서술성, 용언성이다.

3. 조선어 《구》의 순위상 특성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통일체인 《구》는 전일적인 문장구조안에서 그 순위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구》의 상관관계가 문장 호상간 또는 문장성분 호상간의 상관관계의 질서와는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순위상 제한성을 가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그가 힘장수임을 알았다.》, 《형광등이 거리의 야경을 눈이 부시게 비치였다.》 등에서 《그가 힘장수임을》, 《눈이 부시게》는 특수한 경우를 내놓고는 그것들이 의존하는 주도어(《알았다》,

《비치였다》)의 앞에만 위치한다. 그리고 이들 《구》안에 있는 구성요소들의 어느 하나도 위치를 바꿀수 없다. 이들 《구》가 필요에 따라 주도어와 좀 떨어지는 경우에도 특수한 문체를 제외하고는 주도어의 뒤에 가는 일은 좀체로 없다. 이 모든 사실은 《구》가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묶여진 전일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전일체의 구성 요소들의 위치가 제멋대로 바뀐다면 의미상련계는 끊어지고 문장전반의 뜻은 혼탕되고마는것이다.

《구》가 묶여진 전일체라는데로부터 그 구성요소들의 일부가 위치를 바꾸어 단독으로 문장의 다른 단위와 상관할수 없다는 특성이 나온다. 여기에서도 《구》가 문장이나 문장성분들이 맞물리는 질서보다 질적으로 구별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구》가 전개된 단어들의 결합전일체일 경우에도 비록 결합전일체의 테두리안에서는 그 구성요소들의 자리를 약간 바꿀수 있을지언정 결합전일체밖으로까지 자리를 옮길수는 없다. 이것도 《구》의 순위가 문장의 다른 단위들보다 다른 점이다.

○ 한동안 눈속에 묻혀 포근히 잠들었던 대지는 또다시 급작스레 달려든 북방의 강추위에 시달리여 우—우— 비명을 질렀다.

이 례에서 《한동안 눈속에 묻혀 포근히 잠들었던》은 전개된 단어결합체로서의 《구》이다. 이 《구》의 요소들가운데서 《한동안》, 《눈속에》 등은 약간 자리를 바꿀수 있으나 그밖의 요소들은 뜻을 파괴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자리를 옮길수 없다(례: 눈속에 한동안 묻혀 포근히 잠들었던). 그리고 이들 구성요소들의 어느 하나도 그 《구》의 울타리밖으로 벗어나갈수 없다. 그러나 이 례문에서 《구》를 제외한 《대지는 또다시 급작스레 달려든 북방의 강추위에 시달리여 우—우—비명을 질렀다.》에서는 그 구성부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위치를 바꿀수 있고 지어 《구》의 앞에까지 자리잡을수 있다.

《구》는 문장의 앞부분을 차지하건 그밖의 가운데나 뒤부분을 차지하건 언제나 결합전일체로서 옮겨진다.

이 모든 사실은 《구》가 문장이 아니며 문장성분들의 상관관계와도 다른 관계에 있는 문장론적단위, 즉 단어들의 밀접한 결합체임을 말하여준다.

조선어의 《구》는 이와 같이 구조-문법적특성, 상관관계의 특성, 순위상 특성 등으로 보아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도 아니며 《문장-성분》도 아니다. 조선어의 《구》는 조선어적인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전일체이며 특수한 류형에 속하는 단어결합체이다.

제4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으로서의 《부》

조선어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구조적단위들의 단계적특성으로 말미암아 확대구조로 된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여러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확대구조로 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가운데는 《체언주격+용언서술형》 또는 그와 등가적인것으로서 서술성을 가진 《의존어+주도어》의 구조가 아닌 결합전일체, 즉 서술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어결합 또는 단어접속 및 단어병립 등의 전일체가 있다. 이것을 《부》라고 일컬어왔다.

문법연구가들은 이 《부》가 어떤 성격의 단위인가 하는 문제에도 응당한 주의를 돌리였다. 그러면서도 《부》에 대한 리해에서 한결같지는 않다.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의 단계적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단위를 다 문장성분으로 보는 견해들은 《부》를 《단계적문장성분》으로 다루고 문장의 구성재료로서의 단어결합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성분에 대한 부성분》,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 《확대구조의 부성분에 대한 다음 단계의 부성분》 등의 관계로 보았다.

다른 문법적견해들은 문장구조의 단계적성격과 《부》를 결부시킴이 없이 그저 《확대문장성분》의 한 변종으로 보면서 《주어부》, 《수식부》, 《술어부》 등을 갈라냈다. (례: 수길이와 그의 아버지는 매우 빨리 글을 읽어내려갔다.)

론리주의적립장에 선 학자들은 문장에 두개의 중심을 설정하고 《주어부》, 《술어부》 또는 《주제부》, 《설명부》의 대응관계만을 설정하였다. (례: 우리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주제부) (설명부)

최근에 와서 이 모든 견해들과는 달리 《부》를 본질상 문장의 구성재료로서의 단어결합체라고 인정하는 견해들이 나왔다. 그리하여 《부》를 문장구조의 《확대된 어울림》, 《확대된 구조를 이루는 결합체》로 보았다.

마지막 견해를 제외한 지난 시기의 모든 견해들의 약점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와 상관하지 않는 질서인 《부》의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동일시하였거나 문장구조의 단계적성격과 옳게 결부시켜 《부》의 특성을 밝혀내지 못한데 있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이라 할수 있는 《부》문제를 옳게 풀기 위하여서는 여기에서도 조선어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한데 기초하여 그 단계적성격을 옳게 리해하여야 한다.

1. 조선어 《부》의 구조-문법적특성

조선어의 《부》가 어떤 문장론적단위인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측면이 밝혀져야 한다. 그 하나는 《부》의 구성요소들이 곧 문장성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단어결합체를 이루는 요소들인가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 어떤 질서에 놓이는 단위인가 하는것이다.

첫째 측면에 대하여 먼저 해명하기로 한다.

《부》의 구성요소들에 문장성분이 가져야 할 모든 특징이 있는가, 다시말하여 《부》는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졌는가?

《부》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어결합체일것이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서술성을 가지지 않는 《결합》, 《접속》, 《병립》의 결합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 문제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 수행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추진된다.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이 례들에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 《그 운명을》, 《혁명과 건설은》, 《사상, 기술, 문화의》는 《부》이다. 즉 《결합》, 《접속》,

《병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련결된 단어결합체들이다.

이 단위들은 구조-문법적으로 보아 각각 그뒤에 따르는 지배어인 《수행에서》, 《좌우하는》, 《추진된다》, 《3대혁명은》 등을 설명하면서 전일체로서 의존관계에 있는 확대구조의 결합체들이다. 이 확대구조로서의 《부》의 개별적단위들은 문장성분이 아니라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의 구조안에 있는 개별적요소들은 어느 하나도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기능적단위와 상관하지 않는다.

이들 결합전일체의 개개의 구성요소들은 단독으로 문장성분과 상관하지 않기때문에 결합전일체로서의 《부》안에는 문장성분의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로, 우에서 례로 든 결합체들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어느 한 단위(또는 문장성분)와 상관하는 경우에도 문장성분보다 낮은 질서의 계렬(또는 문장성분과 교차하는 계렬)에 속하게 된다.

개별적인 문장성분과 상관하는 경우에도 단어결합체전체로서 상관할따름이기때문에 《부》의 개별적구성요소는 문장성분이 아니라 단어결합의 요소(또는 단어결합체의 성분)이다.

셋째로, 《부》들에는 진술억양은 물론 서술억양의 요소도 나타나지 않는다.

구획성과 통일성이 결합되였거나 구획성이 없더라도 일정한 선률-률동적통일이 뚜렷한 억양의 요소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진술성이나 서술성의 어음적표식도 갖추지 못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넷째로, 《부》에는 진술성은 물론 서술성을 나타내는 형태-문법적표식도 없다.

《부》에는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 대상과 현상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문법적 수단과 수법이 물질화되여있지 않다. 《부》에는 수식성과 대상성을 나타내는 물질적표식이 있을따름이다. 따라서 《부》는 문장도 아니며 그 구성요소들은 문장성분도 아니다.

다섯째로, 《부》의 개별적요소들의 순위는 자유로울수 없으며 그 결합체는 상대적으로 분할되였으나 밀접히 련관된 통일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전일적인 뜻덩이로 된다.

여섯째로, 《부》의 요소들의 련결방법은 《결합》, 《접속》, 《병립》으로 되여있으며 그 결합체전체는 체언축 및 용언축 결합으로만 되여있다. 이것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전일체에 고유한 특성이다.

일곱째로, 《부》가 아무리 확대된 구조라 하더라도 결합의 외적형태는 오직 격토, (절대격까지 포함), 상황형토로만 되여있어 그것이 전일체의 문장론적기능을 대표한다. 이것도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전일체에 고유한 특성이다.

이상의 모든 근거로 보아 조선어 《부》는 그 구조적요소들의 관계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로 되여있지 않으며 한갖 단어들의 결합전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부》안에서 그 어떤 문장성분을 찾는것은 잘못이다.

조선어의 《부》는 《결합》, 《접속》, 《병립》의 방법으로 밀접히 의존되여있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보다 긴밀한 전일체이다.

(붙임) 《련결》의 방법으로 결합관계를 이루는 《학생 셋이》, 《우리 모두가》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확대구조》로 되는 측면이 《결합》, 《접속》, 《병립》의 그것과 좀 다르며 《대상의 확인》이라는 성격이 좀 독특하다. 보다 넓게는 단어결합체에 들어가는것만은 사실이다.

둘째 측면, 즉 《부》가 어떠한 단계적질서에 놓여있는 단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기로 한다.

조선어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의 상관관계가 단계적성격을 띤다는 일반적합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단어들의 결합전일체인 《부》도 그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가 단계적성격을 가진다.

이 경우에도 그 단계적성격은 서로 다른 질서들의 계렬상 체계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기초우에서만 옳게 파악된다. 즉 문장—절—문장성분—단어결합—단어결합요소 등의 계렬이 단계적성격을 띠면서 배렬된다는 조선어적인 특성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만 옳게 리해된다.

《부》의 주도어에 그 어떤 《2중기능》을 부여하여 1차적으로는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구성성분, 2차적으로는 《부》의 《문장성분》으로 볼것이 아니라 《부》안의 요소들은 문장성분과 다른 질서이며 《부》전체 구조만이 문장성분과 대응한다는 립장에 서야 한다.

그런데 일부 문법연구가들은 《부》의 주도어에 다음과 같이 《2중적기능》을 부여하고있다.

부

○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 수행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규정어 / 피규정어 (규정어) / 보어 / 주어 / 보어 / 술어

부

○ 우리는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킨다.

주어 / 련접어 / 피련접어 (보어) / 술어

이것은 서로 다른 질서의 상관적단위를 같은 계렬에 놓고 《단계성》을 인위적으로 설정한것이다. 《부》의 구성요소들에 문장성분의 자격을 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주도어》를 따로 떼여내여 거기에 《2중적기능》을 부여하는것은 혼잡성만을 주는 비현실적인 태도이다. 오직 《교육과 생산로동을》의 통일체로써 《결합시킨다》와 상관시키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의 전일체로써 《수행에서》와 상관시킬 때에만 이러한 혼잡성은 극복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로동을》만을 《결합시킨다》와 상관시키거나 《력사적위업》만을 《수행에서》와 상관시킨다면 《부》의 통일성과 의미적련관은 파괴되며 마침내 문장의 뜻은 바로 파악되지 못한다.

《부》에서의 단계적성격은 기본적으로 《구》에서의 그것과 같다. 즉 조선어의 《부》는 《구》와 마찬가지로 문장구조의 가장 낮은 단계의 질서에 놓이는 단어들의 결합체의 한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부》도 더 복잡하게 확대된 구조를 이룰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는 주도어에 대한 수식성, 대상성을 잃지 않으며 의존이(또는 접속, 병립되는 단위)의 체언축 및 용언축 결합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으로서의 조선어 《부》는 그것이 단순한 구조이건 확대된 구조이건 진술성이나 서술성을 가지지 않으며 문장구조의 가장 낮은 단계의 질서에 속하는 문장론적구성단위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의 《부》는 구조-문법적특성으로 보나 단계적성격으로 보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 단위는

아니며 문장구성이전에 있는 문장의 구성재료이며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이다.

2. 조선어 《부》의 기본표식

문장의 기본표식이 진술성이고 《구》의 기본표식이 서술성, 용언성이라면 《부》의 기본표식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부》라는 구조적단위를 설정하는 모든 문법가들이 《부》에 문장의 표식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일이 없는것만큼 여기서 진술성문제는 론의밖의것으로 된다.

그러나 일부 문법적견해들이 규정형, 상황형도 《풀이형》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있다.

《풀이성》이라는 용어가 《풀이말》의 기능을 일반화한 개념으로 리해되기 쉬운것과 마찬가지로 《풀이형》이라는 용어도 술어형(또는 《진술형》)과 같이 리해되기 쉽고 거기에 그 어떤 《진술성》, 《서술성》이라도 있는것으로 섞갈리기 쉽다.

서술성이란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대하여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개념인것만큼 용언성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그런것만큼 용언의 서술형으로 되는 《구》에는 서술성이 있으나 오직 대상형이나 상황형으로 되는 《부》에는 이런 서술성이 있을수 없다.

그러면 《부》의 기본표식이 서술성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대한 서술적설명이 없는 《부》에는 대상성과 수식성만이 있다.

《부》의 구조전반에는 물론 그 구조의 《주도어》에는 용언성이 없으며 대상성이 있다. 행동성이 없고 대상성만이 있는곳에 서술성이 있을수 없으며 오직 대상성밖에 있을것이 없는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상성은 《부》의 기본표식이라고 볼수 있는것이다.

기본표식이 수식성인 경우를 보자.

○ 생산실적은 날마다 매우 높이 뛰여올랐다.

이 례에서 《부》인 《매우 높이》라는 단어들의 결합전일체는 《뛰여올랐다》에 상관한다. 이 《부》는 그뒤에 오는 단어를 수식하면서 정도나 한도를 표시한다. 이것은 행동성이 아니라 상태의 정도에

대한 수식성이다.

서술성과 수식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술성이 행동적인것이라면 수식성은 량적 및 질적 규정인것이다. 따라서 이 례의 《부》에는 서술성이나 용언성은 없고 수식성만이 있다. 이때 수식성은 《부》의 기본표식으로 된다.

이와 같이 《부》에서는 대상성이 아니면 수식성만이 그의 기본표식으로 된다. 《부》의 《주도어》의 형태가 례외없이 대상형이나 상황형으로 되여있다는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과 잇닿아있다. 동일한 단어들의 결합전일체인 《부》와 《구》의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의 기본표식은 오직 수식성과 대상성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단어들의 결합전일체들의 서로 다른 류형의 기본표식을 밝힘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특성, 주도어의 문법적특성, 결합전·일체와 상관하는 문장성분과의 호상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학적타당성을 얻게 된다.

3. 조선어 《부》의 순위상 특성

조선어 《부》는 전일적인 문장에서 그 배렬순위가 자유롭지 못하다.

《부》는 그 순위가 문장성분보다도 퍽 자유롭지 못하며 《구》의 구성요소들보다도 그 구성요소들의 순위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부》안에서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가 문장호상간, 문장성분호상간의 상관관계보다 그 방식이 다른 탓이며 《구》보다도 더 공고한 단어결합체인 까닭이다.

《부》는 그것들이 관계하는 주도어의 앞에만 위치할뿐아니라 《부》안의 구성요소끼리 서로 위치를 바꿀수도 없다. 만일 《부》가 그 구성요소들의 위치를 제멋대로 바꾼다면 전일체로서의 뜻덩이는 외곡되여 파악되며 마침내 문장의 본뜻도 혼탕되고만다.

《부》의 구성요소들의 순위는 매우 공고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부》가 순위상 매우 공고한 특징을 가진다는데로부터 다른 질서의 단위와 한계렬에 놓을수 없고 그 구성요소들도 단독으로 문장의 다른 단위와 상관시킬수 없다는 특성이 나온다. 여기서도 《부》

의 구성요소들이 문장이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질서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점을 보게 된다.

《부》가 더 전개된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결합전일체안에서 구성요소들의 순위는 좀체로 바꾸지 못한다. 이것도 《부》가 문장의 모든 질서보다 다른 점이다. 례컨대, 《석탄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중요한 원료이며 연료이다.》에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는 여러개 단어들의 전개된 결합체인데 그 구성요소들의 어느 하나도 순위를 바꿀수 없다. 그리고 이 전개된 구조의 《부》는 언제나 주도어 《중요한 원료》의 앞에만 위치한다. 이것도 《부》구조의 결합상 공고성을 말해주는 측면이다.

《부》는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건, 가운데에 위치하건 또 뒤부분을 차지하건 언제나 결합체로서만 있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은 《부》의 구성요소들이 문장성분이 아니며 문장이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도 다른 질서의 단위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어의 《부》는 구조-문법적특성, 문장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상관관계의 특성, 순위상 특성 등으로 보아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에 속하는 공고한 결합체이다.

우에서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합법칙성, 민족적특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의 다양한 류형, 그리고 조선어 《부》, 《구》가 가지는 여러 특성들을 밝혔다.

상대적인 구획성과 통일성의 표식으로 특징지어지면서 독자적인 진술로 되지 못하는 조선어의 단어결합체들은 문장이전의 단계에 속하는 질서의 단위로서 전일적인 문장의 구성재료를 이루는 언어적구조이다.

조선어의 《구》나 《부》도 다 상대적인 구획성과 통일성이 갖추어진 공고한 통일적인 뜻덩이로서 문장의 구성재료로 되는 고유한 구조적류형이다. 그 구성요소들의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나 문장의 구성재료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단어들의 결합관계와 공통점을 가진다.

이상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구조-문법적특성과 단계적성격의 특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단어결합의 요소들과 문장성분의 호상

관계도 밝혔다. 이것은 문장의 성분화를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밑천으로 된다.

〔붙임〕 《부》와 관련하여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 문제가 제기된다. 종전에 대부분의 문법적견해들은 《수길이와 그의 아버지는 매우 빨리 글을 읽었다.》에서의 《수길이와 그의》, 《매우》라든지 《나의 아버지의 가방》에서의 《나의》와 같은 단위를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으로 보았다. 《수길이》, 《그의》, 《매우》, 《나의》 등에는 그 어떤 문장성분으로서의 표식도 없다. 이것은 《단어결합의 성분》 또는 《단어결합체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의 설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간다.》, 《아버지의 책을 가져온다.》, 《담벽이 매우 높다.》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매우》는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이 아니므로 문장성분화의 대상으로 잡는것이 옳다. 이것들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의 1차적인 상관적단위(또는 2차적인 상관적단위)로서의 문장성분이며 단어결합의 관계와 일치하는것이다.

제3장. 문장성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글을 잘 쓰자면 우리 말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면 단어나 문장 표현이 매우 단순합니다. 단어나 문장 표현이 단순한것은 우리 말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잘 쓰려면 우리 말 공부를 많이 하여 조선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조선어문장성분에 고유한 제반 특성을 리론적으로 해명하는것은 문장성분화를 과학성있게 하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문장조직능력을 키워주는데서 리론실천적의의가 크다.

문장성분은 문장의 구조적요소를 이루면서도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와는 다른 측면을 가진다.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은 형식적측면, 량적측면의 총화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기능적측면, 질적측면과의 통일로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문장성분에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문장성분에 관한 문제는 문장론에서 기본을 이루는 문제의 하나로서 문장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민족성원들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는 주요고리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문장을 짜는 구체적인 활동은 이러저러한 문장성분들을 맞물려놓아 사상감정의 매듭을 잘 지어놓는 과정이다. 문장이 잘 짜였다는것은 그만큼 문장성분의 맞물림이 잘되였다는것이다.

말과 글이 짜이고 순탄한것으로 되자면 언어교제의 단위인 문장의 구성성분들의 맞물림을 제대로 리해하고 제대로 짜야 한다. 문장의 구성성분들의 맞물림을 제대로 리해하고 제대로 짜는 과정을 통하여 문장조직의 능력을 키우게 되며 나아가서 언어사용의 능수로 된다.

문장성분에 관한 과학적해명은 문장조직의 능력을 키우며 문장

리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3장에서는 문장의 구성성분으로 되는 문장성분 문제를 보면서 조선어문장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의 기능적측면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제1절. 문장성분의 본질적표식과 단위

문법이 과학으로 성립된 이래 문장성분에 관한 문제, 특히 문장성분의 본질적표식을 어떻게 보며 그 단위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론쟁적인것으로 되여왔다.

오래동안 문법학계를 지배하던 론리주의는 문장성분을 론리적범주와 동일시하면서 모든 문장구조를 《주사》와 《빈사》 또는 《주사》와 《계사》 그리고 《빈사》의 상관관계로 보았다. 이리하여 문법적성분화는 사실상 뒤로 밀리고 문장구조에 대한 론리적해석이 문법에 도입되였다. 문장성분을 론리적범주로 바꾸어 《보편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언어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외면하는 태도이다.

론리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서 태여난 형식주의는 문장구조의 형식상의 표식을 절대시하는데로부터 문장안의 형태단어와 문장성분을 직선적으로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주격형태로 된 모든 단위는 주어로, 그밖의 모든 《사격》(《보충형태》)으로 된 단위는 보어로, 호격형태로 된 단위는 부름말로만 보았으며 《무형태단어》로 된 단위는 수식어 또는 양상어로, 서술형(또는 진술형)으로 된 용언 또는 체언은 술어로만 보는것과 같은 결과를 빚어냈다.

지난날 일정한 시기까지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품사와 문장성분의 한계를 석연히 긋지 못하였거나 동일시하는 일도 있었다. 이리하여 《4품사》, 《5품사》와 《4성분》, 《5성분》이 대응되였으며 품사론적범주와 문장론적범주가 섞갈리게 되였다. 근래에 이르러 《5성분설》이 문법학계를 지배하게 되였다.

문법학계를 지배하게 된 《5성분설》도 그 밑바닥에는 적지 않게 론리적해석이 깔려있다. 그리하여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주성분》, 《부성분》의 도식이 도입되였으며 《5성분》의 성분화가 하나의 《전통》으로 되다싶이 되였다.

그밖에도 조선어의 문장성분을 서로 다른 기준에서 서로 다르게 보고 문장성분의 갈래를 3개로부터 8개로까지 설정하는 일도 있다.

〔붙임〕 주시경은 문장성분을 문장의 구성부분으로 리해하고 크게 임이붙이(주자부), 씀이붙이(물자부), 남이붙이(설자부)로 나누었다. 이리하여 3개 성분만을 문장의 기본성분으로 인정하였다.

론리주의적립장에 선 학자들은 《붉은 해당화가 아름답게 피여났다.》와 같은 문장에서 《붉은》이나 《아름답게》를 같은 성분으로 보는가 하면 《박동무의 일하는 모습》에서의 《박동무의》는 때로는 주어, 때로는 규정어, 때로는 보어로도 보고있다.

형식주의적립장에 선 학자들은 문장성분을 단어결합체의 요소들과 동일시하거나 《어종—어사—어》의 체계에서의 《어》에 해당하는 단위로 봄으로써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의 의미-기능을 무시하였다.(이때의 《어종》은 형태부, 《어사》는 품사, 《어》는 형태단어와 같은 뜻으로 리해된다.)

이 모든 견해들의 제약성은 문장성분의 본질적표식과 그 단위설정 문제를 조선어의 구체적현실에서 출발하여 풀어나가지 못한데서 나왔다.

조선어문장구조를 옳게 성분화하기 위하여서는 구조-문법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문장성분의 본질적표식을 밝힌데 기초하여 조선어문장에 고유한 성분단위를 잡아야 할것이다.

1. 문장성분에 대한 일반적해설

조선어의 문장성분은 어디까지나 전일적인 문장을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나눈 의미-기능적단위이다. 이때의 의미-기능적단위는 전체 문장을 그 구조적특성과 문법적특성에 따라 일련의 상관적단위로 나눈 결과 얻어진다. 전일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문장은 일정한 의미-기능적단위들의 맞물림으로 통일된다.

문장성분이란 주어진 문장에서 구조-문법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의미-기능적단위이다. 다시말하여 문장성분이란 일정한 전일체를 이룬 문장구조에서 구조-문법적으로 서로 맞물림관계에 놓인 의미-기능적단위를 갈라놓은것이다.

문장성분은 무엇보다도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나누어놓은 일

련의 의미-기능적단위,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는 의미—기능적인 구성성분이다.

○ 조선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하다.

○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인민은 단결력도 강하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림관계에 있는 의미-기능적단위의 구획성, 즉 일정한 문장구성성분이 맞물림관계속에서 그 의미와 기능으로 구획된다는데 문장성분의 본질적속성의 하나가 있다.

맞물림관계속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기능은 곧 문장의 전체 내용인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구성단위의 어휘-문법적의미와 문장론적기능이다. 이러한 구성단위의 어휘-문법적의미와 문장론적기능이 상대적으로 구획되여나올 때 비로소 전체 문장의 대상-론리적의미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실속있게 파악되는것이다. 왜냐하면 복잡한 사상감정으로 엮혀진 문장의 전체 내용이란 단꺼번에 파악되는것이 아니라 론리적과정을 밟아 서로 맞물리는 단위를 련결시키면서 순차적으로 파악되기때문이다. 이 경우의 맞물리는 단위가 바로 문장성분이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안에서 맞물림관계에 있는 단위의 의미와 기능의 파악—이것은 문장성분을 갈라내는 전제이며 문장의 뜻파악의 현실적표식이다. 문장성분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 단어들의 결합체의 구성요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어들의 결합체는 개별적인 상관관계의 질서이며 문장구성재료의 각도에서 갈라본 단위이다. 따라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구성요소들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상관단위인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성재료들의 맞물림이다.

물론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요소들과 문장성분이 서로 교차되거나 일치되는 때도 있으나 전개된 구조에서는 보통 아무런 교차관계도 없이 서로 다른 질서로 나타난다.

단순한 구조이건 전개된 구조이건 문장성분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이며 전일체인 문장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구획된 단위이다.

문장성분은 다음으로 구조-문법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단위이다.

문장안에 있는 요소들은 론리-의미적으로도 맞물릴수 있고 어

음-률동적으로도 맞물릴수 있으며 현실-내용적으로도 맞물릴수 있다. 그러나 문장성분은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물리는 단위이다.

앞에서 례로 든 《조선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하다.》에서 4개의 문장성분은 《의존어+주도어》의 맞물림관계를 가지는 단순단일문의 구조속에서만 확정된다. 만일 문장구조가 바뀌면 구성단위들의 문법적련계가 달리되여 동일한 형태단어로 된 문장성분도 다른 기능으로(즉 다른 성분으로) 될수 있다.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외딴성분》을 가진 문장에서 그 특수한 하나의 단어, 《외딴성분》을 규정짓는 요인도 바로 그러한 문장구조에서 문법적인 상관관계가 특수하다는데 있다.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문법적으로 일정한 의존관계에 있는 맞물리는 단위라는데 문장성분의 또하나의 본질적속성이 있다.

문장성분은 또한 론리적분석에 의하여 파악되는 맞물림단위이다.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물림관계에 놓인 의미-기능적단위인 문장성분은 상관하는 단어(또는 단어결합체)들의 어휘적 및 문법적 의미에 기초하여 그 기능이 확정된다. 이러한 기능은 전일적인 문장구조를 론리적으로 분석할 때 파악된다. 이러한 론리적분석과정이 없다면 도대체 의미-기능적단위인 문장성분의 구획도 불가능하다. 문장성분을 일명 론리-문법적범주라고도 할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문장성분이 론리적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맞물림단위라는것은 전일적인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론리적분석, 론리적구획이 없이는 어떠한 맞물림관계도 파악할수 없고 따라서 문장성분의 의미-기능도 파악할수 없는것이다.

론리적분석을 통하여 맞물림관계가 파악되는 단위라는데 바로 문장성분의 다른 또하나의 본질적속성이 있다.

이상에서 조선어문장성분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쌓았다. 이것은 조선어문장성분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리해할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그러면 조선어문장성분은 어떤 질서의 단위인가?

조선어문장성분은 첫째로, 문법적성분화의 결과 얻어지는 단

위이다.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은 그 성분화의 성격에 따라 문장내용파악의 정도에서도 다른 영향을 준다.

례컨대, 일정한 말소리동강에 따라 토막짓는 어음—의미적성분화(례: 우리의 신념은 / 그 누구도 / 꺾지 못하리!)에 의하여 얻어진 단위들은 주로 입말의 정확성과 그 내용파악의 신속성에 도움을 준다면 현실-내용적성분화(우리의 신념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하리!)

(주어진것) (새것)

에 의하여 구획된 단위들은 입말과 글말의 론리성과 그 내용파악의 정확성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문법적성분화에 의하여 일정한 기능적단위로 구획된 성분들은 주로 글말의 내용을 정확하고도 직선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 우리의 신념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한다.

규정어 보어 주어 술어

일정한 선우에 배렬되는 글말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물리는 단위별로 하나하나 파악해나갈 때만이 옳게 리해된다. 이렇게 문장구조를 문법적으로 맞물리는 단위별로 구획하고 하나하나 파악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문법적성분화이다.

문장성분이 문법적성분화의 산물이라는것은 그것이 문법적으로 형식화되여있을 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어에서 그러한 형식화의 수단은 토, 보조적단어, 어음-구조적요소 등이다. 이 문법적형식화의 수단에 의하여 문장성분의 기능도 확정되는것이다.

문장성분이 문법적성분화의 결과 얻어진 단위이라는것, 여기에 그것을 다른 모든 성분화의 단위와 구별해주는 기본특성이 있다.

조선어문장성분은 둘째로,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진 단위이다.

문장성분이 맺는 문장론적관계란 단어가 맺는 현실과의 관계,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단위로 되는 단어(또는 단어결합체) 호상간의 문법적련계이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의존어+주도어》의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단위와 하나의 단어(또는 하나의 단어결합체), 《외딴성분》도 조선어에서는 문장성분으로 될수 있다는 근거가 여

기에 있다.

문장성분이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로 이루어진 단위라는 특성은 조선어의 모든 문장구조를 남김없이 성분화할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조선어문장성분은 셋째로,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파악되는 상대적자립성의 뜻덩이들의 맞물림단위이다.

이것은 문장성분이 상대적으로 구획되여 파악되는 단위라는 본질적표식에서 나오는 특성이다.

상대적으로 구획되여 파악되는 뜻덩이들의 맞물림이라는 특성이 없다면 하나의 의미-기능적단위가 파악될수 없다. 상대적으로 구획되여 파악되는 뜻덩이로서의 문장성분의 특성은 문장의 전체 내용을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기초단위로서의 문장성분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뜻덩이의 파악이 없이는 그 어떤 의미-기능적단위도 구분할수 없으며 문장의 전체 내용을 리해할수 없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뜻덩이라는 특성, 이것은 문장성분의 내용적측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조선어문장성분은 넷째로, 일정한 기둥성분으로도 되며 그 기둥성분을 보충전개하는 전개성분으로도 될수 있는 단위이다.

문장성분이 《기둥》과 《전개》의 단위로 된다는 특성은 문장성분화에서 기본성분과 전개성분(확대성분) 또는 주도성분과 의존성분 등을 갈라볼수 있는 기초로 된다.

조선어문장성분은 다섯째로, 문장구조속에서 일정한 뜻마루를 가질수 있는 단위이다.

언어행위과정은 억양상 통일체들의 련쇄과정이기도 하다. 억양의 구성요소로 되는 뜻마루는 진술의 론리적 및 정서적 강조를 형식화해줌으로써 문장내용의 정확한 파악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뜻마루는 바로 문장성분을 단위로 하여 표시되며 문장성분에 떨어진다.

문장성분이 뜻마루를 가지는 단위로 된다는 특성은 그것이 문장내용파악의 《안내자》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장성분이 어음-문장론적단위로도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조선어문장성분은 여섯째로, 그것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속에서

어순배렬의 제약을 받는 단위이다.

어순이란 다름아닌 문장성분의 배렬순서이다.

어순은 민족적특성을 지니면서 일정한 규칙밑에서 문장성분을 단위로 하여 확정된다. 조선어에서는 단어결합체의 어순이란 비현실적인것이며 현실적으로 작용하는것은 문장성분의 어순이다. 조선어 《구》나 《부》의 순위상제약성도 바로 그것들이 하나의 문장성분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특성과도 관련되여있다.

문장성분이 어순배렬의 단위로 된다는 특성은 문장성분을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상관적단위로 잡는 힘있는 근거로 된다.

조선어문장성분은 일곱째로, 문장구조안에서 렬거 또는 중첩되는 단위로도 될수 있는 단위이다.

구체적인 언어행위과정에는 일정한 기능적단위를 거듭하여 렬거하거나 이미 제시한 기능적단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능적단위를 포개여 중첩시킬수 있다. 이때 렬거되거나 중첩되는 단위도 문장성분의 자격을 얻게 되며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문법적으로 구획된 기능적단위로 된다. 이것이 《동종성분》, 《동격어》, 《제시어》, 《총괄어》 등으로 일컬어지는 단위이다.

문장성분이 문장구조안에서 렬거 또는 중첩되는 단위로 된다는 특성은 조선어문장성분화에서 특수한 문장성분을 설정할수 있는 근거를 준다.

이상에서 본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상특성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의미-기능적단위로서의 문장성분에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단위상 특성을 꿰뚫고있는 일관된것은 조선어문장성분의 구조-문법적특성이다. 이 일곱까지의 단위상 특성은 이러저러하게 구조-문법적특성이라는 일반화된것에 귀결된다.

결국 문장성분이란 구조-문법적특성에 기초하여 구획되고 확정된 문장의 의미-기능적상관단위이다.

2.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에 대한 확정

조선어문장구조의 특성에 맞게 문장의 성분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장성분으로 될수 있는 단위를 옳게 잡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장성분으로 될수 있는 단위, 즉 문장성분의 단위를 옳게 잡을 때

문장의 성분화는 과학성을 띠게 되며 그 성분화의 결과를 인민대중이 쉽게 파악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문장성분화는 문장의 내용을 똑바로 리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조가 단계적성격을 뚜렷이 지니고있으며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방식이 다양한 조선어문장구조는 거기에 알맞는 문장성분화를 요구하는것만큼 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는데서도 조선어적인 특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문법적견해들은 문장성분의 단위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단위사이에 석연한 계선을 긋지 않은데로부터 문장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상관관계의 단위까지 모두 문장성분으로 잡았다. 그리하여 문장을 이루고있는 모든 단위(단어)는 곧 문장성분으로 되게 하였다.

이렇게 문장성분의 단위를 잡고 문장성분화를 한다면 문장의 내용파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서로 다른 질서를 뒤섞어놓는것으로 된다.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유일하게 옳은 방도는 조선어문장구조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는것이다.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들의 어휘-의미적상관성, 구조적특성, 그리고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수단과 수법의 특성 등을 통일시켜 고찰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구조-문법적표식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문법적성분화란 다름아닌 문장의 구조-문법적특성에 기초하여 전일적구조에서의 상관단위를 가르고 그 문장론적기능을 규정하는 과정이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어 문법적성분화의 원칙은 구조-문법적립장에 서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을 통일적으로 고찰하는것이다.

구조-문법적립장에서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성의 별로 빛나는 렬사들이 대성산 주작봉마루에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게 되였다.

이러한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성재료는 자립적단어, 단어들의 결합체, 《복합어》, 《어음론적단어》 등이다. 그런데 이 구성재료들이 맺고있는 문장론적관계, 상관관계의 성격과 질서는 꼭같은것은 아니다. 어떤것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테두리에서 상관관계에 놓인다면 어떤것은 전일적인 구조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인 상관관계의 질서에 놓인다. 상관하는 단위들의 단계적성격과 구획되는 단위가 서로 다른 질서에 있다.

이 전일적인 문장에서 1차적으로 구획되여나오는 상관적단위는 《총성의 별로 빛나는 렬사들이》, 《대성산 주작봉마루에》, 《영생하는 모습으로》, 《빛나게 되였다》이며 2차적으로 구획되여나오는 상관적단위는 《총성의 별로 빛나는》, 《렬사들이》, 《대성산》, 《주작봉마루에》, 《영생의》, 《모습으로》이며 3차적으로 구획되여나오는 상관적단위는 《총성의 별로》, 《빛나는》이다.

3단계로 구획되는 이 문장구조에서 《렬사들이》, 《주작봉마루에》, 《모습으로》, 《빛나게 되였다》는 전일적인 구조의 상관관계에 있는 단위이며 《총성의 별로 빛나는》은 자립적단어들의 결합체이며 《대성산》, 《영생의》는 전일적구조에서의 《의존어+주도어》의 관계에 있는 자립적단어들의 의존관계의 단위이다. 《빛나게 되였다》는 《자립어+보조어》의 결합체의 단위이다. 문장성분이 1차 및 2차 단계로까지 상관하며 3차단계로부터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단위로 된다.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교차되여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야 한다.

○ 오늘밤엔 동네마다 불빛이 환했다.

이 문장은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4개의 전일적인 상관적단위를 가진 구조이며 1차적으로 4개의 성분이 구획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의 구성성분들이 상관하는 관계적성격은 다음과 같다.

오늘밤엔 동네마다 불빛이 환했다

모든 단위들이 1차적으로 구획되면서 3개의 의존어가 하나의

주도어 《환했다》에만 상관하는 이러한 구조의 문장에서는 문장성분과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단위는 일치한다. 이러한 구조는 문장성분과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요소들이 한줄우에 놓이는 관계에 있다.

단어들의 결합체가 여러 겹으로 쪼개여지면서 주도어에 의존하는 구조의 문장도 있을수 있다. 이런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일찌기 그 류례를 모르는 한없이 은혜롭고 영원한 혁명의 품!

이 《명령-감탄문》은 9개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규정+피규정》의 관계로만 서로 상관하는 4개의 단위(《일찌기 그 류례를 모르는》, 《한없이 은혜롭고 영원한》, 《혁명의》, 《품》)가 1차적으로 구획되여나오는 구조이다. 2차적으로는 《일찌기》, 《그 류례를 모르는》, 《한없이》, 《은혜롭고 영원한》의 상관관계가 구획되여나오며 3차적으로는 《그 류례를》, 《모르는》, 《은혜롭고》, 《영원한》의 상관관계가 구획되여나온다. 상관관계를 더 쪼개여보면 4차적으로 《그》, 《류례》의 상관관계가 구획되여나온다.

이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요소들이 상관하는 단계적성격은 다음과 같다.

I (일찌기 그 류례를 모르는) I (한없이 은혜롭고 영원한)

일찌기(II) 그(III) … 류례를(III) … 모르는(II) 한없이(II) 은혜롭고(II) 영원한(II)

I 혁명의 I 품!

이상에서 든 첫례문은 단어결합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된 4개의 1차문장성분중 3개의 2차 문장성분(규정어)을 더 가진 문장이다. 즉 이 례에서는 총체적으로 7개의 문장성분의 단위가 구획된다.

둘째 례문은 자립적단어들의 련결(또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쪼개여이루어진 4개의 1차문장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즉 4개의 문장성분의 단위가 구획되였다.

셋째 례문은 단어결합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된 4개의 1차적 문장성분이 《규정+피규정》의 관계로 상관하는 질서의 문장이다. 즉 셋째례문에서는 3개의 규정어와 1개의 《피규정어》로 문장성분의 단위가 구획된다.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모든 1차단계에서 상관하는 단위는 례외없이 문장성분으로 되며 전일적인 구조에서의 상관관계에 있는 규정어만은 2차단계에서도 문장성분으로 된다. 즉 1차단계에서 규정어가 문장성분으로 되는 경우와 같다.

〔붙임〕 견해에 따라서는 1차단계에 속하는 상관적단위만을 문장성분으로 잡는데로부터 2차단계에 속하는 규정어를 문장성분으로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여기서는 규정어, 특히 확대성분으로 된 규정어의 구조-문법적, 어음-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문장성분으로 보는 립장에 섰다.

이상으로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는 원칙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문장성분화의 이 원칙과 방법에 기초하여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의 단어(또는 그와 등가적인 결합체)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하나의 단어가 문장성분으로 된다.

○ 《조국!》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①

○ 《춥지들 않니?》
《아니…》 억봉의 외마디 대답이다.②

례①에서 《조국!》은 하나의 단어로 된 《명명-감탄문》이다. 례②에서 두 대화는 하나의 단어(또는 그와 등가적인 결합체)로 된 물음문, 줄임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만 하고 그 《하나의 단어》가 어떤 구성성분인가 하는것은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무성분문장》도 아니며 《단어문장》도 아니다.

여기서 《하나의 단어》는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이며 따라서 상관관계에 놓인다. 하나의 단어인것만큼 단어결합의 질서에 놓이지 않으며 전일적인 구조로서 상관관계에 놓인다. 즉 현실과 상관하는 단위, 전일적인 구조에서 상관하는 단위, 문장성분이다. 말하자면 이들 문장은 구성성분의 질서에서 볼 때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무성분문장》이란 구성성분이 없는 문장이라는것인데 론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성성분이 없는 문장이란 성립될수 없는것

이며 따라서 《무성분문장》이란 사실상 문장이 아니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조선어 에서는 이들 《하나의 단어》앞에 수많은 전개구조의 의존어가 올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생산적인 류형으로 되고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로 훌륭히 진술단위를 이루는 이러한 문장 류형에서 문장성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문장성분화를 피한다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며 조선어문장의 모든 류형의 구성성분을 다 밝혔다고 할수 없게 된다.

《하나의 단어》앞에 전개된 구조의 의존어가 온다면 그것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와 문장성분의 질서가 교차하는것으로 된다. 이 경우에도 문장성분화는 진행될수 있으며 그 주도어는 《하나의 단어》인 것이다. (례: 화려하게 꾸려진 창광원!)

하나의 단어로 진술단위를 이루는 문장은 하나의 성분으로 된 문장이며 하나의 단어결합체로 된 문장은 전개된 하나의 성분으로 된 문장이다.

둘째로, 두개이상의 자립적단어가 전일적인 구조에서 상관관계에 놓일 때 그 모든 자립적단어는 문장성분으로 된다.

○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삶을 빛내여준다.

이 문장에서 자립적단어들은 자립적단어끼리 상관하면서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1차적 또는 2차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고있다. 이것은 조선어문장성분의 전형적인 단위이다.

셋째로, 전일적인 문장에서 하나의 뜻덩이를 나타내는 《문장론적단어》는 문장성분으로 된다.

○ 우리 인민은 드높은 민족적긍지를 간직하고있으며 떳떳한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산다.

○ 남조선괴뢰도당이야말로 민족의 도살자이다.

이들 문장에서 《민족적긍지》, 《혁명적자부심》, 《남조선괴뢰도당이야말로》는 이른바 《문장론적단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장론적단어란 문장안에서 하나의 뜻덩이를 나타내는 단어복합체이며 띄여쓰기에서 상대적자립성을 가지는 단어들을 붙여써서 하나의 문장론적단위로 만든것이다. 모든 《복합어》는 다 《어음론적단어》 또는 《문장론적단어》이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상관관계에 놓인 《문장론적단어》 또는

《어음론적단어》는 사실상 동일한 질서에 놓인 하나의 자립적단어와도 같이 구획되는 문장성분이다. 조선어에서 이 단위는 매우 생산적이다.

넷째로, 모든 《굳어진 구조의 단어결합체》(《성구론적단어》)는 그것이 자립적단어와 등가적인 관계에 쓰이는 한에 있어서 문장성분의 단위로 된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놓으시였다.

○ 오수덕은 그야말로 하늘아래 첫동네였다.

이 문장들에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각각 하나의 굳어진 뜻덩이로 파악되는 단어들의 결합체이며 《하늘아래 첫동네》는 성구이다. 이와 같은 《굳어진 단어들의 결합체》(성구론적단어)는 전일적인 문장에서 문장구조의 상관적단위로 되는 한에 있어서 문장성분의 단위로 된다.

다섯째로, 반복형태로 된 자립적단어들의 결합체는 하나의 문장성분단위로 된다.

○ 옛날옛적에 아금랑이라는 슬기롭고 용감한 소녀가 살고있었다.

○ 청년건설자들은 밤이면 밤대로 충성의 불꽃을 련속 피웠다.

이들 문장에서 《옛날옛적에》, 《밤이면 밤대로》 등은 반복형태로 된 자립적단어들의 굳은 결합체이다. 이것들이 전일적문장구조에서 상관적단위로 되는 이상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된다.

이러한 문장성분의 단위는 사실상 《공고한 단어결합체》라고도 할수 있는 단위인데 반복형태로 강조의 뜻빛갈을 더하여준다는데 특색이 있다.

여섯째로, 문장론적관계를 가지는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들의 모든 결합체는 하나의 문장성분의 단위로 된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 박동무는 일어나자바람으로 삽을 들고 나갔다.

이 두 문장에서 《수령에 대한》은 《자립적단어+문법화된 보조어》, 《일어나자바람으로》는 《자립적단어+문법화되고있는 보조어》의 결합체이다. 이것들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하나의 상관관계의 단위로, 하나의 통일된 뜻덩이의 표시자로 되고있다는데서 공통

적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의 문장성분단위로 된다.

일곱째로, 조선어문장에서 2차단계에 있는 모든 단어결합체는 하나의 문장성분의 단위로 된다.

특히 2차단계에 있는 《구》와 《부》 등의 확대된 구조적단위는 하나의 문장성분단위이다.

《구》나 《부》에서는 어느 한 요소도 단독으로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상관단위로 못되며 오직 그 결합체를 한덩어리로 하여서만 전일적인 상관단위로 된다. 이러한 단어결합체는 하나의 문장성분단위로 된다. 따라서 조선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성분의 부성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2차단계의 질서에 있는 단어결합체가 문장성분의 단위로 되는 경우가 앞의 조항(여섯가지 조항)의 조건과 다른 점은 앞의것들이 단순성분의 단위라면 이 일곱번째 경우는 확대성분의 단위라는것이다.

이상에서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할수 있는 몇가지 조건을 들어서 밝혔다.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는것은 결국에 가서는 조선어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밝히고 문장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성있게 확정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있다.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적으로 확정할 때에만 조선어문장성분의 갈래도 과학성있게 나누어볼수 있다.

제2절. 문장성분의 갈래

조선어문장성분의 본질과 특성을 밝히고 그 단위를 확정한데 기초하여 실지로 문화어문장성분의 구체적인 갈래를 잡는것은 과학적인 문장성분화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적인 문장성분화를 위하여서는 문장성분의 갈래를 옳게 잡기 위한 리론적기초를 쌓아야 한다. 문장성분의 갈래를 옳게 잡기 위하여 나서는 리론적문제는 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을 바로 정

하고 모든 문장류형에 해당하는 문장성분을 설정하는것이다.

1. 문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

문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을 세우는데서도 중요한것은 조선어문장구조에 반영된 민족적특성을 옳게 포착한데 기초하여 전일적인 문장의 상관적단위들의 구조-문법적특성, 문장론적기능, 어휘-문법적의미 등을 공정하게 보는것이다.

조선어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은 구체적으로 전일적인 문장의 상관적단위들의 구조-문법적특성, 문장론적기능, 어휘-문법적의미 등에서 구현된다. 그러므로 전일적인 문장의 상관적단위들의 구조-문법적특성, 문장론적기능, 어휘-문법적의미 등을 편견없이 고찰할 때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문장성분분류기준을 얻게 된다.

이상과 같은 립장에서 출발할 때 문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울수 있다.

1)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서로 맞물리는 단위들의 의미적련관성을 고려하는것이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서로 맞물리는 단위들의 의미적련관성은 맞물리는 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의 어휘적의미와 문법적의미의 통일로써 실현된다. 례컨대, 《조선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하다.》에서 전일적인 구조의 맞물리는 단위는 《조선혁명의 전도는——양양하다》, 《참으로——양양하다》, 《조선혁명의——전도》이다. 이들 상관단위들은 해당 단어의 구체적인 어휘적의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대상, 표식, 양상 등 일반화된 의미와 《한정》, 《보충》, 《진술》 등과 같은 문법적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어휘적의미와 문법적의미가 통일되여 이 상관단위들의 의미적련관성을 이루는것이다.

두개이상의 단어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진 문장구조에서 상관단위들의 의미적련관성이 없다면 도대체 문장성분이란 갈라낼수 없다. 의미적련관성이 없는 단위들의 성분화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문장의 뜻도 옳게 파악할수 없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들의 의미적련관성이 보

장되지 않고서는 그 문장론적기능도 확정할수 없고 문장성분의 이름도 달수 없다. 그러므로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들의 의미적련관성의 파악은 문장성분화의 선차적조건이며 과학적문장성분분류의 일차적인 기준이다.

2) 문장성분으로 되는 단위의 문법적형태, 문법적의미, 문법적기능을 통일적으로 고찰하는것이다.

문장성분이 문법적성분화의 결과 얻어지는 단위인것만큼 그 분류에서 문법적형태, 문법적의미, 문법적기능을 통일시켜보는것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모든 문장론적단위들의 문법적표식은 오직 그 단위들의 문법적형태, 문법적의미, 문법적기능을 통일시켜 고찰할 때 어느 극단에 빠짐이 없이 공정하게 살필수 있다.

문법적표식의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시하여도 문법적성분화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례컨대, 문법적형태만을 절대시하여 문장성분을 가른다면 문법적의미의 다양한 측면, 문장론적기능의 차이를 파악할수 없으며 문법적의미만을 절대시한다면 문장성분의 수효는 종잡을수 없이 많아지며 문장론적기능(문법적기능) 일면만을 절대시한다면 구체적인 문장성분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도외시되고 마침내 문장성분의 갈래는 성글게 될것이다.

여기에서도 문장성분화에서 한 형태의 다기능, 다의성을 고려하며 한 의미의 다형태화, 다기능화를 념두에 두고 어디까지나 문장의 전체 뜻을 옳게 파악하는 방향에서 문장성분의 갈래를 잡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는 가까이 있다.》의 《가까이》나 《우리 학교는 근방에 있다.》의 《근방에》, 그리고 《얼음이 물로 되였다》, 《얼음은 두텁게 덮이였다.》에서 《얼음이》와 《얼음은》은 각각 같은 문장성분이며 《학생의 본분》, 《학생을 만나다》 등에서 《학생의》, 《학생을》은 언제나 다른 문장성분으로 된다고 보는 립장에 서는것이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분류태도로 된다.

3)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들의 구조적제약성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이다.

문장성분들의 구조적제약성은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표식의 하나이다.

조선어문장성분들의 구성재로로 되는 품사들의 결합가능성의

특성, 규정어의 고정된 위치, 그리고 모든 상관단위들의 배렬상제약성 등은 문장성분의 구조적제약성을 낳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문장성분화에서는 문장성분의 구조적제약성을 조건짓는 이러한 요인들에 눈을 돌려야 한다. 례컨대, 《1967년초 어느날이였다.》에서 《1967년초》를 규정어로 볼수 있는 힘있는 근거는 그것들이 전일적인 문장속에서 발현되는 구조적제약성에 있다.(대상의 속성을 규정하면서 그앞에만 자리잡는다.)

주어란 술어와 상관해서만 존재하는 성분이며 보어나 상황어 등도 술어에 의존하는 성분이며 규정어란 뒤에 오는 《대상성》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에만 의존하는 성분이다. 이러한 문장성분의 의존관계는 례외없이 구조적으로도 제약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문장성분의 상관성이란 결국 구조적제약속에 있는 단위들의 맞물림인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성분분류에서는 반드시 전일적인 문장의 구조적제약성에 눈을 돌려야 공정한 갈래가 정하여진다.

4) 문장성분의 분류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두 구성문》이나 《확대구조를 가진 문장》에서만 문장성분화가 진행될것이 아니라 조선어의 모든 문장류형에서 분류가 진행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문장성분의 분류가 주로 《주어+술어》의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뒤따라 《부성분》이 붙는 문장류형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허다한 특수류형의 문장은 문장성분화의 대상에서 빠졌다. 바로 조선어적인 특성이 집중되여있는 특수류형의 문장의 성분화가 도외시되다보니 다른 나라 말에서와 같은 문장성분의 갈래가 설정될수 있었다.

조선어문장구조의 다양한 구조적특성에 맞는 문장성분분류를 위하여서는 특수류형의 문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류형의 문장에 이르기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과 특수, 보편적인것과 고유한것을 다같이 고려한 기초우에서 문장성분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순이야, 놀라지 말라.》, 《창광원!》, 《늦가을 어느날이였다.》, 《늦가을이라?》, 《해별이 따사로이 뿌려지는 화창한 봄날, 만경대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아니요, 저는 그 때…》 등과 같은 문장에서도 성분화가 진행될수 있게 문장성분분류

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우에서 제기한 조선어문장성분분류의 과학적기준은 문장성분화의 일면성과 동요성을 극복하고 조선어의 모든 문장류형에서 문장성분을 가를수 있게 하는 기본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 밝은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합리적인 문장성분화를 진행할수 있게 된다.

2. 문화어문장성분의 갈래

문화어문장성분의 갈래를 과학적기준에 기초하여 잘 설정하자면 선행한 견해들이 설정한 조선어문장성분의 갈래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문장론분야에서 가장 론쟁적성격을 띠였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것의 하나가 문장성분의 갈래에 관한 문제였다.

조선어문장의 다양한 구조적류형에 따르는 모든 구성성분을 남김없이 분류하여야 한다는 립장과 일관한 구조-문법적립장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시기의 견해들에 비홉한 점이 없지 않다.

이전의 문법적견해들은 주로 《맞물리는 성분》에만 눈을 돌리던 나머지 《외딴성분》에 속하는 비상관적성분을 《독립어》, 《문장밖에 있는 어》, 《성분밖에 있는 단어들》이라고 하여 문장성분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외딴성분》도 《맞물리는 성분》의 울타리안에서 다루었다.

지난 시기의 모든 문법적견해들은 하나의 단어(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된 문장에서는 문장성분화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무성분문장》으로까지 보았다.

《맞물리는 성분》만을 다루는 경우에도 때로는 문장성분의 기능을 위주로 하는가 하면 때로는 형태-구조를 위주로 하였으며 때로는 론리적해석을 앞세웠다. 문장성분의 이름을 다는 경우에도 때로는 상관의 성격을 위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관의 방식을 위주로 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르게 보거나 서로 다른 현상을 같은것으로 보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 민족어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그 어떤 《보편성》의 《리론》이

나 과학적타당성이 부족한 《전통》적견해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 문화어 문장성분에 고유한 특성을 볼수 없다. 따라서 우리 말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문장성분화를 진행할수 없다.

문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인 갈래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립장에 더욱 튼튼히 서서 조선어문장구조에 대한 새로운 고찰방법을 찾는것이 요구된다.

먼저 맞물리는 문장성분과 외딴성분의 고찰에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문장이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로부터 문장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은 반드시 일정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낸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그 관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성격을 띨수도 있고 간접적인 상관관계의 성격을 띨수도 있으며 단독적으로 현실과의 상관관계만을 나타내는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문화어의 문장성분을 크게 세가지로 즉 ① 맞물린성분, ② 외딴성분, ③ 단독성분으로 나눌수 있다고 본다.

맞물린성분이란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테두리에서 하나가 다른것을 직접 설명하고 하나가 다른것에 의하여 직접 설명받는 관계에 있는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외딴성분이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외따로 있는 구성성분으로서 전일적인 구조와 간접적으로 상관하는 관계에 있는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단독성분이란 그자체가 전일적인 문장구조를 이루며 그자체로써 현실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조선어문장성분은 이와 같이 구조-문법적립장에서 그 상관관계의 성격을 볼 때 크게 맞물린성분, 외딴성분, 단독성분으로 나눌수 있다.

다음으로 맞물린성분을 주성분과 부성분으로 나누는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선어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모든 맞물린성분을 주성분, 부성분으로만 가르는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것은 주성분, 부성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리해와 구체적인 조선어현실에

맞아떨어지지 않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성분을 문장의 골격을 이루며 진술화를 실현하는 주되는 성분이라는 개념으로 리해하여왔다. 그리하여 대다수 견해들에서는 주어와 술어를 주성분에 넣었으며 일부는 그밖에도 《객어》(또는 《목적어》)를 주성분에 넣었다.

지금까지 또한 부성분을 문장의 골격에 붙는 살과 같으며 진술화를 실현하는 필수적성분이 아닌 《부차적성분》이라는 개념으로 리해하여왔다. 그리하여 대다수 견해들은 부성분에 보어, 규정어, 상황어를 넣었으며 일부는 그밖의 성분류형을 새로 설정하고 그것들을 부성분에 넣었다.

최근에 술어만을 《주도성분》(주성분과 대동소이한 개념)에 넣고 그밖의 모든 맞물린성분을 부성분으로 보는 견해도 나타났다. 이 견해는 술어의 우위성을 강조하면서 그 기능의 주도성을 일반화하였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대다수 견해들은 맞물린성분을 《량분법》의 고찰로써 주성분 대 부성분, 또는 주도성분 대 비주도성분의 관계로 보았다.

그러나 다양한 조선어문장구조는 이와 같은 《량분법》적고찰로써만 다 해결되지 못한다. 그것은 조선어문장구조의 다양성이 주어, 술어만을 골격이라 볼수 없고 보어, 규정어, 상황어 등을 언제나 동일한 질서에 놓고 부차적인 성분으로만 볼수 없게 하기때문이다.

○ 김동무는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궂은일도 가리지 않았다.①

○ 1976년 6월하순 어느날이였다.②

첫째 례에서 골격을 이루며 진술화를 실현하는 주되는 성분은 《김동무는 +가리지 않았다》(주어+술어)뿐일수 없다. 그것으로써는 도대체 진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말이 되지 않는다. 오직 《김동무는+궂은일도+가리지 않았다》로써만 진술화가 완전하게 실현되며 진술의 골격을 이룬다. 이 경우에는 《주어+직접보어+술어》가 《주되는 성분》으로 된다.

둘째 례문에서 《1976년 6월하순》은 《어느날이였다》에 대한 의존어(규정어)로 되지만 그 어떤 《2차적기능》(부차적기능)만을 수행하는것도 아니다. 이 문장에서 오직 단어들의 결합체전체가 진술의

골격, 진술화의 담당자로 되며 정 나눈다면 《1976년 6월하순》은 《어느날이였다》에 대한 1차적의존어인것이다. 여기에는 주어도, 술어도, 보어도 없지만 진술화의 담당자, 진술의 골격은 이루어졌다.

《주어+직접적보어+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직접보어도 《골격성분》에 넣어야 하며 단독성분으로 된 문장에서는 그 단독성분이야말로 유일한 골격성분으로 되는것이다.

《부성분》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처리를 할수 없다. 조선어에서 보어나 상황어는 《주성분》에 1차적으로 의존되지만 규정어는 1차적으로도 의존되고 2차적으로도(또는 그이상의 차원으로) 의존된다. 그리고 조선어에는 보어, 상황어, 규정어로만 볼수 없는 《의존성분》이 그밖에도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부터 조선어문장성분의 갈래를 크게 《주성분》과 《부성분》으로 《량분》할것이 아니라 조선어문장구조의 특성에 맞게 더 정밀하게 갈라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구조-문법적립장에서 조선어문장의 구성성분들의 갈래를 크게 《기초성분》, 《주도성분》, 《의존성분》으로 나누고 그안에서 더 작게 구분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리하여 《기초성분》에는 단독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의 그 단독성분과 《진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에서의 《진술어》가 들어가며 《주도성분》에는 《주어+술어》의 구조에서의 주어, 술어 그리고 직접보어가 있는 문장에서의 직접보어가 들어가며 《의존성분》에는 《기초성분》, 《주도성분》에 의존되는 모든 성분이 들어갈것이다.

○ 력사의 땅 포평!
(의존성분) (기초성분)

○ 정녕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얼마나 뜻깊은 이름으로 간직된 유서깊은 곳인가.
(의존성분) (의존성분) (기초성분)

○ 방안에는 와하고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의존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주도성분)

○ 《동생을 데리고 경기장으로 가거라.》
(의존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 4월 중순이였다.
(기초성분)

○ 우리는 혁명소설을 탐독하였다.
(주도성분) (주도성분) (주도성분)

○ 《언제 왔느냐?》
(의존성분) (주도성분)

○ 《어제요.》
(기초성분)

〔붙임〕 더 크게는 《기초성분》을 《주도성분》에 넣거나 《주도성분》중의 술어만을 《기초성분》에 넣을수 있다. 왜냐하면 《진술어》(기초성분 또는 주도성분에 속할수 있음)와 술어(기초성분 또는 주도성분에 속할수 있음)를 제외한 모든 문장성분은 기초성분 또는 주도성분인 《진술어》, 《술어》에 의존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존성분》도 조건적이다. 특히 《의존성분》에 붙는 2차, 3차의 《의존성분》도 있을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때 규정어, 간접보어, 상황어 밖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존성분》으로 되는것들이 있을수 있다.

다음으로 한 단어로 이루어졌거나 하나의 단어결합체로 된 문장류형에서 문장성분을 어떻게 가를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공백으로 남았던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문법적견해들은 이 류형의 문장을 성분화의 대상으로 잡지 않았거나 애매한 명칭으로 구분했기때문이다. (문장성분을 가르지 않았거나 《무주어—술어》, 《단어문장》, 《술어》, 《주어》 등으로 불렀다.)

○ 당에 대한 티없이 맑은 충성심.

○ 《혁명!》

○ 《춥지 않니?》
《아니…》

○ 《용희야, 굴하지 말아.》

○ 《저녁무렵이였다.》

우에서 든 《충성심》, 《혁명》은 술어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주어겠는가? 그것도 아니다. 술어가 없이 주어가 있을수 없으며 주어의 대응(비록 잠재적이라도)이 예견되지 않는 술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아니》, 《굴하지 말아》, 《저녁무렵이였다》도 참된 뜻에서 술어로 되지 못한다. 주어의 생략이 아니고 진술형의 단독단어로만 되고있는 이들 구성성분은 언제나 단독으로만 있게된다. 단독으로 있게 되는것에 단어들의 상관성분의 자격을 줄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하나의 주도어를 핵으로 하는 단어결합체로 이루어진 문장구조에서 단독단어는 진술화의 모든 표식을 다 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장에서 단어의 어휘-문법적의미가 바로 사상의 완결성을 조건짓는 기초를 이룬다. 단독성분인 단어 또는 주도어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어휘-문법적의미를 떠나서 그 어떤 현실에 대한 관계도 이야기할수 없으며 이러한 뜻을 떠나서는 진술의 내용이 성립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단독성분으로 된 문장은 단어 하나로써 사상의 완결성, 완결된 진술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한 단어 또는 하나의 주도어를 핵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는 시간, 양태성, 말차림, 법 등의 진술화의 수단을 가지며 진술억양의 모든 요소들도 가진다.

한 단어 또는 하나의 주도어를 핵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 또는 주도어는 그자체로써 진술의 골간을 이루며 다른 맞물린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 단어, 한 주도어는 단어결합체의 질서에도 들어가지 않는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이상의 특성으로 보아 한 단어 또는 하나의 주도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 또는 주도어는 술어와도 구별되며 주어와도 구별되는 특수한 문장성분이다. 이 문장성분을 진술어라고 부르는것이 옳다.

진술어는 한 단어로 된 문장에서 기초적성분으로 된다. 그리하여 진술어는 모든 문장성분화의 1차적인 대상으로 된다.

〔붙임〕 술어가 그 어떤 문장성분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진술화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뜻에서 그것을 진술어에 넣을수도 있다. 하나의 단어로만 된 문장의 《술어》는 진술어이다. 그러나 《주어+술어》의 구조에서 술어와 진술어는 같은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문법적성분화에서 대상으로 잡지 않았거나 불합리하게 처리한 그밖의 문장성분의 갈래에 대하여 밝히는것이 필요하다.

○ 김혁, 차광수, 리광… 참으로 모두가 잊을수 없는 이름들이였다.①

○ 코끼리는 코가 길다.②

○ 학생 셋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있었다.③

○ 적땅크의 배때기에 구멍이 둘이 뚫어졌다.④

○ 남을 쳐다보는것, 그자체가 그릇된 립장이다.⑤

이러한 문장들에서 《모두가》, 《코가》, 《셋이》, 《둘이》, 《그자체가》 등이 어떤 단위, 어떤 문장성분이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지금까지 석연한 해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붙임〕 지금까지는 이러한 단위들의 일부(례 ②, ④)는 《소주어》 또는 《총괄어》(례 ①)로 처리하였거나 문장성분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례 ③, ④와 같은 문장에서 《셋이》, 《둘이》는 《2중주어》로도 보고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로도 보았으며 문장성분의 대상으로 아예 잡지 않기도 하였다.

이들 성분의 공통적인 구조-문법적특성은 언제나 렬거 또는 제시의 문장성분뒤에 오면서 그 앞성분의 위치를 재확인하거나 보충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는데 있다. 그 차이점은 《론리적의미의 무게》가 같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2중주어》, 《소주어》 또는 《총괄어》로 몰밀어 처리하지 않고 따로따로 확정하는것이 옳을수 있다.

지금까지 《2중주어》로 다루었던 례 ②, ④의 《코가》, 《둘이》만을 놓고 보더라도 《대주어》인 《코끼리는》, 《구멍이》와 《론리적의미의 무게》가 각각 다르며 그 기능과 문법적의미색채도 똑같지 않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조선어에서 《2중주어》, 《2중술어》, 《2중보어》 등 《중복성분》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이렇게나저렇게나 형식을 절대시하거나 론리를 지나치게 앞에 내세우는것이기때문에 객관성을 잃고있다. 이것들은 나아가서 《3중》, 《4중》 이상의 《중복성분》을 생각해낼 가능성을 주며 문장성분화의 리해에서 복잡성과 착잡성을 일으키게 된다. 《3중》, 《4중》 등으로 포개여지는 경우에 실지로 어느것이 《대주어》이고 어느것이 《소주어》인가 하는것도 갈라낼수 없으며 사실상 《대주어》와 《소주어》의 기능과 의미와 형태는 다른것이다. 례컨대, 《코끼리는》와 《코가》는 기능에서 주어와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의 관계이고 형태도 《는》과 《가》의 차이로 표시된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는》은 오직 《코가 길다》전체와만 상관한다.

이리하여 조선어에는 《대주어》, 《소주어》의 현상이 있는것이라기보다 문장성분과 단어결합성분의 중첩현상이나 《한 형태의 다기능화》의 현상이 있을따름이다.

지금까지 《총괄어》, 《동격어》 등으로만 다루었던 례 ①, ⑤의 《모두가》, 《그자체가》의 경우를 본다면 이것들이 단어결합성분이 아닌것은 자명하다. 이것들은 그앞에 렬거되거나 제시되는 문장성분과 위치적기능도 같고 상관하는 방식도 같다. 이것들이 특수한 맞물린성분으로서 렬거 또는 제시되는 성분의 뒤에 위치한다는 특성으로 보아 특수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잡을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있다.

례③에서 보는 《학생 셋이》는 어느모로 보나 그자체는 단어결합체이다. 따라서 《셋이》는 따로 《소주어》로 볼것이 아니라 《학생 셋이》를 합해서 주어로 봐야 할것이다.

례④의 《구멍이 둘이》에서의 《둘이》도 본질에 있어서는 례③의 경우와 같으나 《2중주격형태》로 중첩되였다는데서 차이가 있을따름이다. 그리고 례 ③, ④의 경우 앞 《주격》(또는 절대격)체언이 례외없이 속격형태를 취하면서 규정어로 될수 있다는 측면도 독특한것이다. 이 특수류형의 《중첩》성분도 따로 독자적인 문장성분으로 잡을수 있는 근거가 있다. 요컨대, 조선어의 《중복성분》에서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을것은 거기에 넣고 나머지것은 다 문장성분화의 대상으로 잡되 일부 경우에 특수현상을 인정하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

문제는 전일적인 문장의 모든 상관단위를 빠짐없이 성분화하며 문장성분의 질서와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을것은 거기에 넣고 나머지것은 다 문장성분화의 대상으로 잡되 일부 경우에 특수현상을 인정하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

문제는 전일적인 문장의 모든 상관단위를 빠짐없이 성분화하며 문장성분의 질서와 단어결합의 질서를 뚜렷이 가르며 조선어적인 구성성분들의 특성을 옳게 가르는데 있다.

이상에서 조선어문장성분의 갈래를 구조-문법적립장에서 정밀화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해온데 근거하여 문화어문장성분의 갈래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 성격	맞물린성분	외딴성분	단독성분
기초성분	《진술어》		《진술어》
주도성분	《진술어》, 주어, 술어, 직접보어		(《진술어》)
의존성분	간접보어, 상황어, 규정어	끼움말 이음말 부름말 느낌말	

〔붙임〕 이밖에도 《특수성분》이라 하여 《결속어》, 《확인어》 등을 새로 설정할수 있으며 《총괄어》, 《동격어》, 《제시어》 등은 그대로 《특수성분》으로 인정할수도 있다.

○ 학습, 그것은 현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다.
제시어(주어) 확인어

문장성분의 갈래에서 《인용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용말》설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며 다른 질서인 옮김법에 속하는 구조적단위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맞물린성분, 특수적으로는 술어와 주어의 《우위성》문제가 나선다.

우에서 이야기된 기초성분(항구적성분), 주도성분, 의존성분(2차성분) 호상관계에서 기초성분과 의존성분은 보통은 주어, 술어의 맞물린관계가 없으므로 《우위성》문제에서 론의될것이 없다. 그리고 주도성분이 의존성분보다 《우위》에 있고 의존성분가운데서도 차원이 높은것이 차원이 낮은것보다 《우위》에 있다는것은 앞의 진술로써 스스로 명백해졌다.

주어, 보어, 술어 가운데서 보어가 술어에 의존하는만큼 보어와 술어의 관계에서 술어가 《우위》에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문제는 주어와 술어사이에서 어느것이 《우위》에 있는가, 다시 말하여 주어가 주도어인가, 술어가 주도어인가 하는 문제가 날카로운것으로 제기된다.

지금까지 많은 문법적견해들은 주어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그 주되는 론거는 주어가 문장에서 《내세워진 말》이며 주어의 표현에 따라 술어부분의 문법적표식들이 《좌우》된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주장은 오래동안 지배적인것이였으며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는것으로까지 인정되여왔다. 그리하여 민족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통화》되여있었다.

최근 시기 문법학계는 이 《전통화》된 견해가 비문법적인 고찰의 결과이며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외면한데서 나온 편견이라는것을 간파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문법책들에는 술어의 《우위성》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서술들이 나왔다.

문장성분으로서의 술어의 지위를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면 주어보다 술어가 《우위》에 있다. 술어는 주어에 대한 주도어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내세워진 말》이란 론리적해석이며 실지로 현실—내용적(론리적)성분화에서 론의하는 방식이다.

《내세워진 말》이란 비문법적인 분석의 결과에 얻어진 용어이다. 문법적으로 《내세워진 말》이란 무의미하며 주어는 오직 술어를 설명하고 술어를 보충하기 위하여 맞물리는 문장성분이다. 따라서 술어가 주도어로 된다.

주어의 표현에 따라 술어부분의 문법적표식들이 《좌우》된다는 해석도 주관주의적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 아버지가 출장 떠나시였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라는 주어가 먼저 있고 그것이 《존경의 대상》을 나타내기때문에 술어부분에 해당한 시간토, 법토, 말차림토가 붙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존경토는 수의적인것이다. 론리적으로는 《아버지가》가 존경의 대상이라도 문법적으로는 《떠나시였다》와 맞물리는 관계에 있으며 《일치》했을따름이다. 존경토자체만으로는 《우위성》의 징표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가 주도어로 될 근거는 없다.

2) 술어는 문장의 기본표식인 진술성을 물질적으로 형식화하는 요소들이 집중된 단위이며 문장의 진술화를 끝맺아주는 핵심적단위이다.

○ 이 편지는 반드시 남녘동포들에게 가닿아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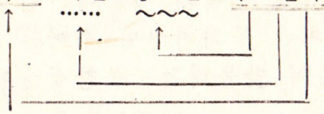
여기에서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는 어휘적수단과 이 문장의 전반적진술구조 및 억양 등 요소에 의해서도 물질화되지만 우선은 술어부분에 있는 양태성의 표현(《가닿아야 할것이다》)과 시

간, 말차림 등 관계의 표시자에 의하여 형식화된다. 말하자면 술어는 진술화의 물질적표식의 《집결처》이며 진술성표현의 물질적수단들이 집대성된 단위이다. 진술의 핵은 술어에 있지 주어에 있지 않다. 술어라는 진술의 핵이 있기때문에 주어도 있고 그밖의 성분도 있는것이다. 술어는 주도어이며 맞물린성분의 핵으로 되는 성분이다.

3) 조선어에서 모든 결합관계, 맞물린관계에서 의존어가 앞에 있고 주도어가 뒤에 온다는 법칙적현상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구현되고있는것의 하나가 주어와 술어의 맞물림이다.

보통의 문장에서 술어가 뒤에 오고 주어가 앞에 오는것은 조선어에서 법칙으로 된다. 술어는 주어도 포함한 모든 맞물린성분을 구조적으로 통솔하는 주도어이다.

○ 우리는 매일 당보를 독보한다.



4) 조선어에서는 술어(또는 술어의 확대구조)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은 있어도 주어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은 있을수 없다.

이것은 술어의 《우위성》을 말해주는 또하나의 징표이다.

○ 《집에 있거라, 인차 가마.》
《예, 기다리겠습니다.》

주어없는 문장은 있을수 있어도 술어없는 문장은 보통(《진술어》로 된 단독성분문장을 제외하고)은 있을수 없다는 사실은 술어야말로 문장을 조직하는 주되는 기능을 수행하며 문장성분화의 시발점을 이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5) 조선어에서 술어는 억양의 요소와 함께 문장의 양태적류형, 문장의 한계와 성격을 분간하여주는 결정적요소의 하나로 된다.

○ 비가 많이 오오.
비가 많이 오오?
비가 많이 오오!

○ 비가 오지만 우리는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우에서 본 맞물린성분의 주종관계문제는 문장성분의 지위를 문법적으로 가르는데서와 문장론적현상을 동요없이 분석하는데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맞물린성분의 주종관계를 옳게 식별하는것은 문장의 뜻파악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문장성분의 갈래를 론하며 특히는 문장의 성분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야기되여야 할 문제는 또한 문장의 현실-내용적성분화에 관한 문제이다.

문장의 현실-내용적성분화란 일정한 내용을 가진 문장을 론리-의미적구획단위로 나누어보고 그 맞물린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현실-내용적성분화에 의하여 구획되는 단위는 제시부, 주제부, 진술부 등이며 그것들은 《제시어》, 《총괄어》, 《제시주어》(제시보어, 제시상황어 등도 해당), 《진술어》(또는 술어)와 련관되여 구체적표현을 가지게 된다.

○ 주체의 태양은 온 누리를 비치고있다.
○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 두 문장에서 ——줄을 그은 부분은 진술의 주제부이며 -----줄을 그은 부분은 진술부이다.

주제부란 문장에서 내세워진 대상이며 진술의 출발점으로 되는 단위이다. 내세워진 대상이란 이야기거리의 《주제》로 되는것이며 진술의 출발점이란 이야기대상의 《제시》로 되는것이다.

진술부란 주제부를 풀이하여주며 진술의 귀결점으로 되는 단위이다. 주제부를 풀이하여준다는것은 이야기거리의 《주제》를 전개하여 설명한다는것이며 진술의 귀착점이란 《제시》된 내용을 마무리하여준다는것이다.

문장에서 내세워진 대상, 진술의 출발점이 있고 그것을 풀이하여주며 마무리하여주는 귀착점이 있어 판단은 완결된것으로 되며 문장은 론리-의미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구성단위로 형식화되는것이다. 이리하여 주제부와 진술부는 문장을 현실-내용적으로 파악케 하며 의미-론리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구성단위로 된다.

주제부는 구조-문법적성분화의 대상으로서의 주어뿐아니라 보어, 상황어로도 이루어진다. (우에서 례로 든 주제부는 《주어적주제부》라 할수 있다.)

○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음의 기둥이 있다. (《보어주제부》의 례)
○ 이른 아침에는 랭수마찰을 한다. (《상황어주제부》의 례)

진술부는 구조-문법적성분화의 대상으로서의 술어와 그 술어

를 지배어로 하는 일련의 단어결합 또는 확대성분결합들로 이루어진다.

〔붙임〕 현실-내용적성분화를 일명 의미-론리적성분화라고도 한다. 그리고 주제부는 《제시어》, 《진술의 출발점》, 《주어진것》 등으로 불리우며 진술부는 《풀이》, 《진술의 귀결점》, 《새것》 등으로 불리운다. 《주어진것》이란 이야기쌍방간의 화제에 이미 오른 《기지》의 대상이라는 뜻이며 《새로운것》이란 새로 밝히려는 이야기내용이라는 뜻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주제부와 구분하여 《진술의 전제, 출발점, 환경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장의 앞머리에 내세워진 구획단위》를 《제시부》라고도 보는 일이 있다.

○ 《속도전》의 기세 드높이 총진군의 북소리 세차게 울린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시부를 따로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론리-의미적성분화이기는 하나 많은 경우에 구조-문법적성분화의 대상으로서의 문장성분의 차례상 문제이고 문장론적 및 문체론적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우리 말 문장의 현실-내용적성분화의 대상으로서의 주제부와 진술부는 그 표현에서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지닌다. 례컨대, 주제부는 문장의 맨앞머리에 오며 도움토 《는(은)》을 가진다든지 하는것과 진술부는 진술성의 물질적표시자를 《집중적》으로 대표하면서 문장의 끝머리를 차지한다든지 하는것 등이 그것이다.

현실-내용적성분화는 문장의 뜻을 포괄적으로 인차 파악하며 론리적모순이 없이 리해하게 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문장의 현실-내용적성분화도 어디까지나 문법적성분화에 기초해서 문법적성분화와 밀접히 련관되여서만 의의를 가진다. 실지로 《주제부》라고 하는 단위는 문법적성분화의 《제시어》, 《총괄어》와 밀접히 련관된 명명이며 《진술부》도 진술어와 관련된 명명인 것이다.

문장의 문법적성분화야말로 문장의 모든 구성단위, 상관단위들을 동요성없이 파악케 하는 기본고리이며 모든 성분화의 바탕에 놓이는 기초적이고도 항구적인 문장구조의 분석과정이다. 문법적성분화가 잘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파악될 때 모든 사회성원들이 문장조직의 능수로 될수 있는것이다.

제3절. 문장성분의 표현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도록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은 문장성분의 표현에서도 풍부한 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문장성분의 표현이 풍부하다는것은 다양한 언어적수단에 의하여 여러 문장성분이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 류형의 문장성분의 표현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는것은 조선어문장성분의 표현수단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기초로 된다.

〔붙임〕 문장성분의 표현에 대하여 보통 주어의 표현, 술어의 표현, 상황어의 표현 등과 같은 제목밑에 표현 수단과 수법을 다룬다. 이것은 학교문법이나 서술문법의 일반적서술형식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서술체계를 따르지 않고 문장성분의 큰 분류에 따라 문제성있는 측면을 위주로 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맞물린성분, 외따성분, 단독성분의 표현에서 나서는 리론적문제를 해명하기로 한다.

1. 맞물린성분의 표현

조선어문장성분의 표현에서 가장 다양한 특성을 띠는것은 맞물린성분의 표현이다. 맞물린성분은 그것이 다른 문장성분과 직접 상관관계에 있고 그 갈래가 여러가지이며 상관관계의 성격과 방식이 또한 다양하다는데로부터 여러가지 표현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표현형태는 각각 일정한 문법적의미나 문법적기능을 나타낸다. 여기로부터 문장성분의 표현에서는 형태, 의미, 기능의 호상관계문제가 초미의것으로 나선다.

문장성분의 표현문제에서 《한 형태의 한 기능, 한 형태의 한 의미》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불피코 형식주의적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리하여 모든 주격형태는 주어, 모든 사격형태는 보어로 처리하는것과 같은 경향에로 나갈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 형태의 다양한 의미》를 론리적인것에서만 찾는다면 종잡을수 없이 갈라진 성분의 종류를 인위적으로 가르게 된다. 그리하여 속격형태에서 여러 문장성분을 찾으며 모든 이음형(접속형)에서 술어를 찾는것과 같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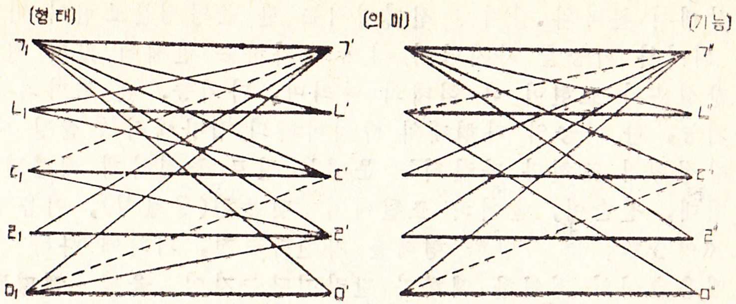
여기에서도 구조-문법적립장에 서서 한 형태의 다의성, 다기능성, 한 의미의 다형태, 다기능, 한 기능의 다형태화, 다의미화의 원칙을 인정하는것이 가장 공정한 처리방법이다.

이제 이러한 립장과 방법에서 문장성분표현의 형태, 의미, 기능의 호상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적형태	문법적의미	문장론적기능
절대격(○형태)	대상, 표식, 속성, 관련…	진술어, 주어, 보어, 규정어, 상황어, 부름말, 끼움말, 제시어…
주격 가(이)	주자, 객자…	주어, 보어…
속격 의	소속, 표식…	규정어
여격 에게, 한테, 에,	객자, 관련…	보어, 상황어…
대격 를(을)	객자, 방향…	보어, 상황어…
조격 로(으로)	도구, 방향, 인과…	보어, 상황어…
위격 에서	장소, 대상…	보어, 주어, 상황어
호격 여, 야	대상, 제시…	부름말, 진술어…

〔붙임〕 문법적의미의 《다의성》은 범주적의미의 《단의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한 형태의 여러가지 의미의 《쓰임》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론리적의미》, 《색채상의미》까지 다 포괄하는 《다의성》과는 다르다. 례컨대, 속격토의 범주적의미는 하나이나 그 구체적인 발현으로서의 《소범주적》의미는 《대상》, 《속성》, 《관련》, 《표식》 등이며 그밖의 쓰임에서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 《소범주적》의미도 어디까지나 일반화된 의미이므로 문맥과 어휘적의미의 상관에서 얻어지는 《무수한 색채적 및 론리적 의미》와는 다르다.

이러한 문장성분의 표현형태, 문법적의미, 문장론적기능의 호상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선어적인 특성을 일반화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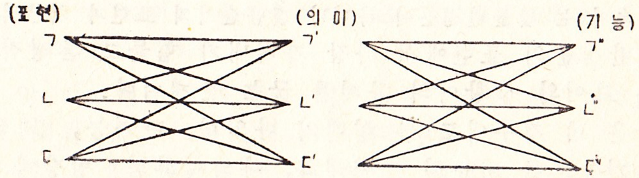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문법적형태, 문법적의미, 문법적기능의 호상관계를 고찰한다면 형태상으로는 주격에 놓이는 성분이 주어로도, 보어로도 될수 있고 절대격형태로 된 문장성분은 더 다종다양하며 그밖의 격형태에 놓인 체언들도 여러가지 문장성분으로 될수 있다.

문장성분표현에서 문법적 의미, 형태, 기능의 호상교차관계는 토를 가지지 않는 단어, 《무형태단어》 등에서도 그대로 작용한다.

이 관계의 전형적인것을 렬거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	(의미)	(기능)
《어간형태》	대상성, 용언성	진술어,술어,주어,보어,규정어
《무형태》	표식, 수식	규정어,보어,상황어,술어
《고정형태》	이음, 느낌	이음말,부름말,끼움말,느낌말

이 관계도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붙임〕 이 경우의 표현, 의미, 기능의 관계도 모든 항목에서 교차되는것은 아닐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교차관계의 체계가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에서는 한 문장성분표현이 다양한 형태와 의미와 기능을 가지면서 서로 교차하는 관계에 있게 된다.

문장성분의 표현이 한 형태의 다의미, 다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 다기능, 한 기능의 다형태와 다의미화의 립장에서 고찰될 때 조선어문장성분의 표현과 관련되는 문제는 절로 공정하게 해결된다.

례컨대, 진술어, 술어의 표현에서 맺음형(종결형), 이음형(접속형), 《어간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것, 거기에 따라 이음술어, 맺음술어의 정연한 체계가 갈라진다는것이 옳게 해명된다. 또한 체언의 이음형은 이음술어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상황어로도 되며(례: 《봄이면 진달래 만발한다.》에서의 《봄이면》) 사격형태의 체언이 보어로도 되며(례: 불을 맞이하다.) 상황어로도 된다는것(례: 평양을 간다.) 등도 쉽게 파악된다.

이리하여 우리 말에서 맞물린성분의 표현은 일단 다음과 같이 묶여진다.

(1) 진술어와 술어의 표현
① 맺음술어의 표현…맺음형, 이음형, (《어간형》, 《무형태형》)
② 이음술어의 표현…이음형, 맺음형, 《무형태형》, 보조어의 일정한 형태
(2) 주어의 표현…주격토, 《위격토》(에서), 도움토, 《어간형》
(3) 보어의 표현…모든 사격토, 《어간형》, 《무형태형》
(4) 상황어의 표현…부사, 모든 《사격토》, 《어간형》, 《무형태형》, 보조어의 일정한 형태, 이음형
(5) 규정어의 표현…규정형, 속격형태, 《어간형》, 관형사

〔붙임〕 일부 문장성분의 표현들에는 서로 넘나드는것이 있을수 있고 특수한것들이 있을수 있다.

《진술어》는 맞물린성분이 아니나 맺음술어의 표현과 기본적으로 같다.

맞물린성분의 표현에서 가장 가려내기 힘들고 론쟁적인 성격을 띠는것은 보어와 상황어의 한계를 긋는 문제이다.

지금은 이 경우에도 한 형태의 다의미, 다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 다기능, 한 기능의 다형태화, 다의미화의 립장에 서는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어와 상황어는 질적으로 다른(즉 하나는 대상의

보충, 다른 하나는 동작과 표식의 상황) 성분인데 그 표현형태와 기능과 의미의 구현은 다양하기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능을 공정하게 일반화하는 길만이 성분화의 옳은 방법인것이다.

○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 우리는 밤에도 책을 읽었다.

이때의 《목숨으로》, 《밤에도》는 보충적인 대상이 아니며 행동의 방식 또는 시간관계를 나타내며 그 상관의 방향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보어로 될 아무런 표식도 없다. 이것들은 상황어이다. 즉 상황어가 격형태를 취하면서 방식적 및 시간적 한정의 기능을 수행한것이다.

그밖의 모든 맞물린성분의 표현에서도 형태, 의미, 기능의 호상관계를 통일시켜 고찰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장론적기능을 위주로 하여 그 류형을 확정한다면 문장성분은 그 어떤 《고정된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속에 있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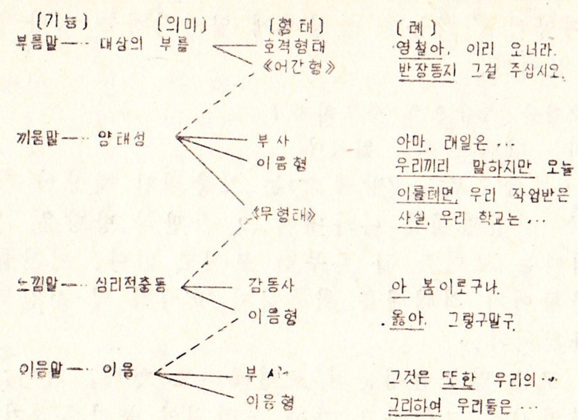
2. 외딴성분의 표현

조선어문장성분의 체계에서 외딴성분은 그 표현이 맞물린성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러나 토가 발전되여있고 감정적색채를 나타내는 언어적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외딴성분의 표현에서도 고유한 특성이 나타난다.

〔붙임〕 외딴성분을 문장성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어》, 《성분밖에 오는 단어》 등으로 보는 견해들에서도 그 표현문제에서 크게 상반되는 론의는 없다. 례컨대, 《독립어》로서의 조선어의 부름말, 느낌말, 이음말, 끼움말 등은 문장성분으로서의 부름말, 느낌말, 이음말, 끼움말 등의 표현과 별다른것이 없다. 그리고 제시어(보임말)도 외딴성분으로 넣을수 있으나 여기서는 례로 들지 않는다.

우리 말 외딴성분의 표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화》의 원칙이 두드러지게 적용된다.

외딴성분의 표현에서의 기능, 의미, 형태의 호상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딴성분의 표현에서 《한 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화》의 원칙의 적용은 비교적 외딴성분들의 갈래를 뚜렷이 구분케 한다. 의미, 기능과 형태와의 일부 교차관계도 크게 성분의 한계를 섞갈리게 할 정도로 복잡한것은 아니다.

○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향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부름말)
경주야, 때을 놓지 말아.(부름말)

○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모두의 생각은 한결같았다.(끼움말)
아마, 오늘도 직포직장에서는 계획을 훨씬 초과했을걸.(끼움말)

○ 아, 잊을수 없는 포평나루여!(느낌말)
옳아옳아, 그곳에 가면 표식이 있어.(느낌말)

○ 가도가도 강냉이밭이였고 또 푸른 논판이였다.(이음말)
하여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있게 되였다. (이음말)

외딴성분의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작은 갈래들의 표현에서 한계를 뚜렷이 짓지 못하는 때도 있을수 있다. 례컨대, 끼움말의 일부 작은 갈래와 이음말의 작은 갈래의 표현이 그러하다.

많은 문법책들에서는 《첫째》, 《첫째로》, 《둘째》, 《둘째로》, 《마지막으로》, 《다음》,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먼저》, 《먼저》, 《또한》 등을 끼움말의 한 갈래의 표현으로 잡는가

하면 일부 문법책들에서는 그것들을 이음말의 작은 갈래의 표현으로 잡는다.

여기에서도 형태, 의미, 기능의 호상관계를 통일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이 표현을 가진 단어들의 문장론적기능을 정밀하게 확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음말의 본질적기능이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다른 단어나 문장과 련결시켜주는데 있다면 끼움말의 본질적기능은 진술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이는데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먼저》, 《먼저》, 《다음으로》, 《다음》, 《마지막으로》 등은 한 진술적단위와 다른 진술적단위를 련결시켜주면서 뒤문장의 앞머리에 자리잡는다는 특성으로 보아 이음말의 표현으로 잡아야 할것이다. 이음말이 조격형태, 절대격형태 등으로 표현되여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또》, 《또한》도 전형적인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것만큼 이음말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첫째》, 《첫째로》, 《처음》, 《처음으로》, 《둘째》, 《둘째로》, 《셋째》, 《셋째로》 등은 이음을 나타낸다기보다 진술내용의 차례나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립장에서 평가하여 덧붙이는 단위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끼움말의 표현으로 잡아야 할것이다. 끼움말이 수사의 절대격이나 조격형태로 표현되지 못하는 법은 없는것이다.

이와 같이 외딴성분의 작은 갈래의 표현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한 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화》의 립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공정하게 외딴성분의 류형과 표현을 확정할수 있다.

〔붙임〕 끼움말로서의 《첫째》, 《첫째로》, 《처음으로》 등과 상황어로서의 《첫째》, 《첫째로》, 《처음으로》 등은 상관하는 방식, 어순 등에 의하여 구별된다.

○ 첫째로, 중요한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지키는것이다.(끼움말)

○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지키는것이 첫째로 중요하다.(상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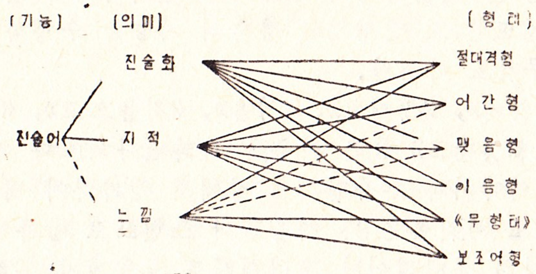
이리하여 외딴성분의 다양한 표현과 그 작은 갈래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여기에 리론문법이 해결하여야 할 또하나의 과제가 있다.

3. 단독성분의 표현

조선어문장에서 단독으로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성분으로서의 단독성분은 진술어 하나이다.

단독성분인 진술어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구성성분으로 하나의 진술단위를 이루지만 그 표현은 다종다양하다. 하나의 문장론적 기능을 나타내는 진술어가 다종다양한 표현을 가진다는데로부터 여기에는 주로 《한 기능의 다의미, 다형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는 단독성분, 진술어를 따로 가르지 못한데서 그 기능, 의미, 형태의 호상관계를 밝힐수 없었으며 진술어의 다종다양한 표현에 대하여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저 《체언으로 이루어진 명명문》, 《단어문장》, 《무주어문》, 《술어만 가지고있는 불완전문》 등으로 불리우는 《비성분화문장》 또는 《무성분문장》이 있었을따름이다. 그러나 《비성분화문장》, 《무성분문장》의 설정이 타당성을 잃고있는 조건에서 단독성분, 진술어의 표현의 다양성에 대하여 눈을 돌리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단독성분, 진술어의 표현이 다종다양하다는 특성은 그것이 단독적인 구성성분으로서 자체안에 풍부한 진술화의 언어적표현을 담고있다는데서 나온다.

《당에 대한 충실성!》, 《혁명!》, 《춥지 않니?》, 《아니…》,

《경주야, 굴하지 말아.》, 《저녁무렵이였습니다.》 등과 같은 문장에서 단어(또는 그와 등가적인것)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성성분들은 절대격이나 어간형, 보조어의 첨가로 된 각종 맺음형, 《무형태》, 《절대격형》 등의 표현을 가졌다. 이 모든 표현형태는 진술의 형식화에 똑같이 이바지한다는데서 진술형이라는 하나의 큰 표현형태에 묶이여진다. 이리하여 진술어의 표현은 다름아닌 진술형이라는 가장 일반화된 형태를 띠게 된다.

(붙임) 진술형은 술어의 각종 표현도 다 포괄하는 큰 범주로서 이음형, 맺음형, 《어간형》, 《무형태형》 등으로 표현된 진술어나 술어의 표현형태이다. 여기에서도 술어를 넓게는 진술어에 포함시킬수 있는 근거를 찾을수 있다.

진술형, 이것은 조선어문장의 항구적성분의 표현형태이며 진술화의 형식화가 집중적으로 실현되는 표현형태이다. 진술어를 항구적인 문장성분으로 되게 하며 단독성분에서도 현실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문법적표식도 바로 진술형이다.

진술어가 확대구조의 의존어를 가지면서 전개되는 경우(례: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도 진술화의 직접적담당자는 진술어이며 그 본질적표현형태는 진술형이다.

단독성분의 다종다양한 표현과 그 구조-문법적특성을 분석일반화하고 단독성분, 진술어의 표현형태, 의미, 기능의 호상관계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리론문장론의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된다.

제4절. 조선어문장성분의 상관상 특성

조선어문장성분의 고유한 특성은 그 단위설정과 갈래에서, 그리고 그 표현에서 뚜렷이 나타날뿐아니라 그 상관관계의 성격과 방식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조선어에서만 볼수 있는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고유한 특성은 특히 문장성분의 겹침관계, 귀일관계, 조응관계(어울림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 문장성분의 겹침관계

일반적으로 문장론적단위들의 겹침관계라 할 때에는 문장의 구성재료나 구성성분들이 거듭되거나 포개여지는 관계를 말한다. 조선어의 경우 그것은 단어결합의 겹침관계, 문장성분의 겹침관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겹침관계는 단어나 문장성분의 접속, 병립, 거듭 등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선어에서 겹침관계의 전형은 병립, 거듭의 방식으로 련결된 성분배렬에서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병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를 보고 다음에 거듭의 방식으로 된 독특한 상관관계를 보기로 한다.

문장성분의 겹침관계는 한 문장안에서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두개이상의 동일한 성격의 문장성분이 다른 하나의 문장성분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상관하는 관계이다.

두개이상의 동일한 성격의 성분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하나의 성분에 상관한다는것은 겹침관계에 있는 두개이상의 성분이 같은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성분이라는것을 말한다.

○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로고를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였다.

○ 전진이다 전진이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

겹침성분은 같은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성분의 렬거인것만큼 의미-기능적련계의 성격에서나 구조-문법적표식에서 보통은 동일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로부터 그 표현형태는 흔히 같으며 렬거되는 성분사이에 다른 말을 끼워넣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음말이 렬거되는 성분사이에 들어갈수 있고 매 겹침성분앞에 규정어, 상황어, 보어가 붙을수 있다.

○ 우리의 마을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다 알뜰하게 꾸려졌다.

○ 2작업반장동무는 깊은 물속이건 찬 얼음판이건 그리고 굳은 지상층이건 가리지 않았다.

겹침관계의 본질적특성은 관계의 성격에 있어서나 방식에 있어서 동일성을 지닌다는데 있다. 즉 렬거되는 문장성분들의 문법적형태 및 문법적의미의 동일성, 문장론적기능의 동일성, 그리고 상관되는 성분의 성격상동일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볼 때 조선어문장성분에서 《동종성분》 문제는 더 정밀화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문법적견해들은 겹침현상과 접속방식으로 련결된 확대성분 또는 동일한 성분의 변종들끼리의 접속적련결을 다 동일시하면서 《동종성분》으로 잡았다.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겹침성분의 렬거) ①

○ 학습이 끝나자 학생들은 책과 연필과 지우개를 한데 넣었다. (접속적련결로 된 확대성분) ②

○ 그는 로동자이면서 공장대학생이다. (동일한 성분의 두 《변종》) ③

여기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나 《책과 연필과 지우개를》, 《로동자이면서 공장대학생이다》는 같은 질서의 상관관계로 되지 않는다. 앞의것만 겹침관계로 이루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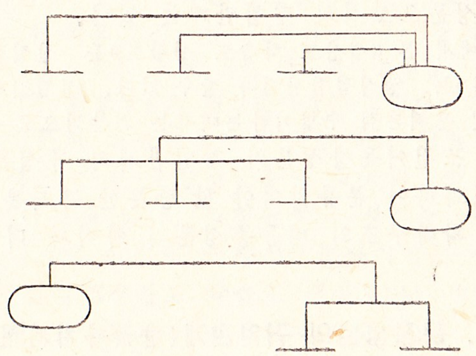
그 본질적차이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첫째로, 뒤의것들(례 ②, ③)은 형태의 동일성이 보장되여있지 않으나 앞의것(례①)은 형태의 동일성이 보장되여있다.

둘째로, 뒤의것들은 렬거되는 성분들의 자격에서도 동일성이 보장되여있지 않으나 앞의것은 렬거되는 성분의 자격에 있어서도 다 같은 종류의 문장성분으로서의 동일성이 보장되여있다.

셋째로, 뒤의것들은 상관하는 성분에 동시에 집결하여 의존되지만 앞의것은 상관하는 성분에 각각 분리하여 의존된다.

례 ①, ②, ③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리하여 뒤의것들은 접속으로 된 《벌림관계》의 렬거(단어들의 결합체)이며 앞의것은 겹침관계의 렬거(동종성분)이다.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벌림관계》의 확대성분 또는 성분의 변종들의 렬거는 동일성이 불완전한데 비하여 겹침성분은 동일성이 완전하다. 동일성이 완전하게 표현되는 렬거만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동종성분으로 된다. 이리하여 조선어에서 동종성분은 겹침성분에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어문장에는 겹침관계의 한 변종으로서 문장성분의 거듭현상이 있다.

○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 메야, 메야, 자유로운 메야
　저 하늘을 높이높이 날아다오

여기서 《나가자》, 《메야》의 거듭현상과 《높이높이》의 거듭현상이 서로 다른 점은 앞의것은 문장론적수법인데 비하여 뒤의것은 단어조성적수법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뒤의 경우에서는 그 어떤 문장성분의 겹침이나 거듭을 찾을수 없다. 그러나 《나가자》, 《메야》의 거듭에는 문장론적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한다. 즉 형태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기능상으로 동일성을 가지는 성분으로서 하나의 동일한 성분에 관계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동일성은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중복에 지나지 않는 한 성분의 두번 또는 그이상의 거듭인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문장성분으로서의 겹침관계는 있다.

(붙임) 앞에서 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를 실질겹침관계라 한다면 《나가자 나가자》는 형식겹침관계라 할수 있다. 실질겹침이나 형식겹침은 다 문장론적 및 문체론적 수법이라는데서는 기본적으로 같다.

우에서 본 조선어문장성분의 겹침관계의 특성은 조선어문장성분을 더욱 정밀화하여 분류하여야 할 충분한 근거를 준다. 이리하여 《동종성분》과 확대구조의 비동종성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2. 문장성분의 귀일관계(한곬빠지기현상)

조선어의 문장론적단위들의 상관관계에서 고유한 현상의 또하나는 귀일관계이다.

귀일관계란 두개이상의 문장론적단위들이 병립, 접속의 방법으로 련결될 때 뒤단위가 앞단위의 문장론적관계까지 받아서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두개이상의 문장론적단위가 접속될 때 그 문법적의미가 마지막단위에 귀일하는 현상을 말한다(말하자면 《집단적형식화》현상이라고도 할수 있다).

○ 상점에는 무우, 배추, 시금치가 가득 차있다.

○ 그는 로동자이며 대학생이다.

○ 우리는 언제나 투쟁속에서 보람을 찾고 앞으로만 전진한다.

이들 문장에서 접속되는 단위들의 마지막단어 《시금치가》, 《대학생이다》, 《전진한다》가 각각 그 앞 단어들의 위치적기능까지 말아나타내였다. 즉 마지막단어에 내속된 위치토들은 각각 그 앞 단위들의 문법적의미까지 다 말아서 나타냈다. 이것이 귀일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귀일현상은 단어들의 결합관계, 문장성분들의 상관관계, 문장과 문장의 대응관계에서 나타나며 각기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귀일)

○ 그는 밭도 갈고 도구도 수리하였다.(문장성분의 귀일)

○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문장과 문장의 귀일)

(붙임) 일부 문법책들에서는 이 귀일관계를 《의미련관》(또는 《의미적련관》), 《한곬빠지기》 등의 이름밑에 고찰하였다. 포괄내용과 고찰의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접속되는 2개이상의 단위들의 문법적의미가 뒤단위(마지막단위)의 그것에 귀일 또는 의존된다는것을 강조하는데서는 한결같다. 여기에서는 문장성분의 귀일관계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조선어문장성분의 상관관계에서 작용하는 귀일현상의 본질적특성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문장성분들이 접속의 방식으로 련결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는데 있다. 겹침관계의 성격을 가진 문장성분들이나 결합의 방식으로 련결된 문장성분들사이에는 귀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례컨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나 《아름다운 집》의 구조에는 그 어떤 귀일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문장성분의 귀일관계의 본질적특성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 문장성분들이 접속의 방식으로 렬거되는데 있다는 사실은 벌림관계로

된 합침방식의 렬거에서도 귀일관계가 나타난다는 근거를 준다.

○ 상점에는 굵직한 무우, 신선한 배추, 소담한 시금치가 가득 차 있다.

○ 상점에는 굵직한 무우와 신선한 배추와 소담한 시금치가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어문장성분의 귀일관계가 이음술어와 맺음술어사이에만 설정되는것이 아니라 합침관계에 있는 모든 확대성분의 상관에서도 설정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문장성분의 귀일관계의 본질적특성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 문장성분들이 접속의 방식으로 렬거된다는데 있다는 사실은 또한 서로 다른 주자에 관련되는 두개이상의 술어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성분의 련결은 귀일현상이 아니라는것을 근거지어준다.

○ 《습격조에 참가시켜달라고 련대장동지에게 말씀드렸더니 허락해주시였어.》

○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여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는곳

이 례문들에서 《말씀드렸더니》와 《허락해주시였어》의 주자는 각각 다르며 《봄이면》, 《하얗게》는 다 서술형으로 표현되였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문장성분이므로 이것들사이에 그 어떤 귀일관계가 작용하지 않는다.

문장성분의 귀일관계의 본질적특성이 동일한 성격의 문장성분들이 접속의 방식으로 렬거된다는데 있다는 사실을 리해하는 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의 문장에서 귀일관계를 설정할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기어이 혁명과업을 수행할것이다.

여기에는 《봉착하더라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따라 귀일관계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봉착하더라도》가 상황어라면 귀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행할것이다》와 동일한 성격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 《봉착하더라도》가 이음술어라면 《수행할것이다》와 동일한 성격의 성분이기때문에 귀일관계는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는 귀일관계가 좀 더 뚜렷하여진다.

○ 나 개인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우리 집단은 기어이 자기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것이다.

《봉착하더라도》와 《수행할것이다》의 관계는 동일한 성격의 성분이 접속의 방식으로 상관한것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봉착하더라도》는 의미-기능상으로나 구조-문법적으로나 이음술어이며 맺음술어 《수행될것이다》와 대응한다. 이들 술어가 관련하는 주자(주어)는 《나》와 《우리는》이며 이음술어와 맺음술어사이에 그 어떤 《종속》관계가 있는것도 아니다. 《봉착하더라도》와 《수행할것이다》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성분의 접속이라면 마땅히 여기에는 귀일관계가 설정된다.

그러면 이 두 문장성분의 귀일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이음술어 《봉착하더라도》에 나타나있지 않는 시간, 법, 말차림 등의 문법적의미는 잠재해있으며 《수행할것이다》에 귀일하면서 비로소 표면화된다. 이때에 개별적인 문법적범주(시간, 법 등)들은 이음술어에 표시될수는 있어도 흔히 뒤의 맺음술어의 시간, 법, 말차림에 《합류》되여 진술화의 물질적표식으로 나타나는것이다. 이것이 조선어의 귀일관계에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귀일이라는 개념자체가 잠재성을 가지는 범주들이 하나에로 《합류》합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어의 이음술어와 맺음술어의 귀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문법적의미의 잠재성과 《합류》현상은 이음술어나 접속복합문, 그리고 접속적단어결합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조선어문장성분의 본질과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접속의 방법으로 상관하는 모든 문장성분이 귀일관계에 놓일수 있다.

○ 그는 약하나 앓지 않는다.(술어의 귀일관계)

○ 아름다운 꽃과 소담한 남새를 가득 싣고 돌아왔다.(보어의 귀일관계)

○ 미제는 아세아의 이르는곳마다, 라틴미주의 대부분, 그리고 아프리카대륙에서 날로 고립배격당하고있다.(상황어의 귀일관계)

이들 《동종성분》에서 문법적의미(시간, 법, 말차림, 격위치, 존경 등)의 잠재성과 《합류》는 오직 이들 문장성분의 동일성을 규정하는 힘있는 표식으로 된다.

문장성분들의 상관에서 나타나는 귀일현상, 이것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조선어적인 특징을 규정하는 고유한 현상이다.

3. 문장성분의 조응관계(어울림관계)

우리 말 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는 또한 문장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단어나 표현들이 의미-기능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어울려서만 쓰이는 현상이다. 이것을 문장성분의 조응관계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일정한 문장성분을 중심으로 조응현상이 일어난다.)

문장성분의 조응관계란 문장성분들이 상관관계를 맺을 때 그 구성부분의 표현이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서로 어울려서만 쓰이는 특성을 말한다.

○ 할아버지께 저녁상을 드리였다.

○ 비록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결의한 과제는 꼭 수행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할아버지께》와 《드리였다》는 존경의 관계에서 서로 어울렸으며 《비록》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꼭》과 《수행해야 한다.》는 양태적관계에서 조응하였다. 이때의 존경의 어울림, 양태적관계의 조응은 구체적으로는 《께》와 《드리다》, 《비록》, 《～더라도》, 《꼭》, 《～야 한다》와 같은 어휘적 및 문법적수단들에 의하여 물질화되였다. 이것은 조응현상이 문장의 의미-기능적 및 문법적 특성에 의하여, 문장성분의 표현 수단과 수법에 의하여 제약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문장성분의 이와 같은 조응현상은 언어행위의 민족적특성을 반영한다. 우리 인민의 언어행위는 주자와 그의 행동 및 상태, 양태적관계의 표시, 물음의 설정 등에서 일정한 조응관계를 가짐으로써만 정상적이고 순탄한 언어교제를 실현한다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은 오랜 기간의 언어생활을 통하여 굳어지고 규범화된 현상으로 된다. 문장안에서 성분들이 조응관계를 가진다는것은 그만큼 언어행위를 민족적특성에 맞게, 의사소통을 구색에 맞게 할수 있게 실현시킬수 있는 우수한 점이다.

조응현상은 문장론적현상이며 따라서 전일적인 문장의 일련의 구조-문법적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인으로 된다.

조응현상은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미-기능적으로

련관된 문장성분들사이의 특수한 상관관계이다.

존경과 관계되는 어울림이 술어—주어, 술어—보어, 규정어—피규정어 사이에 작용한다든지, 양태적관계의 조응이 문장의 진술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든지 또 부름말, 물음을 나타내는 말의 성격에 따라 그뒤에 오는 문장성분들의 표현 등이 제약을 받는다든지 하는것 등은 다 문장성분의 구조적제약성 및 문장론적기능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조응현상이 적어도 두개이상의 문장론적단위들의 공고한 대응이라는것자체가 바로 그 구조-문법적 제약성을 말해주는것이다.

조응현상은 다음으로 두개이상의 문장론적단위들이 서로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조응하는 문법적현상이다.

모든 문장론적단위들의 상관관계를 론의할 때 그 상관하는 단위들의 어휘적의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참된 문법적관계도 파악할수 없다. 이때의 어휘적의미란 론리적인것이 아니며 문법적인것과 결부된 현실적의미이다. 모든 문법적관계는 이 현실적의미의 바탕우에 실리는 상관관계인것이다. 이리하여 문장성분들의 조응관계도 문장론적단위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고려할 때 그것도 어디까지나 문장론적현상으로 된다.

조응현상은 또한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작용하는 현상이며 전체 문장의 구성과 관련되는 언어행위의 표현형식과 관련되는 현상이다.

존경의 어울림, 양태적조응, 물음, 부름말과 관련된 어울림 등이 례외없이 전일적인 문장안에서 작용하는것이고 전체 문장구성을 바로잡기 위한것이라는 사실은 조응관계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작용하는 현상이며 전체 문장구성과 관련되는 언어행위의 독특한 표현형식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와 같은 몇가지 근거로 보아 문장론적고찰의 대상으로 되는 문장성분의 조응현상은 조선어문장의 고유한 특성을 이루며 우리 인민의 언어행위의 전통적관습을 반영한다.

조선어문장성분의 조응관계는 그 조응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 몇가지 류형으로 나누인다. 그것을 체계화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응하는 내용과 성격에 따르는 갈래

(1) 존경관계의 어울림

① 존경과 관련한 어울림

② 비존경과 관련한 어울림

(2) 언어행위의 대상과 관련한 어울림

① 언어행위의 주자와 관련한 어울림

② 언어행위의 객자와 관련한 어울림

(3) 진술의 대상과 관련한 어울림

① 진술의 주자와 관련한 어울림

② 진술의 객자와 관련한 어울림

(4) 문장의 성격과 관련한 어울림

① 문장의 양태적성격과 관련한 어울림

② 문장의 감정-의지적성격과 관련한 어울림

2) 조응하는 형식과 방식에 따르는 갈래

(1) 전체와 부분관계의 어울림

① 전체적인 어울림

② 부분적인 어울림

③ 형태와 형태의 어울림

(2) 상관방식에 따르는 어울림

① 맞물린성분의 어울림

② 외딴성분의 어울림

(3) 표현방식에 따르는 어울림

① 적극적인 어울림

② 잠재적인 어울림

〔붙임〕 우와 같은 조응관계에서 1)과 2)의 작은 갈래들은 서로 교차관계에 있을수 있다. 다시말하면 이 분류는 측면을 서로 달리한것이기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서로 다른 갈래로 들어갈수 있다. 례컨대, 《할아버지께 저녁상을 드리였다.》에서 《할아버지께》와 《드리였다》의 어울림은 단어와 형태로 된 존경관계의 어울림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어울림이며 진술의 대상과 관련된 어울림일수도 있다.

존경관계의 어울림이란 진술에 참가하는 인물들 또는 그와 관련한 사물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문장성분들의 상관관계에 표현하는것을 말한다.

○ 할아버지께 진지를 드리였다.(존경)

○ 원쑤놈들의 대갈통에 돌벼락을 안겼다.(비존경)

언어행위의 대상과 관련한 어울림이란 언어행위의 주자와 객자와 관련하여 문장성분의 구조가 제약되는것을 말한다. 서술에서 언어행위의 대상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이 조응관계는 언제나 인칭관계, 말차림관계에서 구체화된다.

○ 제가 그 일을 맡아보겠습니다.(언어행위의 주자와 관련한 어울림)

○ 너희들은 언제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언어행위의 객자와 관련한 어울림)

진술의 대상과 관련한 어울림이란 진술의 주자와 객자와 관련하여 문장성분들의 구조가 제약되는것을 말한다.

진술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주어, 보어로 나타나는것만큼 이 조응관계는 술어와 주어, 술어와 보어의 관계로 구체화된다.

○ 《명철동무, 직장장동지가 부르시네.》(진술의 주자와 관련한 어울림)

○ 어머니에게 말씀을 올린다.(진술의 객자와 관련한 어울림)

문장의 성격과 관련한 어울림이란 서술의 일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히 양태적관계나 감정-정서적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문장성분들을 어울려놓는것을 말한다.

○ 제발 그 일만은 동생에게 말하지 마십시오.(양태적성격과 관련한 어울림)

○ 누가 그런 아름다운 소행을 거듭하고있을가?!(감정-의지적성격의 어울림)

전체와 부분관계의 어울림이란 조응관계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해당되는가, 문장의 부분적인 구조에만 해당되는가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 아버지께 드리였다.(전체)

○ 부지런하신 할아버님의 일솜씨에 모두들 감탄하였다.(부분)

언어수단에 따르는 어울림이란 조응관계에 놓인 문장성분이 어떤 언어적자료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조응관계에 놓이는 단위의 언어적자료는 단어일수도 있고 형태부일수도 있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히신 위대한 강령.(형태와 형태)

○ 할아버님께 진지를 드리였다.(단어와 단어)

○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집에 들렸다 가거라.(단어와 형태)

상관방식에 따르는 어울림이란 조응관계에 놓인 단위들이 맞물린성분인가 외딴성분인가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맞물린성분의 조

응관계는 결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외따성분의 조응관계는 련접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걱정없이 지낸다.(결합)(맞물린성분)

○ 아마 래일은 개일것이다.(련접)(외딴성분)

표현방식에 따르는 어울림이란 조응관계에 놓인 단위의 표현상 특성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조응관계에 놓인 성분은 그 표현이 표면적으로 나타날수도 있고 잠재적인것일수도 있다.

○ 어제 출장에서 돌아오신 담임선생님은 실험실부터 찾으시였다. (표면)

○ 박선생은 출장에서 돌아와서 실험실을 찾고는 곧 실험에 착수하시였다.(잠재)

우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문장성분의 조응관계의 류형은 다양하다. 이 다양성은 그만큼 우리 말 문장구조의 정밀성과 풍부한 특성을 말하여준다. 문장구조의 정밀성과 풍부한 특성은 언어교제를 더 윤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제5절. 우리 말 어순의 특성

문장성분의 배렬순서 즉 어순은 언어마다 다르다.

우리 말 어순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이 가장 뚜렷이 간직되여있는 문장론적질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순문제를 옳게 해명하는것은 우리 말 문법현상에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기 위한 리론적기초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어순문제를 옳게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어순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우리 말 어순배렬에 작용하는 법칙적현상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며 어순의 류형에 따르는 여러 문장론적특성을 밝혀야 한다.

1. 어순에 대한 과학적리해

구체적인 민족어를 교제수단으로 삼고있는 모든 인민들의 언어행위는 그 구성단위의 배렬순위에 있어서 고유한 자기 특성을 가

진다. 다시말하여 어순은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민족어들가운데는 어순의 배렬방식을 같이하는 언어도 있지만 달리하는 언어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어순이 나타내는 기능, 어순의 표현수법 등은 꼭같은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는 하나의 언어교제의 단위가 서로 다른 언어적수단, 서로 달리 배렬된 어순의 수법으로 나타나는것이 각 인민들의 언어행위의 구체적현실이다.

어순이란 일정한 문장안에 자리잡은 문장성분의 차례이다. 다시말하여 두개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두개이상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에서 그 상관적단위들의 배렬순위이다.

그러면 왜 어순이라는것이 있게 되며 왜 민족어들이 서로 다른 어순의 규칙을 가지게 되는가?

어순이 있게 되는 근본요인은 객관세계에 실재하는 사물현상과 그것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언어행위표현방식에서의 불일치에 있다.

객관세계의 여러 사물현상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동시에 운동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객관세계의 존재와 운동은 사람의 인식대상으로 될 때 동시에 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결과를 언어적으로 나타낼 때에는 한줄우에 차례를 지어 배렬해놓을수밖에 없다. 이것을 언어행위의 《선조성》, 또는 《선렬성》의 특성이라 할수 있다. 말하자면 사물현상의 반영은 립체적일수 있으나 그 언어적표현은 평면적이면서 일선상에 놓이는것으로밖에 되지 못하는것이다.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도 립체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몇개의 토막을 이룬 단위들이 한줄우에 배렬되는 련쇄로 이루어진다.

문장은 판단을 나타내는데 그 판단은 개념들의 순차적련결로 구성된다. 이리하여 적어도 두개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구성단위들이 일정한 차례로 배렬된다. 이로부터 어순이란것이 생기게 된다.

어순이 있게 되는 요인은 또한 언어행위의 목적지향성있는 성격과도 관련되여있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그 어떤 수동적인 반응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목적의식적으로 꾸려나가는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능력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람은 문장을 통하여 창조적사색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때 보다 효과있게 사상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진술의 토막들을 이러저러하게 배렬한다. 이러한 창조적언어행위는 문장을 이루는 단위들의 순위들을 변경시키지 않을수 없다.

사람은 언어진 개념을 더 정밀화하기 위하여 그 일반화된 개념에 설명을 덧붙이거나 여러가지 다른 개념으로 수식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한 단어에 다른 단어가 단계적으로 덧붙게 된다. 이것을 언어행위실현의 단계적특성이라 할수 있다.

사람은 또한 무엇에 대한 판단을 언어로 나타낼 때 출발점과 귀착점, 제시와 풀이를 세우며 판단의 어느 한 요소를 론리적으로 강조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도 한다. 례컨대, 진술의 무게가 큰것을 앞에 놓고 그것을 풀이하는것을 뒤에 놓는다든지 이러저러하게 판단의 구조를 변경시켜 진술의 큰것, 작은것을 구분하려고도 한다. 이것을 언어행위실현의 론리적특성이라 할수 있다.

사람들의 언어행위에는 감정-의지적요구도 반영된다. 즉 언어행위에서 표현적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언어단위들을 이러저러하게 옮긴다. 이리하여 표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단위의 순위가 바뀌게 된다. 이것을 언어행위실현의 표현적특성이라 할수 있다.

언어행위실현의 단계적특성, 론리적특성, 표현적특성은 문장의 해당 구조적특성을 자극하여 그 구성단위들의 배렬순서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하여 일정한 어순이 생기며 어순배렬의 규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왜 민족어마다 고유한 어순의 규칙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인민의 언어행위의 관습 및 전통에 따라 제약되는 민족어의 구조-문법적특성의 차이와 관련되여있다.

각 민족어의 구조-문법적특성자체는 해당 인민의 언어의식과 언어관습의 반영이며 언어실천의 경험에 의하여 굳어진 사회적산물이다. 이러한 민족어의 구조-문법적특성은 어순에 엄격한 규제성을 부여할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격을 부여할수도 있다. 례컨대, 우리 말과 같이 형태체계가 발전되여있고 문법적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 풍부한 언어에서는 어순에 자유로운 성격을 부여하

는가 하면 포합어나 고립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어순에 엄격한 규제성을 부여하는것이다.

해당 인민의 언어의식과 언어관습 및 언어실천은 민족어의 고유한 구조-문법적특성을 낳게 하며 그로 하여 그 민족에게만 인정되는 어순배렬의 순위가 고착된다.

각 민족어마다 고유한 어순의 규칙을 가지게 되는것은 또한 어순현상이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규범을 가지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언어규범은 사회적성격을 띠며 그 언어를 쓰는 사회적집단의 《약속》에 따라 오래동안 형성되고 변화발전한다.

인간의 사유가 유치한 단계에 있고 언어적수단이 발전풍부화되여있지 않을 때의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그 단위의 배렬순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수단이 발전풍부화됨에 따라 차차 언어적수단들의 련결 방식과 수법이 달라지고 어순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자주 접촉하는 민족성원들끼리 일정한 규칙을 요구하게 된다. 이리하여 민족성원들에게만 접수되는 어순배렬의 규범이 이루어지는것이다.

특히 글자가 생겨나고 글자생활이 활발해짐에 따라 어순의 규범성에 대한 사회적요구는 더욱 커진다. 이 경우에도 민족어의 구조-문법적특성과 해당 인민의 언어실천상 요구를 반영하여 어순의 규범성은 더욱 민족적특성을 띠면서 공고화된다. 이리하여 민족어들사이에 어순배렬상의 규칙이 달라지게 된다.

민족어의 구조-문법적특성, 민족성원들의 언어생활의 규범의 사회적성격에 따라 제약되는 어순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해명하고 그 리용방도를 내놓는것은 리론문법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된다.

2. 우리 말 어순에 작용하는 법칙적현상

우리 말 어순은 자유로운 성격을 띤다. 다시말하여 일정한 조건밑에서 어순이 자유롭게 바뀔수 있고 또 바뀌여도 문장성분의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우리 말 어순은 문장론적기능도 수행하며 표현-문체론적기능도 수행한다.

〔붙임〕 어순이 주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며 함부로 이동됨을 허용하

지 않는 어순배렬의 규칙을 가진 언어를 자유롭지 못한 어순을 가진 언어라 하며 어순이 주로 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하며 그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를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언어라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우리 말에도 어순배렬의 규칙은 있다. 그 규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더욱 정밀한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문체론적기능과 문장론적기능을 다 수행하게 되며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이 많다는 우리 말 어순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하는데도 해당한 어순배렬의 규칙이 있고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데도 해당한 어순배렬의 규칙이 있으며 이동이 자유로우면 그만큼 어순배렬의 규칙도 다양해지기 마련인것이다.

○ 검덕의 지하초병들 예술선전대 환영!①
○ 우리는 혁명전통학습을 꾸준히 진행한다.②

첫째 례에서 《지하초병들》과 《예술선전대》가 주어와 보어로 되며 술어 《환영》에 각각 의존된다는것은 어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때의 모든 어순은 바뀌지 못한다. 만일에 일부 문장성분의 어순이 바뀐다면 문장성분의 기능은 달라지거나 파괴되며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도 달리 된다. 이것은 어순이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둘째 례에서 주어(《우리는》), 보어(《혁명전통학습을》), 상황어(《꾸준히》), 술어(《진행한다》)의 차례는 서로 자유로이 바뀔수 있다. 이때 어순이 바뀌여도 문장성분의 본래의 기능은 변하지 않으나 매개 성분이 나타내는 의미적색채는 달라진다. 이것은 어순이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 표현-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구조의 문장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어순은 문장구조와 구성성분들의 문법적특성(표현, 의미, 상관성)에 따라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할수도 있고 표현-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할수도 있다.

우리 말은 문장론적기능과 문체론적기능을 다 수행하는 어순의 특성을 지닌 언어이면서도 주로는 둘째 례와 같이 이동가능성이 많은 어순을 가진 언어이다.

이동가능성이 많은 어순을 가진 문장구조에서 이동이전의 《중성적어순》, 오랜 관습에 의하여 굳어진 보통의 어순, 아무런 문체론적색채도 아직 띠지 않은 상태의 어순을 《규범어순》 또는 《정상

어순》이라 하는데 례②가 바로 그 전형으로 된다.

《규범어순》을 가진 우리 말 문장에서 문장성분의 자리가 바뀌는 가능성은 매우 많다.

례②의 현실적의미, 대상-론리적의미를 크게 변동시킴이 없이도 그 어순의 이동가능성은 대수학적인 차례곱으로 헤아릴수 있을 만큼 많다.

○ 우리는 혁명전통학습을 꾸준히 진행한다.
○ 우리는 꾸준히 혁명전통학습을 진행한다.
○ 우리는 꾸준히 진행한다, 혁명전통학습을.
○ 우리는 혁명전통학습을 진행한다, 꾸준히.
○ 우리는 진행한다, 혁명전통학습을 꾸준히.
○ 우리는 진행한다, 꾸준히 혁명전통학습을.

이것은 《우리는》을 축으로 하여 그밖의 어순을 바꾼 례이다. 《혁명전통학습》을 축으로 하면 또 그만큼한 수효의 어순의 이동가능성이 생기며 《꾸준히》, 《진행하다》를 각각 축으로 하여도 그만큼한 수효의 어순의 이동가능성이 생긴다.

말하자면 이 《규범어순》의 문장은 $4\times3\times2\times1=24$의 수효(차례곱의 총수)만큼 이동가능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우리 말에서 《규범어순》이 《이동어순》으로 되면서 문장성분의 자리가 바뀔 가능성은 차례곱의 공식 N!에 해당하리만큼 많다.

(붙임) N!에서 N는 어순단위(문장성분의 수)이며 !는 차례곱을 표시한다. 이리하여 《규범어순》에서 어순단위(문장성분)가 3개 있다면 그 이동가능성은 $3\times2\times1=6$으로 되며 어순단위가 5개 있다면 $5\times4\times3\times2\times1=120$으로 된다.

만약에 《규범어순》인 《우리는 혁명전통학습을 꾸준히 진행한다.》라는 문장구조를 《론리적구조》로 변경시켜(그것을 《개편구조》라고 한다.) 《혁명전통학습을 꾸준히 진행하는것은 우리다.》나 《우리가 꾸준히 진행하는것은 혁명전통학습이다.》와 같이 개편한다면 그 어순의 이동수효는 더 늘어난다. 이때의 늘어나는 어순의 수효를 ((N−1)·(N−2)!)로 표시할수 있다.

우리 말 어순은 바로 《규범어순》의 이동범위의 테두리안에서 《정상어순》과 《이동어순》(바뀐어순)의 대응이 생기며 《규범어순》의 이동범위의 테두리밖에서 그밖의 어순류형(《개편구조의 어순》, 《뒤

집힌 어순》, 《제시구조의 어순》 등)이 대응된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적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면 우리 말에 고유한 어순배렬의 법칙적현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우리 말 《규범어순》(정상어순)에서는 모든 의존어가 주도어의 앞에 위치하며 주도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성분, 의존성분, 2차성분, 확대성분 등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앞에 위치한다. 이것을 어순의 《주종관계》의 특성(법칙)이라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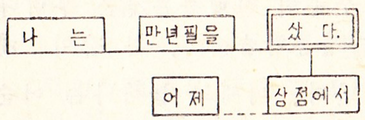
① 나는 어제 상점에서 만년필을 샀다.
(주도성분) (의존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주도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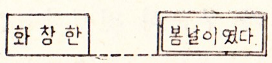
② 화창한 봄날이였다.
(의존성분) (주도성분, 기초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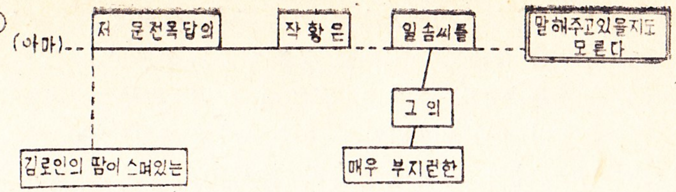
③ 아마 김로인의 구슬땀이 스며있는 저 문전옥답의 작황은
(외딴성분) (2차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매우 부지런한 그의 일솜씨를 말해주는것일지도 모른다.
(2차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주도성분)

례①에서는 주도어 《샀다》(술어)를 기준으로 하여 2개의 주도성분과 2개의 의존성분이 앞에 위치하였으며 례②에서는 주도어 《봄날이였다.》(진술어)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전개성분(의존성분)이 앞에 위치하였으며 례③에서는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도어 《말해주는것일지도 모른다》(술어)를 기준으로 하여 《작황은》, 《일솜씨를》과 같은 주도성분과 《저 문전옥답의》, 《그의》와 같은 의존성분과 《김로인의 구슬땀이 스며있는》, 《매우 부지런한》과 같은 2차성분이 단계적으로 의존하고있으며 《아마》라는 외딴성분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대응하여 자리잡았다.

이들 주종관계의 어순배렬의 규칙을 그림풀이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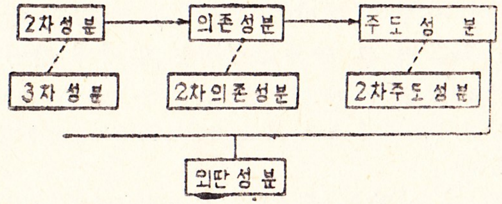
①


②


③


그림풀이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말의 《규범어순》(정상어순)에서 주종관계의 질서는 모든 의존단위가 앞에 위치하고 모든 주도단위는 그뒤에 자리잡는것이다. 그리고 같은 주도성분끼리도 앞에 오는것이 뒤에 오는것에 의존되며 같은 의존단위끼리도 앞에 오는것이 뒤에 오는것에 다시 의존된다.

《주종관계의 특성》의 일반적구조를 그림풀이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순에서의 《주종관계의 특성》(규칙)은 우리 말의 모든 문법적련결의 단위에 작용하는 기본특성이다. 이것은 판단의 구조가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고유한 특성이다. 우리 인민의 언어의식과 오랜 언어관습에 의하여 굳어진 어순배렬에서의 《주종관계의 특성》은 어순의 문장론적 및 문체론적 기능을 분간할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다음으로 우리 말 어순배렬에서는 의존성분이 주도어에 가까이 자리잡을수록 의미적련관은 밀접해지고 주도어에서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그 의미적련관은 덜 밀접해진다는 법칙적현상이 작용한다. 다시말하여 주도어에 가까울수록 문장성분의 의존성이 강하며 주도어에서 멀수록 문장성분의 자립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법칙)이라 할수 있다.

○ 짐작컨대, 2작업반원들은 오늘도 자기 계획을 훨씬 넘쳐했을것이다.

여기서 《넘쳐했을것이다》라는 주도어에 의미적으로 가장 밀접히 접근해있는것이 《훨씬》이며 그다음으로는 《자기 계획을》, 《오늘도》, 《2작업반원들은》의 순위로 주도어에 대한 접근 또는 《리탈》의 정도가 나타났으며 《집작컨대》는 가장 의존성이 약한것(자립성이 강함)이여서 주도어의 의존권안에서 벗어나기까지 하였다.

주도어에 대한 의존어들의 이러한 의존성과 자립성(의미의 접근과 리탈)의 정도를 수자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집작컨대	2작업반원들은	오늘도	자기 계획을	훨씬	넘쳐했을것이다.
(의존성)	1	2	3	4	5	0
(자립성)	5	4	3	2	1	0
(두 극의 균형치)	6	6	6	6	6	0

여기서 수자6은 《의존성의 크기+자립성의 크기》의 총화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말 《규범어순》(정상어순)에서 주도어에 대한 의존어의 의존성과 자립성(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정도는 언제나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그 총적균형치는 언제나 같다.

(붙임)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을 어순배렬에서의 의존성과 자립성의 균형을 보장하는 작용으로 보고 《상대적균형보장의 특성》(법칙)이라고도 할수 있다.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은 《규범어순》(정상어순)이 이러저러한 목적에서 바뀌는 경우(이동어순)에는 자립성과 의존성 정도의 균형이 《파괴》된다. 이 균형의 《파괴》가 바로 이러저러한 뜻빛갈의 표시, 론리적무게의 《강약》을 나타내는 효과를 거두게 하는것이다.

어순의 균형이 《파괴》되여 거두는 효과의 정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어제	나는	만년필을	상점에서	샀다.
(의존성)	1	2	3	4	0
(자립성)	3	4	1	2	0
(두 극의 균형치)	4	6	4	6	0

(붙임) 여기서 6으로 표시된 《나는》과 《상점에서》는 정상어순을 《리탈》함으로써 균형을 《파괴》하였으며 따라서 가장 강한 론리적무게를 얻고 가장 강조되였다. 그러나 4로 표시된 《어제》, 《만년필을》들은 그만큼 《론리적무게》가 약화되였다.

이것을 《규범어순》(정상어순)의 자립성, 의존성의 정도와 대비하면 그 균형치의 《파괴》가 가져오는 뜻빛갈의 표시, 《론리적무게의 강약》정도를 뚜렷이 알수 있다.

	○ 나는	어제	상점에서	만년필을	샀다.
(의존성)	1	2	3	4	0
(자립성)	4	3	2	1	0
(두 극의 균형치)	5	5	5	5	0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이동어순》에서 가장 높은 균형치(6)를 가진 《나는》과 《상점에서》는 본래자리를 옮김으로써 《균형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그로 하여 뜻빛갈의 표시, 론리적무게의 《강약》에서 가장 높은 정도에 올랐다. 즉 표현적색채를 세게 하였다. 그와 반면에 균형치가 적어진 《어제와》, 《만년필을》은 그것대로 표현적색채를 약하게 하였거나 론리적무게를 약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표현적《효과》를 거두었다.

어순배렬에서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은 《주종관계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우리 말 고유의 어순배렬규칙으로서 언어행위의 론리적흐름, 문장의 의미의 파악을 순탄케 하는 요인으로 된다.

우리 말 어순배렬에서는 또한 일정한 문장성분의 표현적기능을 특별히 높일 목적으로 일부 문장성분을 《규범어순》(정상어순)에서 심하게 벗어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고정된 특유의 어순배렬의 수법을 쓰는 일이 있다. 이때 《규범어순》에서 심하게 벗어난 어순을 《뒤집힌 어순》이라고 하며 력사적으로 고정된 특유의 어순을 《고정어순》이라 할수 있는데 이것들은 다 특별한 론리-표현적기능을 높이는데 작용한다. 이것을 《기능제고의 특성》이라 할수 있다.

○ 로력대중아 일어나라, 압제의 쇠사슬 끊는 싸움에.

○ 옛날옛적에 한 마을에 일 잘하는 농민이 살고있었다.

례①은 론리적 및 표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규범어순》을 뒤집어놓은것이고 례②는 옛스러운 뜻빛갈, 표현적색채를 더하기 위하여 《고정어순》을 적용한것이다. 말하자면 이 례문에서 매개 문장성분은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진것이다.

《기능제고의 특성》은 《주종관계의 특성》,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어순을 목적의식적으로 바꾸어놓거

나 고정시켜놓음으로써 특별한 론리적 및 표현적 효과를 높이는 어순배렬의 독특한 수법이다.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지는 어순배렬이 목적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언어생활의 전통을 최대로 살린다는데 고유한 특성이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말 어순에 작용하는 법칙적현상은 자유로운 어순배렬을 가지면서도 고유한 특성으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말 어순현상의 민족적특성에 기초하고있다.

3. 우리 말 어순의 류형과 기능

우리 말 어순의 류형과 기능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하여서는 우에서 본 어순배렬의 특성(법칙)들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우에서 진술의 목적과 성격, 문장성분의 구조적특성, 언어행위의 론리-표현적효과 등에 따라 정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진술의 목적과 성격, 문장성분의 구조적특성, 언어행위의 론리-표현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선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순류형을 설정할수 있다.

1) 정상어순(《규범어순》)
  (1) 기초어순(바탕어순)
  (2) 고정어순 { 공고한 어순 / 고착어순 }
2) 비정상어순(바뀐 어순)
  (1) 이동어순
  (2) 뒤집힌 어순
3) 특수어순(달라진 어순)
  (1) 《제시구조》의 어순
  (2) 《개편구조》의 어순

기초어순이란 전통과 관습의 힘에 의하여 정상적인 배렬순위를 가지며 주로 《주종관계의 특성》과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을 가지는 어순배렬의 류형을 말한다.

○ 나는 어제 상점에서 만년필을 샀다.

○ 그는 김로인의 부지런한 일솜씨를 본받았다.

고정어순이란 전통과 관습의 힘에 의하여 배렬순위가 굳어졌으며 주로 《주종관계의 특성》과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지는 어순배렬의 류형을 말한다.

고정어순은 그 굳어진 정도와 성격에 따라 공고한 어순과 고착어순의 작은 갈래로 나누인다.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공고한 어순)

○ 옛날옛적에 한 마을에 일 잘하는 농민이 살고있었다.(고착어순)

이동어순이란 진술의 생동성, 명료성 등을 돕우기 위하여 정상어순의 일부 성분을 바꾸어놓은 어순배렬로서 주로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지는 류형이다.

○ 만년필을 어제 나는 상점에서 샀다.

○ 부지런한 김로인의 일솜씨를 나는 본받았다.

뒤집힌 어순이란 표현-문체론적효과를 위하여 주도어와 의존어의 위치를 정반대로 바꾸어놓은 어순배렬로서 한갖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지는 류형이다.

○ 통일하자, 우리 조국을.

○ 일떠서라, 최후의 결전에.

특수어순이란 어느한 문장성분의 론리-의미적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문장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하여놓은 어순배렬의 류형이다.

특수어순은 그 진술의 성격과 문장성분의 구조-기능적특성에 따라 제시구조의 어순과 개편구조어순의 두 작은 갈래로 나누인다.

○ 만년필은 내가 어제 상점에서 사왔다.(제시구조)

○ 내가 어제 상점에서 산것은 만년필이다.(개편구조)

우리 말 어순의 기능은 어순배렬의 특성, 문장구조의 특성, 어순의 류형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우리 말 어순의 주되는 기능은 문장-문체론적기능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어순이동 그자체가 많은 경우에 문장의 의미-론리적내용에나 문장성분의 기능에 큰 변동을 주지 않고 표현적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언어행위이기때문이다.

어순의 문장-문체론적기능이란 문장성분의 어순배렬에 따라 표현적효과를 거두는 기능이다.

우리 말 어순의 문장-문체론적기능은 특히 바뀐어순가운데서 이동어순의 일부와 뒤집힌 어순의 전부가 담당한다. 이때의 이동어

순의 일부라 하는것은 이동어순가운데서 의미-론리적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한 정상어순의 자리바꿈을 말한다.

○ 어제 만년필을 나는 상점에서 샀다.

이동어순은 결국 정상어순에서의 의도적인 《리탈》인것만큼 문맥에 《례사롭지 않는》 흐름을 준다. 이 《례사롭지 않는》 흐름이야말로 표현적색채의 구현자인것이다.

앞의 례에서 《만년필을》은 술어에서 좀 멀리 떨어지고 억양의 요소도 정상어순보다도 달리 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 문장성분은 특별히 강조되며 표현-문체론적효과를 얻게 되는것이다.

이때 《균형》의 《파괴》는 그만큼 《만년필을》에 강조력점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강한 론리-정서적강조가 덧붙는다. 이와 같이 이동어순에서 균형의 《파괴》는 표현적효과의 크기와 정비례한다.

우리 말에서 이동어순이 나타내는 효과는 주도어의 앞에 있는 모든 의존어의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뒤집힌 어순은 전적으로 표현-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진술에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호소성, 전투성 등의 표현적효과를 주며 긴박감과 여운을 남기거나 일정한 운률형식을 맞추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것으로 구체화된다.

○ 나가자 최후의 결전에, 일떠서라 억압대중들아!

○ 빨리 잡아주시오, 저 달리는 말을.

○ 자랑이란말이요, 우리 공장의…

술어—상황어, 술어—주어, 술어—보어, 피규정어—규정이 등 구조로 뒤집혀진 이러한 어순에서 문장성분의 의존성과 자립성의 균형이 심히 《파괴》된다는 사실은 바로 진술에 여러 표현적효과를 부여한다는 증거로 된다.

우리 말 어순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의 다른 하나는 의미-론리적강조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즉 어순을 바꿈으로써 문장의 일부 성분을 의미-론리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이다.

우리 말 어순의 의미-론리적기능은 바뀐 어순가운데서 이동어순의 일부와 달라진 어순의 전부가 맡는다.

○ 《김동무에게 왜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김동무야말로 적임자입니다.)

○ 만년필을 내가 어제 상점에서 사왔다.(=바로 만년필을 사왔다.)

⊙ 하루계획을 2배로 넘쳐끝내는것은 례사로운 일로 되였다.(=계획을 2배로 넘쳐수행하는것쯤은 례사일이다.)

첫째 례는 이동어순으로써 《김동무에게》 의미-론리적무게가 떨어지게 한것이고 둘째 례는 《제시구조》의 어순으로써, 셋째 례는 《개편구조》의 어순으로써 《만년필을》, 《하루계획을 2배로 넘쳐끝내는것은》을 각각 의미-론리적으로 강조한것이다.

의미-론리적으로 일정한 문장성분을 강조함으로써 진술의 《무게》를 거기에 쏠리게 하는 어순의 이러한 기능은 언어행위에서 《제시》와 《풀이》의 대응관계를 보여주며 진술의 《출발점》과 《귀착점》, 《주어진것》과 《새것》 등을 구분해줌으로써 현실-내용적문장성분화(의미-론리적성분화)를 가능케 하는 기초를 준다.

(붙임) 일부 문법책에서는 진술의 《출발점》을 《주어진것》으로, 《귀착점》을 《새것》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개념은 론리적범주를 문법에다 적용한것이다.

○ 나는 어제 왔다.
주어진것 새것

여기서 주어진것이란 이야기하는 측과 듣는 측이 이미 아는 사실, 주의가 덜 돌아가는 대상이며 새것이란 두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어순의 이동과 문장구조의 재조직으로써 이러한것을 표시하면 론리적강조로 나타난다.

어순의 의미-론리적기능에 의하여 강조된 성분이 그 의존성과 자립성에 있어서 심한 균형의 《파괴》를 가져온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때의 의미-론리적강조의 효과도 바로 이 균형의 《파괴》가 가져다준 산물이다.

어순의 기능에서 중요한것은 어디까지나 문장론적기능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성격을 띤 어순이 특징적이라 하더라도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은 무시할수 없다. 우리 말에서 정상어순이 생산적이라는 사실자체가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어간형, 절대격형, 《무형태형》 등으로 문장성분이 표현되어있을 때 그 문장성분의 기능은 사실상 정상어순을 대중삼아 가르게 되기때문이다.

례컨대, 《검덕의 지하초병들 예술선전대 환영》에서 문장성분의 문장론적기능도 《검덕의 지하초병들은 예술선전대를 환영한다.》는 정상어순에서의 문장성분의 자리와 형태를 예상해서만이 확정되는

것이다.

우리 말에 토나 보조어, 억양 등의 문법적관계표현의 수단과 수법이 풍부하다는것도 또한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을 안받침해주는 요인으로 된다. 왜냐하면 토나 보조어, 억양 등의 수단과 수법은 많은 경우에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을 더욱 보장하여주는 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 김로인의 부지런한 일솜씨를 본받았다.

이때의 속격토, 규정형, 대격토, 서술형은 바로 이들 문장성분의 기능을 확정해주면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정상어순에서의 문장성분의 차례는 여러 문법적수단과 함께 바로 문장론적기능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고정어순에서의 문장론적기능은 절대적성격을 띤다. 즉 고정어순에서는 오직 어순에 의해서만 문장성분의 기능이 확정된다.

○ 소년단축하단 대회참가자들 축하.

○ 물이 얼음이 된다.

○ 강물은 기슭을 씻으며 빨리 흐른다.

이때 문장성분의 자리가 바뀌면 곧 문장의 론리-의미적내용이 달라지거나 파괴된다는 사실은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을 뚜렷이 보여준다.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은 엄격한 규제성을 가지는것이 특징적이다. 만일에 이러한 엄격한 규제성이 없다면 도대체 고정어순, 정상어순, 달라진 어순 등의 갈래가 성립되지 못할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어순배렬의 류형들은 정상어순을 기준으로 하여 갈라지며 정상어순은 문장론적기능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말 어순은 미세한 효과까지 거두게 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요소이다. 다종다양한 어순배렬의 질서, 다채로운 어순의 기능, 그리고 정연한 체계의 어순배렬의 가능성 등이 갖추어져있는 여기에 우리 말의 우수한 점의 또하나가 있다.

제 4 장. 문장류형

사람들의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끝맺이가 있는 언어행위의 토막으로 완전히 나타내는 기본수단은 문장이다. 문장류형이 다양하면 그만큼 언어행위의 론리적 및 심리적 과정을 실현시켜주는데 더잘 이바지하게 된다. 이러한 문장류형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이 집대성되는 언어행위의 토막들이다. 이리하여 각 민족어에는 거기에 고유한 문장류형이 체계화되여있게 된다. 문장론에서는 바로 문장류형에 대한 고찰과 함께 거기에 반영되는 민족적특성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확정하고 그 구성재료와 구성성분을 고찰한데 기초하여 문장류형을 전면적으로 살피는것은 과학적문장론건설의 필수적과업이다.

문장류형에는 구체적으로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 민족어에 고유한 문장구성의 문법적특성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문장류형에 대한 과학적고찰은 우리 말 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고 그 류형을 체계화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에는 문장류형에 관한 연구가 깊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조선어문장류형에 대한 과학적고찰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최근 시기에 이르러 문장을 크게 내용상측면과 형식상측면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들이 지배적인것으로 되였으나 그 분류각도와 구체적인 문장류형의 설정은 한결같지 않다.

조선어에 단일문과 복합문의 구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개별적인 문장류형의 성격을 규정짓는데서 모든 견해들이 다 철저한 문법적립장에 선것은 아니다. 일부 경우에는 우리 말 문법구조의 특성에 꼭 맞는 분류를 하는데서 미흡한 점도 남기였다. 《무주어문》, 《단어문장》 등의 조선어적인 독특한 문장류형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납득성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였으며 《불완전문》과 같은 실정에 맞지 않는 류형도 오래동안 묵과되여왔다.

[붙임] 《무주어문》이 설정되면 《무술어문》, 《무보어문》…등이 설정될

근거도 주며 《단어문장》이 설정되면 《단어결합문》, 《구절문》…등이 설정될 여지도 남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착잡성이 생길수 있다.

문장분류에서 발로된 지난 시기의 약점을 가시고 우리 말 문장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맞는 문장류형을 가르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문법책들에 반영된 문장의 갈래를 다시 살펴보고 더 과학적인 분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 절. 문장의 내용상 분류

언어교제는 반드시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된다. 언어교제의 내용은 진술의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언어교제의 다방면적인 측면은 진술내용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 진술내용의 다양성이 문장의 내용상분류의 여러 갈래를 낳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언어행위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측에서 보면 일정한 사상감정을 전달하는 과정이며 듣는 사람의 측에서 보면 그 진술내용을 리해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에서는 이 전달—리해의 과정이 진술의 목적, 진술의 성격, 진술의 방식(전달의 방식) 등으로 구체화된다. 바로 이 진술의 목적, 진술의 성격, 진술의 방식 등이 문장의 내용상 분류의 여러 갈래를 설정할수 있게 하는 직접적요인으로 되는것이다. 문장의 내용상 분류란 바로 진술의 목적, 진술의 성격, 진술의 방식에 따라 문장류형을 가르는 것을 말한다.

진술의 목적에 따라 문장의 내용은 어떤 사실에 대한 단순한 전달일수도 있고 상대편의 구체적인 언어적반응을 요구하는것일수도 있으며 상대편의 직접적인 행동을 바라는것일수도 있다. 이리하여 일반적으로 알림문(서술문), 물음문(의문문), 시킴문(명령문), 추김문(《권유문》) 등이 갈라진다.

진술의 성격에 따라 문장의 내용은 강한 충동을 일으키는것일수 있다. 이리하여 일반적으로 느낌문(감탄문) 같은것이 생긴다.

진술의 방식에 따라 문장의 내용은 어떤 사실에 대한 재생일수도 있고 진술자의 주관적인 평가일수도 있다. 이리하여 일반적으로

《옮김법으로 된 문장》(《전달문》), 《목격문》, 《삽입문》 등이 구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내용상의 여러 류형으로 된 문장은 그것들에 고유한 일련의 구조-문법적특성을 가진다.

이리하여 문장의 내용상 분류는 그 진술의 구체적인 대상-론리적의미와 그 문장에 고유한 구조-문법적특성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제 문장의 내용상 분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본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1.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의 류형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의 류형으로는 전통적으로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을 들며 더 정밀화하여 추김문(《권유문》), 《약속문》까지 갈라내였다.

론리주의적경향에 기울어진 문법적견해들은 문장의 형태-구조적표식을 고려함이 없이 론리적판단의 구조와 맞먹는 《주어부+술어부》(주사—빈사)를 모든 문장에서 찾았으며 물음문 같은데서 《간접적의문문》, 《수사학적의문문》의 갈래를 더 두었으며 《주관적단정문》, 《객관적단정문》 등의 갈래를 더 설정하였다.

형식주의적립장에 선 문법적견해들은 또한 그들대로 문장의 맺음술어가 나타내는 맺음형의 형태론적표식을 위주로 하면서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권유문》외에도 《약속문》, 《요청문》 등을 더 나누었으며 지어 《말차림에 따르는 문장류형》까지 갈라내였다. 이리하여 형태론적표식에 따르는 수많은 문장류형이 설정되였다.

론리적인것을 위주로 하는 견해나 형태-구조적인것만을 위주로 하는 견해는 다 문장류형을 가르는데서 문장구조에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옳게 보지 못하였다.

문장류형의 분류에서 나타난 일면적견해들은 문장의 문법적기능을 공정하게 볼수 없게 하며 마침내는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고유한 특성까지 보지 못하게 할수 있다.

진술의 목적에 따라 분류되는 문장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진술내용으로 상대편을 자극하며 그로 하여금 해당한 반응을 일으키게

곰 하자는데 기본사명이 있다.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을 옳게 가르자면 이러한 기본사명에 맞는 문장론적기능을 확정하여야 한다. 해당 문장의 문장론적기능의 확정은 그 문장이 담고있는 대상-론리적의미와 해당 문장의 구조-문법적표식, 전일적인 문장에 덧실리는 억양의 표식 등을 통일적으로 고려한데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알림문은 진술자가 인식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단정하는 대상-론리적의미를 가지며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문장구조와 전달억양에 의하여 다른 문장류형과 구분되는 문장이다.

○ 조선혁명의 력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력사이다.

○ 그는 격동적인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알림문이 《무엇은 무엇이다》, 《누가(무엇이)어떠하다(어찌하다)》 등의 론리적구조를 가지며 일련의 어휘들과 문법적형태(특히 술어의 맺음형)에 있어서 《알림》에 고유한 특색들을 가진다는것 등은 이 문장류형을 다른 문장류형과 구분하는 주요표식으로 된다. 알림문의 억양의 요소들은 시작과 끝이 비교적 낮고 가운데가 높은 선률-률동적요소들로 통일된다.

물음문의 문장론적기능은 물음의 형식으로 상대편에게 일정한 자극을 주어 반응을 일으키는것이다. 이때의 반응이란 행동상 반응일수도 있고 대답이라는 언어적반응일수도 있다.

○ 묘향산에 갔다 언제 왔소?

○ 이 밤도 깊었는데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물음문은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 듣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거나 바라는 내용을 가진다. 그것은 진술의 론리-의지적계기를 강조하는데 알맞는 문장구조와 물음의 억양에 의하여 다른 문장류형들과 구분된다.

물음문은 물음을 나타내는 어휘적 및 문법적 표식을 가진다.

물음을 나타내는 어휘적요소에 오는 뜻마루와 맺음형에 오는 높은 어조를 가지는것도 물음문의 고유한 구별적표식이다.

시킴문의 본질적기능은 진술자의 언어적자극이 상대편의 행동상 반응을 일으킨다는데 있다. 시킴문에는 진술의 강한 의지적계기가 나타난다.

시킴문에는 많은 경우에 행동의 추자가 나타나지 않고 문장구조에 있어서 《시킴》에 고유한 특색이 나타난다. 시킴문의 억양이 대체로 촉급하며 문장의 마지막에 보통의 높은 어조와 세기마루가 떨어진다는것도 특징적인 표식이다.

○ 《차에 먼저 오르세요.》

○ 《나를 따라 앞으로!》

○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자.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문법적기능이 이상과 같이 해당 문장의 대상-론리적의미가 나타내는 진술의 자극과 반응의 특성을 규정하는것이라고 볼 때 문법적으로 일반화되지 못한 《진술의 목적》을 나타내는 다른 류형의 문장들은 다시 평가되여야 한다. 이리하여 《간접적의문문》, 《수사학적의문문》은 문법적현상이 아니며 《긍정문》, 《부정문》은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류형에 넣을수 없으며 《권유문》에도 《명령》의 변종을, 시킴문에도 《권유》, 《약속》 등의 변종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의의를 못가진다. 문법에서는 《추동문》, 《호소문》, 《금지문》, 《요청문》, 《축하문》, 《선동문》 등과 같은 허다한 문법적이 아닌 일반화는 허용될수 없다.

《권유문》에 대하여 말한다면 진술자의 의지적계기가 반영되여 상대편의 일정한 행동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그 일반화된 문장론적기능은 시킴문과 다를것이 없다. 다만 형태론적현상으로서 《권유토》가 따로 있는 사실로 하여 《권유문》을 시킴문의 한 갈래로 볼수도 있고 독자적인 류형으로 가를수도 있다.

그런데 조선어에는 맺음형토가 다양하게 발전되여있어 《권유토》(~자, ~ㅂ시다)뿐아니라 약속, 추동, 요청 등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토(~마, ~ㅁ세, ~자구나, —려무나, ~렴, ~구려…)가 있어서 수많은 서술목적에 따르는 문장갈래를 가를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권유문》문제는 보다 복잡성을 띤다. 문장의 내용상분류의 하나인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류형을 《토에 따르는 문장류형》과 동일시함으로써 문장론적현상을 형태론적현상에 용해시킬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는것이다.

우에서 이야기된 모든 사실로 보아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분류에서는 형태와 의미, 기능의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보고 해당 문장이 나타내는 문장론적기능을 확정하는것이 중요하다. 바로 진

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은 문장의 기능적분류, 내용상 구분에 따라 나눈것으로서 그 일반화된 갈래는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이며 독특하게 《권유문》이 설정될수 있다.

2.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의 류형

진술의 성격이란 문장내용이 현실에 대하여 어떤 성격의 관계를 맺는가 하는것으로서 진술자의 주관적평가가 전일적인 구조에 반영되는 문장론적기능이다. 따라서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이란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가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문장이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전형은 느낌문장이다. 그것은 느낌문으로 구현된 진술의 내용은 언제나 일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언어행위에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가 구조적으로 덧붙어 현실에 대한 관계의 성격으로 나타나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인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등에 감탄의 계기가 덧붙는 문장, 즉 진술자의 주정이 구현된 문장이 느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이 1차적성격을 띤다면 느낌문은 2차적성격을 띤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말에서 느낌문은 《감탄의 토》로 이루어진 맺음형으로도 형식화되며 서술토, 의문토, 명령토, 권유토 및 그밖의 진술형으로도 끝맺어진다.

○ 금강산은 정말 천하명산이로구나! ①
○ 남조선 군사불한당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②
○ 아니, 그렇게 많은 거름을 어제 다 날랐단말인가?! ③
○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④

우에 든 모든 례문은 대상-론리적의미에 감탄의 계기가 덧붙었다는데서 공통적이다. 이런 문장은 다 느낌문으로서 진술의 성격, 2차적성격으로 가른 분류인것이다.

이런 문장에서 감탄의 계기가 없다면 례 ②, ③, ④는 그 1차적성격으로 보아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으로만 될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느낌문이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보다 성격이 다른 문장류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다른 모든 류형들(례컨대, 《무주어문》, 《불완전문》 그리고 보는 단일문과 복합문 등)을 1차적질서로 볼 때 거기에 감탄의 계기가 덧붙은것들은 다 2차적질서로서의 느낌문으로 된다.

○ 1938년 겨울 어느날이였다!(무주어문—느낌문)

○ 아 백두산! 조종의 산!(명명문—느낌문)

○ 그렇다! 이 길만이 내가 갈 길이다. (단어문장—느낌문)

○ 밤은 깊었으나 대오는 묵묵히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복합문—느낌문)

느낌문은 서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뿐아니라 그밖의 다른 갈래의 문장이라도 2차적으로 성격이 달라지면서 이루어지는 문장이다.

○ 반디불?! ①
○ 《저… 그거야…?!》 ②
○ 혁명의 길은 간고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③

이 례들을 보면 ①은 명명문이 물음문으로 되고 다시 느낌문으로 된것이고 ②는 《단어문장》이 《중단문》으로 되고 다시 느낌문으로 된것이며 ③은 복합문으로 된 알림문이 느낌문으로 된것이다.

진술내용에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를 담으면서 현실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인 느낌문은 이상과 같이 진술의 성격에 따라 2차적으로 분류된 문장류형이다. 느낌문이 2차적질서에만 놓인다는 특성은 느낌문이 다시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으로 되지 않으며 복합문의 어느 하나의 《단일문》에만 감탄의 계기가 따로 덧붙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글에서는 감탄의 계기가 붙는 문장을 《!》부호로만 끝맺어주는것이다. (《!》, 《?!》로만 표시되지 《!?》, 나 《!,》로 표시되지 않으며 복합문의 뒤 《단일문》에는 《?》를, 앞《단일문》에는 《!》를 치는 일이 있을수 없다.)

〔붙임〕 지난 시기 일부 문법책들에서 느낌문의 문장론적특성을 옳게 보지 못한데서 그것을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부류에 넣었거나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에 넣으면서도 그 2차적성격을 외면한것 등은 이상과 같은 론거로 볼 때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은 느낌문뿐아니라 일련의 다른 문장에도 해당된다.

조선어에는 문장내용이 현실에 대하여 맺는 관계를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로써 나타내는 문장류형으로서 문법적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다. 이것은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다루어야 할것이다.

긍정문과 부정문을 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잡아야 할 근거는 그것이 언제나 일정한 목적으로 진술되는 내용에 진술자의 긍정-부정이라는 주관-평가적계기를 첨가한것이기때문이다.

○ 혁신이 일어난것은 그날만이 아니다.

○ 그때 방안에서 열쇠를 보지 못했느냐?

이 문장들이 담고있는 내용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전달이나 물음을 내포하고있다. 그러면서 진술자에 의한 부정의 계기가 첨가되면서 그 성격이 달라진것이다. 이 문장은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류형으로 보아 부정문이다.

긍정문과 부정문을 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잡아야 할 근거는 또한 이 두 문장이 례외없이 2차적인 분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장류형이기때문이다.

○ 혁신은 그날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있다.

○ 그때 방안에서 열쇠를 보지 못하였다.

이 문장들은 1차적으로는 다 알림문이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알리기만 하는 내용을 가진 문장이다. 그러나 2차적으로 분석해볼 때 이 두 문장의 하나는 긍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문이다. 다시말하면 알림문으로 된 1차적질서에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긍정과 부정)가 덧붙은 2차적질서의 문장인것이다.

모든 다른 류형의 문장은 2차원이상의 질서에서는 긍정문이 아니면 부정문으로 된다. 긍정문과 부정문이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되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은 명명문이다.

명명문은 1차적으로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진 《단독성분문장》이다. 즉 1차적으로는 구조상특성에 의하여 독특하게 분류된 문장이다(이 점이 앞에서 이야기된 느낌문, 긍정문, 부정문과 다른것이다).

이러한 구조적특성을 가진 명명문은 《사실이나 현상의 존재를 지적하기만 하는 기능》(즉 명명하는 기능)을 나타내면서 2차적으로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에 속하게 된다. 말하자면 명명문은 한 차원에서는 단독성분으로 진술을 나타내면서 다른 차원에서는 《지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문장이다. 명명문의 이 《2차원적 성격》이 그것을 느낌문이나 긍정문,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보게 하는 근거를 준다.

지금까지의 대다수 문법책들에서는 명명문의 이 《2차원적성격》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1부구성문》(또는 《외구성문》)에 넣고 구조적류형의 문장으로만 다루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름과도 모순된다). 이것은 명명문이 어간형이나 절대격형태의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로만 되여있다는 한 측면만을 보고 그 어간형이나 절대격형태를 술어에 대응하는 그 어떤 《주어》로 가상한데서 나온 잘못이다.

명명문의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는 《주어》도 아니며 《술어》도 아닌 바로 진술어이며 단독성분인것이다. 단독성분으로서의 진술어가 명명적기능을 겸하고있는 여기에 명명문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우에서 이야기된 모든 사실로 보아 조선어에서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은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가 구조적으로 덧붙는것으로서 감탄과 긍부정 및 명명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들이다.

3.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의 류형

진술의 방식이란 문장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으로서 기본진술에 대한 전달자의 립장이 반영되는 문장론적기능이다. 따라서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이란 기본진술과 전달자의 립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장이다.

조선어에서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부류로서는 무엇보다도 바로옮김문과 풀어옮김문을 들수 있다. 바로옮김문과 풀어옮김문은 기본진술이 전달되는 방식과 관련되는 문장이며 기본진술외에 전달자의 립장도 반영되는 문장이다.

바로옮김문이란 기본진술을 객관의 립장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하는 문장류형, 즉 남의 말을 그가 말한대로 전달하는 문장이다.

바로옮김문에는 전달자의 말도 섞이는데 그것은 언제나 객관적인것으로 나타나는것이 특징적이다. 이리하여 바로옮김문에서는 객관적사실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

○ 학급반장동무는 《모두 학습중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풀어옮김문이란 기본진술을 전달자의 주관적립장에서 고쳐서 전달하는 문장류형, 즉 남의 말을 풀어서 전달자의 립장에서 전달하는 문장이다.

풀어옮김문에서는 전달되는 말(남의 말)이 주관의 립장에서 전달되는것이 특징적이다.

○ 학급반장동무는 모두가 학습중이라고 말하였다.

바로옮김문이건 풀어옮김문이건 다 일정한 진술내용을 일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장이다. 이때의 방식은 많은 경우에 문장구성의 구조-형식상 특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리하여 전달방식상 차이에 따라 바로옮김문과 풀어옮김문의 구별도 생기는것이다.

조선어에는 또한 옮김문의 특수한 류형으로서 《목격문》과 《이중옮김문》이 있다.

《목격문》이란 일정한 객관적사실을 진술자가 직접 목격하였다는것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문장이다.

○ 모두들 학습하고있더구나.

○ 이웃 농장에서는 사철 남새를 떨구지 않습디다.

《목격문》에서 진술자의 립장은 술어의 맺음형과 억양의 요소로 표현되는것이 특징적이다.

《이중옮김문》이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전달된 말이 다시 진술자에 의하여 전달되는 문장이다.

○ 모두들 학습하고있답니다.

○ 지배인동무는 건설현장에 있겠답니다.

《이중옮김문》에서 진술자의 립장은 술어의 맺음형에 다시 맺음형토가 덧붙는 방식으로 나타내는것이 특징적이다. 말하자면 《이중옮김문》은 풀어옮김문의 특수류형이다.

《목격문》이나 《이중옮김문》이 교착의 방법으로 맺음형술어에 《전달의 토》가 붙어 이루어진다는것이 바로 조선어에 고유한 특성이다.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특수한 문장류형의 다른 하나로서 《삽입문》이 있다.

《삽입문》이란 기본진술에다 진술자의 립장을 밝혀놓기 위하여 덧붙이는 문장이다.

○ 그가 전하는바에 의하면 모두가 학습을 꾸준히 하고있다. ①

○ 문동무(그는 작업반장이다.)는 오늘도 새벽녘에 포전에 나갔다. ②

이 례들에서 《모두가 학습을 꾸준히 하고있다》, 《문동무는 오늘도 새벽녘에 포전에 나갔다》는 기본진술이고 《그가 전하는바에 의하면》, 《그는 작업반장이다.》는 진술자의 립장을 밝히는 《삽입문》들이다. 진술자의 립장을 밝히는 문장인 《삽입문》은 전달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그것을 위하여 기본진술에 덧붙었다.

《삽입문》이 나타내는 진술자의 립장은 객관적인 방식(례①)으로도 표현되며 주관적인 방식(례②)으로도 표현된다.

조선어에서 《삽입문》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 문장구조를 가진다는것이 특징적이다. 이로부터 조선어에서는 《삽입문》을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 보거나 단독적인 알림문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만 전일적인 진술단위안에 끼여들어갔다는 특성과 기본진술에 대한 첨가 또는 보충으로 된다는 특성으로 하여 자립성을 잃고 있는것이다.

우에서 본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들은 저마다 고유한 구조-문법적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자(진술자)의 립장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첨가됨으로써 기본진술의 전달방식을 규정한다는데서 통일되여있다.

(붙임) 진술의 목적,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에 비하여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의 구분이 직접 내용적인것이 아닌것만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형식상 류형에 넣을수는 없다. 진술의 방식은 어쨌든 진술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장내용의 문제인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문법책들에서는 전달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의 분류를 언어행위에 참가하는 인물들사이의 례의적관계를 나타내는 맺음형술어의 형태론적표식만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존대의 문장》, 《해요의 문장》, 《하오의 문장》, 《해라의 문장》, 《반말의 문장》을 설정하였다.

또한 존경토 《시》가 있고없고를 기준으로 삼아 《존경의 문장》과 《비존경의 문장》의 대립을 굳이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문장론적현상을 형태론적표식에 해소시키는 태도이며 구체적인 언어현실과도 맞지 않는 분류이다(현실적으로는 말차림이 다섯층으로 되여있지 않다). 설사 말차림의 형태론적표식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을 분류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것은 진술의 방식이라기보다 언어행위의 표현형식에 관한 문제인것이다.

진술의 방식에 관한 이와 같은 협소한 리해는 수많은 잡다한 문장류형을 설정케 함으로써 조선어의 문장류형을 지내 단순화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한다.

이상에서 진술의 목적과 진술의 성격,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특성들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선어문장의 내용상 분류와 관련한 기본문제들을 보았다. 여기에서 다른 일부 문장류형은 구조-형식상 분류에 넘나드는것도 있고 내용상 분류의 테두리에서 좀 벗어날수 있는것도 있을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다른 문장류형밖에도 내용상 류형에 더 들어갈수 있는 문장류형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조선어문장의 내용상 분류에서 제기되는 기본문제, 조선어문장의 내용상 분류의 전모를 편견없이 볼수 있도록 문장류형의 분류를 더 정밀화하고 더 세분화하는것은 필요한 일로 나선다. 여기서 본 문장의 내용상 분류는 조선어문장의 류형을 정밀화한것이다.

제2절. 문장의 형식상 분류

일정한 내용을 담은 언어교제의 단위들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언어교제단위들의 형식은 언어행위의 환경이 단순하지 않고 그 대상이 각이함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띤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객관적현실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복사한것일수는 없는것이고 언어행위의 담당자가 처한 구체적환경도 여러가지 양상을 띨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행위단위의 구조는 판단의 구조보다 복잡하며 언어행위의 담당자의 수준과 처한 조건이 또한 한결같지 않다는데서 언어행위의 표현형식도 각이하다. 즉 어떤 때는 같은 내용의 진술도 더 단순하게 또는 더 복잡하게 표현되기도 하며 그 문장구성도 여러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구조가 단순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 함축된 문장과 전개된 문장, 특수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문장 등이 생긴다.

이와 같은 언어교제형식의 다양성, 언어행위단위들의 다양성이 문장의 구조적류형의 다양성을 낳으며 문장의 형식상 분류의 필연성을 제기한다.

문장의 형식상 분류란 문장조직의 복잡성정도, 문장의 구성성분들의 구비정도, 문장구조의 전개정도 등에 따라 문장의 류형을 갈라놓는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문장조직이 몇개의 진술단위로 되였는가, 문장성분들이 다 갖추어져있는가, 문장성분들의 맞물림관계가 몇 단계로 포개여져있는가 하는것 등에 따라 문장의 류형을 가르는것을 말한다.

문장의 형식상 분류는 문장구조에 관계되는것이기때문에 구조적분류라고도 할수 있다.

이제 문장의 형식상 분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본문제들을 중심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문장의 류형

지난 시기의 많은 문법적견해들은 조선어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라 문장을 크게 《단문》과 《혼문》(혹은《복문》) 또는 단순문과 복합문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단문》 또는 단순문을 《판단의 따로됨을 하나 가지고있는 문장》, 《주어+술어의 단위를 하나 가지고있는 문장》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혼문》(혹은 《복문》) 또는 복합문을 그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리해하였다.

최근에 와서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문장류형을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더욱 정밀화하여 부르면서 전자를 《하나의 풀이단위를 가지고있는 문장》, 후자를 《두개이상의 풀이단위를 가지고있는 문장》이라고 규정하였다.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를 《판단의 따로됨》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는 론리주의적립장의 발현이며 《주어+술어》구조를 절대시하는 견해는 형식주의적편향이다. 《판단의 따로됨》이란 론리적해석으로서 문장과 판단을 동일시하는 태도이며 《주어+술어》구조의 절대시는 조선어문장의 다양한 표현형식과 특히는 문장의 기능을 외면하

는 태도인것이다.

《풀이단위》의 수효를 가지고 단일문, 복합문을 나누는 견해는 상당한 전진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그 《풀이단위》가 어떤 성격의 것이고 그 한계선이 무엇에 의하여 갈라지는가 하는것 등이 뚜렷이 해명되여야 한다.

그밖에도 지난 시기에는 단순문과 복합문의 분류기준을 우리 말의 구조적특성에 맞지 않게 세우는 태도도 없지 않았다.

이전에 있었던 일면적인 해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단순문과 단일문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여써야 하며 조선어의 단일문과 복합문이 지닌 본질적특성을 밝히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것이다.

단순문과 단일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단순문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의 전개되는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개념으로서 전개되지 않는 기본성분들로만 구성된 문장이다. 단순문은 확대문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 모내기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 조선은 하나이다.

단일문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의 전개정도에는 관계없이 진술성표현의 단위가 하나 있는 문장이다. 단일문은 복합문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력사이다.

○ 우리 나라는 매우 아름답다.

○나는 과학자이다.

단일문의 구성성분들이 단순성분으로만 이루어지면 단순단일문이 되고 확대성분으로 이루어지면 확대단일문으로 된다.(앞에서 든 단일문의 례는 그대로 단순단일문이며 뒤에서 례든 단일문가운데서 첫째 례는 확대단일문이다).

단일문의 본질적특성은 진술성표현의 단위를 하나 가지고있으면서 사상의 상대적완결성을 한번 토막지어주는데 있으며 전일적으로 통일되여있으면서 한번 크게 구획되는 여양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모든 복합문은 단일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이에 대한 전개된 서술은 5장에서 한다.)

(붙임) 정밀화된 개념으로서의 단순문과 종래에 쓰던 《단순문》이라는 말은 같지 않다. 종래에 복합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던 《단순문》은 인도-구라파어문법을 잘못 본딴데서 나온 불합리라고도 할수 있다.

최근 시기 문법책들에서는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또 하나의 문장류형으로서 단순문과 확대문의 대립을 설정하고 정밀화하였는데 이것도 전진이라고 볼수 있다.

단순문이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단순성분들로만 된 문장이다. 단일문에도 단순문이 있을수 있고 복합문에도 단순문이 있을수 있다.

확대문이란 문장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의 전개되는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개념으로서 하나이상의 확대성분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확대문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은 그 모두가 확대될수도 있고 그 일부(또는 하나)가 확대될수도 있다.

○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이 기쁨실고 또다시 찾아왔다.

○ 동생은 요새 갓나온 혁명소설을 열심히 읽고있다.

지난 시기나 지금이나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서 《전개문》과 《비전개문》의 대응을 설정하고 그 《비전개문》을 《주성분인 〈주어+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으로, 그 《전개문》을 《주성분외에 부성분도 있는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은 조선어문장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맞지 않기때문이다.

조선어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필수성은 없는것이고 더우기 주어와 술어만이 《주성분》으로 되는것도 아닌만큼 《비전개문》, 《전개문》의 설정을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붙임) 일부 문법책들에서는 《단순문》과 《전개문》의 대응을 설정하고 앞의것을 《단순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으로, 뒤의것을 《전개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이때의 《전개성분》이란 《확대성분》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였다. 용어의 혼돈을 피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문법적견해들에는 단순문과 확대문을 해석하면서 성분의 1차적질서와 2차적질서, 문장성분의 《단순성》과 《복잡성》, 문장성분의 《전개정도》에 대한 리해에서도 석연하지 못한 점들이 없지 않다.

단순문과 확대문의 구별은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졌는가에는 관계없이 문장성분의 상관관계가 1차적성격을 띠였는가 2차적성격을 띠였는가, 즉 단순성분으로 되였는가 확대성분으로 되였는가에 따라 나뉘여져야만 혼선이 없이 된다.

2.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의 류형

전통적으로는 조선어에서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류형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근래에 이르러 문장성분에 대한 고찰이 깊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문장의 다양한 류형을 갈라놓으려는 의도에서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도 눈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조선어적인 특성을 돋구려는 의도에서 《무주어문》, 《단어문장》 등의 갈래를 따로 내왔으며 《1부구성문》, 《2부구성문》의 개념을 받아들이였다.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지나치게 매여달리던 나머지 실정에 맞지 않는 《불완전문》을 갈라내기도 하였다.

《무주어문》, 《단어문장》을 다 《1부구성문》에 넣고있는 실정에서 《1부구성문》(외구성문)과 《2부구성문》(짝구성문) 문제부터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1부구성문》과 《2부구성문》의 대응을 설정한 모든 문법적견해들은 례외없이 진술구성의 《조직적중심》을 주어와 술어라고 보면서 그 《조직적중심》이 다 구비되였는가, 그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없는가 하는데 매여달렸다. 말하자면 진술의 《조직적중심설》에 기초하여 《1부구성문》과 《2부구성문》을 나누었다. (《진술의 조직적중심》인 주어, 술어에서 어느 하나가 없는 문장을 《1부구성문》이라고 하였다).

조선어에서 과연 주어와 술어만이 진술의 《조직적중심》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된다.

조선어문장에서 기초성분은 진술어이고 술어, 주어, 직접보어는 주도적성분이며 그밖의 성분들은 의존성분들이다. 따라서 조선어에서 《주성분—부성분》의 대응을 설정하는것도 불합리하며 주어와 술어만을 《주성분》으로 보는것도 부당하다.

《조직적중심》을 《주성분》과 관련시키고있는만큼 주어와 술어만이 《주성분》이 아니라면 주어와 술어만이 진술의 《조직적중심》이 아니라는것은 명백하다.

주어와 술어의 구비가 필수적인것이 아닌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조선어문장에서는 진술의 《조직적중심》이 《주어+술어》에만 고정되여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대다수 인도-구라파어들에서 자동사는 물론, 타동사 하나만으로도 진술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일부 인도-구라파어에서 주어, 술어의 필수성이 강한 경우와 조선어에서 진술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르다. 례컨대, 조선어에서는 《그는 춘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그는 춤을 춘다.》와 같은 구조로 되여야 문장이 완결된다. 즉 《주어+직접보어+술어》의 구조를 가져야 조직적중심이 제대로 살아난다.

한편 조선어에서는 《아침이다.》, 《개임.》 등으로도 진술이 완결되고 진술의 조직적중심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사정은 조선어에서 《주어+술어》의 구조가 진술성의 필수적구조가 아님을 말하여준다.

단어 하나 또는 단어결합체로만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오직 술어(또는 진술어)만이 조직적중심이며 여러가지 맞물린성분이 다 갖추어져있는 문장에서는 주어, 술어, 직접보어가 다 갖추어져있지 않고서는 진술의 중심을 잃을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주어, 술어, 직접보어가 조직적중심을 이루며 《주어+술어》로만 되여있는 문장에서도 주어, 술어가 다 조직적중심으로 되는 때도 있고 술어만이 조직적중심으로 되는 때도 있다.

이리하여 《주어+술어》의 필수성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1부구성문》과 《2부구성문》의 대응은 조선어에서는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것이다.

일부 문법적견해들에서 《1부구성문》으로 보는 《무주어문》, 《단어문장》, 《명명문》도 다시 고려되여야 한다.

〔붙임〕 최근에 나온 일부 문법책에서는 《무주어문》이라는 용어의 비과학성을 포착하고 《풀이말문장》이라고 하였다. 문제의 본질을 바로 포착하였다고 본다. 다만 《풀이》라는 용어를 더 세련시킨다면 더욱 좋았을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명명문》을 《지적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문제의 본질을 바로 포착한데서 나온 새로운 착안이다. 그러나 아직 그것으로 《명명문》의 특성을 다 밝혀내지 못한 점도 있다.

《무주어문》이 조선어에 고유한 문장류형인것만은 사실이다.

행동이나 상태의 주자가 밝혀지지 않으며 또 밝힐 필요도 없는

문장인 《무주어문》은 진술어나 또는 진술형으로 된 용언이나 용언형으로 끝맺어진다.

○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 화창한 봄날의 별이 흘러드는 자리였다.

○ 가도가도 풍년벌이였다.

○ 1938년 겨울이였다.

조선어에서 매우 생산적인 이러한 문장류형을 《무주어문》으로 다루게 된데는 《주어+술어》의 필수성을 전제로 하여 모든 구조-형태적문장류형을 보는 립장이 깔려있다. 말하자면 주어가 없고 술어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이라는것이다.

주어와 상관할수도 없는 구조에서 술어를 찾는다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주어를 《잃고》 《술어》로만 되여있기때문에 《1부구성문》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론리도 《주어+술어》의 필수성에 기초한 《조직적중심설》의 편견에서 나온것이다.

주어가 생략되지도 않았기때문에 되살릴수도 없으며 주어가 있을수도 없기때문에 밝힐 필요도 없는 조선어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이 류형의 문장을 《무주어》문장이라고 볼수는 없는것이다. 주어가 없는것만은 사실이나 《1부구성문》의 독특한 존재는 아니다. 고유한 구조적류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조선어적인 문장이야말로 진술어를 필수적구성요소로 하는 《진술어문장》의 한 류형이다.

〔붙임〕《진술어문장》이라는 용어는 조건부적인것이다. 진술어로만 되였거나 진술어가 조직적중심으로 되여있다는 뜻에서 《진술어문장》, 《진술문》 등으로 명명할수 있는 《단독성분문장》의 한 류형이다.

문학예술문체, 회상기체, 정론체, 신문기사체, 그리고 모든 기능문체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이 고유한 조선어적인 문장류형은 《주어+술어》의 필수성을 전제로 하는 《조직적중심설》에서 벗어날때에만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

《단어문장》도 조선어에서 생산적인 류형에 속하는 문장류형의 하나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법에서는 《문장성분으로 될수 없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는데서 《단어문장》에 대하여 특별한 《대우》를 하고있었다.

〔붙임〕《단어문장》이라는 용어자체도 잘된것이 못된다. 한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표식을 중요시한데서 나온 이름인데 조선어에서 《단어로만 된》 문장은 여기서 말하는 《단어문장》만이 아닌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어문장》을 주로 《감동어로만 된》 문장에만 국한시켰다.

○ 《예.》

○ 《아니오.》

○ 《그렇소.》

《단어문장》이란 특수한 단어(감동사 또는 《감동어적단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진술자의 감정-의지적계기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단어문장》이 나타내는 감정-의지적계기란 물음에 대한 대답, 어떤 사실에 대한 충동적인 부인, 확인, 반문, 인사 등이다.

○ 《춥지를 않니?》
《아니…》

○ 《아무렴! 미제와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지.》

○ 《그래, 그래! 묘향산은 수려하고 웅장하지.》

《단어문장》은 그 구조가 극히 단순하면서도 긴 사연을 함축하여 나타낸다는 특성을 가진다. 여기로부터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맞물린 성분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성분의 각도에서는 문장을 이루거나 문장안에 들어가 문장론적관계속에 있는 모든 단위는 성분으로 된다는 전제와 조선어에는 《무성분문장》이란 사실상 없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단어문장》도 문장성분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례로 든 《아니…》, 《아무렴!》, 《그래, 그래!》 등은 감동어적단어들이며 성분으로서는 진술어인것이다. 말하자면 느낌말로 된 진술어가 단독으로 문장을 이룬것이다.

진술어가 단독으로 문장을 이룬 이 문장은 본질에 있어서 단독성분문장이며 기초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느낌문이다. 이것은 진술의 성격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느낌의 계기가 확연히 덧실린 문장이라는데서 례외없이 느낌문으로 된다.

○ 《오늘도 밤을 새웠느냐?》
《예!》

○ 아!

물론 경우에 따라 느낌말이 끝맺음을 가지지 않고 비상관성분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련접방식으로 련결된 느낌말이라는 문장성분으로만 될것이다.

○ 《잔, 빨리들 가세.》

○ 《아니야, 학교에 갔다왔어…》

이상의 모든 사실로 보아 《단어문장》을 따로 설정할 근거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독성분문장의 한 류형이며 《진술어문장》의 한 갈래인 느낌문이다. 문장성분으로서는 느낌말이다.

(붙임) 견해에 따라서는 《단어문장》을 《간투문》으로 볼수도 있다. 그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느낌문이다.

《단어문장》에서 느낌의 계기가 별로 없는 류형은 성분으로서의 느낌말 또는 상황어, 끼움말(삽입어)로 처리하면 될것이다.

《1부구성문》에 명명문도 포함시킨 이상 이에 대하여서도 다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명명문은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하나로서 《구조-기능적부류》의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있다는것이 앞에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1부구성문》에는 들어갈수 없다는것이 스스로 해명된 조건에서 구조적부류의 각도에서 명명문의 본질을 더 밝힐 필요가 제기된다.

명명문이란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체언(또는 체언적결합체)으로 이루어진 단독성분문장 또는 단어결합문장이다.

○ 만경대!

○ 무엇인가 애타게 기다리며 극진히 속삭이는것 같은 눈동자들…

명명문에서 주도어는 어간형, 절대격형태, 《무형태단어》로 된 성분이다. 이 성분이 바로 진술어인것이다. 명명문이 단어결합체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의존어는 규정어로만 된다는것도 구조상특성의 하나이다. 명명문은 《주어로만 된 문장》도 아니며 《술어로만 된 문장》도 아니다.

《1부구성문》의 설정과 관련하여 좀 다르게 본 또 다른 한 견해가 최근에 나왔다. 이 견해는 《단일구성문》이라는 이름밑에 《주어, 술어 등 구성체계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성체계로 이루어진 문장》을 《두구성문》과 대응시켜 설정하였다. 이 견해의 주장자들도 《단일구성문》에 《무주어문》, 《명명문》, 《단어문장》 등을 포함시켰다.

《주어, 술어의 중심설》에서 약간 벗어나 《하나의 구성체계》, 《하나의 구성부분》을 기본표식으로 삼아 《단일구성문》(1부구성문)

을 설정한 이 견해에서는 《무주어문》에 종래까지 다루던 《술어로만 된 문장》외에 《특수한 표현형태의 문장》으로서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모두다 제2차7개년계획 초과완수에로!》와 같은 문장류형을 더 넣었고 《명명문》에는 책표지의 제목이나 기관이름과 같은것까지 넣었으며 《단어문장》은 《개별적으로 아무러한 의의를 못가지며》 오직 《다른 문장과 동행함으로써만 사상감정을 표시할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문장》이라 하면서 이에 《느낌말》로 되는 모든 《답변문장》을 넣었다. (례: 《오늘 비가 오겠지?》— 《글쎄.》, 《뭘요.》)

이 견해는 문장성분의 구비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구조를 가진 문장의 조선어적인 특성을 정밀하게 체계화하려고 한 데서 일보 더 전진했다.

그러나 《주성분》의 《융합》으로 된 《하나의 구성체계》, 《하나의 구성성분》이라는 표식을 더 납득성있게 전개하여 설명하지 못한것, 진술성의 발현이 불철저한 구조에서까지 문장의 표식을 찾은것 등은 이 견해의 약점이다. 그리고 이 견해도 궁극에 가서는 종전과 같이 《주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구성문》과 《두구성문》의 대응을 기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의 류형을 론리적도식에 따라 나눈 결과를 빚어냈다.

《무주어문》, 《명명문》, 《단어문장》 일반이 《두구성문》(2부구성문)에 대응되는 《단일구성문》(1부구성문)으로 될수 없으며 그러한 량분법적대응이 우리 말 문장류형의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붙임) 원래 《1부구성문》이요, 《2부구성문》이요 하는 도식은 《무주어인칭문》, 《무인칭문》, 《일반인칭문》, 《보편인칭문》의 구별이 확연한 일부 인도-구라파어에 해당한 개념이다. 론리적도식에 치우친 종전의 일부 인도-구라파어문법에서는 흔히 《술어로만 된 문장》, 《주어로만 된 문장》의 개념을 적용하여 《1부구성문》을 갈라냈다.

《무주어문》, 《단어문장》, 《명명문》이 《1부구성문》으로 되지 못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우에서 충분히 론의되였기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특수표현형태》의 《단일구성문》(1부구성문)문제만을 가지고 더 론하여보기로 한다.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문예잡지 〈조선문학〉》 등이 과연 《단일구성문》(1부구성문)이겠는가? 즉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된 문장이겠는가?

먼저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문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는 주어도 없고 술어도 없으며 종전의 방식대로 분석한다면 오직 《상황어+상황어》의 구조만이 있다. 따라서 성분의 구비정도로 보면 두개 성분으로 된 문장이며 기능적으로는 시킴-느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 어떤 《하나의 주성분》,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앞으로!》가 진술성의 집대성단위이며 그자체로써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진술어》로 된다. 이 문장은 본질에 있어서 《확대구조》로 된 진술어를 가진 《단독성분문장》이다.

조선어에는 이러한 구조의 문장류형이 풍부하다.

○ 나를 따라 앞으로!
○ 돌격 앞으로!
○ 어깨 총!
○ 모두다 모내기전투에로!

촉박하고 긴절한 욕구를 제기하며 강한 호소성과 추동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장은 그자체로서 《주어+술어…》의 렬거를 허용하지 않는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장은 반드시 《하나의 구성부분》으로만 되여야 한다든지 하나의 《주성분》으로만 짜여져있어야 하는것도 아니다. 《진술어》를 핵으로 하여 성분의 확대 또는 단어결합체 성분의 배렬이 가능한 문장인것만 사실이다. 앞에서 례로 든 문장들에서 《나를 따라》, 《돌격》, 《어깨》, 《모두다》는 어쨌든 문장성분인것이다(그 이름이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은 딴 문제이다). 이리하여 《특수한 표현형태》의 시킴-느낌문(또는 시킴문)은 《1부구성문》이 아니며 《단독성분문장》 또는 《확대성분문장》의 독특한 류형을 이루는 문장인것이다.

다음으로, 《문예잡지 〈조선문학〉》에 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는 주어, 술어…는 물론, 도대체 문장성분이란 없다. 이것은 판단이나 완결된 사상감정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라 《통일적인 개념》, 《단편적인 표상》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가 물질화되여있지 않은 문장이전의 단위이다. 따라서 문장으로 되지 못한 단위에서 문장성분을 찾을수 없으며 문장이 아닌것에 《명명문》의 자격을 줄수는 없는것이다.

기관이름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언어행위의 환경》이 동반되

여도 여기에는 표상과 개념의 명명밖에는 없다. 만일에 이러한 단위에까지 문장의 자격을 준다면 모든 《글쪽지》, 모든 사람의 이름, 물건이름도 다 문장으로 봐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어와 언어행위의 단위는 그 계선이 석연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답변문장》으로서의 《단어문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1부구성문》이 아니며 구조적으로는 《단독성분문장》, 기능적으로는 《느낌문》(또는 알림문)이란데 대하여 이미 앞에서 밝힌 조건에서 다만 더 밝혀야 할것은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과 느낌말로만 된 문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답변문장》은 기능상 갈래로 될지언정 《단일구성문》의 표식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단어문장》은 《단독성분문장》의 한 류형, 《진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으로서 확대구조를 이룰수도 있으므로 《2부구성문》에 대응되는 《단일구성문》이 아니다.

(붙임) 《답변문장》으로서의 《느낌말문장》을 여늬 《느낌말문장》(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하나)과 구분하기 위하여 《단독느낌말문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결국 《특수한 표현형태》의 《단일구성문》까지 포괄하는 모든 《1부구성문》(《무주어문》, 《명명문》, 《단어문장》)과 《2부구성문》의 대응은 불합리한것이다.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분류에서 지금까지 가장 불합리하고 물의를 일으키는것은 《완전문》과 《불완전문》의 대응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불완전문》을 있어야 할 문장성분을 다 갖추고있지 않으며 언어행위의 장면이나 문맥에 의하여 그 《생략된》 성분을 쉽게 되살릴수 있는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 《아버지는 언제 온다더냐?》
《래일 아침에 온답니다.》
《래일 아침에?》
《예!》

○ 가족들은 오래동안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구조상으로 생략된 문장성분이 있는 불완전한 모든 문장은 《불완전문》으로 된다고 보는 견해들은 《불완전문》에 대응시켜 《완전

문》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론리주의적립장에 선 견해들은 론리적주사에 맞먹는 《주어가 없거나》 론리적빈사에 맞먹는 《술어가 없는》 모든 문장을 《불완전문》으로 다루며 《갖추어야 할 문장성분이 구비되지 못한 문장》이라고 해석하였다.

판단의 성분이 결여된것은 판단의 《불완전성》이라 할수 있지만 문법적현상으로서의 문장은 반드시 모든 성분을 다 갖추어서야만 언어교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아니다(사실상 문장성분의 결여는 어디까지로 보며 모든 성분의 구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 하는것도 문제이다).

판단의 구조와 문장의 구조는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니라는 실정과 언어행위의 다양성, 특히는 《주어+술어》의 필수성이 없는 조선어문장의 특성으로 보아 문장성분의 《결여》가 곧 진술내용이나 구조에 그 어떤 《불완전성》을 주는것은 아니다.

형식주의적립장에 선 문법적견해들은 모든 문장구조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생략된것이 《예측》되기만 하면 다 《불완전한것》으로 보았으며 지어 불가피하게 문장성분이 생략되지 않으면 안되는 《생략문》까지 《불완전문》으로 보았다.

생략된 문장성분을 억지로 《예측》한다거나 《완비된》 문장을 전제로 하여서만 그 생략된 성분을 재생한다는것 자체가 인위적인것이며 공연한 일이다.

언어행위가 순탄하게 진행되며 진술성이 충분히 표현되고 문장내용이 어색하지 않게 안겨온다면 그 문장은 그것으로 완전한것이다. 이런데서 굳이 문장성분의 생략을 《예측》할 필요도 없으며 생략된 성분을 되살릴것도 없다(그렇게 되면 언어행위는 오히려 순탄하지 못하며 조선어다운 맛도 없어진다).

앞에서 든 《불완전문》의 례들에서 몇개라도 《완전문》으로 재생시킨다면 그 어색함을 능히 알수 있다.

○ 《아버지는 언제 온다더냐?》
　《아버지는 래일 아침에 온답니다.》
○ 《아버지는 래일 아침에 온다?》
　《예, 아버지는 래일 아침에 온답니다.》

입말체나 문학예술문체 등에서 이러한 《완전문》만으로 문장을

엮는다면 언어교제의 순탄성은 고사하고 민족적정서까지 잃게 될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문장이야말로 진술의 순탄성을 마슨다는 뜻에서 《불완전한》 진술단위로 된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문장성분의 어느 하나라도 생략된것이 있으면 《불완전한것》으로 보고 일일이 그 재생을 전제로 하는 문장류형의 분류방법에서 불합리를 찾은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이번에는 풀이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의 표현이 《불완전한것》만큼 《불완전문》으로 보는데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맺음술어가 없는 문장만을 《불완전문》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인위》를 조성하였다.

○ 《제가 마중나가볼가요?》
　《어두워오는데 어딜…》
　《만일 우리 명호가…》
　《덤비지 마십시오, 벌써 직장에 도착했을것입니다.》

이 견해도 결국은 문장성분의 《결여》나 《생략》을 전제로 하여 문장의 구조와 내용의 《불완전성》을 규정하고 재생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불완전문》을 《완전문》과 대응시킨것이다.

여기서 단순맺음술어의 《결여》나 《생략》으로 된 문장은 본질에 있어서 중단문 또는 생략문이며 불완전문은 아니다.

풀이성의 담당자가 문장의 어떤 개별적요소인것이 아니라 전일적인 문장구조와 관련되는것이란것을 고려할 때 《불완전한 풀이성》을 《불완전성》의 표식으로 잡은 이 견해의 일면성을 더욱 똑똑히 알수 있다. 이 견해는 언어행위의 환경이나 문맥에 따라 그 《생략》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고 봄으로써 도리여 그 《생략》의 불가피성과 그 언어행위의 《완전성》을 반증하였다.

우에서 본 모든 사실로 보아 《불완전문》은 그자체로서 언어행위의 순탄성을 보장하는 조선인민의 언어 의식과 관습에 맞는 언어표현방식이며 그것은 내용과 형식에서 완결성을 보장한 완전한 자립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조선어에는 《불완전문》이란 없으며 《완전문》, 《불완전문》의 대응도 없다.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분류와 관련하여 《생략문》, 《중단문》을 따로 설정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생략문이나 중단문은 언어행위의 환경이 급변한다거나 돌발적인 장애가 이루어졌을 때 문장성분의 어느 하나 또는 그이상이 줄

어드는 문장이다.

○ 《저 불… 어쩌나… 빨리 꺼요.》

○ 《만일 내가…》

《어서 말하게, 진정하여…》

생략문 또는 중단문은 여운, 촉박감, 다감한 정서 등의 색채를 문장에 부여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의식성으로부터 문장구조의 일부를 빠지게 한다. 이 문장류형은 구조의 생략이나 중단이 내용의 생략이나 중단과 일치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생략문 또는 중단문에서 서술형이나 맺음형, 진술형 등으로 된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진술성의 담당자가 없다고 보는것은 잘못이다. 진술성은 단어의 형태에 내속되는 개념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일적인 문장에 내속되는 범주인 이상 언어행위의 환경에 의하여 현실과의 관계가 나타나있다면 훌륭히 표현되는것으로 된다. 억양의 요소도 비록 중단은 되였으나 진술억양외의 다른것이 아니며 하나의 목적지향성을 가지는 선률-률동적통일체이다.

이리하여 생략문이나 중단문에도 진술성이 있으며 독자적인 진술단위로서의 표식이 있다. 생략문, 중단문은 글에서는 보통 《생략》된 부분이 줄임표(…)에 의하여 표시된다.

〔붙임〕 생략문과 중단문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략》이 목적의식적인것이든 외부로부터의 장애에 의한 불가피한것이든 문장성분의 《결여》라는데서 공통적이라는 의미에서 구분하지 않고 동질의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차라리 《생략-중단문》으로 부르는것이 더 낫다.

우에서 본 문장의 형식상 분류, 구조적분류에서는 매 문장의 구조적특성과 기능의 다양성에 따라 더 작은 갈래를 설정할수도 있다. 례컨대, 복합문의 여러 작은 류형, 확대문의 여러 작은 류형, 단독성분문장의 여러 작은 류형, 그리고 생략-중단문의 작은 류형들을 더 가를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그 작은 갈래가 맡는 문장론적기능의 다양성도 《한 형태의 다의미, 다기능》, 《한 기능의 다의미화, 다형태화》의 원칙에서 문제를 처리한다면 무리없이 파악될수 있을것이다.

제 3 절. 문장의 기능-구조적류형

〔붙임〕 문장의 기능-구조적류형에 관한 문제는 문장의 내용상 분류나 형식상 분류에서 이미 《넘나드는》 류형으로 다루었거나 특히는 형식상 분류에서 기능적특성이 독특한 부류들로 규정한것들을 류형화의 각도에서 다시 고찰한것이다. 다시 말하여 내용상 분류나 형식상 분류에서 《넘나드는》 류형을 각도를 달리해서 류형화한것이다.

문장의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 다시 말하면 문장의 기능적분류와 구조적분류의 두 큰 부류에서 서로 넘나드는 류형들이 있다. 이것은 내용상 분류에도 속하며 형식상 분류에도 속하는 문장류형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를 겸한 기능-구조적 또는 구조-기능적 류형이 설정된다는것이다.

이러한 류형의 문장성격을 규정하는데서는 먼저 구조적측면을 보고 다음에 기능적측면을 볼수도 있고 반대로 먼저 기능적측면을 보고 다음에 구조적측면을 볼수도 있다. 어쨌든 구조-기능적인것으로 되든지 기능-구조적인것으로 되든지 하나의 독특한 문장류형이 나온다.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 《1부구성문》(외구성문)으로 다루었던 대부분의 류형이 구조상으로 보면 《단독성분문장》이며 기능상으로 보면 명명문, 《진술어문장》, 《느낌말문장》(느낌문) 등으로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들도 다 기능-구조적류형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많은 명명문은 구체적으로 구조상 분류로서는 《단독성분문장》이며 기능상 분류로서는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독특한 《진술어》로만 이루어진 형식상 류형이 《대상에 대한 지적》으로써 그 주관-평가적계기가 뚜렷해지는 성격을 가진 문장류형인것이다. 명명문의 이와 같은 《2중적성격》으로 하여 그것은 기능-구조적분류의 대상으로 된다.

명명문이 단어 하나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단어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질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다 명명문의 작은 구조-기능적갈래로 볼수 있다.

○ 만경대! ①

○ 만경대고향집! 여기서 위대한 태양이 솟았다. ②

○ 영원히 잊을수 없는 소사하의 옛집. ③

《진술어문장》은 종전의 《무주어문장》을 기능적분류의 각도에서 이름지은것이다. 다시말하면, 《진술어》로만 이루어진 형식상 류형이 《사실에 대한 진술》로써 알려지는 알림문으로 된 문장류형인것이다. 이 문장류형은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류형이지만 구조상으로는 여전히 《단독성분문장》이다. 《진술어문장》은 조선어문장의 기능-구조적류형의 독특한 부류이다.

○ 봄이다! ①

○ 1945년 10월 어느날이였다. ②

《진술어문장》에도 그 구성재료와 구조적단위의 결합방식에 따라 복합문도 있고 단일문도 있으며 단순진술어문장, 확대진술어문장 등의 작은 갈래도 있을수 있다. 즉 《진술어문장》은 단독적인 단어나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2차적으로 된 확대된 성분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질수도 있다.

《진술어문장》을 《단독성분문장》이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1차적관계에서 진술어가 단독으로 진술성의 담당자로 되며 그것으로써 문장의 기본표식을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느낌말문장》(느낌문)은 종전의 《단어문장》을 기능상 분류의 각도에서 이름지은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어로만 된》 문장이 현실적인 거부, 확인, 반문 등으로써 평가되는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류형인것이다. 구조상으로는 여전히 단독성분문장이다.

그런데 《느낌말문장》은 느낌문의 한 변종이라고 볼수 있기때문에 기능-구조적류형에 넣을 근거가 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어하나》 또는 《하나의 기초성분을 핵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것을 부정할수 없다.

구조-기능적류형가운데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생략문 또는 중단문(《생략-중단문》)이다.

○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

저는 딸애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초지종 사연을 알게 되였습니다.

○ 《아니, 그렇게 밤을 꼬박…》

《예, 이틀밤을 새운셈이지요.》

《생략-중단문》은 단독성분문장도 아니며 그렇다고 주도어를 핵으로 하는 상관성분의 구조를 가진 문장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언어행위의 환경이나 문맥에 따라 생략되였거나 중단된 부분의 성분을 알수 있기때문에 진술이 가능한것이다. 회화체나 문학예술문체에 고유한 이런 문장류형은 조선어에 매우 발전되여있다.

《생략-중단문》에는 많은 경우에 주어-술어, 보어-술어, 상황어-술어와 같은 정연한 대응관계가 없으며 특히 술어가 없으나 쉽게 재생된다는데서 《잠재적진술성》을 가졌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생략-중단문》은 구조-기능적류형에 속하면서도 《잠재성》이나 《미완결성》을 가지는 독특한 문장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조선어문장류형을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장의 내용상 분류

(1)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

① 알림문

② 물음문 ┬ 직접물음문
　　　　　└ 간접물음문

③ 시킴문 ┬ 《권유문》
　　　　　├ 《추동문》
　　　　　└ 《약속문》

(2)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

① 느낌문 ┬ 일반느낌문
　　　　　└ 《느낌말문장》

② 긍정-부정문 ┬ 긍정문
　　　　　　　　└ 부정문

(3)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

① 옮김문 ┬ 바로옮김문
　　　　　├ 풀어옮김문
　　　　　└ 이중옮김문

② 《특수문장》 ┬ 목격문
　　　　　　　　└ 삽입문

2) 문장의 형식상 분류

(1)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문장류형

① 단일문 ─┬─ 단순단일문
　　　　　└─ 확대단일문

② 복합문 ─┬─ 접속복합문
　　　　　├─ 병립복합문
　　　　　└─ 련접복합문

(2)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류형

① 단순문

② 확대문

3) 문장의 기능-구조적분류

(1) 단독성분문장류형

① 명명문 ─┬─ 단어명명문(단순명명문)
　　　　　└─ 단어결합명명문(확대명명문)

② 《진술어문장》─┬─ 단순진술어문장
　　　　　　　　└─ 확대진술어문장

③ 《단독느낌말문장》

(2) 생략 - 중단문 ─┬─ 생략문
　　　　　　　　　└─ 중단문

〔**붙임**〕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하나인 시킴문가운데서 그 작은 갈래인 《권유문》을 독자적으로 따로 떼여 고유한 의미에서의 시킴문과 같은 계렬에 놓고 그안에 다시 작은 갈래로서 《추동문》과 《약속문》을 둘수도 있다.

복합문의 갈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이야기될것이다.

제5장. 복 합 문

이 장에서는 복합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주기 위하여 우리말 복합문의 구성단위들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밝히고 복합문의 이음수단, 류형 등에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해명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복합문에 대한 연구는 문장론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진행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문장의 구획문제, 복합문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론의를 거듭한 나머지 복합문 전반에 대한 고찰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하여 미해명문제를 적지 않게 남기였다.

오늘날에 와서 거의 모든 문법적견해들은 조선어에도 복합문이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일련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제기하고 일정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아직도 학계에는 복합문의 구성단위를 확정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일문과 복합문의 계선, 복합문의 류형 등 문제에서 서로 다른 리해들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이 장에서는 조선어복합문에 대한 옳은 리해를 위하여 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문장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에 대한 리론적해명을 주게 된다.

제1절. 복합문에 대한 일반적해설

1. 복합문의 개념

지난 시기 조선어문법연구가들가운데는 복합문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견해들이 있었다.

문장의 기본표식을 《판단의 단정》에서 찾으며 완결된 사상의 《절대성》과 문장형식의 《독립성》을 중요시한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맺음형으로 끝나는 언어행위의 단위만을 완전한 문장으로 잡았기때

문에 조선어에서는 복합문이 없는것으로 보았다. 이리하여 론리적 주사와 빈사에 맞먹는 《주어+술어》의 구조(또한 그와 등가적인 구조)가 맺음형으로 《단정》되지 않으면 문장이 되지 못하므로 조선어에는 복합문이 없다는것이다.

문장의 기본표식을 맺음술어의 형태구비성에서만 찾는 일부 문법적견해들도 그 어떤 복합문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조선어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언어행위의 단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단일문의 테두리안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같이 두 극단에 선 견해들은 복합문의 고찰에서 조선어적인 특성을 《고려》한다 하면서도 문제의 전면을 보지 못하였다.

인류의 사유는 그 구조에 있어서 복잡한것일수도 있고 단순한것들의 라렬일수도 있다. 사유의 형식인 문장은 복잡한 전일체로 조직될수도 있고 단일한 진술단위들의 독자적인 배렬로 조직될수도 있다. 이리하여 각 민족어마다 문장의 련결형식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조선어문장들의 련결형식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이 달라질따름이다.

문제는 조선어복합문에 있는 구조-문법적특성을 전면적으로 살핀데 기초하여 복합문의 계선을 똑바로 그어놓는데 있다.

복합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오늘날의 문법적견해들에 있어서도 복합문의 기본표식과 그 구성단위의 한계, 그리고 복합문의 분류등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을 리해하는데서 한결같지 않다.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문장이 맺음술어와 이음술어로 이루어졌을 모든 경우에 《술어적중심》이 《그 수효(두개이상)만큼 있기》때문에 복합문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하나의 진술단위에 여러개의 《술어적중심》을 설정함으로써 단일문과 복합문의 한계를 해소시켰다. 이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의 문장을 복합문으로 다루었다.

○ 우리는 창작열에 불탔고 투쟁의욕에 가득 차있었다. ①

○ 조선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 ②

이 례들은 다 하나의 진술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①은 하나의 현실적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전달하고있다. 즉 여기에는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가 한번 나타나며 진술성도 하나 있다. 례①에서

《불탔고》와 《가득 차있었다》에 대하여 말한다면 물론 《이음술어+맺음술어》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하나의 주어에 맞물리는 이 이음술어와 맺음술어는 하나의 진술단위안에서의 《동종성분》이며 전일적인 하나의 《술어적중심》의 단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단일문이다.

례②에서 《맑고 푸르다》는 《이음술어+맺음술어》의 관계에도 있지 않는 접속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어결합체이며 하나의 《술어부》이다. 여기에 《술어적중심》이 하나만 있다는데 대하여 더 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창작열에 불탔고 투쟁의욕에 가득 차있었다.》나 《조선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를 《우리는 창작열에 불탔고 우리는 투쟁의욕에 가득 차있었다.》나 《조선의 하늘은 맑고 조선의 하늘은 푸르다.》와 등가적인것으로 본다든지 모든 진술형을 곧 진술성의 담당자로 본다든지 하는것은 극단한 론리주의적해석이다.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또한 조선어에 종속복합문이 있는것으로 단정하고 맺음술어를 가진 문장을 《주문》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 견해들은 종속복합문을 《주문진술적단위+부문진술적단위》의 도식에 얽어놓았으며 론리적인 주종관계의 테두리안에서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결합방식으로서의 접속이 곧 론리적주종관계는 아니며 따라서 하나가 다른것에 론리적으로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다. 결합과 구별되는 접속의 방식은 문장과 문장을 련결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접속으로 된 복합문은 《종속복합문》이 아니다.

○ 폭풍이 자기 시작하면서 날씨는 갑자기 온화하였다.

○ 비가 오면서(부터) 벼모는 더욱 푸르싱싱하였다.

이러한 례들에서 《~면서》가 나타내는 시간적계기는 동시성이고 따라서 《종속관계》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런데 《병렬적관계》를 나타내야 할 《고》로로 련결된 문장에서도 《종속적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바람이 세차게 일고 그에 따라 나무뿌리들까지 흔들렸다.(①)

○ 봄 오고(서야) 이 지대의 동토들도 녹기 시작하였다.(②)

이러한 례문들에서 《고》가 나타내는 기능은 《인과관계》이다. 《인과관계》는 병렬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문장론적단위들의 결합방식이 인도-구라파어와 다르며 특히는 이음토의 기능이 다양하여 한 형태가 종속적인것과 병렬적인것을 다 나타나게 하는 일이 흔한 조선어문장에서 미리 정해놓은 그 어떤 《종속적 또는 병렬적》인 현상을 찾으려 하거나 《종속복합문》에서 《주문》과 《부문》을 갈라내는것은 교조적인 태도이다.

《구》를 가진 문장을 단일문으로 다루는 견해도 있고 복합문으로 다루는 견해도 있다. 이 두 견해는 결국 《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따라 차이난다.

이른바 《주어+술어》의 형식을 취하면서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를 가진 모든 문장을 복합문으로 보면서 특별히 《결합복합문》이라는 류형을 설정한 문법적견해들은 문장의 기본표식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다만 《구》가 성분이면서도 《문장의 체계》를 갖추었다는 《2중성》만을 두루 《고려》하였다. 이것은 과학적태도가 아니며 복합문에서도 《결합》과 《접속》의 대응관계를 기계적으로 설정하려는 태도이다.

이와는 좀 달리 《주어+술어》의 형식을 취하면서 문장성분의 기능을 노는 《구》를 가진 모든 문장을 특별히 《내포문》 또는 《잉태문》이라고 한 문법적견해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문장의 기본표식을 외면하고 《구》의 《2중성》만을 념두에 두고있는데서 앞의 립장과 같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일문과 복합문의 그 무슨 《절충형》을 설정하려는 시도이라는 점이다.

《구》는 본질에 있어서 단어들의 결합체이며 문장의 구성재료인데서 어떠한 류형의 문장으로도 되지 못하며 진술단위가 아니다. 문장이 아닌 단위를 복합문의 구성단위로 잡는것은 모순이다. 《구》는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도 아니며 《구》를 가진 문장은 《특수류형》으로서의 《내포문》이나 《잉태문》도 아니다.

우에서 본 모든 부당한 견해들은 결국 문장의 기본표식, 특히는 단일문과 복합문의 기본표식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고 진술단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데서 나왔다.

물론 최근에 나온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문장의 기본표식을 《풀이성》에서 찾고 그 《풀이성》을 가지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단일문과 복합문의 한계를 그음으로써 문장론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보았다. 그러나 이 견해에도 아직 진술단위에 대한 전면적인 고

찰이 없고 복합문의 류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부족하며 복합문의 구성요소들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대한 파악이 없는데서 제약성이 있다.

복합문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깊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복합문의 본질과 그 기본표식이 무엇이며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의 한계와 진술단위의 계선이 어떻게 그어지는가 하는 문제부터 옳게 밝혀내야 한다.

그러면 복합문이란 어떤 문장이며 그 기본표식은 무엇인가?

문장의 본질은 완결된 사상과 목적지향성있는 감정을 일정한 문법적형식에 담아 토막지어놓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라는데 있으며 그 기본표식은 진술성을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단일문이건 복합문이건 그것이 문장론적대상으로서의 문장인 이상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점에서 벗어날수 없다. 따라서 단일문이나 복합문도 사상감정의 완결성과 목적지향성을 담으며 일정한 문법적형식화로써 토막지어지는 언어행위의 단위이며 진술성을 가지고있는 단위이다. 문제는 단일문과 복합문이 각각 어느 정도의 완결성과 목적지향성, 얼마만한 수효의 진술성을 가지고 어떻게 문법적으로 형식화되는가 하는데 있다.

복합문은 두개이상의 단일문이 문법적으로 련결되여 이루어진 전일체이다. 단일문과 복합문은 대응되는 범주이다. 단일문이 두개 이상 련결되면 복합문이 되고 복합문이 있으면 그안에 두개이상의 《단일문》이 있는 법이다. 말하자면 복합문의 구성단위는 《단일문》이며 그 《단일문》이 최소의 진술단위로 된다.

그러므로 단일문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확정하는것이 복합문의 본질과 그 기본표식을 옳게 밝혀내는 실머리로 된다.

단일문이란 하나의 진술단위로서 하나의 완전한 구획성을 가지는 언어행위의 최소단위이다.

○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력사의 새시대이다.①
○ 조선혁명의 앞날은 휘황하고 찬란하다.②
○ 1927년 4월 어느날이였다.③
○ 폭풍!④

이 례들에서 네개의 문장은 그가 담고있는 현실적내용, 그 구성성분의 수효와 문장의 길이 등이 한결같지 않으나 다같이 하나의

진술단위로서의 단일문들이다.

이러한 여러 류형의 단일문에 관통되여있는 공통적인 기본표식은 각각 하나의 진술성을 가지고 한번의 언어행위의 토막으로 된다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하나의 진술성, 한번의 구획성을 가지는 전일적인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하나의 진술성, 한번의 구획으로 토막지어지는 전일체, 이것이 바로 단일문을 하나의 진술단위로 되게 하는 기본표식으로 된다. 진술단위를 물질적으로 나타내는것은 전일적인 구조에 나타나는 진술성표현으로서의 어휘-문법적수단과 진술억양이다. 바로 이 진술성표현으로서의 어휘-문법적수단과 진술억양에 의하여 하나의 진술단위가 구획되며 그 계선도 확정된다. 단일문을 하나의 진술단위,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단일문의 이와 같은 본질과 기본표식으로부터 복합문의 본질과 기본표식도 스스로 밝혀진다.

복합문이란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그이상의 진술단위로써 하나의 통일적인 복잡한 진술내용을 담고있는 언어행위의 크고 긴 단위이다.

두개 또는 그이상의 진술단위로 이루어졌다는것은 복합문의 구성단위가 《단일문》이라는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통일적인 복잡한 진술내용을 담고있다는것은 복합문이 《단일문》의 산술적총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합체가 아니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합문안에서 두개 또는 그이상의 진술단위가 상대적으로 구획된다는것은 독자적인 단일문과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이 똑같은것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준다. 언어행위의 크고 긴 단위라는것은 한번의 언어행위가 실현되는 한도안에서의 가장 긴 진술단위라는것을 의미한다.

복합문의 기본표식은 상대적구획성과 전일성이 결합된 하나의 통일체라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상대적으로는 두개 또는 그이상의 진술성과 진술억양을 가지며 총체적으로는 하나의 전일적인 진술성과 진술억양을 가지는 통일체라는것이다.

○ 조선로동당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며 조선인민은 수령의 참다운 후계자를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인민이다.

○ 날이 어두워지자 압록강반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

이 례들에서 3개의 문장은 현실적내용, 그 구성단위들이 상관하는 성격과 방식, 그 구성성분의 련결수단, 문장의 길이 등에 있어서 같지 않으나 각각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의 진술단위로 이루어졌고 총체적으로는 하나로 밀접히 련관되고 복잡한 사상으로 통일된 언어행위의 단위로서의 복합문으로 된다는데서 같다.

복합문의 본질과 기본표식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복합문은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진술단위인 《단일문》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큰 진술단위이다.

앞에서 든 례에서 《조선로동당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며》나 《조선인민은 수령의 참다운 후계자를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인민이다》는 다 확대《단일문》이며 각각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진술단위이다. 이들 진술단위에는 각각 하나의 진술성이 물질화되여있으며 진술억양이 동반되여있다. 이 복합문은 전일적으로는 두개의 진술단위인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진술단위로 된다. 여기에 복합문의 본질적특성의 하나가 있다.

만일에 절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일문이 그냥 라렬되고 두개의 진술단위가 그대로 렬거된다면 하나의 큰 진술단위는 이루어지지 못하며 따라서 복합문이란 생각할수 없게 된다. 오직 상대적으로 구획되고 전일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여서만 하나의 진술성으로 묶어지는 하나의 큰 진술단위, 즉 복합문이 이루어지는것이다. 이것이 개별적인 단일문들의 렬거와 다른 점이다.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들의 련결과 개별적단일문들의 렬거에서 나타나는 통일성, 구획성, 자립성의 정도와 진술성의 표현방식 등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문》의 련결은(ㅂ×ㅂ′)n=(ㅂㅂ′)N

단일문의 렬거:ㄷn+ㄷ′n=ㄷN·ㄷ′N

〔붙임〕 ㅂ, ㅂ′…복합문안의 《단일문》

ㄷ, ㄷ′…개별적단일문.(복합문과 관계 없음)

n…개별적진술단위에서의 진술성의 물질적표식.

N…전일체에서의 진술성의 물질적표식.

그러므로 (ㅂ×ㅂ′)n=(ㅂㅂ′)N는 복합문임을 나타내며 ㄷn+ㄷ′n=ㄷN. ㄷ′N는 개별적인 단일문들의 단순한 렬거를 나타낸다.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단일문과 《단일문》과는 서로 다르다. 앞의것은 독자적인 문장으로서의 개별적인 진술단위이며 뒤의것은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진술단위이다. 복합문은 단일문의 렬거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단일문》들의 련결로 이루어지는것이다.

복합문은 절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일문의 렬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일문》의 문법적련결체이며 하나의 전일적인 큰 진술단위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일문》의 련결문제를 보자.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단일문》이란 진술구조에 있어서나 진술성의 어휘-문법적표현수단과 진술억양 등에서 독자적으로 구획되는 단일문과 다르다는것을 의미한다. 《단일문》은 그 사상의 완결성이 우선 상대성을 띤다. 이러한 언어환경에서는 그 두 부분을 떼여놓고 그 사상의 완결성을 론한다면 어느 하나도 완전한 완결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두 《단일문》의 호상의존성을 말해주며 문장론적인 호상제약성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복합문의 구성단위인 《단일문》들은 서로 다른것에 의하여 더 보충될것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완결성을 다 갖추지 못한다. 진술성을 나타내는데서도 상대적자립성만을 가진다.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에 실리는 진술억양의 상대적자립성은 더욱 뚜렷하다. 《단일문》의 어느 하나에도 개별적인 알림문에서와 같은 자립적인 진술억양이 없으며 오직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억양의 요소들의 맞물림이 있을따름이다. 이 관계를 실험음성학적표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앞에서 든 례문을 가지고 표시하기로 한다).



〔붙임〕 y좌표의 물결의 위치는 높낮이를 나타내며 x좌표에서의 출과 점 등은 길이, 휴지 등을 나타낸다. 이 좌표에서는 세기, 음색 같은것은 나타내지 않았다.

앞 《단일문》의 《조선》의 부분과 뒤 《단일문》의 《인민이다》의 부분에만 자립적단일문에서 보는 전형적인 진술억양의 머리와 끝이 나타날뿐이고 그밖의 모든 억양의 요소와 휴지에 이르기까지 자립성을 잃고있다는 사실은 《단일문》억양이 상대적자립성, 상대적구획성만을 가진다는것을 보여준다.(개별적인 단일문에서는 오직 절대적자립성을 가지는 억양이 있을따름이다).

이상과 같이 단일문과 《단일문》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그것을 묶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

① 개별적인 단일문이나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은 어쨌든 사상의 완결성을 나타낸다는것,

② 단일문이나 《단일문》이 다 하나의 진술내용을 구획지어주는 진술단위라는것, 즉 다 진술성을 가지며 진술억양, 진술구조를 가진다는것,

③ 문장이 갖추어야 할 구조-문법적특성을 다 가지고있다는것 등이다.

차이점:

① 단일문은 절대적으로 완결된 사상감정을 나타내는 완결된 진술단위이지만 《단일문》은 전일적인 사상감정의 테두리안에서 상대적으로만 완결된 사상감정을 나타내는 진술단위이라는것,

② 단일문은 그자체가 완전한 진술구조를 가지나 《단일문》은 호상 보충되며 의존되는 진술구조를 가진다는것,

③ 단일문은 독자적인 진술억양을 가지나 《단일문》은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진술억양》을 가진다는것,

④ 단일문은 문법적형식화에서 완전성을 가지나 《단일문》은 문법적형식화에서 불완전성을 가진다는것 등이다.

단일문과 《단일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바로 복합문을 단일문들의 렬거와 구별하며 비진술적단위(례컨대, 《구》나 《부》)와도 구별하는 본질적징표로 된다.

〔붙임〕 지난 시기 복합문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견해와 복합

문의 계선을 필요이상 확대하여 비진술적단위에까지 《단일문》의 자격을 준 견해의 약점은 바로 단일문과 《단일문》을 구별하는 이 징표들을 외면한데서 나왔다.

다음으로 복합문이 크고 긴 하나의 전일적인 진술단위라는데 대하여 보자.

전일적으로는 하나의 큰 진술적단위로 된다는것은 복합문이 의미-기능적으로나 진술구조, 진술성의 표현, 진술억양의 표시 등에서 하나의 통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에서조차 개별적인 두 단일문이 각각 독자적으로 나타내는 현실적내용으로써는 언어행위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두 《단일문》이 밀접히 련결되여서만 하나의 옹근 사상을 전달하는것이다.

이 복합문의 진술구조는 《주어+술어+보어+술어》로 이루어진 완전문이다. 그런데 뒤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는 오직 앞문장을 전제로 하여서만 재생될수 있다. 《바람이 분다. 그러니 너는 문을 닫아라.》라는 동일한 진술구조가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라는 진술구조로 함축되였다는 사실자체가 두 《단일문》의 밀접한 호상의존성을 말해주며 전일적으로는 복합문이라는 하나의 진술구조에 통합되고만다는것을 말해준다.

진술성의 물질적표현에서 우의 두 《단일문》이 다 맺음형술어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진술성이 각각 완전히 표시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다른 경우라면 독자적인 단일문으로 되여야 할 이 진술단위가 전일적인 통일체의 하나로 되였다는 거기에 벌써 진술성표시의 불완전성이 있는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복합문에 있는 진술억양의 구획성과 전일성의 통일은 다른 어떠한 자립적인 진술단위에도 없는 현상이며 바로 이것이 두개가 합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진술억양으로 되는 표징이다. 이러한 표징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바로 복합문은 하나의 통일적인 진술단위로 된다. 복합문을 크게 하나의 복잡한 구조의 문장, 하나의 통일된 진술단위라고 부르는 여기에 다른 모든 진술단위와 구별해주는 또하나의 본질적징표가 있는것이다.

〔붙임〕 지난 시기의 일부 문법적견해들이 맺음형술어를 절대시하였거나 복합문의 구성단위로서의 《단일문》의 특성을 보지 못함으로써 복합문자

체를 부정한 일면성은 바로 복합문의 이 본질적징표에 눈을 돌리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

복합문은 또한 하나의 복잡한 사상을 나타내는 크고 긴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문법책들에서는 복합문과 단일문과의 차이를 론하면서 그 표현내용의 복잡성여하를 차요시하고 구조의 복잡성에만 눈을 돌렸다. 이것은 복합문의 내용상 특성과 구조상 특성을 분리시켜본 잘못이다.

단순단일문으로 되였건 확대단일문으로 이루어졌건간에 두개이상의 《단일문》들의 문법적련결로 이루어진 복합문은 단일문보다 구조상에서뿐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복잡하다. 동일한 진술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 진술내용의 《무게》는 총량에 있어서 단일문보다 복합문이 더 크다.

○ 날이 어두워졌다.(그러자) 압록강반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단일문의 렬거)

○ 날이 어두워지자 압록강반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복합문)

일부 문법적견해들이 복합문의 내용의 복잡성을 확대단일문의 《복잡성》에 견주면서 복합문이 확대단일문보다 《단순》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론제의 동일성원칙을 벗어난것이다. 단순단일문으로 된 복합문은 단순화된만큼 보다 단순하며 확대단일문으로 된 복합문은 언제나 확대된만큼 더욱 복잡한것이다.

복합문이 단일문보다 복잡하다는 사실, 즉 진술구조, 진술성의 어휘-문법적표식, 문장성분구성 등에서 복합문구조가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복합문이 내용상으로도 복잡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이것은 모든 구조적단위, 문장의 구성요소들은 문장내용과 련결되여있으며 그 전경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하여 복합문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언어행위의 크고 긴 단위라고 할수 있다.

언어행위의 크고 긴 단위라는것은 언어교제를 실현케 하는 하나의 언어행위의 단위가 그이상 더 전개되지 않는 한도안에서 토막지어지는 가장 복잡한 단위라는것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일문》은 가장 작은 언어행위의 단위이며 단일문은 그 다음 가

는 큰 단위이며 복합문은 가장 큰 단위이다. 복합문의 한계를 넘어선 단락, 문단, 편 등 단위는 한번의 언어행위의 단위인 단일문, 복합문 등을 언제나 자기의 구성요소로 삼는다.

복합문이 한번의 언어행위에서 가장 큰 단위라는 징표는 바로 복합문이 하나의 전일적인 큰 통일체라는 특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복합문은 복잡한 하나의 통일적인 사상감정을 나타내는 언어행위의 큰 단위이다.

복합문은 또한 문법적형식화에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전일체로 되는 구조적단위이다.

앞에서 례로 든 《단일문》인 《날이 어두워지자》의 술어에 시간, 법, 말차림 등이 표시되지 않고 잠재해있다든지 뒤의 《단일문》인 《모이기 시작하였다》에 그러한 문법적의미가 《귀일》하면서 뗄수 없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든지 하는것은 다 이 전일체의 관계를 말하여준다.

조선어복합문의 문법적형식화에서 전일성은 《단일문》들의 위치상 제약성, 구조-의미적제약성, 억양상의 호상의존성 등과 더불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법적형식화의 전일성은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와 같은 련접의 방식으로 《단일문》들이 련결되고 앞 《단일문》의 술어가 맺음형으로 표현된 경우에조차 나타난다. 앞의 《단일문》의 시간, 법, 말차림 관계는 뒤에 오는 《단일문》의 술어에 의존하며 전일적으로 하나의 언어행위의 단위로 쓰인다.

례: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
바람이 분다, 문을 닫겠다.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야 하겠다.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았느냐.
바람이 분다, 문을 닫자.
바람이 분다, 문을 닫게!

이 경우에 뒤의 《단일문》의 시간, 말차림, 양태관계 등의 표현은 변할수 있으나 앞의 《단일문》의 그것은 기정상태로 고정되여있다는것자체가 두 《단일문》들의 의존성, 전일성을 말하여준다. 이것이 바로 문법적관계에서 복합문이 전일성을 가진다는 특성이다.

복합문안에 있는 《단일문》들이 많은 경우에 《주어+술어》의 구조를 가지지 않고 《불완전문》의 구조로 되여도 쉽게 언어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앞뒤 《단일문》들의 문법적형식화의 전일성, 의존성과 관련되여있다.

○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하여야 혁명을 빨리 성숙시키고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 례문은 《불완전문》으로만 이루어진 복합문이다. 앞의 《단일문》에 표시되지 않는 여러 문법적계기들을 뒤《단일문》이 《집결》하여 나타낸다든지 인과관계로 련결된 두 단위가 《술어적중심》을 두개 가지고있다는것 등은 다 이 복합문의 문법적형식화에서 전일성이 구현되였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문법적형식화에서 전일성은 복합문의 필수적인 징표이다.

우에서 본 복합문의 본질과 기본표식, 그리고 구획성과 전일성의 구체적인 징표들로 보아 복합문은 단일문이나 단순문과는 다른 언어행위의 큰 단위이며 단어결합체나 문장성분사이의 상관관계와는 다른 질서의 상관관계에 놓인 《단일문》들의 결합체라는것을 알수 있다.

2.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단일문》의 구조, 《단일문》들의 련결의 성격과 방식, 《단일문》에 나타나는 문법적범주들의 표현형식과 기능, 그리고 복합문의 전체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무엇보다도 그 구성단위인 《단일문》들의 구조에서 나타난다.

복합문의 구성단위인 《단일문》의 구조적특징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단일문의 그것과 같다. 즉 기본성분이 다 갖추어있는것(주어+술어+직접보어의 구조), 기본성분외에 전개된 성분까지 있는것, 기초성분으로만 되고있는것(단독성분문장, 느낌말문장 등), 기본성분에 전개성분까지 있는것, 그리고 이 모든 성분들가운데서 그 일부가 표시되지 않거나 《생략》된 구조 등이 있다.

○ 우리는 책을 샀고 그들은 여러가지 화구류를 샀다. (기본성분이 다 있는것)

○ 금강산의 경치는 보는 사람들을 황홀경에 이끌었으며 삼일포의 모습은 모든 탐승자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기본성분에 전개성분까지 있는것.)

○ 바람이 불자 비가 억수로 내렸다. (기본성분과 의존성분으로 된것.)

이와 같이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단일문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에서 다양하다.

이제 복합문의 구성성분인 《단일문》이 여러가지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모든 성분들가운데서 그 일부가 표시되지 않거나 《생략》된 구조의 경우를 분석해보자.

○ 끝없는 모색과 탐구로 이어진 화전의 나날, 그날부터 참된 력사의 닻은 올랐다. ①

○ 봄, 만물이 소생하고 활기를 띠였다. ②

○ 강가로 나오니 여울물소리가 요란했다. ③

○ 일을 성공하려면 품을 들여야 한다. ④

○ 아니오, 아니오, 천만에 말씀! ⑤

○ 그 무슨 뜻이 있으련만, 아, 그 매미소리는… ⑥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외딴성분》(부름말, 이음말, 끼움말, 느낌말)이나 보임말을 가지는 단일문과 느낌말문장, 명명문, 진술어문장 등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복합문을 엄밀히 구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앞의것에서는 성분들사이의 상관관계가 제기되나 뒤의것에서는 《단일문》사이의 상관관계가 나선다. 따라서 뒤의것에서는 두개이상의 진술의 단위가 련결된 복합문이다.

○ 아 그렇소! (단일문) ①

○ 봄, 그것은 활력을 부어주는 계절(단일문) ②

○ 그렇지 않소, 당치 않은 소리, (복합문) ③

○ 봄, 파릇파릇 움들이 터올랐다. (복합문)④

앞의 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복합문의 구성단위들인 《단일문》의 구조적요소들은 개별적단일문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어의 단일문의 구조가 다양한만큼 복합문의 《단일문》구조도 다양하다.

《단일문》의 구조와 개별적단일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은것은 아니다. 복합문의 《단일문》들이 상대적으로만 완결성을 가진다는것

을 고려에 둘 때 그렇게 말할수 있다. 앞에서 례로 든 복합문들에서 그 구성부분들의 어느 하나를 따로 떼내여 독립적인 문장으로 만들수는 있으나 그 언어행위는 불완전한것으로 안겨온다.

더우기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이 접사이외의 어휘-문법적수단들에 의하여 련결되며 《단일문》에 각종 양태어, 《조응어》들이 첨가될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단일문》과 단일문의 구조적 특징은 다른데가 많다.

○ 작은 개울이 보이는가 하면 큰 강물도 보이였다. ①

○ 만약 김동무가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도를 취할것이다. ②

○ 비록 몸은 썩 실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굳세다. ③

이 례들에서 볼수 있는 《단일문》들의 어휘-문법적수단(~는가 하면, 만약 ~는다면 ~ㄹ것이다, 비록 ~다손 치더라도)과 《단일문》들의 전반구조의 독특한 특성은 문법적형식화의 특성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요컨대 조선어복합문의 《단일문》은 크게는 개별적단일문의 구조와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있다. 이 고유한 특색이야말로 《단일문》의 강한 의존성과 복합문전체구조의 전일성을 조건지어주는 징표이다.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다음으로 전일체안에서의 《단일문》들의 련결방식에서도 나타난다.

복합문을 이루는 구성부분들의 상관관계는 《단일문》과 문장성분들사이에서 맺어지는것이 아니라 《단일문》과 《단일문》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법칙적현상은 조선어적인 특성이다. 다시말하여 인도-구라파어나 그밖의 다른 말에서처럼 《부문》이 《주문》의 한 성분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주문》의 한 성분에 대한 《설명어》인것이 아니라 《단일문》들끼리 서로 접속하거나 병립하면서 호상의존관계에 놓인다. 이것은 인도-구라파어나 다른 말의 복합문에서 《부문》에 있는 접속사나 접속어(개별적단어 또는 성분)가 련결의 기능을 놀면서 문법적련결의 성격을 규정해주는데 비하여 우리 말 복합문에서는 앞 《단일문》의 이음형이 련결의 기능을 놀면서 문법적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해주는 특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복합문의 구성성분들사이의 문장론적관계가 《단일문》들사이에

만 실현된다는것은 복합문이 문장의 자격을 가지는 단위, 진술적단위끼리만 상관관계를 맺는 전일체라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조선어에서는 전일적인 문장의 한 성분적단위로 되며 또 그러한 성분적단위에 상관하는 《부》나 《구》와 같은 단위는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 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선어의 《부》나 《구》는 언제나 전일적인 문장의 한 성분적 단위로 되며 또 그러한 성분적단위에 상관하는 문장이전의 단위이다. 따라서 《부》나 《구》만을 가지고 하나의 《단일문》을 이루는 문장은 복합문으로 될수 없다.

《구》와 《단일문》의 본질적차이를 밝혀놓으면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 복합문의 한계성 문제를 더 뚜렷이 밝힐수 있다. (《구》가 《단일문》이 아니라면 《부》는 더욱 그러하므로 《구》와 《단일문》만 대비고찰하기로 한다.)

《구》와 《단일문》의 본질적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와 《단일문》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질서에 놓이는 단위들이다.

《구》는 확대단어결합체이며 하나의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며 진술성을 어떠한 형식으로도 가지지 못하는 비진술적 단위이다. 《구》가 문장의 형식을 띠였다는것은 피상적고찰이며 《주격형체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단어결합체로 보는것이 과학적태도이다. 따라서 《구》는 문장이 아니며 복합문의 구성단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일문》은 진술성을 가지며 상대적완결성을 가지는 진술단위이다. 《단일문》은 언제나 구체적인 문장성분들로 이루어진 문장,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전일체이다. 그러므로 《단일문》은 복합문의 구성단위이다.

② 《구》와 《단일문》은 그 상관하는 성격과 방식에서 서로 다르다.

《구》는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어느 한 성분에만 상관하는 문장론적단위로서 언제나 결합의 방식으로 주도어에 의존하여 대체로 그 주도어의 바로 앞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단일문》은 언제나 접속이나 병립(또는 련접)의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구획된 전일적인 구조인 복합문의 다른 《단일문》과

만 상관한다.

③ 《구》와 《단일문》은 억양상으로도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구》는 억양상으로 상대적인 자립성이나 구획성을 나타내지 못하며 진술억양을 가지지 못한다. 즉 《구》와 그 주도어(피규정어, 피상황어)사이에는 어떠한 억양의 휴지도 없고 끝맺이도 없다.

○ 우리는/밤이 오기를/기다렸다.

그러나 《단일문》은 진술억양을 가지는데 그것은 뜻마루와 높낮이선, 길이, 일정한 휴지 등을 동반하는 선률-률동적통일체이다.

④ 《구》와 《단일문》은 련결수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구》는 문장성분의 표현에 고유한 문장성분의 위치적기능을 나타내는 문법적수단에 의하여 주도어와 련결된다. 규정토(규정어의 표현), 상황토(상황어의 표현), 격토(보어, 주어 그밖의 표현) 등 국한된 형태로 그 결합체전체의 성분적자격을 표시한다. 그리고 《구》가 가지고있는 《술어》(서술형토)에는 진술성의 어떠한 표식도 없다.

그러나 《단일문》은 전일적인 진술적단위에 고유한 문법적수단, 진술의 단위를 매듭짓는 성분의 형태로 되는 술어(또는 진술어)를 가지면서 그 진술단위전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문법적수단들에 의하여 련결된다. 즉 앞 《단일문》의 술어가 가지고있는 이음형, 맺음형, 격형태, 어간형(절대격형태), 《무형태형》 등으로 《단일문》 전체를 련결시켜준다. 그리고 이러한 술어의 형태가 진술성을 매듭지어준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닌 《단일문》들로 련결된 조선어복합문은 《단일문》들의 상관관계로써만 실현되는 하나의 큰 전일체이다.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특히 앞 《단일문》의 술어와 뒤 《단일문》의 술어가 취하는 진술형에서 나타난다. 즉 《단일문》들의 술어가 나타내는 문법적범주들의 표현이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 삽시에 구름이 걷고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리기 시작했다.

○ 땀이 철철 흘렀으나 폭양속으로 웃음소리가 날아갔다.

이 두 복합문에서 《단일문》들의 술어(진술형)들은 시간, 법, 말차림 등 문법적범주들이 물질화되여있는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다. 뒤 《단일문》의 술어는 례외없이 그러한 문법적범주들을 완전히 다 나타내는데 앞 《단일문》의 술어는 그러한 범주들가운데

서 일부만을 때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나 흔히 표현하지 않는다.

《단일문》들의 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해주면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앞단일문》의 술어에는 시간, 법, 말차림 등이 나타나지 않는것은 이러한 범주가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일문》에는 시간, 법, 말차림 등이 잠재해있으며 뒤의 《단일문》의 술어에 《귀일》하면서 결국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것으로 된다. 《단일문》들은 진술단위에만 고유한 문법적수단을 가지는데 바로 그것이 술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당당한 진술단위인 앞 《단일문》에 나타나지 않는 시간, 법, 말차림 등은 다름아닌 문장론적단위들의 상관관계에서의 귀일관계, 《의미련관의 법칙》의 작용으로 뒤 《단일문》의 술어에 나타나는 해당 문법적범주에 《의거》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어적인 특성이다. 말하자면 앞 《단일문》에 잠재하는 문법적의미는 뒤《단일문》에 귀일 또는 련관하면서 실재하는것이다. 이것은 이음술어의 맺음술어에 대한 의존성에서 나오며 조선어에 고유한 접속의 련결방식이 가지다주는 귀일관계의 특성에 의하여 생겨나는 고유한 현상이다.

이와 같이 귀일관계, 《의미련관의 법칙》은 시간, 법, 말차림, 존경 등 범주뿐아니라 그밖의 양태성을 나타내는 수단에서도 적용된다.

○ 삽시에 구름이 걷고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릴것이다.
○ 삽시에 구름이 걷고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릴상싶다.
○ 삽시에 구름이 걷더니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리더라.

시간범주의 표현은 《땀이 철철 흘렀으나 폭양속으로 웃음소리가 날아갔다》, 《땀이 철철 흐르나 폭양속에서 웃음소리가 날아날것이다.》 등으로도 될수 있다. 이것은 시간적범주가 잠재적으로 있다가 로출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드물게는 법, 말차림, 존경 등 범주에서도 있다. 문법적의미의 잠재현상과 로출현상의 자유로운 변화, 이것도 조선어에 고유한 문장론적현상이다. 《단일문》의 술어에 나타나는 귀일관계의 특성, 문법적의미의 잠재성과 로출상태의 특성은 조선어복합문의 가장 뚜렷한 구조-문법적특성이다.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또한 복합문의 전체 구조를

놓고보아도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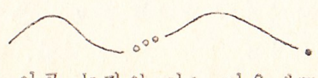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일문》들의 문법적련결로 이루어지는 전일체인 복합문은 앞 《단일문》이 의존관계에 있고 뒤 《단일문》이 주도적관계에 있다는것이 의미-기능적으로도, 구조-문법적으로도 뚜렷하다. 앞에서 례로 든 《삽시에 구름이 걷고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리기 시작하였다.》, 《날이 어두어지자 압록강반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 《끝없는 모색과 탐구로 이어진 화전의 나날, 그날부터 참된 력사의 햇은 올랐다.》 등 모든 복합문의 구조는 두 《단일문》의 문법적의존관계에 의하여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앞 《단일문》의 이음술어의 이음형 또는 맺음형이 어디까지나 그 《단일문》의 술어로 되고있는 단어에 내속된 형태이라는것을 전제로 할 때 그 《단일문》들의 순위를 바꾸어 놓을수 없고 한 《단일문》안의 임의의 성분도 다른 《단일문》의 구성안에다 넣을수 없다.

《삽시에 구름이 걷고》가 비록 접속의 방식으로 련결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적계기성, 인과관계 등의 성격으로 하여 주도문에 긴밀히 의존되여있다는 사실은 조선어복합문의 전체 구조의 전일성을 말하여주는 표징으로 된다. 《바람이 분다》는 비록 맺음형으로 끝났으나 순위나 의미-기능으로 보아 주도문에 긴밀히 의존된다. 여기에서도 조선어에 고유한 문장론적단위들의 《의존-주도》관계의 법칙적현상(순위배렬의 제약성)을 엿볼수 있다.

조선어복합문의 전체 구조에서의 전일적성격은 특히 억양의 전일성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즉 상대적으로 구획성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전일적인 진술억양의 요소들로 통일되여있는 복합문의 선률-률동적흐름은 앞 《단일문》과 뒤 《단일문》의 구조적전일성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붙임〕 《단일문》으로 된 복합문의 선률-률동적흐름을 하나의 개별적인 단일문의 그것과 대비하고 다시 그것들을 개별적인 단일문으로 렬거된 《문장배렬》과 비교하면 복합문억양의 전일성을 더욱 뚜렷이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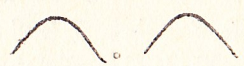
○ 날이 어두워지자 압록강반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 따사로운 해빛은 이곳 농장의 어느 마을에도 비쳐들었다.



○ 날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모이였다.



우에서 본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으로 하여 조선어에는 인도-구라파어나 그밖의 다른 말과 구별되는 고유한 형식의 복합문이 있으며 그것도 다종다양하게 발전되여있다는 결론을 지을수 있다.

제2절.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과 그 기능

복합문의 이음수단이란 《단일문》들의 문법적련결수단을 말한다. 문법적련결수단인 이음수단은 일정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기마련이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은 다종다양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어휘-문법적 및 어음-구조적 수단의 체계를 이룬다. 그것은 각종의 위치토와 도움토, 굳어진 형태로 된 보조어와 《특수어》, 그리고 억양의 여러 요소와 《단일문》의 순위 등 수단들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 그가 가기에 나도 따라갔다. (격토) (①)
○ 비가 억수로 퍼붓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음토) (②)
○ 차가 완전히 멎고서야 내려도 내리지. (이음토와 도움토) (③)
○ 동생이 부산을 피우는통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소. (보조어) (④)
○ 나는 《압록강》, 너는 누구냐? (억양의 요소) (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이 노는 문법적기능은 《단일문》들을 접속 또는 병렬의 형식으로 이어주며 그 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며 다양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데 있다.

〔붙임〕 복합문을 인정하는 국내외의 모든 문법적견해들이 그 이음수단을 확정하고 분류하는데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어휘-문법적수단을 도외시했거나 어음-구조적수단들에 적게 눈을 돌렸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음수단의 기능에 대하여서는 견해들이 한결같지 않으며 그것으로 하여 일부 경우에는 조선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분류까지 하였다.

조선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의 체계와 그 기능을 옳게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이음수단전반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아야 한다. 그리고 《단일문》들의 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고 이음수단의 각종 문장론적관계를 조선어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맞게 일반화하여야 한다.

1.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

조선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은 다양하고 체계정연하다. 오늘날 문화어는 조선어에 고유한것을 살리고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세련풍부화한 복합문이음수단을 가지고있다. 이 전경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수 있다.

1) 어휘-문법적수단
(1) 문법화되는 어휘적수단
① 문법화되여가는 보조적단어
ㄱ) 피규정보조적단어
○ ~는바람에, 는통에, ~는 한
ㄴ) 관련보조어
○ ~기는 고사하고, ~라 하더라도, ~ㄴ데도 불구하고, ~기때문에
② 문법화된 어휘-문법적단위
ㄱ) 접사-보조어
○ ~ㄴ대로, ~ㄹ뿐, ~ㄹ뿐아니라, ~ㄹ뿐더러, ~던것이…
ㄴ) 접사-접속어
○ ~나 그러나, ~아서 그런지, ~나 또, ~며 따라서
ㄷ) 조응어
○ 만약 ~한다면, 비록 ~ㄹ지라도
ㄹ) 무접사-접속어
○ 밤, 그러나 대오는…

〔붙임〕 문법화되여가는 보조적단어와 《문법화된 어휘-문법적단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데 두었다. 즉 앞의것은 아직 어휘적의미를 상당히 간직하고있는 어휘적수단으로서의 보조어이며 뒤의것은 거의나 어휘적의미를 잃었거나 국한된 뜻으로만 쓰이면서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로 되는

《보조어》 또는 《접사적단어》들이다. 그리고 《조응어》에는 조응관계에 있는 굳어진 표현들과 문법화된 《양태어》 등을 넣었다.

③ 특수한 어휘 및 표현

ㄱ)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 피규정체언

○ ㄹ 때(~ㄹ제), ~는 반면에, ~던차에, ~ㄹ무렵에, ~는탓으로, ~는김에…

ㄴ)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표현

○ ~기가 무섭게, ~다 못해, ~ㄴ다손 치더라도, ~ㄴ다셈 치더라도

(2) 문법적수단

① 접사

ㄱ) 이음토

○ ~고, ~되, ~는듯, ~며, ~자, ~는커녕, ~니, ~는데, ~ㄹ진대, ~나, ~다, ~는바, ~ㄹ수록

ㄴ) 접사-도움토

○ ~다마는, ~아도, ~지만(마는), ~고서야, ~며는, ~다가도

② 무접사형

ㄱ) 어간형(절대격형)

○ 나는 로동자, 너는 학생.

ㄴ) 제시형

○ 밤, 대오는 은밀히 행군하였다.

ㄷ) 무형태형

○ 눈은 보슬보슬, 비는 쭈르룩쭈르룩

2) 어음-구조적수단

(1) 어음적수단

① 접사-억양

○ ~다, ~라, ~지, ~느냐

② 무접사-억양

○ 나는 대학생, 너는 중학생.

(2) 구조적수단

① 굳어진 진술구조

○ 《떠들기만 하여라, 내쫓겠다.》

② 진술단위의 순위

○ 사람들이 모여온다, 개들이 짖는다, 종소리가 요란히 울린다, 아우성소리 들린다, 모두들 야단이 났다.

(붙임) 문법적수단가운데서 《무접사》와 어음-구조적수단 가운데서 《무접사-억양》은 사실상 같은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각도를 서로 '달리 하여 하나는 순수 형태의 각도에서, 다른 하나는 억양의 각도에서 고찰했을따름이다.

이상의 이음수단은 전일적인 구조안에서 단독으로 작용하는 일은 좀체로 없고(이음수단이 무접사-억양인 경우에만 그 억양이 단독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다.) 두가지이상이 어울려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 례컨대, 피규정보조적단어나 《특수어》나 할것없이 휴지가 있는 《중간억양》과 더불어 이음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어휘-문법적, 어음-구조적 수단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이음수단가운데서 조선어에 가장 많고 전형적인것은 접사로 된 이음수단이다. 그가운데서도 이음토로 된 이음수단은 가장 다종다양한 기능을 노는것으로서 조선어복합문의 다양한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이다.

그밖에 접사-도움토, 문법화된 보조어, 《단일문》의 차례 등도 조선어에 고유한 이음수단이다.

수적으로 풍부하고 표현수법에 있어서 다양한 우리 말 이음수단은 복합문의 여러 문장론적관계를 자유자재로 나타내는 믿음직한 수단이다.

2. 문화어복합문 이음수단의 기능

복합문의 이음수단의 기능이라면 주로 《단일문》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며 각종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문법책들에는 《단일문》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론의하는데서도 서로 다른 견해들이 반영되였다.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복합문의 이음수단이 수행하는 《단일문》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는 기능을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방식과 련관시켜보면서 복합문의 2대류형을 접속복합문과 련거복합문으로 나누고 접속복합문안에서 다시 《병렬복합문》과 《종속복합문》의 갈래를 설정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음수단에 따라 복합문의 성격이 《동등한 자격에 놓이는것》과 《설명하고 설명받는 관계에 놓이는것》으로 갈라진다는것이다. 이러한 주장자들이 례증으로 든 문장을 보면 다음

과 같다.

○ 조선은 기후도 온화하거니와 땅도 기름지다.(병렬복합문)

○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할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사조마냥 재더미에서 소생한 조선인민이다.(종속복합문)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면 복합문이 아니라 《주어+확대이음술어+확대맺음술어》로 된 단일문인 첫째 례문을 복합문이라고 보는것부터가 문제로 되지만 설사 복합문이라고 하더라도 《기후도 온화하거니와》와 《땅도 기름지다》가 《동등한 자격》에 놓인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의미-내용적으로 《동등한 자격》이라면 그것은 종잡을수 없는 일이다. 의미-내용적으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첨가》의 관계로도 볼수 있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렬》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된다. 구조-문법적으로는 의존-주도문의 관계에서 접속되여있는 이 문장의 련결성격은 《병렬적》인것이 아니라 오직 《접속적》일따름이다.

둘째 례문을 《종속복합문》이라고 본 리유는 《~다면》토에 의하여 련결되였기때문이라는것인데 여기서 전제의 관계를 나타낸 《면》의 기능은 훨씬 다양하고 폭이 넓다. 즉 전제, 조건, 양보, 대비, 가정 등 여러가지 문법적관계를 나타내면서 《단일문》을 접속하는 기능을 논다.

다음과 같은 례는 《~면》이 《종속적》이 아니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 지난해는 눈이 많이 내렸다면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렸다.

아마 앞 례문의 제시자들도 이때의 문법적관계는 《대비》라고 할것이다. 《대비》, 《전제》 등은 다 《종속적》인것으로 되지 못한다.

이렇게 놓고보면 《병렬적련결》이요, 《종속적련결》이요 하는것은 이음수단의 기능인것이 아니라 많이는 《단일문》이 담고있는 현실적내용의 대응관계에서 얻어지는 의미일것이다. 이것은 론리적해석에 의하여 얻어지는 의미이다.

《종속복합문》주장자들이 례외없이 설정하는 《주문》도 론리주의적방법의 산물이다.

다른 문법적견해들은 복합문의 이음수단이 나타내는 《단일문》련결의 성격을 의미-기능적립장에서 보면서 복합문의 2대류형을 《결합복합문》과 《접속복합문》으로 나누고 다시 접속복합안에서 《병

렬적접속복합문》과 《종속적접속복합문》의 갈래를 설정하였다.

앞 견해와 다른 점은 《구》를 복합문의 구성요소로 보면서 《결합복합문》을 따로 설정하고 그대신 《렬거복합문》을 접속복합문안에 넣어버린것이다. 독특한 립장에 서있는듯한 이 견해도 결국 《종속적련결》과 《병렬적련결》을 설정하는데서는 앞 견해와 대동소이하다.

상당한 정도로 구조-문법적립장에 서서 조선어적인 특성을 강조하려고 한 일부 문법적견해에 있어서조차 조선어복합문의 3대류형, 즉 겹침복합문, 이음복합문, 얽힘복합문을 설정하고 이음복합문안에 《벌림복합문》과 《매임복합문》의 두 갈래를 나누어놓음으로써 결국은 《병렬》과 《종속》의 현상을 인정하였다.

《병렬》이요, 《종속》이요 하는 갈래는 문법적인것이라기보다 의미-내용적 내지는 론리-의미적 표식을 위주로 한 갈래이다. 문법적이 아닌 방법으로는 이음수단의 문법적기능을 공정하게 확정할수 없으며 따라서 《단일문》련결의 성격과 방식을 편견없이 분간하지 못한다.

물론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에서도 그러하였지만 모든 문장론적단위들의 맞물림에서 의미적측면의 맞물림을 무시할수 없다. 어휘적의미의 맞물림에 따라 그리고 문장의 현실적내용의 상관에 기초하여 문법적인것의 맞물림을 고찰하여야만 상관하는 단위들의 기능을 원만히 확정한다. 그렇다고 하여 문장론적단위들의 련결성격을 론리-의미적립장에서만 규정한다면 첫째로는 문법적인것을 볼수 없고 둘째로는 주관을 면할수 없으며 셋째로는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밝혀낼수 없다.

다른 나라 말의 복합문에 합당한 《병렬》이요, 《종속》이요 하는 개념을 굳이 끌어올 필요는 없다. 우리 문화어복합문에서 《단일문》련결의 수단이 나타내는 련결의 성격은 오직 《의존문-주도문》의 관계로만 일관되여있다. 다만 그 련결의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른 류형들이 여러가지로 갈라진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에 의하여 《단일문》들이 련결되는 방식은 조선어의 모든 문장론적단위들이 상관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는 같다. 즉 접속, 병립, 련접이 그것이다.(《부》나 《구》에 문장으로서의 표징이 없으므로 복합문의 구성단위들의 상관에서 《결합》

만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련결방식에 따라 문화어복합문의 류형을 크게 접속복합문, 병립복합문, 련접복합문으로 나눌수 있다.

〔붙임〕 접속복합문가운데서 귀일관계가 확연하고 《종속》이 없는 류형만을 고유한 접속복합문 〔$(a+b)X$의 형식〕으로, 귀일관계가 확연하지 못하고 《병렬》이 아닌 류형을 따로 결합복합문〔$(a \times b)X$의 형식으로 잡을수도 있다.

○ 학생들은 헤여지고 교원들은 직원실에 모였다.(접속복합문)

○ 학생들이 헤여지자 방안은 조용해졌다.(결합복합문)

그러나 이 책에서는 《결합복합문》이라는 용어가 이미 《구를 가진 복합문》의 주장자들에 의하여 나누어졌고 또 구조-문법적특성에서는 그 두 갈래가 복합문의 경우에 크게 갈라지지 않으므로 일단 《접속복합문》의 한 갈래에 두루 포함시켰다.

접속복합문이란 《단일문》들이 접속의 방식으로 의존문—주도문의 관계에 놓인 복합문이다.

접속복합문의 이음수단은 앞 《단일문》 술어에 붙는 모든 형태와 문법화된 수단이다. 즉 문법적형태와 문법화되는 보조적단어 및 어음-구조적요소들이다.

○ 두만강기슭에 꽃들은 피고 그리움은 가슴속에 넘쳐납니다.

○ 요샌 여름방학이 돼서 학생들은 사회사업에 더욱 열중하였다.

○ 운동장에는 황혼이 깃드는데 학교회의실에서는 학부형들이 후원문제를 심중히 토의하고있었다.

○ 《아니, 무엇이 어떻게 됐게 그렇게 기뻐하느냐?

○ 뉘엿한 산마루들을 순식간에 넘으니 땀이 물흐르듯하였다.

○ 굽이를 하나 돌자 또 다른 굽이가 나타났다.

○ 우리가 영광의 조국을 지키고 빛내여오는 가운데 해들이 또 흘렀다.

○ 아침엔 비가 오던것이 저녁녘엔 눈으로 변했다.

○ 작업반장이 앞장서서 달리는바람에 반원들은 더욱 성수가 났다.

접속복합문은 문화어복합문의 가장 생산적인 류형이다. 《단일문》들이 《접속》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전일체로 복합되여있는 여기에 조선어적인 고유한 특성의 하나가 있다.

병립복합문이란 《단일문》들이 병립의 방식으로 의존문—주도문의 관계에 놓인 복합문이다.

병립복합문의 이음수단은 앞 《단일문》 술어의 맺음형과 병립억양의 요소들이다.

○ 보이느니 나무숲들이요, 들리느니 바람소리뿐이라, 사방은 천리무인지경이였다.

병립복합문은 그리 생산적인것은 못되나 특수한 문체에서는 활발히 쓰인다. 병립에서 특징적인것은 《단일문》들이 겹침의 형식으로 련달아 련결되는것이다.

련접복합문이란 《단일문》들이 련접의 방식으로 의존문—주도문의 관계에 놓인 복합문이다.

련접복합문의 이음수단은 주로 어음-구조적요소들이다. 즉 무접사형, 《무형태형》과 거기에 덧붙는 억양의 요소들이다.

○ 달려라 나의 자동차, 기쁨싣고 어서 전우들을 만나자.

○ 바람은 솔솔, 비는 줄줄, 수림속은 고요하기만 하였다.

○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

이상에서 본 세가지 류형의 복합문은 주로 이음수단이 노는 기능, 《단일문》의 련결방식의 특성에 따라 나눈것이다.

구체적인 언어행위에서는 이 세가지 류형의 복합문이 합성하는 형식으로 련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종합)합성복합문이라고 할수 있다.

○ 우거진 가둑나무숲, 간간이 무성한 물푸레나무무데기, 산마루들을 순식간에 넘으니 넓은 들이 보이고 그 저편에는 또 아아한 산들이 보이건만 그가 찾는 그 표적은 보이지 않았다.

〔붙임〕 견해에 따라서는 《우거진 가둑나무숲, 무성한 물푸레나무무데기》와 같은 단위를 《확대된 문장성분》으로 보고 거기에서 그 어떤 문장의 표식도 찾으려고 하지 않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억양의 요소에 의하여, 휴지에 의하여 확연히 구획되고 《명명문》으로서의 기능과 《단독성분문장》의 렬거의 기능이 확연하므로 《단일문》으로 보아야 한다. 《단일문》인 이상 복합문의 구성단위로 된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에 의한 《단일문》들의 련결방식은 이와 같이 다양하면서도 정연한 질서에 놓인다.

복합문의 이음수단들이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와 문장론적기능의 호상관계문제는 보다 더 복잡성을 띤다.

지금까지 문법적견해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결같지 않았다.

일부 견해들은 《단일문》과 《단일문》들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문법적관계를 곧 문법적의미로 보면서 이음수단의 《무수한 다의미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극히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의미만을 문법적의미로 간주하고 《범주적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일부 경우에는 동일한 이음수단도 서로 다른 문법적의미의 표시자로 보는 일까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 형태의 다기능, 다의미, 한 의미의 다기능화, 다형태화, 한 기능의 다의미, 다형태의 립장에 섬으로써만 이음수단이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와 문법적기능을 다 밝혀낼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단일문》과 《단일문》들의 상관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얻어지는 미세한 보충적의미는 문법적기능에 속한다고 본다. 이리하여 문법적의미는 문법적수단이 맡는 일반화된 몇개의 의미이며 문법적기능은 문법적의미의 보다 세부화된 미세한 의미적색채까지 나타내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접속토 하나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의 구조와 문법적기능의 미세한 차이를 《~고》토에 의하여 련결된 다음의 복합문구조에서 대비해보기로 한다.

○ 가둑나무가 우거지고 간간이 물푸레, 싸리나무 무데기들도 무성했다.(합동) ①

○ 삽시에 검은 구름이 흩어지고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리기 시작하였다. (계기) ②

○ 우리 부녀회원들은 떡방아를 찧고 남정들은 돼지잡을 차비를 하였다.(대조) ③

○ 승용차가 멎고 그안에서 한 간부가 나왔다.(이어받기). ④

○ 고개너머에는 무연한 벌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로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산밑에는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서있고 학교도 아담하게 세워져있고…(련속성) ⑤

○ 그는 비가 온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겼다.(대립) ⑥

○ 열성이 없고 일이 잘되는 법이 없느니라.(전제) ⑦

○ 네가 나가고 집안일은 누가 하겠니?(조건) ⑧

○ 아직 날씨도 춥고 두만강에는 얼음이 두터웠다.(인과) ⑨

○ 내가 일찍 떠난데도 원인이 있고 또 철수가 도착하지 못한데도 탓이 있었다.(첨가) ⑩

거의 모든 문법책들에서 《병렬》(또는 《병립》)의 성격과 《합동》

의 방식으로 문법적관계를 나타내는 이음토로 다루고있는 이 《~고》의 구체적인 문법적의미와 문법적기능은 이밖에도 더 나눌수 있다.

여기서 ①, ②, ③, ④, ⑤, ⑥은 그래도 그 이음수단의 기능이 《병렬》(벌림)의 성격과 《합동》, 《대립》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⑦, ⑧, ⑨는 《종속》의 테두리에 들어가있고 그 문법적의미는 조건, 인과관계, 전제 등의 《상황적》색채를 띤다. ⑩은 《병렬》도 아니고 《종속》도 아닌 그야말로 《첨가》의 관계를 나타내였다.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면 이 문법적 의미와 기능은 《병렬》이나 《종속》 그리고 《합동》, 《대립》, 《분리》 등인것이 아니라 《의존-주도》의 관계로 접속되였다는것으로 일반화된 몇개의 관계적의미와 여러개 맞물림색채로 구체화되고있을따름이다. 바로 이 《의존-주도》의 관계, 일반화된 몇개의 관계적의미, 여러개 맞물림색채 등을 나타내는것이 이음수단의 구체적인 기능인것이다. 앞에서 든 10개의 례문에서 이음수단 《~고》도 바로 《의존-주도》의 관계, 일반화된 몇개의 문법적의미, 다종다양한 맞물림색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의 이러한 기능이야말로 《단일문》들의 상관관계를 공정하게 파악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 표식으로 된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으로 되고있는 모든 언어적수단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이와 같은 일반화된 몇개의 관계적의미와 구체화된 맞물림색채를 나타내는 문법적기능을 수행한다.

제3절. 문화어복합문의 류형상 특성

앞절에서 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이나 《단일문》의 이음수단과 관련되는 테두리안에서 복합문류형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이제 문화어복합문의 류형상 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가장 합리적인 분류기준을 세워 복합문의 류형을 체계화하여야 할 과업이 남았다.

복합문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류형을 여러가지로 설정할수 있다.(앞에서 론의된 복합문의 갈래는 주로 이음수단이 《단일문》의

련결 성격과 방식을 나타내는데서 노는 기능을 위주로 한것이다.)

복합문도 언어행위의 단위이며 문장인 이상 크게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에 따라 몇개의 류형으로 나눌수 있다.

복합문의 내용상 분류란 주로 기능상 분류를 말하며 형식상 분류란 주로 구조적분류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에서 과학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어복합문의 구체적류형들에 작용하는 특성들을 잘 알아야 한다.

1. 문화어복합문의 류형

지금까지 문법학계에서 이야기된 《병렬》과 《종속》 문장, 《부문》과 《주문》, 《내포문》과 《잉태문》 등의 류형은 이렇게나저렇게나 내용상 분류에 속하는것이였다.

그리고 《결합복합문》, 《접속복합문》, 《련접복합문》 또는 《겹침복합문》, 《이음복합문》의 류형이나 《렬거복합문》, 《합성복합문》(또는 《얽힘복합문》)의 류형도 다 내용상(방식상) 분류의 테두리안에서 이야기되였다.

복합문의 내용상 분류에서 가장 동요성없는 방법은 《단일문》들의 이음수단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모든 문화어복합문을 그 련결의 성격에 따라 의존-주도문으로 나누고 그 련결방식에 따라 접속복합문, 병립복합문, 련접복합문으로 가르는것이였다. 그 합리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론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상 분류는 그 형식상 분류와 밀접히 결부되여있을 때 보다 정밀화되고 동요성없는것으로 된다.

문화어복합문의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동요성없는 분류를 위한 복합문의 형식상 분류를 하자면 그 형태-구조적류형을 잘 분석일반화하여야 한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류형들에는 민족적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여있으며 특히 문장의 고유한 구조-문법적특성이 집중되여 나타난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류형이란 《단일문》들의 이음수단의 문법적특성과 전일적인 진술구조의 특성에 따르는 복합문의 갈래를 말한다. 이음수단의 문법적특성과 진술구조의 특성은 가장 동요성없는 표식이다.

문화어복합문의 형태-구조적류형은 다음과 같다.

1) 어휘-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1) 순수 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① 피규정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 그가 서두는바람에 나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였다.

② 관련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오기는 고사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2) 합성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① 접사-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 비꽃이 좀 떨어졌을뿐 바람도 불지 않았다.

② 접사-접속어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오나 그러나 우리는 떠나겠다.

③ 조응관계복합문

○ 설사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일하겠다.

(3) 특수어적련결의 복합문

① 피규정체언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올무렵에 그들은 떠났다.

② 특수어표현련결의 복합문

○ 아버지가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가방을 뒤졌다.

2) 접사적련결의 복합문

(1) 순수 접사적련결의 복합문

① 이음형접사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오는데 어디로 가자고 그러느냐.

② 맺음형접사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온다, 문을 닫아라.

(2) 접사-도움토적련결의 복합문

① 이음형-도움토적련결의 복합문

○ 그가 오고서야 모든 문제가 풀렸다.

② 맺음형-도움토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내렸다마는 땅은 질지 않았다.

(3) 어음-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1) 어음-접사적련결의 복합문

① 용언맺음형련결의 복합문

○ 그가 언제 올지 너는 아느냐?

② 체언맺음형련결의 복합문

○ 이것은 자물쇠요, 저것은 열쇠다.

(2) 무접사적련결의 복합문

① 어간형련결의 복합문

○ 나는 로동자, 너는 학생.

② 제시형련결의 복합문

○ 밤, 대오는 계속 행군해갔다.

③ 무형태련결의 복합문

○ 눈은 보슬보슬, 비는 쭈르룩쭈르룩.

4) 합성복합문

(1) 어휘-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까지 나오는바람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였다.

(2) 어음-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 사위는 조용, 뭇새도 잠들고 사람들도 잠들었으나 박동무의 심장만은 설레였다.

〔붙임〕 이들 류형을 다시 세분하여 작은 갈래를 내올수 있다. 특히 합성복합문은 여러 각도에서 작은 갈래의 문장류형들로 가를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기본적인것만 렬거하고 구체적인것은 서술문법의 과업으로 남긴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류형이 다 《단일문》들의 이음수단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것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 이음수단의 형태란 앞 《단일문》 술어의 형태(또는 진술어의 형태)이다. 이것이 개별적단어(성분적단어)의 형태라 해서 이 분류를 형태론적표식에 의한 분류라고만 보는 견해는 부당하다.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인 이상 그것은 문장론의 대상으로 되며 《단일문》과 《단일문》의 상관관계의 표시자인 이상 그것은 문장론적현상이다. 여기에 형태론적현상과 문장론적현상의 밀접한 련관관계가 있는것이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이 접사뿐아니라 문법화된 보조어, 특수표현, 《단일문》의 구조와 순위, 억양 등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복합문의 이음수단을 형태론적표식으로 볼수 없다. 이들 이음수단은 그자체가 일정한 구조를 이루며 복합문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말하자면 문화어복합문에서는 형태론적표식, 어휘-문법적표

식, 어음-문법적표식 등이 종합적으로 이음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분류는 문장론적현상이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분류는 이음수단의 형태-구조, 이음수단과 문장구조의 특성을 위주로 하여 그 문장론적기능을 보는 문장론적분류이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류형은 순수 구조상 류형과 련관시켜 볼수도 있다.

복합문의 순수 구조상 류형이란 《단일문》들을 이루고있는 복합문의 구성성분들의 맞물림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구성상 특성에 따라 나눈 복합문의 갈래를 말한다.

문화어복합문의 순수 구조상 류형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류형

(1) 단순복합문

○ 누님은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남았다.

(2) 확대복합문

○ 내가 어제 사온 책은 새로 나온것이여서 보는 사람마다 손에서 떼지 않았다.

2) 구성부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류형

(1) 단독성분복합문

○ 화창한 봄, 만경대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2) 주도성분복합문

○ 비가 멎고 바람도 멎었다.

(3) 확대성분복합문

○ 순용이의 아버지는 재미있는 그림책을 사왔으며 우리 아버지는 소설책을 사왔다.

(4) 종합구성복합문

○ 밀영에 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나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문화어복합문의 구조상 류형은 주로 그 구성성분의 구조와 전일체로서의 복합문의 구조에 따라 분류된것이다. 이 류형의 복합문 이음수단은 앞에서 본 형태-구조적류형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조선어복합문의 구조적류형은 형태-구조적류형의 전제 또는 결과라고도 할수 있다. 그것은 구조상 류형의 복합문이 례외없이 형

태-구조적류형으로도 되며 형태-구조적류형이 구조적류형으로도 되기때문이다.

○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단순복합문, 무접사직련결의 제시형련결복합문)

〔붙임〕 이때의 《봄》도 명명문이며 따라서 《단일문》이다. 《봄, 이것은 소생의 계절이다.》에서의 《봄》(보임말)과는 전연 다르다.

○ 온 나라 인민들이 즐기는 4월의 봄날이 오면 대지우에 뿌리내린 만물은 눈에 띄게 키돋움하는듯 이 땅에서 소생한다.(확대복합문, 순수 접사적련결의 이음형접속복합문)

문화어복합문의 구조상 류형에서 구성성분의 복잡성정도, 구성성분의 구비정도는 기본적으로 단일문의 그것과 같다. 왜냐하면 문화어복합문의 구조상 류형이란 사실상 《단일문》구조의 복잡성, 그 구성성분의 구비정도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복합문의 구성성분으로서의 《단일문》의 어느 하나 또는 그이상의것이 《단순단일문》이면 단순복합문이 되고 《단일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단독성분, 주도성분, 확대성분 등으로 된다면 그 복합문도 단독성분복합문, 주도성분복합문, 확대성분복합문 등으로 된다.

우에서 본 복합문의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는 결국 문화어복합문의 뜻과 구조-문법적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것에서 출발하였다. 그가운데서도 문화어복합문의 형태-구조적분류에 주되는 관심을 돌려 문화어에 있는 모든 문장류형을 체계화하는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이 형태-구조적류형에 벌써 내용상 분류도 포괄될수 있는 접속, 병립, 련접 등 분류의 바탕이 있으며 이 형태-구조적류형이 가장 동요성없는 류형이며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을 비교적 직감적으로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이 류형에 들어가는 모든 복합문의 구성부분들은 례외없이 의존-주도문의 관계에 있으며 구조적류형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것도 그 조선어적인 특성을 말하여준다.

2. 문화어복합문의 류형상 분류의 합리성

앞에서 이야기된 모든것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둘 또는 그이상의 진술단위로 이루어진 복합문은 구조에 있어서 다양하다. 복합문구조의 다양성을 직접 제약하는것은 복합문을 이루는 《단일

문》들의 구조와 그 이음수단의 구조-문법적특성이다. 우리 말 복합문을 이루는 진술단위로서의 《단일문》은 술어와 주어, 보어와 상황어와 규정어 등을 다 갖춘것, 《1차적성분》을 다 갖추지 못한것, 특히 주어가 없는것, 술어와 주어와 보어를 따로 구분할수 없이 단독성분으로만 되여있는것(진술어로만 되여있는 《단일문》) 그리고 이 다양한 구조들이 어느 한편의 《단일문》에만 해당하는것 또는 모든 《단일문》에 다 해당하는것 등 실로 다양하다.

이 모든 《단일문》구조의 다양성은 《단일문》들사이의 문법적관계를 나타내는 이음수단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따라 구현된다. 즉 이음수단이 붙는 《단일문》술어의 구조적 및 문법적 특성은 복합문의 내용상 분류, 형식상 분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리하여 우리 말에서는 주로 이음수단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따라 의존문과 주도문으로 대응하는 련결성격상 분류와 접속, 병립, 련접의 련결방식상 분류가 나오며 단순복합, 확대복합 등의 구획이 지어지며 각종 형태-구조적류형의 복합문이 갈라진다.

조선어복합문의 류형상 특성은 무엇보다도 의존문—주도문의 관계가 이음수단을 중심으로 문법적으로나 의미-기능적으로나 다 나타난다는것이다.

○ 아직 날씨는 춥고 두만강에는 얼음이 두터웠다.

여기서 《아직 날씨는 춥고》와 《두만강에는 얼음이 두터웠다.》라는 두 진술단위의 호상제약성, 특히는 앞의것이 의존문이고 뒤의것이 주도문이라는 표식은 《춥고》와 《두터웠다》의 구조-문법적대응이 지어주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장론적기능은 이음수단 《~고》가 수행한다. 이와 같은 구조-문법적의존관계는 의미-기능적의존관계와 일치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어의 모든 복합문의 련결성격상의 일관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이리하여 모든 문화어복합문을 그 련결성격상 측면에서 크게 의존문—주도문의 류형으로 나누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의존문—주도문의 류형으로 조선어의 모든 복합문을 나누는것의 합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의 모든 론리주의적, 형식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나 조선어복합문에 관통되고있는 일관된 특성을 일반화할수 있다. 즉 《단일문》들의 상관관계의 특성을 철저히 문법적측면과 내용적측면의

통일속에서 고찰할수 있게 한다.

② 앞의 문장론적단위가 뒤의 문장론적단위에 문법적으로나 의미-기능적으로 의존된다는 조선어고유의 법칙적현상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게 한다. 조선어에서는 귀일관계, 《의미관련의 특성》이 단어결합이나 문장성분사이뿐만아니라 《단일문》들사이에도 작용한다는 일관한 특성을 더욱 뚜렷이 알게 한다.

③ 복합문의 전일성을 더욱 뚜렷이 알수 있게 함으로써 복합문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더잘 파악할수 있게 한다. 의존—주도문의 밀착관계는 전일성의 정도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징표의 하나이다.

요컨대, 의존—주도문 관계로 모든 복합문의 성격상 분류를 특징짓는것은 조선어복합문의 모든 구조를 꿰뚫고있는 일관한 특성을 일반화할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분류원칙이다.

조선어복합문의 류형상 특성은 다음으로 그 구성성분들의 련결의 방식으로 보아 접속복합문, 병립복합문, 련접복합문의 정연한 체계로 나뉜다는것이다.

접속복합문, 병립복합문, 련접복합문의 구분은 이음수단을 중심으로 구조-문법적으로, 의미-기능적으로 뚜렷이 알려진다.

○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으나 돌격대원들은 끄떡하지 않았다.(접속) ①

○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린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우뢰가 운다, 사방은 삽시에 스산한 날씨로 변하였다.(병립) ②

○ 억수로 쏟아지는 비, 돌격대원들은 그속에서도 일손을 멈출줄 몰랐다.(련접) ③

여기서 3개 복합문의 앞 《단일문》과 뒤 《단일문》의 련결방식이 각각 달라짐에 따라 그 이음수단의 가동상태, 문법적 및 의미-기능적 의존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례컨대, 접속복합문에서 이음토, 접속억양, 《단일문》순위의 제약성, 병립복합문에서 맺음토, 렬거억양, 《단일문》들의 렬거 및 위치상 비자립성, 련접복합문에서 무접사, 련접억양, 《단독성분단일문》+《주도성분단일문》구조의 의존관계 등은 다 이 복합문류형의 구조-문법적특성 및 의미-기능적특성을 말해주는 표식들이다. 이러한 표식들이 뚜렷함으로써 바로 조선어복합문의 련결방식상 분류

의 합리성이 나타난다.

접속복합문, 병립복합문, 련접복합문 류형으로 나눈것의 합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조선어복합문을 련결방식상으로는 다 포괄시켜 분류할수 있다. 모든 복합문은 례외없이 문법적련결방식에서 이 세가지 류형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자기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리하여 조선어에만 고유한 련결방식상 류형을 확정할수 있게 함으로써 문장류형분류에서의 온갖 교조와 주관을 피할수 있게 한다.

② 조선어의 문장론적단위에 고유한 련결방식인 접속, 병립, 련접의 현상이 복합문에도 작용한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어문법구조의 일관된 특성을 더욱 뚜렷이 하여준다. 단어결합, 문장성분, 《단일문》들의 상관관계에서 일관하여 접속, 병립, 련접의 방식이 작용하는것이 조선어적인 특성이라는것이 더욱 뚜렷해진다.

③ 조선어복합문의 련결방식의 특성은 이음수단에 집대성된다는 특성을 보여줄수 있게 함으로써 인도-구라파어나 다른 말의 복합문련결방식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더욱 뚜렷해진다는것을 파악하게 한다. 이리하여 우리 식의 복합문류형을 설정할수 있게 되였다. 접속, 병립, 련접의 방식에 따라 복합문의 류형을 가르는것은 문화어의 문법구조상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분류원칙이다.

조선어복합문의 류형상 특성은 또한 그 이음수단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따르는 형태-구조적분류로 나뉜다는것이다.

크게 어휘-문법적련결로 된 류형, 어음-구조적련결로 된 류형, 합성구성적류형 등으로 나누고 그안에서 《단일문》들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따라 다시 정밀한 갈래를 설정하는 이 분류는 조선어에 고유한 복합문류형을 형태-구조적으로 남김없이 일반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문장류형분류에서 온갖 동요성과 자의성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조선어복합문의 형태-구조적분류의 합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구조를 위주로 하여 문장류형을 가르기때문에 주관을 피하고 객관성을 보장한다. 이 분류에서는 동일한 형태, 동일한 구조의 이음수단으로 이루어진 《단일문》들사이의 문장론적관계를 서로 다르게 리해하고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일

이 없게 한다.

② 조선어에 있는 모든 복합문의 이음수단의 형태와 기능을 낱낱이 파악할수 있게 하며 이음수단에 따라 문장론적기능이 교차되는 관계도 명백히 알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복합문의 현실적내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되여 그 어떤 복잡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③ 복합문의 구성수단이 접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휘-문법적, 어음-구조적 요소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것을 알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의 범위와 《단일문》들의 구획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한다.

④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이 이음수단과 《단일문》들의 문법적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게 됨으로써 조선어복합문의 문법적특성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분류는 문장내용의 리해에서 혼선을 피하며 조선어의 구조-문법적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분류원칙이다.

조선어복합문의 류형상 분류의 합리성은 순수 구조상 류형의 문장분류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단순복합문과 확대복합문은 조선어단일문의 단순구조와 확대구조의 특성에 기초한 분류이며 단독성분복합문, 주도성분복합문, 확대성분복합문, 종합적합성복합문 등은 조선어《단일문》의 고유한 구성상 특성을 고려한데 기초한 분류이다.

이 류형의 문장에는 조선어복합문의 구성성분의 구조적특성이 잘 반영되여있다. 이 분류의 합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데 있다.

① 복합문의 류형과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류형을 호상 밀접히 련관시켜놓음으로써 조선어의 문장론적단위들에 일관되여있는 구조적특성을 더욱 뚜렷이 알수 있게 한다. 바로 문장의 단순성분, 확대성분, 단독성분, 기본성분, 전개성분 등 정연한 체계가 그대로 복합문의 구성부분들사이의 상관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합법칙성을 알게 된다.

② 문장론적단위들의 상관관계의 단계적성격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조선어복합문의 구성부분들의 내부구조를 똑바로 분석할수 있게

한다.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은 성분의 단계적성격으로 특징지어지는 문장론적단위들(문장성분, 단어결합체 등)의 통일체라는것을 알수 있다.

③ 종전에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한 《1부구성복합문》, 《불완전복합문》, 《무주어복합문》 등의 혼란에서 벗어나 조선어에만 고유한 《특수류형》의 복합문까지 쉽게 구분해낼수 있게 한다. 조선어에만 고유한 단독성분복합문, 주도성분복합문, 확대성분복합문 등을 갈라낼수 있게 하며 그 종합구성류형도 알아낼수 있게 한다.

복합문의 순수 구조상 분류도 조선어의 특성에 맞게 문장류형을 가를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원칙의 하나이다.

3. 두개이상의 《단일문》들로 이루어진 복합문(종합구성복합문)

구체적인 언어현실에서는 복합문이 언제나 두개의 《단일문》들의 련결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복합문은 여러개의 《단일문》들로 이루어질수 있다. 이로부터 하나의 복합문에 련결방식이 같은 류형도 있을수 있고 련결방식이 서로 다른 《단일문》들로 이루어진 류형도 있을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 다시 말하여 3개 또는 그이상의 《단일문》들이 전일적으로 통일되면서 접속이나 병립 또는 련접의 방식으로 하나의 복합문이 련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복합문에만 있을수 있는 현상이다.

○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계급적대립은 청산되지만 계급적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①

○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로동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로동이 영예로운것으로 되지만 아직 로동이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 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②

○ 그날은 맵짠 바람이 부는 날이여서 집안에서 손자녀석들의 옷가지를 손질하고있었는데 오후 4시쯤 되였을가,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에 나가보니 낯익은 한 일군이 다급한 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하여왔다. …③

례①은 3개의 《단일문》이, 례②는 5개의 《단일문》이, 례③은 6개의 《단일문》이 《련합》하여 각각 하나의 복합문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 세 례문에서 《단일문》들의 《련합》방식은 서로 다르며 그 구조도 여러가지이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매우 복잡한 통일된

사상을 나타내고있는데서는 같다. 말하자면 서로 다른 련결방식으로 《련합》된 하나의 종합구성의 합성복합문이 이루어진것이다.

지금까지 문법책들에서는 두개이상의 《단일문》들의 《련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을 합성복합문 또는 얽힘복합문으로만 고찰하였다. 그러면서 내부구조를 《종속》과 《병렬》의 합성, 또는 《매임》과 《벌림》의 얽힘으로 보았다. 이것은 조선어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고찰방법이다.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으로 하여 《종속》과 《병렬》이 따로 없고 련결성격상으로는 오직 《의존—주도》의 관계만이 있으며 련결방식상으로는 《접속》, 《병립》, 《련접》만이 있는 조건에서 《합성》(또는 《얽힘》)의 내부구조는 달리 분석되여야 한다.

두개이상의 《단일문》들의 《련합》은 같은 련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련결방식(얽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사회주의가 수립되면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종국적으로 청산되지만 사회성원들사이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①

○ 투쟁을 멈추지 말라, 생활도 우리에게는 투쟁이다, 학습을 중단하지 말라, 문화적소양을 쌓으라, 기술서적도 읽으라, 누구나 다 투쟁하고 창조하고 전진하라. ②

○ 1974년 2월 어느날, 그날의 감격적인 사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며 나는 오래오래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③

○ 아버지는 과학자, 어머니는 의사, 그리고 나의 형은 기술자이고 동생은 로동자이다. ④

례 ①, ②의 복합문은 접속적련결과 병립적련결이 전개된것이고 례 ③, ④는 련접과 접속, 병립과 접속이 합성한 복합문이다. 례 ①, ②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두개이상의 《단일문》들의 련결이 전개된것을 전개합성복합문이라 할수 있고 례 ③, ④와 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두개이상의 《단일문》들의 련결이 합성된것을 고유합성복합문이라 할수 있다.

이리하여 조선어에서는 세개 또는 세개이상의 《단일문》들이 《련합》하여 하나의 보다 복잡한 복합문을 이루고있는 문장류형들을 크게 전개합성복합문과 고유합성복합문으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모든 부류를 다 종합구성복합문(종합합성복합문)의 류형에 넣을수

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온갖 복합문의 분류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은 류형으로 나눌수 있다.

Ⅰ. 내용상 분류

1. 련결의 성격에 따르는 류형(의존—주도어적관계의 복합문)

○ 두만강의 얼음이 풀리자 떼목무이는 활발히 진행되였다.

○ 밖에 나가보니 어머니가 와계시였다.

2. 련결의 방식에 따르는 류형

1) 접속복합문

○ 두만강기슭에 꽃들은 피고

그리움은 가슴속에 넘쳐납니다

2) 병립복합문

○ 보이느니 나무숲들이요, 들리느니 바람소리뿐이라…

3) 련접복합문

○ 비가 온다, 문을 닫아라.

Ⅱ. 형식상 분류

1. 형태-구조적류형

1) 어휘-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1) 순수 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① 피규정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 그가 보채는통에 그의 동생도 서둘렀다.

② 관련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 날씨는 꽤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얼지 않았다.

(2) 합성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① 접사-보조어적련결의 복합문

○ 비꽃이 좀 떨어졌을뿐 바람도 불지 않았다.

② 접사-접속어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오나 그러나 우리는 떠났다.

③ 조응관계복합문

○ 설사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일하겠다.

(3) 특수어적련결의 복합문

① 피규정체언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올무렵에 그들은 떠났다.

② 특수어표현련결의 복합문

○ 아버지가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가방을 뒤지였다.

2) 접사적련결의 복합문

(1) 순수 접사적련결의 복합문

① 이음형접사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오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자고 그러느냐?

② 맺음형접사적련결의 복합문

○ 바람은 솔솔, 비는 줄줄.

(2) 접사-도움토적련결의 복합문

① 이음형-도움토적련결의 복합문

○ 그가 오고서야 모든 문제가 풀리였다.

② 맺음형-도움토적련결의 복합문

○ 비가 내렸다마는 땅은 질지 않았다.

3) 어음-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1) 어음-접사적련결의 복합문

① 용언맺음형련결의 복합문

○ 그가 언제 울지 너는 아느냐.

② 체언맺음형련결의 복합문

○ 이것은 자물쇠요, 저것은 열쇠다.

(2) 무접사적련결의 복합문

① 어간형련결의 복합문

○ 나는 대학생, 너는 중학생.

② 제시형련결의 복합문

○ 밤, 대오는 계속 행군하였다.

③ 무형태형련결의 복합문

○ 눈은 보슬보슬, 비는 쭈르룩쭈르룩.

4) 합성복합문

(1) 어휘-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까지 나오는바람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였다.

(2) 어음-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 사위는 조용, 뭇새들도 잠들고 사람들도 잠들었으나 박동무의 심장만은 설레였다.

2. 순수 구조상 류형

1) 구조의 복잡성에 따르는 류형

(1) 단순복합문

○ 누님은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남았다.

(2) 확대복합문

○ 내가 어제 사온 책은 새로 사온것이여서 보는 사람마다 손에서 떼지 않았다.

2) 구성부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류형

(1) 단독성분복합문

○ 화창한 봄, 만경대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2) 주도성분복합문

○ 비가 멎고 바람도 멎었다.

(3) 확대성분복합문

○ 순용이의 아버지는 재미있는 그림책을 사왔으며 우리 아버지는 소설책을 사왔다.

(4) 종합구성복합문

○ 밀영에 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들에 떨쳐나섰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조선어복합문류형의 특성과 분류는 이상과 같다.

조선어복합문의 류형과 그 특성을 꿰뚫고있는 근본표식은 《단일문》들의 구조-문법적표식, 그 문장론적기능의 고유성이다. 《단일문》들의 구조-문법적표식, 그 문장론적기능의 고유성이 있음으로 하여 바로 조선문화어복합문의 그 다양하고도 풍부한 류형이 실재한다.

〔붙임〕 문화어복합문의 종합적인 분류표에서 Ⅰ의 전부와 Ⅱ의 1,2의 일부는 이미 2절의 1,2에서 언급하고 분류표로 묶어보인것이다. 여기서는 내용상 분류와 《종합구성복합문》의 새 분류까지 합하여 종합적인 분류표를 보인다.

이상에서 본 조선어복합문의 본질과 특성, 복합문의 구성단위들의 련결상 특성과 이음수단의 기능, 그리고 복합문의 합리적인 류형화문제 등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어에 고유한 민족적특성은 복합문구조에도 일관하여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제6장. 문장옮김법

우리 말 옮김법은 언어와 언어생활의 민족적특성이 가장 잘 보존되여있는것의 하나이다. 언어교제의 다양성은 언어행위의 단위들을 옮기는 방법에서도 여러가지 형식을 낳는데 그 형식이란 민족적특성으로 일관되여있다.

문장옮김법은 여러 형식의 언어행위 또는 언어행위의 구성부분을 옮기는 방법에 작용하는 민족적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문장옮김법에 관한 옳은 해명은 이러저러한 언어행위의 단위들을 옳바로 활용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를 주며 민족적특성을 옳게 구현할수 있게 하는 지식을 준다.

문장론에서는 문장과 그 구성부분의 옮김법에 관한 문제도 리론적으로 밝힘으로써 언어행위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해명한다.

〔붙임〕 옮김법이라 할 때 구체적으로는 문장옮김법이다. 일부 경우에는 옹근 문장이 아닌것을 옮기는 일도 있으나 그것도 어쨌든 언어행위의 구성부분인것만큼 넓게는 문장과 관련되는 옮김법에 속한다. 문장옮김법(문장전달법)이라는 말과 옮김법이라는 말은 같다.

지난 시기 문장옮김법에 관한 문제는 문장론에서 약하게 다루었거나 거의 관심밖에 둔 분야의 하나였다. 최근에 와서 문장옮김법은 《전달법》, 《담화법》, 《화법》 등의 이름으로 문장론의 대상으로 잡히였다. 때로는 문체론, 수사학의 한 모퉁이에서 각도를 달리하여 문장옮김법이 고찰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전달법》, 《담화법》, 《화법》 그리고 문체론적수법 등으로 분화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 언어학적특성이 전면적으로 고찰되지는 못하였다.

문장옮김법은 언어행위에 관한 문제이고 이렇게나저렇게나 문장의 구성과 표현방식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문장론은 마땅히 그 문법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장에서는 문장옮김법에 대한 일반적개념을 새롭게 밝힌데 기초하여 우리 말 문장옮김법의 구성상 및 류형상 특성, 바로옮김

법(직접전달법)과 풀어옮김법(간접전달법)의 언어형식의 차이, 새로운 류형설정의 가능성 등 문제를 리론적으로 밝히게 된다.

제1절. 문장옮김법에 대한 일반적개념

1. 문장옮김법의 본질과 특성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현된다. 그것은 언어행위에 참가하는 인물이 여럿일수 있고 언어행위의 환경이 한결같지 않을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언어행위에는 때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대화자)뿐아니라 제3자까지 끼울수 있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대화자)만이 등장할수도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단독으로(독백의 경우) 참가할수도 있다.

언어행위는 또한 그 환경이 여러가지로 될수 있다. 즉 매우 긴박한 환경이나 복잡한 환경일수도 있고 좀 완화하고 여유있는 환경일수도 있다. 또한 언어행위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게 된다. 이미 이루어진 말이 언어행위의 순간 그대로 옮겨질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 현시점에 서서 다른 시기의 말, 다른데서 이미 이루어진 말을 되새겨 옮길수도 있다. 이미 이루어진 말을 전달하려면 일정한 규범에 맞는 옮김법이 있어야 한다.

문장옮김법이란 이미 이루어진 다른 인물의 말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 《나의 자작시를 한수 읊겠습니다. 예— 제목은 〈시내가의 작은 배〉, 괜찮겠지요.》 하며 청년은 …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군중을 향해 돌아선다.

영화문학의 한 장면에 나오는 이 언어행위는 등장인물의 말과 창작가의 말로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작가(필자)가 이미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것이다. 이것은 옮김법으로 이루어진 언어행위의 한 형식이다.

문장옮김법에서 이르는 《이미 이루어진 말》이란 제3자의 말일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자신의 말일수도 있으며 듣는 사람(대화자)의 말일수도 있다. 어쨌든 이야기하는 순간의 언어행위보다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말이라는데서는 같다.

(붙임) 제3자의 말을 《3인칭대상의 말》, 《언어행위의 대상의 말》, 말하는 사람자신의 말을 《1인칭대상의 말》, 《언어행위의 주자의 독백》, 대화자의 말을 《2인칭대상의 말》, 《언어행위의 객자의 말》 등으로 각각 이름지을수도 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자신의 말(1인칭대상의 말)도 이야기하는 순간의 진술자의 말인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독백)이다. 이 모든것들은 문장옮김법에 들어가는 한에 있어서 다 《이미 이루어진 말》(《전달되는 말》)로 된다.

옮김법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행위는 또한 이미 이루어진 말(옮겨지는 말)의 직접적인 전달일수도 있고 간접적인 전달일수도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옮김법에 의하여 전달되는 언어행위는 말하는 순간보다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것이며 언어행위의 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재현된것이다.

옮김법으로 된 언어행위에서는 전달되는 말이 언어행위의 주자에 의하여 재현되는만큼 전달자의 말(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동반되는것이 특징적이다. 이리하여 문장옮김법에서는 《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전달문》이라는 하나의 전일적인 문장구조가 이루어진다.

《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 전달문》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문장옮김법은 결국 두개의 언어행위의 단위가 하나로 합쳐져 전달문을 이루는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문장옮김법이란 결국 전달문을 구성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문장옮김법이 《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전달문》의 관계로 구성된 옹근 진술을 전달하는 방법인것만큼 문장옮김법의 본질과 그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전일체로서의 전달문과 그 구성부분들인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구조-문법적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것이 필요하다.

전달문은 어떤 문장론적단위인가? 즉 단일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복합문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전달되는 말》의 문장론적성격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것은 전달문이 《전달되는 말》의 성격에 따라 이러저러하게 규정될수 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전달되는 말》을 《특수한 상황

어구》 또는 《특수한 보어구》로 보았으며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인용어(들임말)》 또는 《인용어구(들임말구)》라는 새로운 류형으로 보았다.

이들 문법적견해들은 전일체로서의 전달문의 성격은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다만 《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태도로써 일정하게 《전달되는 말》의 성격에 대한 견해를 표시했을따름이다. 《구》를 《단일문》으로 보면 전달문을 결합복합문으로 보는것으로 되며 《구》를 확대성분으로 보면 전달문을 특수한 확대단일문으로 보는것으로 된다. 어느 문법적견해도 전달문을 그 구조의 측면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인용어구》 또는 《인용어》의 주장자들은 《～라고》, 《～고》 형으로 된 구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어는 《～다고》, 《～다라고》뿐아니라 《～다는》, 《～다기에》, 《～다의》, 《～다를》, 《～다듯이》, 《～단다》 등과 같이 이음형뿐아니라 상황형, 규정형, 대상형, 진술형 등 모든 형태로 《다른 사람의 말》이 인용된다. 《～라고》, 《～고》 형태로 된것만을 《인용어》(또는 《인용어구》)라고 하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모든 문장성분, 모든 문장류형이 다 《인용어》로 되는것을 하필 이음형으로 된것에만 적용시킨다는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인용어》란 사실상 옮김법의 한 종류이다. 《인용》이라는 말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말을 언어행위의 순간에 끌어들여 전달한다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바로 문장옮김법에서는 반드시 두개이상의 문장론적단위가 《인입》되여 하나의 전일체인 전달문으로 된다. 이 경우에 《인용어》도 진술단위로 되는 한에 있어서는 례외없이 《이미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말》로 된다. 이리하여 《인용어》(또는 《인용어구》)는 본질에 있어서 전달문의 구성부분으로 되는것이다. 여기에서도 《전달되는 말》의 성격이 전달문의 특징을 규정지어주는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전달되는 말》의 의미-기능적 및 문법적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이 관계를 더 명백히 알수 있다.

《전달되는 말》은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대화자)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언어행위의 순간보다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말, 《인입된 언어행위》이다. 그 언어행위의 담당자는 보통 제3자(3인칭대상)로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1인칭 및 2인칭 대상으

로 될수 있다(1인칭대상, 2인칭대상인 때에도 그것이 전달자의 말과 구별된다는 뜻에서 제3자의 말로 바뀌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여기로부터 《전달되는 말》을 《다른 사람》의 말, 《인입된》 말, 《인용된》 말이라고 부를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 이러한 언어행위의 단위는 언제나 전달자의 말보다 이전에 이루어지는것이다. 《전달되는 말》이 이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대체 옮김법자체가 이루어질수 없다. 왜냐하면 옮김법이란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언어행위가 아닌 다른 언어행위(또는 제3자의것으로 바뀐 언어행위)를 전달하는 과정이기때문이다. 다른 언어행위가 있고서야 전달하는 대상이 생기며 문장옮김법이 구성되는것이다.

이와 같은 《전달되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어행위의 단위인것만큼 문장의 표식을 가진다. 즉 상대적으로 완결된 사상, 상대적으로 완결된 진술단위로 토막지어지고 진술화의 문법적형식도 갖춘다. 이리하여 《전달되는 말》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 문장으로 된다.

《전달되는 말》을 이루는 문장구조는 술어, 주어, 보어 등 구성분을 가진 문장론적단위로서의 문장으로 된다. 《전달되는 말》을 이루는 문장구조가 성분의 구비정도에 있어서 한결같지는 않으나 어쨌든 언어행위의 단위라는 측면에서 문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특징, 기본표식을 가진다. 이리하여 《전달되는 말》은 보통 구조-문법적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 문장이며 《단일문》이다.

전달문이 《전달되는 말 + 전달하는 말》의 전일체인것만큼 그 본질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전달하는 말》의 성격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달되는 말》이 전달문의 성격을 규정하는것도 《전달하는 말》과의 련관속에서만 실현되기때문이다.

지금까지 문법책들에서는 《전달하는 말》이 전달행위가 진행되는 순간의 전달자의 말이며 《전달되는 말》의 소속관계, 정황, 전달리유, 양상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만 서술하였다.

《전달하는 말》의 본질을 더 파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그 의미-기능적 및 구조-문법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전달하는 말》은 주고받는 언어행위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말이며 《전달되는 말》보다 뒤에 진행되는 전달의 주자의 언어행위이다.

《전달하는 말》은 옮김법의 문맥을 이루며 《전달되는 말》에 대한 주석으로 되는 말이며 그것을 보충해주는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이로부터 《전달하는 말》은 《자기의 말》, 《전달자의 말》, 《주석말》, 《바탕글》, 《보충설명문》 등의 이름으로 불리울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달하는 말》은 문장옮김법에서 필수적인것은 아니다. 련달아 렬거되는 대화에서는 생략될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전달하는 말》은 하나의 언어행위의 단위인 한에서는 문장의 표식을 가지며 문장의 형식을 갖춘다. 즉 《전달하는 말》은 상대적자립성을 가지는 문장이 구비하여야 할 문장론적표식을 나타낸다.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설정, 진술성 표시의 물질적 수단과 수법의 존재, 진술화의 여러 표현의 완비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달문을 구성하는 부분들인 《전달되는 말》, 《전달하는 말》의 문장구조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전일체속에서 서로 의존관계에 놓여있다. 여기로부터 이 두 구성부분들의 련결성격과 련결방식의 특성이 생기며 일정한 류형들이 나누어진다. 이것도 전달문의 본질과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조건의 하나로 된다.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련결성격은 기본적으로 《의존—주도》의 관계에 있다. 구조-문법적관점에서 보면 전달문의 필수적구성부분인 《전달되는 말》이 의존적이라면 《전달하는 말》은 주도적이다.

○ 《원래는 약한 몸이였는데 아침달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건강해졌습니다.》라고 그는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의 존) (주 도)

○ 자기는 원래 약하였는데 아침달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건강해졌다고 그는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의 존) (주 도)

전달문인 두 언어행위의 단위가 《의존 + 주도》의 련결성격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사실은 구조-문법적인 그 전일성을 말해주는것이며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 두 언어행위단위의 밀접한 의존관계를 말해주는것이다.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련결방식은 조선어의 모든

문장론적단위들의 련결방식과 같다. 바로 결합, 접속, 병립, 련접의 방법으로 두 구성부분이 련결된다.

○ 《이 책을 꼭 보십시오.》라고 하는 영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를 띠였다.(결합)

○ 영희는 《이 책을 꼭 보십시오.》라고 흥분조로 나에게 말하였다.(접속)

○ 그들의 대화는 동심을 자아내는것이였다.

《우주가 무한대라면 끝은 어떻게 됐을가?》

《무한대라는데 끝은 무슨 끝!》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정말 답답이야!》(병립관계)

○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영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를 띠였다.(련접)

전달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그 구성성분들의 련결방식은 기본적으로 우의 네가지 류형과 같다.

○ 이 책을 꼭 보라는 영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를 띠였다.(결합)

○ 영희는 나더러 이 책을 꼭 보라고 흥분조로 말하였다.(접속)

○ 우주가 무한대라면 끝은 어떻게 됐을가, 무한대라는데 무슨 끝인가,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답답하다, 실로 그들의 대화는 동심을 자아냈다.(병립)

○ 이 책을 꼭 보시라―영희의 흥분된 말.(련접)

이 모든 례들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전달문의 구성부분들의 상관관계는 문장과 문장 또는 확대성분과 문장의 관계로 되며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 진술단위로 이루어진 문법적통일체이다.

이상과 같은 전달문의 의미-기능상 특성, 구조-문법적특성으로부터 전달문의 본질을 규정할수 있게 된다.

전달문이란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밀접히 련결되여 하나로 통일된 하나의 전일적인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전달문은 기능상으로는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에 속하며 구조상으로는 단순단일문이 아닌 여러 류형의 문장 및 복합문으로 된다.

이와 같이 전달문이 통일된 하나의 전일체로서 여러 류형의 문장 또는 확대성분을 자체속에 가지고있다는데로부터 그 문장론적본질을 복합문 또는 확대단일문 및 《문장련합》으로 볼수 있다.

전달문이 복합문으로 되는것은 주로 두 구성부분이 접속의 방법으로 련결되는 경우이고 전달문이 확대단일문으로 되는것은 기본

적으로 《전달되는 말》이 《문장-성분》 또는 《구》로 되면서 결합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전달문의 구성부분들이 병립관계로 련결되였을 때는 일종의 문장들의 련합체(《문장련합》)로 되거나 병립복합문으로도 된다. 전달문의 구성부분들이 련접의 방법으로 련결되였을 때는 보통 《특수한 류형의 복합문》(《삽입복합문》 또는 《련접복합문》이라고 할수 있다.)으로 된다.

○ 《이 책을 꼭 보십시오.》라는 영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를 띠였다.(확대단일문)

○ 아버지가 래일 오신다고 어머니에게 전하여라.(접속복합문)

○ 우주가 무한대라면 끝은 어떻게 됐을가, 무한대라는데 무슨 끝인가,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답답하다… 실로 그들의 대화는 동심을 자아냈다.(병립복합문)

○ 이 책을 꼭 보시라―영희의 흥분된 말.(《련접복합문》)

이 모든 경우에 억양의 요소들은 확대단일문 또는 복합문에 고유한 특성을 띠게 되며 일정한 구획성과 전일성으로 통일되는 선률-률동적통일성을 가진다.

우에서 조선어 문장옮김법의 본질을 밝힌데 기초하여 전달문의 구조-문법적특성과 그 구성성분들의 의존관계의 성격과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문장옮김법과 그 문장론적단위인 전달문에 대한 일반적개념을 확정하였다. 문장옮김법의 본질과 그 특징에 대한 이러한 해명은 문장옮김법의 기본표식을 확정하는 전제로 된다.

2. 문장옮김법의 기본표식

문장옮김법의 기본표식은 전달문의 구성상 특성과 인물관계의 표현에서 나타난다.

문장옮김법의 기본표식은 무엇보다도 그 문장론적단위인 전달문이 언어적으로 전달의 형식을 갖춘다는데 있다. 이것은 전달문을 일반문장과 구별하는 기본표식이기도 하다.

○ 작업반장동무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 투쟁에서 모두다 선구자가 됩시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전달문)

○ 작업반장동무는 작업반성원들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 투쟁의 선구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일반문장)

여기서 첫째 문장, 즉 전달문에서는 전달의 주자(1인칭대상)에

의하여 작업반장(제3자)의 언어행위가 재현되였으며 그것이 억양의 구획성(글에서는 인용표)과 이음토 등으로 전달의 형식을 갖추었다. 그러나 둘째 문장, 즉 일반문장에서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언어행위도 재현됨이 없이 서술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남의 말의 전달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미-론리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가지는 이 두 례문의 본질적차이는 재현되는 언어행위의 형식화여하에 있다. 전달문에서는 전달의 주자에 의하여 재현되는 다른 언어행위가 전달의 형식화로 구별되며 일반문장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 전달의 형식화에 전달문의 기본표식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전달문의 기본표식이 다른 언어행위의 전달에 대한 형식화에 있다는것은 그것이 《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로 이루어진다는 구성상 특성과 문장옮김법에는 전달되는 말이 꼭 있어야 한다는 문장론적특성에 기초한다.

그러면 전달문의 기본표식인 전달의 형식화를 구현하는 언어적형식과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재현되는 언어행위(전달되는 말)가 전달의 억양과 이음수단에 의하여 구획되는것이다.

다른 인물의 말이 직접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전달되는 말의 마지막이 휴지로 토막지어지고(글에서는 《 》표로 구분) 《~라고》, 《~하고》, 《~고》 등의 이음토나 《이렇게》, 《이러한》, 《이와 같이》 등의 《이음말》로 구획된다. 다른 인물의 말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전달하는 말 부분의 이음토 다음에 휴지가 보다 약하게 오며(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부호도 찍지 않는다.) 일정한 이음수단 및 이음말들로 구획된다. 재현되는 언어행위(전달되는 말)를 토막짓는 이음수단은 규정형, 상황형의 형식으로도 되며 억양의 요소로만 되는 때도 있다.

재현되는 언어행위를 전달의 형식화로 구현하는 수단은 전달하는 말 부분에 있게 되는 《전달동사》, 《내면동사》(또는 《전달명사》, 《내면명사》)이다.

《전달동사》(또는 《전달명사》)란 전달하는 말의 술어(또는 규정어)로 되는 단어로서 전달되는 말의 소속관계, 정황, 양상 등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이다. 우리 말에는 《전달동사》로서 《말하

다, 생각하다, 이야기하다, 웨치다, 여쭈다, 지적하다, 대답하다, 전하다, 호소하다, 부언하다, 회상하다, 덧붙이다, 되뇌이다, 하다》 등의 순수 동사와 《말씀드리다, 말을 하다, 말을 끊다, 말을 잇다, 생각을 하다, 골머리를 앓다, 호통을 치다, 소리를 지르다》 등과 같은 동사결합체들이 있으며 《격정하다, 야단하다, 웃다, 놀라다, 여기다, 누꿋히다, 달래다, 누르다》 등의 《내면동사》도 있다. 《전달명사》는 이러한 《전달동사》의 말뿌리 또는 동명사에 지나지 않는다(례: 말, 생각, 이야기, 웨침, 말씀, 지적, 대답, 전달, 호통, 소리, 격정, 야단, 웃음, 놀램, 충고, 부언 등).

(붙임) 《전달동사》(또는 《전달명사》), 《내면동사》(또는 《내면명사》 등의 이름은 조건적이다. 한갖 전달의 형식을 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붙인 이름들이다. 문법책들에서는 《전달동사》, 《내면동사》 등의 이름밖에도 《생각동사》, 《언어와 사유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또는 명사) 등으로 부르는 일도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언어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인것만큼 말 아니면 생각과 관련되는 뜻이나 인간의 내면세계와 관련되는것을 전달하는 동사인것만 사실이다. 여기서는 통털어 《전달동사》, 《전달명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와 같이 조선어의 문장옮김법에서 전달되는 언어행위는 자기의 고유한 전달형식을 갖추게 되며 그것은 민족적특성을 띤다. 전달되는 언어행위가 일정한 전달의 형식을 갖추며 그것이 민족적특성을 띤 언어적수단과 표현방식에 따라 형식화된다는 여기에 구성의 측면에서 본 조선어문장옮김법의 기본표식의 하나가 있다.

문장옮김법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구성상 표식은 문장옮김법으로 된 문장을 바로 전달문으로 되게 하는 힘있는 징표이다.

문장옮김법의 기본표식은 다음으로 문장론적단위인 전달문에 반드시 두 사람이상의 인물관계가 설정된다는데 있다. 이것도 전달문을 일반문장과 구별하는 기본표식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반문장은 그것이 말소리로 이루어지는 입말이건 글로 이루어지는 글말이건 반드시 두 인물관계를 설정한다. 즉 말하는 사람(또는 필자)과 듣는 사람(또는 독자)을 예상한다.

그러나 문장옮김법에서 전달문은 두 사람이상의 인물관계를 전제로 한다. 전달문에는 3자, 4자의 인물관계가 언어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달문이 두개이상의 언어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성상 특성과 관련된 현상이다.

두 언어행위로 이루어지는 전달문에는 이미 이루어진 말(전달되는 말)을 축으로 하는 인물관계의 대응과 전달의 순간에 이루어진 언어행위(전달하는 말)를 축으로 하는 인물관계의 대응이 있게 된다.

○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영희의 말은 자못 흥분되어있었다.

이 실례에서는 인물관계가 넷으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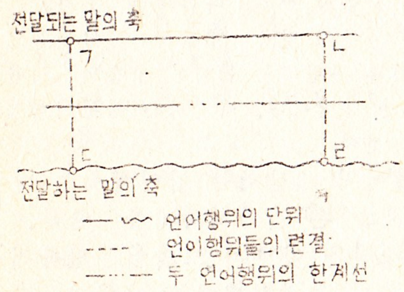
ㄱ. 이미 말한 사람(영희)

ㄴ. 이미 들은 사람(영희의 말을 들은 사람)

ㄷ. 전달의 순간에 말하는 사람(전달자, 필자)

ㄹ. 전달의 순간에 듣는 사람(대화자, 독자)

이 관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불임) 《—, ~~~》 언어행위의 단위,

ㄱ 말한 사람(재현되는 언어행위의 주자)

ㄴ 들은 사람(재현되는 언어행위의 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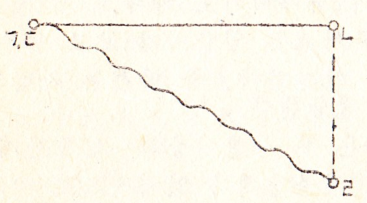
ㄷ 말하는 사람(전달자)

ㄹ 듣는 사람(대화자)

물론 문장전달법에서 인물관계는 언제나 4각도의 관계로만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3각도의 관계로 표시되는 일도 있다.

○ 《마음만 굳세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군!》 이렇게 나는 순용이에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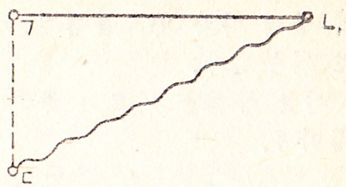
이 례에서 인물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이때는 이미 말한 사람(ㄱ)과 전달하는 사람(ㄷ)이 일치한다.

○ 아버지가 너에게 그 책을 꼭 읽으라고 다짐하시지 않았느냐?

이 례에서 인물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이때는 들은 사람(ㄴ)과 전달받는 사람(ㄹ)이 일치한다.

이 모든 경우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인물관계를 가리키는 언어수단은 전달하는 말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많은 경우에 고유명사), 사람(인칭)대명사(또는 가리킴대명사) 등으로 표현되는 주어, 보어, 규정어와 전달되는 말에 있는 술어의 인칭관계의 표시자라는것을 알수 있다(례컨대, 명령형으로 된 술어는 2인칭대상이 들은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특히 전달하는 말은 전달되는 말의 문맥을 이루면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관계를 나타내며 그것은 인물관계를 보충하여 상기시켜준다. 전달하는 말이 전달되는 말에 대한 보충설명, 주석으로 된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조선어의 문장옮김법에서는 두 언어행위를 축으로 하는 인물관계가 반드시 포개여져있게 되면서 두 문장론적단위로서의 《단일문》 또는 《구》와의 융합관계가 형식화된다.

두 축의 언어행위가 각각 두쌍의 인물관계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인물관계의 융합의 정도를 언어적수단으로 표시하는 여기에 인물관계의 측면에서 본 조선어문장옮김법의 또하나의 기본표시이 있다.

이상에서 본 조선어문장옮김법의 기본표식, 즉 전달의 형식화, 두 축의 인물관계의 언어적표시는 문장옮김법의 언어적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할수 있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전달문의 구성부분들의 구조-문법적특성, 옮김법의 기본표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조선어적인 특성을 옳게 파악하는 여기에 문장옮김법을 바로 활용할수 있게 하는 믿천이 있다.

제2절. 우리 말 옮김법의 류형과 그 특성

문장옮김법은 전달문의 구조와 그 구성부분들인 전달하는 말과

전달되는 말의 언어적특성에 따라 몇가지 류형으로 나누인다. 다시 말하여 전달하는 말과 전달되는 말의 언어적표현의 특성, 기능의 특성 등에 따라 바로옮김법, 풀어옮김법, 그리고 그밖의 다른 류형으로 나누인다.

이들 류형을 가르는 주되는 기준은 전달문의 구조적 및 문법적 특성이다.

1. 바로옮김법과 그 구조-문법적특성

바로옮김법이란 전달되는 말(이미 이루어진 말)을 고치지 않고 이미 말한 사람의 립장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달되는 말(이미 이루어진 말)을 고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옮긴다는것은 조건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약을 받는것이기때문이다. 이미 이루어진 순간 그대로 말을 《복사》하지 않는 이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대로 전달한다는것은 힘들다. 아무리 전달자가 애써도 음색이나 그밖의 억양의 요소들을 이미 말한 사람의 말그대로 재현할수는 없다. 다만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의 어휘-문법적, 어음-문체적특성을 최대로 살려 전달할따름이다. 여기에 언어행위재현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바로옮김법은 문장옮김법의 다른 류형(풀어옮김법)과 뚜렷이 구별되는 징표들을 가진다. 그것은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 사이에 나타나는 구조-문법적구획성과 억양상자립성이다.

○ 손로인은 우리에게 《잠간이라도 쉬여가시면 어떻습니까?》라고 간청하다싶이 말하였다.

여기에 전달되는 말(손로인의 말)인 《잠간이라도 쉬여가시면 어떻습니까?》는 비록 로인의 말씨나 말투대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휘, 문법구조, 문체 등은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였다. 이미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한 이 바로옮김법의 구조-문법적구획성과 억양상 자립성은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구조와 언어적표현에서 나타난다. 전달되는 말에 나타나는 법, 말차림, 시간, 존경 등 범주가 이미 말한 사

람의 언어행위그대로 나타나있으며 그 언어행위가 토막지어지는 부분에서 휴지를 가지게 되고 전일적인 억양에 의하여 통일되여있다는데서와 전달하는 말에서 《전달동사》의 존재, 인물관계의 표시, 억양상의 전일성 등에서 구조-문법적구획성과 억양상 자립성이 구체화되였다. 그리고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의존+주도》의 맞물림관계도 바로옮김법의 구조-문법적특성을 말하여주는 하나의 표식으로 된다. 이리하여 바로옮김법은 구조-문법적구획성과 억양상 자립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문장옮김법의 한 류형이다.

바로옮김법의 한 변종으로서 전달하는 말이 전달되는 말의 소속관계를 밝히는 《명명—(또는 삽입)복합문》의 류형이 있다.

○ 철용: 우리 힘으로 공구를 해결합시다.

복순: 어떻게요?

철용: 쇠붙이를 모아서 벼르는 방법으로 말이요.
복순: 그래요?

이때 전달자가 설정한 《명명문》인 《철용:》, 《복순:》 등은 물론 《철용이의 말》, 《철용이가 하는 말》, 《철용은 말하였다》(또는 《복순이의 말》, 《복순이 대답하는 말》, 《복순은 말하였다》) 등으로 전개되여 다른 성격의 문장 또는 《구》로 될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전달문은 《련접복합문》 또는 《삽입복합문》으로 될수 있다.

(붙임) 바로옮김법의 특수변종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명명—복합문》류형은 연극대본, 영화대본, 재담 등에서 대사와 전달자의 설명문을 함축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여기서 《명명문》(례로, 철용:)은 전달하는 말을, 대사(례: 《우리 힘으로 공구를 해결합시다.》)는 전달되는 말을 이룬다.

바로옮김법의 특수류형의 다른 하나는 대화(옮김)법이다.

대화(옮김)법이란 대화의 주자와 대화의 객자(대화자)의 말을 련달아 인용함으로써 전달되는 말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 《선생님, 저건 중계탑입니다.》

《중계탑이라니?》

《텔레비죤중계탑입니다.》

윤현석은 무슨 트집이라도 걸려는듯이 눈을 크게 뜨고 소생과 의사를 돌아보았다.

《아니, 이런 산골에도 텔레비죤중계탑이 있단말이요?》

《그렇지 않구요. 보십시오. 옆에 중계소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거참 별일은 별일이다. 이런 심심산촌에…》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안내글》이 없을수도 있다. 따라서 인물관계는 기본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사람》의 축과 《말하는 사람—듣는 사람》의 축으로 이루어지나 표면상으로는 이 두 축이 하나로 합하여지며 뒤의 축이 표면화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있게 된다. 대화법으로 된 문장구조를 《담화문》 또는 《문장련합》이라 할수 있다.

바로옮김법은 문체의 정확성, 명료성, 생동성 등을 돋우는데 효과가 있다.

2. 풀어옮김법과 그 구조-문법적특성

풀어옮김법이란 전달되는 말을 전달자의 립장에서 고쳐서 그 내용만을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달되는 말을 고쳐서 그 내용만을 전달한다는것도 조건적이다. 왜냐하면 풀어옮김법에서도 전달되는 말을 거의나 고스란히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달되는 말이 지나치게 고쳐진다면 전달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쉽기때문이다.

○ 복남학생은 《좋은 일을 한 동무가 누구냐?》라고 동무들에게 물었다.(바로옮김법)

○ 복남학생은 좋은 일을 한 동무가 누구냐고 동무들에게 물었다.(풀어옮김법)

○ 복남학생은 좋은 일을 한 동무에 대하여 물었다.(일반문장)

풀어옮김법도 이미 이루어진 말을 재현하며 전달문으로 되는 이상 전달의 형식에서 벗어날수 없다. 이것은 풀어옮김법도 일정한 구조-문법적제약성을 가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풀어옮김법의 구조도 원칙적으로 《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의 관계로 되며 따라서 풀어옮김법으로 된 문장도 전달문을 이룬다. 여기에 두 언어행위의 단위가 구조-문법적으로 서로 밀접히 제약되여있으면서 하나의 전일체로 형식화된다는 표식이 있다.

풀어옮김법에서 두 언어행위의 단위가 구조-문법적제약성을 나타내는 특성은 바로옮김법에서의 두 언어행위의 단위보다 더 밀착되여있고 더 융합되여있다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풀어옮김법에서의 두 구성부분의 내부조직과 련결방식은 자립성을 거의나 잃고

전달되는 말도 전달자의 전반적진술속에 녹아들어가고만다. 이것이 바로옮김법과 구별되는 주되는 측면이다.

풀어옮김법에서 전달문의 두 구성부분들사이의 억양상 자립성도 바로옮김법에서보다 퍽 약하기때문에 자립적인 두 문장으로서의 표식도 매우 희박하다. 풀어옮김법에서 전달되는 말이 문장의 확대성분으로 되는 수가 많은것도 이때문이다.

풀어옮김법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또한 전달되는 말의 문법적요소(말차림, 법, 존경, 시간 등 범주)도 이미 이루어진 말그대로가 아닐수 있으며 전달되는 말의 자리도 보다 자유롭다는데 있다. 이것도 풀어옮김법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자의 말로 고쳐서 전달하는것이라는 본질에서 나오는 특성이다.

풀어옮김법에서 인물관계는 기본적으로 바로옮김법에서와 같다. 일반적으로 《이미 말한 사람←→들은 사람+말하는 사람←→듣는 사람》의 4각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3각관계로도 이루어진다.

〔붙임〕 《인용어》 또는 《인용어구》를 풀어옮김법의 특수류형이라 할수도 있다. 그것은 《인용어》 또는 《인용어구》가 함축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고쳐서 옮기는것이기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풀어옮김법의 특수류형으로서의 《인용어》, 《인용어구》는 이음형의 경우만을 포괄하는것이 아니라 맺음형, 규정형, 상황형, 대상형으로 된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 그는 들어오라고 친절히 말하였다.(이음형)

○ 그는 들어오란단다.(맺음형)

○ 들어오라는 그의 말은 매우 친절하였다.(규정형)

○ 그는 들어오란듯이 말하였다.(상황형)

○ 들어오라기에 나도 따라들어갔다.(대상형)

그러므로 《인용어》 또는 《인용어구》가 들어간 문장은 《이음형풀어옮김법》, 《맺음형풀어옮김법》, 《규정형풀어옮김법》 등으로 된 문장이라고 하는것이 옳다. 만일에 《인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이음형인용어》, 《맺음형인용어》, 《규정형인용어》 등으로 부르는것이 타당하다. 이때의 《이음형인용어》, 《맺음형인용어》, 《규정형인용어》 등은 각각 《보어》(또는 진술어), 《술어(또는 진술어), 《규정어》 등으로 됨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에서 본 바로옮김법과 풀어옮김법은 우리 말 문장옮김법의 기본류형이다. 그밖의 이러저러한 《특수옮김법》류형들도 이 기본류

형을 대중삼아 갈라지게 된다.

3. 《축약》옮김법

문장옮김법에는 바로옮김법에도 들어가지 않고 풀어옮김법에도 속하지 않는 류형들이 있을수 있다. 이것은 우리 말 문장구조의 다양성, 우리 말의 언어교제실현의 형식상 특수성에서 나오는 필연적결과이다.

우리 말 문장옮김법가운데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립장과 방법의 차이, 전달문의 구성상 및 표현형식상 특성에 따라 바로옮김법과 풀어옮김법과는 다른 류형이 있다. 즉 옮김법의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구조-문법적특성, 특히는 전달문의 술어에 나타나는 문법적계기들의 특성 등에서 독특한 점을 가지고있는 고유한 류형이 있다. 그 하나가 《축약》옮김법이다.

《축약》옮김법이란 전달문의 두 구성부분의 내부구조는 기본적으로 바로옮김법과 같으면서 그 련결방식, 표현방식은 풀어옮김법의 《축약》형태로 되는 옮김법의 류형이다.

○ 아버지가 전하시는데 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였답니다.

○ 아버지가 전하시는데 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였다더라.

이 문장들은 다 이미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말(전달되는 말)인 《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였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달한 전달문이다.

이 문장구조는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전달문》으로 된 문장옮김법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그 내부구조와 표현방식은 독특하다.

이 전달문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가 전하시는데 〈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였다.〉라고 합니다.》(또는 《～라고 하더라》)와 의미-기능상으로나 구조-문법상으로 같다. 다만 《～라고 합니다.》(또는 《～라고 하더라》)가 《～답니다》(또는《～다더라》)로 《축약》되여 전달되는 말의 술어에 덧붙은것으로 된다.

이러한 내부구조의 특성과 련결방식, 표현방식의 유별난 특성

은 조선어의 《특수전달동사》인 《하다》의 구조-기능상 특성과 토의 교착적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다》는 뜻폭이 가장 넓은 동사의 하나로서 문맥과 정황에 따라 거의 모든 행동을 대신 나타내며 특히는 《말하다》, 《일컫다》, 《이르다》 등의 뜻으로 쓰이면서 《말과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생각동사), 《전달동사》로 된다. 이때의 표현형식은 보통 《～라고 하다》, 《～고 하다》로 된다.

이러한 《～라고 하다》, 《～고 하다》는 특히 입말에서 맺음형토 《～단다》, 《～답니다》, 《～다더라》와 같이 《축약》되여 다른 맺음형토에 《2중맺음토》로서 붙는다.

○ 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였다고 합니다.→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였답니다.

○ 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였다고 하더라.→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였다더라.

〔붙임〕 이러한 《축약》현상은 《접속》으로 된 문장구조에서뿐아니라 《결합》으로 된 문장구조에서도 생기며 그밖의 다른 구조에서도 일어난다. 이것은 조선어에만 고유한 현상이다.

○ 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찾아오시였다. 하는 소문이…→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찾아오시였다는 소문이…

○ 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찾아오시였다고 하기에…→어제 학급담임선생님이 찾아오시였다기에…

옮김법이 입말에 기초하고 입말에서 널리 쓰이는 현상으로 된다는 사정으로부터 이러한 《축약》현상이 자주 있게 된다. (글말에서도 문학예술문체, 회상덕성실기문체, 회화체 등의 문장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것도 입말을 반영한 특성에서 나온다). 전달문의 술어(또는 규정어, 보어 등)에 나타나는 이러한 《축약》은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축약》에서 더욱 독특한 점이라 할수 있는것은 이 《축약》된 토가 다시 다른 단어의 맺음형에 덧붙어서 전달문전체의 술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조선어의 토가 모든 문장론적단위의 임의의 끝 단위에 교착되며 그 기능은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문장론적단위전체에 해당된다는 고유한 특성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바로 여기로부터 《축약》옮김법으로 된 전달문은 내부구조가 두 진술단위(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로 이루어졌으나 외형상으로 하나의 진술단위와

같이 되는것이다.

《축약》옮김법에서 또하나의 문법적특성으로 되는것은 《전달되는 말》의 술어에 나타나는 문법적범주들가운데서 말차림만은 언제나 《해라》계칭으로 표현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조선어의 이른바 《2중옮김법》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례:《오시였다+ㅂ니다》, 《오시였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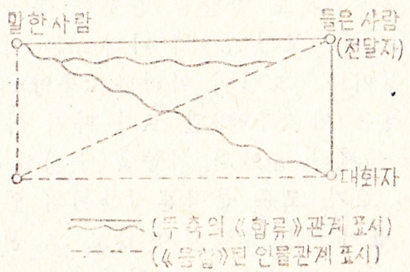
조선어의 이른바 《2중옮김법》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전달을 강조하는것으로서 《맺음형+맺음형》로의 형식을 취한다. 이때 앞 맺음형의 말차림은 뒤의 맺음형에 《귀일》하거나 합치는것이다. 그리하여 사실상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사이의 사회적관계를 나타내는 말차림은 전달자와 대화자의 말차림관계로 되고만다. 이로부터 전달자의 립장에서 옮겨진 《전달하는 말》의 말차림은 《해라》계칭으로 되는수밖에 없다. 이것도 조선어의 옮김법에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축약》옮김법의 구조-문법적특성은 인물관계에도 반영된다.

일반옮김법에서 인물관계는 두 축(《말한 사람←→들은 사람》, 《전달자←→대화자》)으로 된 네 인물 즉 4각관계가 기본이지만 《축약》옮김법에서는 두 축 가운데서 한쪽은 언제나 한 인물이 두 역을 맡는다. 즉 인물의 3각관계가 기본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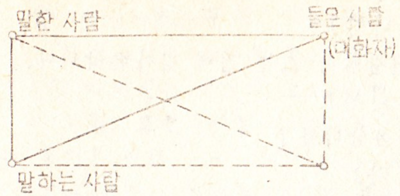
○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아침 일찌기 떠나야 한답니다.

이때의 인물관계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수 있다.



○ 선생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시겠다더냐?

이때의 인물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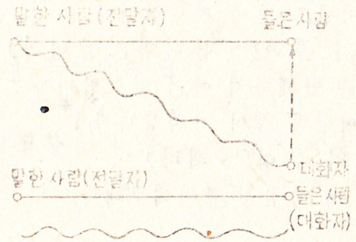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인물관계는 언어행위의 구체적인 장면(문맥)으로써 파악할수 있으며 들은 사람과 대화자의 일치현상, 들은 사람과 전달자의 일치현상은 앞에서 서술한 말차림의 귀일현상과 관련시켜볼수도 있다. 즉 앞 례문들에서 《한답니다》, 《오시겠다더냐》로써 전달자가 존경하거나 하대하는 인물이 따로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그 인물이 바로 들은 사람과 《일치》한다).

《축약》옮김법에서도 인물관계가 3각관계가 아니라 직선관계로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두 축이 다 《합류》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 순용아, 내가 오늘 출장간단다.

이 경우의 인물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대화 그자체를 《축약》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옮김법과 일반문장과의 계선이 가장 접근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전달자와 대화자를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잠제》시켰다고 할수 있다.

인물관계에서 적어도 한 인물이 두 역을 맡으며 언어행위의 두 축이 서로 《합류》하는것은 《축약》옮김법의 법칙적현상이며 바로 여기에 《축약》옮김법의 고유한 특성의 또 하나가 있다.

《축약》옮김법의 이상과 같은 구조-문법적특성,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인물관계의 특성에 따라 문화어《축약》옮김법의 작은 갈래를 다음과 같은 문장류형으로 체계화할수 있다.

1. 《ㅂ니다》계렬의 류형

1) 알림문을 기본으로 하는 류형

① 알림-알림문의 류형(~ㄴ답니다)

○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담임선생님이 오늘 집에 찾아온답니다.

② 알림-물음문의 류형(—ㄴ답니까)

○ 담임선생님이 오늘 집에 찾아온답니까?

③ 알림-시킴문의 류형(~ㄴ대라)

○ 담임선생님이 오늘 집에 찾아오신대라.

2) 물음문을 기본으로 하는 류형

① 물음-알림문의 류형(~냡니다)

○ 비가 언제 오겠냡니다.

② 물음-물음문의 류형

○ 비가 언제 오겠냡니까?

3) 시킴문을 기본으로 하는 류형

① 시킴-알림문의 류형(~랍니다, ~잡니다)

○ 아버지가 어머님을 빨리 오랍니다.

○ 아버지가 어머님도 같이 가시잡니다.

② 시킴-물음문의 류형(~랍니까, 잡니까)

○ 아버지가 저를 언제까지 여기 있으랍니까?

○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이 가시잡니까?

③ 시킴-시킴문의 류형(~래라)

○ 어머니 보고 내 솜신을 준비해두래라.

2. 《ㅂ디다》계렬의 류형

1) 알림문으로 끝나는 류형

① 알림-알림문의 류형(~답디다)

○ 그는 최우등을 했다고 자랑한답디다.

② 물음-알림문의 류형(~냡디다)

○ 형님이 물어보시는데 언제까지 여기 묵으시겠느냡디다.

③ 시킴-알림문의 류형(랍디다, 잡디다)

○ 선생님이 아버님을 빨리 오시랍디다.

○ 아버지가 어머님도 같이 가시잡디다.

2) 물음문으로 끝나는 류형

① 알림-물음문의 류형(~답디까)

○ 아버지도 같이 가시겠답디까.

② 물음-물음문의 류형(~냡디까)

○ 아버지가 언제 오시느냡디까?

③ 시킴-물음문의 류형(~랍디까, ~잡디까)

○ 선생님은 김동무 보고 글씨를 좀더 깨끗이 쓰랍디까.

○ 아버지는 어머니 보고 함께 가시잡디까?

〔붙임〕 조선어에는 《ㅂ디다》계렬의 《축약》옮김법에서 시킴문으로 끝나는 류형은 없다. 《~ㅂ디라》, 《~디자》와 같은 토가 존재하지 않는것은 《ㅂ디다》계렬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다.

이밖에 《~더라》계렬의 류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우의 류형의 갈래만큼 나올수 있으며 《~ㄴ다더라》, 《~았다더라》, 《~겠다더라》와 같은 시간상 변화류형도 있다.

또한 특수하게는 《~ㄴ다는것이다》의 계렬도 있다.

○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래일부터 집단달리기를 시작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우에서 말한 《2중옮김법》은 양태성의 형태론적범주로서의 고유한 《법》과는 달리 언어행위표현형식으로서의 《목격법》의 변종이다.

문화어옮김법의 다양성, 특히 《축약》옮김법의 다양성과 정밀성은 이와 같이 주로 구성요소들과 표현수단의 구조-문법적특성에 기초하고있다. 문장옮김법의 구성요소들과 표현수단의 고유한 구조-문법적특성은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과 우월성을 반영하는 징표의 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민족적특성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문화어옮김법은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붙임〕 언어교제실현의 다양성은 이밖에도 딴 《특수류형》의 옮김법을 설정할수 있게 한다. 그 하나가 《바로-풀어옮김법》(직접-간접전달법)이다. 우리 학계에는 이러한 류형을 새로 설정하고 리론화한 성과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바로-풀어옮김법》이란 《바로옮김법과 풀어옮김법의 특성을 두루 가지고있는 옮김법》이라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되 그 말을 한 사람의 립장에도 서고 전달자의 립장에도 서서 전달하는 《특수형식》의 옮김법을 말한다.

○ 그는 속으로 되뇌이고있었다, 아, 그 길을 택한것이 백번 옳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장구조에서 《아, 그 길을 택한것이 백번 옳았지 않는가!》는 본질에 있어서 독백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독백은 1인칭대상의 말이며 《전달되는 말》이다. 따라서 독특한 전달문의 구성부분이다. 말하자면 《바로-풀어옮김법》은 《독백식》전달문으로 구성된것으로서 주관적 및 객관적 립장이 합친 형식으로 된 문장옮김법이다. 《바로-풀어옮김법》의

구조－문법적특성과 의미－기능적특성을 바로옮김법과 풀어옮김법과의 대비속에서 고찰하고 견련적으로 밝힌다면 여기에도 고유한 합법칙성이 있을것이다. 《바로－풀어옮김법》의 설정은 능히 가능한것이라고 본다.

제3절. 우리 말 옮김법의 구성방법

지금까지 우리 말 옮김법의 일반적특성과 류형상 특성을 고찰하면서 그 테두리안에서 표현수단의 문법적특성과 문장자체의 구조상 특성들을 살폈다.

이제 우리 말 문장옮김법의 구성방법에 관한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표현 수단과 수법의 구현, 한 류형을 다른 류형으로 고치는 방법에 작용하는 민족적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1. 문화어옮김법의 표현수법

앞에서 이야기된 모든것을 통하여 우리 말 옮김법의 표현 수단과 수법은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내부구조, 그리고 그것을 련결하는 수단과 수법, 진술형의 물질적표현형식 등이라는것을 알았다.

문장옮김법의 표현수단의 구체적인 표시자는 《단일문》의 구조, 《구》나 단락의 구조이며 이음토, 이음말, 접속억양, 《전달동사》의 형태 등이다. 이러한 표현수단들의 구현방식이 바로 옮김법의 표현수법이다.

그러면 우리 말 문화어의 문장옮김법의 표현수법은 어떠한가.

문화어옮김법의 표현수법은 옮김법의 류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현된다.

문화어의 바로옮김법의 표현수법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1) 전달되는 말의 술어뒤에 《～하고》, 《～라고》, 《～라》, 《～고》, 《～라는》 등의 이음토와 《전달동사》(또는 전달명사)를 결합시키는 방법

○ 《모두다 〈80년대속도〉 창조에로!》라고 반장동무는 웨쳤다.

2) 《～하고》, 《～라고》, 《～라》, 《～고》 등의 이음토를 줄이고 《전달동사》만을 마지막에 자리잡히는 방법

○ 환자는 의사앞에서 《원래 저는 병원에 다니는 일이 없었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였다.

3) 전달되는 말의 앞에 놓이는 전달하는 말 부분에 동사의 대상형 《기》와 대격토를 결합시키는 방법

○ 속담에 전하기를 《하루 은혜 백날에 갚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전달되는 말의 앞 또는 뒤에서 그 소속관계를 밝히는 방법

○ 《우리들가운데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단말이요!》

직장장이 하는 감동어린 말.

《순녀동무가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2작업반장의 자기나름의 생각.

5) 련결을 나타내는 아무런 어휘적 및 문법적 수단도 없이 억양과 문맥에 의하여 전달문의 두 구성부분이 이어지는 방법

○ 《내가 보던 책이 어데 있나?》

《웃방책꽂이에 있어요!》

순희는 오빠의 물음에 인차 대답하였다.

6) 접속기능을 노는 대명사(또는 이와 등가적인 어휘)로 이어지는 방법

○ 《여기에서 마을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손님이 물었다.

《10키로메터나 되겠는지…》

이것이 주인의 나지막한 소리였다.

7)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정상어순을 바꾸어 일단 전달하는 말로 끝을 맺고 다시 《～라고》, 《～하고》 등의 이음토로 아귀를 짓는 방법

○ 그는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웁시다!》라고.

8) 일부 안내말 또는 끝맺는 말을 전달문의 앞 또는 뒤에 놓는 련달아 대화를 펼쳐하는 방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군중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는듯하였다.

문화어의 바로옮김법에서 전달문의 구성성분들을 이어주고 그 내부구조에서 표현수단들의 구현방법을 특징짓는 수법들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바로옮김법의 구체적인 표현수법을 꿰뚫고있는 조선어적인 특성은 문화어의 풀어옮김법의 표현수법을 대비적으로 파악

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표식으로 된다.

문화어 풀어옮김법의 표현수법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1) 전달되는 말의 술어뒤에 《~고》 등의 이음토와 《전달동사》(또는 《전달명사》)를 결합시키는 방법

○ 토론을 끝마치면서 기사장은 모두가 장마철준비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전달되는 말의 물음형술어뒤에 아무런 이음토도 붙이지 않고 그 진술단위의 문장론적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 래일까지 전대오의 행군준비를 끝낼수 있겠는가 대대장은 다시금 속으로 따져봤다.

3) 전달되는 말의 술어뒤에 규정형토를 붙이고 《전달명사》 또는 그 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현을 붙이는 방법

○ 반드시 이달안으로 상반년계획을 끝내겠다는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결의!

그 결의는 하루하루 앞당겨실현되여나갔다.

4) 전달문의 언어적형식은 바로옮김법의 그것과 같으면서도 억양의 요소로(글에서는 《 》를 치지 않는것으로) 구분하는 방법

○ 어제 사온 책이 어데 있느냐, 아버지의 묻는 말씀.

풀어옮김법에서 전달문의 구성부분들을 이어주고 그 내부구조에서 표현수단들의 구현방법을 특징짓는 표현수법들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문화어의 바로옮김법과 풀어옮김법, 그리고 《축약》옮김법 등에서 나타난 모든 특성들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의 민족적특성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언어생활에서는 우리 말에 있는 옮김법의 류형들을 알맞게 리용함으로써 언어교제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문장옮김법의 이러저런 류형을 선택리용하는 과정은 이렇게나저렇게나 이미 이루어진 말을 일정한 표현수법으로 엮어나가는 과정이다. 바로 문장옮김법의 표현수법의 차이는 옮김법의 류형을 서로 구분케 하는 요인으로 되며 특히는 바로옮김법을 풀어옮김법으로 고치는 방법을 규정하는 전제를 이룬다.

2. 바로옮김법을 풀어옮김법으로 고치는 방법

언어행위의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는 이러저러한 문장옮김법을 서로 바꾸어쓰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부터 한 옮김법을 다른 옮김법으로 고치는 방법문제가 나선다. 한 옮김법을 다른 옮김법으로 고치는 과정을 언어행위의 《개작》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장옮김법의 《개작》에서 기준으로 되는것은 바로옮김법이다. 왜냐하면 바로옮김법이란 이미 이루어진 말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옮기는것이고 그것이 전달문의 전형으로 되기때문이다. 바로 옮김법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옮김법, 《축약》옮김법 등을 구성하는 것이다.

문장옮김법의 두 기본류형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바로옮김법을 풀어옮김법으로 고치는것이 《개작》의 기본으로 된다.

(붙임) 이미 이루어진 말을 이러저러한 형식으로 옮기는 과정은 언어행위의 《재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한 옮김법을 다른 옮김법으로 고치는 《개작》과정도 《재현》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그것은 2차적《재현》으로 될것이다.

우리 말에서 바로옮김법을 풀어옮김법으로 《개작》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1) 바로옮김법에서 전달되는 말이 가졌던 상대적자립성의 표식은 억양상 또는 직관상 상대적의존성의 표식으로 바꾸고 전달하는 말의 술어가 전달형식을 갖추게 한다.

○ 소대장은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립니다.》라고 강조하였다.(바로옮김법)

→ 소대장은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강조하여 말하였다.

2) 바로옮김법에서 표시된 시간과 공간, 인칭 등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요소들은 풀어옮김법에서 전달자의 립장에서 고친다.

○ 담임선생님은 어제 《래일 너의 집을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담임선생님은 오늘 우리 집을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그는 《여기가 바로 천리마의 고향입니다.》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군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이 바로 천리마의 고향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군하였습니다.

3) 바로옮김법에서 표현된 여러가지 말차림은 모두 《낮춤》으로 바꾼다.

○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손님이 먼저 말하였다.

→ 찾아온 손님은 만나서 반갑다고 먼저 말하였다.

○ 《동무가 찾던 그 책을 구했소!》라고 나의 친구는 말하였다.

→ 내가 찾던 책을 구했다고 내 친구는 말하였다.

문화어 풀어옮김법에서 쓰이는 말차림토는 다음과 같다.

법 \ 품사		체언뒤	동사뒤	형용사뒤
알림법		다	다(는다)	다
물음법		냐, ㄴ가	느냐, 는가	냐, ㄴ가
시킴법	시킴	———	라	(라)
	추김	———	자	(자)

4) 바로옮김법의 전달되는 말에 들어있는 독립성분(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등)과 그밖의 일부 표현들은 다른 표현들로 바꾼다.

○ 《아. 묘향산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가!》 하고 모두들 감탄하였다.

→ 그들은 모두가 묘향산이 참말로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감탄하였다.

○ 《암 가고말고…》라고 그는 맹세하듯이 말하였다.

→ 그는 꼭 가겠다고 맹세하듯이 말하였다.

5) 바로옮김법의 전달되는 말이 여러개 문장으로 이루어졌을 때 풀어옮김법에서는 알맞춤한 이음토를 써서 확대단일문 또는 복합문으로 바꾼다.

○ 《그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눈까비까지 내렸습니다. 삽시에 사위는 스산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틀집안에서 쉬여가기로 했습니다.》라고 길안내자는 그때의 장면을 회상하였다.

→ 길안내자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까비까지 내렸으며 삽시에 사위가 스산해졌기때문에 부득이 자기들은 귀틀집안에서 쉬여가지 않으면 안됐다고 하였다.

문화어의 바로옮김법을 풀어옮김법으로 《개작》하는 방법들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인민의 오랜 언어관습에 의하여 굳어지고 일반화된 하나의 규칙과 규정의 체계, 즉 규범으로 되였다. 이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옮김법의 표현방법은 방향을 잃게 되며 따라서 언어행위는 민족적특성에 맞지 않는것으로 된다. 문장옮김법에서 민족어의 규범을 정확히 구현하는것, 이것은 언어교제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감으로써 민족어의 사회적기능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높여나가는 힘있는 담보의 하나로 된다.

(붙임) 바로옮김법(또는 풀어옮김법)을 《축약》옮김법으로 《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전달문술어의 진술형에서의 차이가 특이할뿐 바로옮김법의 표현수단이 바뀌는 방법은 대체로 같기때문이다.

우에서 본 문화어의 문장옮김법에 작용하는 일반적합법칙성, 옮김법의 본질과 기본표식, 기본류형과 특수류형의 차이, 그리고 이것들을 구별해주는 표현수법과 구성방법에서의 특성 등은 재현된 다른 사람의 언어행위를 바로잡아나가는데서 기준으로 된다. 문화어는 이러한 기준이 있음으로 하여 자기의 고유한 모습과 생활력을 나타내게 된다. 문화어의 문장옮김법의 고유한 모습과 생활력은 조선민족어의 우수성의 하나로 된다.

우리 말 문장옮김법의 위치를 잘 알고 그것을 언어실천에 구현하는것은 언어와 언어생활을 개선해나가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앞에는 문화어옮김법에 작용하는 제반 특성을 활용하며 대사창조를 비롯한 문필활동에서 표현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말의 문장옮김법에 있는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 대사의 형상성을 높이는것은 해당한 문필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오늘날 우리의 출판물에 널리 활용되는 대사창조에서의 문장옮김법은 우리 말의 형상적기능을 높이는 힘있는 수단으로 이바지하고있다.

문학예술문체, 회상덕성실기문체, 정론기사체 등의 언어작품과 그밖의 말과 글에서 널리 쓰이는 문장옮김법은 말과 글의 사상예술성과 높은 형상성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공간으로 된다.

우리는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에 어울리는 대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문장옮김법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며 그 과정에 더 다양하고 새로운 전형을 이루어놓아야 한다. 문장론은 현실에서 창조되고 일반화되는 문장옮김법의 새로운 전형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의 과업으로 삼을것이다.

조선어리론문법
(문장론)
지자 준박사, 부교수 김용구 편집자 준박사 김종선
낸 곳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인쇄소 사회과학원인쇄공장
인쇄 1986년 1월 3일 발행 1986년 1월 10일
편성 박옥선 교정 김정선 장정 리경하
7—56347